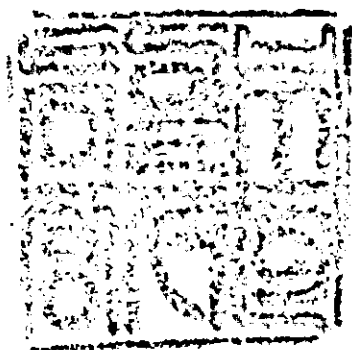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신문기사집



통 일 부

일 판 기 사

정례화 미합의... 추가협상 필요

■ 이산 상봉·면회소 설치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추석(9.21)을 계기'로란 표현을 썼다. 날짜는 확정짓지 못했지만, 우리측도 "추석전 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김경성 북측 단장도 서울을 떠나면서 "당연히 추석전이지요."라고 확인했다.

제5차 상봉은 남북 각각 100명씩 순차적으로 지난 4차 상봉 관례에 따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협의에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방문단 후보자 선정과 명단 교환, 생사확인, 최종방문단 명단 교환 등의 절차를 거쳐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다.

문제는 정례화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이번 회담에서 정례화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매년 평균 1만명의 이산 가족이 숨지는 상황을 감안, 정례화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나가

한다."면서 "10월 예정된 8차 장관급 회담에서 6차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제도화 문제는 우리측이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끌어내려 노력한 분야다.

새달 4~6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적십자사 책임자급 회담에서 금강산 면회소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을 논의, 최종 합의도출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우리측이 제안한 금강산면회소를 사실상 수용했다. 그러나 금강산에서 어느 건물을 사용할 지, 새롭게 지을 지, 운영주체를 누가 할지 등 복잡한 문제들이 많고, 북측이 계속 협상카드로 남겨 놓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실제 면회소 건립이 이뤄지기까지는 몇차례 추가 협상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이산상봉 후보 300명 추첨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는 19일 오후 6시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를 뽑는 인선위원회를 열어 선정기준을 결정한 뒤, 이 기준에 따라 제5차 이산가족 방문단 예비후보 300명을 컴퓨터로 추첨했다.

한적은 이들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24일 오후까지 신체검사를 하고 25일까지는 방문단 후보 200명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북측은 이날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22일에 방문단 교환을 위한 생사·주소 확인 의뢰자 200명 명단을 교환하자"고 제의했으나, 한적은 준비기간 부족을 이유로 26일께 명단을 교환하자고 북측에 통보했다.

남북한은 다음달 추석을 계기로 5차 이산가족 상봉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한국일보

2002. 8.20(화)

北, 이산명단 22일 교환 제의

북한 적십자회(위원장 장재연·張在彦)는 19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추석 이전) 5차 들어간 가족 상봉을 위한 생사·주소 확인 의뢰자 200명의 명단을 22일 교환하자"고 제의해왔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徐英勳)는 이날 인선위원회를 열어 컴퓨터 추첨을 통해 예비후보 300명을 선정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국민일보

2002. 8.16(금)

'추석상봉' 날짜 왜 못잡았나 北, 쌀지원 연계노려 끝내 擧日 거부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측으로부터 쌀지원 등 경제원조를 충분히 얻어내려는 북한의 계산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대표로 회담에 참석했던 정부 고위인사는 15일 "북한은 처음부터 경제협력위원회 우선 개최만 주장하며 나머지 문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다"면서 "군사관련 회담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마지막까지 북한이 버티기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우리가 추석전 상봉행사를 갖자고 수차례 제의했지만 북한은 그럴 수도 있다는 뉘앙스만 풍기면서 회담 첫날과 이틀남을 버티다가 마지막날이 되자 적십자회담에서 상봉날짜를 논의하자고 나왔다"고 전했다.

이처럼 북한이 남북 합의가 어렵지 않은 이산가족 상봉 날짜조차 이런저런 이유로 둘러대며 확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도 26일 열릴 김주위의 연계하겠다는 전략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주위에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판

남, 우리측의 대북 경제원조를 따내지 않으면 추석전 이산가족 상봉도 틀어버리겠다는 속셈이다.

남북 양측은 회담과정에서 추석전 금강산에서 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치러라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우리측은 추석전에 상봉행사를 치르고 상봉 상징화 문제도 적십자회담에서 논의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었다. 그러나 통보 보도문에는 상봉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았다는 북측은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했던 것이다.

대한매일

2002. 8.26(월)

이산상봉 새달 13일 실시 제의

남북 후보자명단 교환

남북은 지난 24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추석 전 실시될 제5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명단을 교환했다.

남측은 이날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정된 후

보자 200명 명단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북측은 지난해 2, 3차 상봉 당시 생사·주소통 확인했던 이산가족 120명의 명단을 보냈다.

▶관련기사 15·23면

한적과 정부는 이날 북측 후보 120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남측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봉 의사 확인 작업 등에 나섰다.

한편 이날 남측은 제5차 이산가족 금강산 순차 상봉을 다음달 13~18일 실시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은 '제4차 적십자회담(9월4~6일·금강산) 때 논의하자.'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은 북측도 동의하고 있으므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복삼기자 youngtan@kdaily.com

중앙일보

2002. 8.26(월)

5차상봉 후보명단 교환

남북한은 24일 추석(9월 21일)에 맞춰 금강산에서 이뤄질 5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후보자 명단을 교환했다.

이날 판문점 적십자연락관 접촉에서 대한적십자사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뽑힌 2백명의 명단을 북측에

보냈으며, 북한 적십자회는 2000년 11월 2차 상봉 후보자 선정 때 생사통 확인하고도 만나지 못한 27명 등 1백20명의 명단을 통보해왔다.

한적 관계자는 25일 "남북 양측이 다음달 5일께 생사·주소확인 결과를 다시 주고받은 뒤 실제 상봉할 대상자 1백명씩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朝鮮日報

2002. 8.26(월)

南 200명, 北 120명 이산상봉 명단교환

남북한은 24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올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실시될 제5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320명의 명단을 교환했다. 남측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정한 200명의 명단을 북측에 통보한 반면, 북측은 작년 2월 3차 이산가족 상봉 전까지 생사·주소통 확인한 120명의 명단만 보내왔다.

북측 후보자 중에는 북한의 영재학교로 불리는 평양제1고등중학교의 배재인(66) 교장,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의 1기 대의원 윤지번 하영순(72)씨, 국군 출신의 리기탁(74)씨와 손윤모(68)씨 등이 포함됐다. 또 북한 정보화기술의 산실인 중앙과학기술정보사 사장을 역임했던 리상철(71)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내달 5일 이들 후보 명단에 대한 생사확인 회보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權景福기자 kkb@chosun.com

경향신문

2002. 8.26(월)

이산상봉 내달 13~18일 실시 제안

南200·北120명 명단 교환

남북은 지난 24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금강산에서 실시될 제5차 이산가족 상봉 양측 후보 명단을 교환했다. / 관련기사 17면

남측은 컴퓨터추첨을 거친 후보자 200명 명단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북측은 지난해 2차 명단 교환에 앞서 이미 생사·주소통 확인한 이산가족 27명과 3차 교환에 앞서 생사·주소통 확인한 93명 등 120명의 명단을 보내왔다.

이번 명단 교환은 24일까지 명단 교환이 이뤄져야 추석 전 이산상봉이

가능하다는 북측 조선적십자회의 제의를 남측 대한적십자사가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북측 이산가족 명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102명·여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출신지역별로는 경기도(22명)·충남(17명)·경북(16명)·서울·전남·강원(각 10명) 등이었다.

남측은 이날 전문문에서 다음달 13~18일 이산상봉을 실시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은 "제4차 적십자회담 때(9·4~6) 논의하자"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측은 이날 서영훈(徐英勳) 한적총재를 비롯해 이병웅 한적 총재 특별보좌역, 김경웅·송우섭 한적 남북교류 전문위원, 민병대 한적 남북교류국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제4차 적십자회담 남측 대표단 명단을 통보했다. 서총재는 전문문에서 "4차 적십자회담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쌍방 적십자단체 책임자급이 마주앉는 자리"라며 "이번 회담에서 면회소 설치 등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 방도에 합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한겨레

2002. 8.26(월)

5차 상봉 추석전 이뤄질듯

한적, 내달 13~18일 실시제안...후보자 명단교환

대한적십자사(한적)는 24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벌여 5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 후보자 200명(북쪽은 120명)의 명단을 주고받고, 5차 상봉을 추석 전인 다음달 13~18일에 실시하고자 제안했다.

▶ 관련기사 4·15면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북적)는 5차 상봉을 추석 전에 실시하지는 한적의 제의에 대해 '4차 적십자회담 때 논의하지'며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쪽도 추석 전 5차 상봉 실시여 이견이 없어 현재로선 추석 연휴 전에 상봉을 끝마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상봉 준비 등 실무 문제로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추석 전과 추석 연휴 직후로 나뉘어 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적십자사는 5차 상봉 후보자의 생사확인 결과를 다음달 5일 발표하기로 했다.

남쪽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 새로 뽑은 상봉 후보자 200명의 명단을 북쪽에 통보했으나, 북쪽은 2차 방문단 교환에 앞서 이미 생사·주소를 확인한 27명과 3차 교환에 앞서 생사·주소를 확인한 93명 등 모두 120명의 명단만 보내왔다.

한적 관계자는 "북쪽 명단은 이미 한차례 생사·주소 확인작업을 거친 것이어서 상봉 대상자 100명을 추리는 데 실무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국민일보

2002. 8.26(월)

이산상봉 후보자명단 교환

南 200명·北 120명... 한적 내달 13~18일 제의

남북한은 24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추석 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제5차 금강산 이산가족 순차상봉 후보자 명단을 교환했다.

이번 명단 교환은 24일까지 명단 교환이 이뤄져야 추석전 상봉이 가능하다는 북측 조선적십자회의 제의를 대한적십자사가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관련기사 25면)

남쪽은 컴퓨터 추첨을 거친 후보자

200명 명단을 북쪽에 전달했으며 북쪽은 120명의 명단을 보내왔다. 북쪽이 전해 온 이산가족 명단을 보면 남성이 102명이고 여성은 18명뿐이다. 출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7명, 경북 16명, 서울·전남·강원이 각각 10명이다. 한적과 정부는 북측 후보 120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남측 가족들을 상대로 상봉의사 확인작업 등에 나섰다.

한적 한적은 이산가족 상봉을 내달 13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북쪽은 내달 4~6일 열리는 제1차 적십자회담에 논의하고자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춘 한적 총재는 북측 정자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앞으로 전회통지문을 보내 서총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남북대표 명단을 통보했다.

남측대표단은 서총재, 이병용 한적 총재, 특별보좌역과 김경웅 송무섭 한적 남북교류 전문위원, 민병대 한적 남북교류국장 등 5명으로 구성했으며 지원인원 17명과 취재기자 10명도 포함해 모두 32명으로 구성됐다.

김희구기자 egkim@kmb.co.kr

東亞日報

2002. 8.26(월)

북한측 유명인사 거의 없어

北赤, 5차 이산상봉 명단 120명 통보- 낯뜨는 합의못봐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춘·徐英勳)는 남북이 추석(9월21일) 이전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금강산 5차 이산가족 순차 상봉 일지를 9월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실시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은 구체적인 일지를 4차 적십자회담(9월4~6일)에서 논의하지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남북은 5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명단을 24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교환한 뒤 공개했다. 한적과 정부는 남측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봉의사 확인작업에 들어갔으며, 남북은 9월 5일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 회보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발된 후보자 200명의 명단을 북측에 전달했고, 북한 적십자회측은 2, 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시 생사가 확인됐지만 최종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탈락자 가운데 120명의 명단을 통보했다.

한적 북측 후보자 가운데 최고령자인 이규영씨(82)는 남측의 딸 진옥(59) 잔금씨(53)를 만날 것을 희망했다. 또 3차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가 탈락한 국군 출신의 이기택씨(74)와 손운모씨(58)를 비롯해 서울교향악단에서 활동했던 신명균씨(71)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측이 보내온 명단에는 과거와

는 달리 유명인사들이 그리 많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측 후보자 가운데에는 북한의 영재학교인 명암제1고등학교 배재안 교장(66), 최고인민회의 1기 대의원인 허영순씨(73·여) 등이 들어 있다.

북측 후보자는 연령별로 60대 47명, 70대 60명, 80대 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남측의 경우 60대 31명, 70대 89명, 80대 80명 등 상대적으로 고령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70代이상 73명...고령화 심각

北상봉후보 120명 분석

북한 조선적십자사회가 24일 남측에 통보한 제5차 이산가족 금강산 순차상봉 북측 후보자 120명을 살펴보면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등 '상봉 제도화'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했다.

북측 후보자의 연령 분포는 ▲60대 47명 ▲70대 69명 ▲80대 4명으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시급

유명인사는 거의없어 이채

로 지난 4월 제4차 이산가족 상봉 당시 80대 이상이 2명이고 60대가 주류를 이뤘던 점을 감안할 때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무엇보다 남측이 후보자 200명 명단을 보내데 비해 북한이 제작년과 작년 2.3차 상봉을 위해 선발했던 후보 중 남측 가족이 확인된 120명의 명단만 보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서울과 평양을 교환방문했던 1~3차 상봉과 금강산에서 열린

4차 상봉과 달리 이번 5차 상봉 후보자 가운데 유명인사가 거의 없는 점도 눈에 띈다.

북측 후보자 가운데 영재학교인 평양 제1고등학교 배재인 교장(66)과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히영순(여·73)씨 등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주목할 만한 인물이 없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상자 선발에 북측이 고

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 문이다. 북측 후보자 중 최고령자는

경기도 여주군이 고향인 리규영(82)씨로 남측의 딸 진옥(59)진금(53)씨와 상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중 헤어진 리씨는 북한 개성시 인민위원회에서 일했으며 지난해 3월 서신 교환 대상으로 선발돼 두 딸과 편지를 교환했었다. 한편 남측이 북한에 통보한 후보자 200명은 60대 31명(15.5%) ▲70대 89명(44.5%) ▲80대 80명(40%)으로 구성됐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남북 이산상봉명단 교환 내달 5일 생사확인 통보

남북 적십자사는 24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추석(9월21일) 이전 금강산에서 이뤄질 제5차 이산가족 순차상봉 후보자 320명(남 200명, 북 120명)의 명단을 교환하고, 생사 확인 등 상봉의사 확인작업을 요청했다. 북측은 이번에 지난해 2.3차 방문단 교환에 앞서 생사·주소를 확인한 명단 120명만 보내온 반면 남측은 컴퓨터 추첨을 거친 후보자 200명의 명단을 통보했다. 최종 생사확인 회보서 교환은 9월5일 이뤄진다. (관련기사 5-23면)

한직은 이날 서영훈 총재를 수석 대표로 하는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9.4~6) 남측 대표 5명의 명단을 통보했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서울경제

5차 이산상봉 후보 명단교환

남북은 지난 24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추석 전 실시될 제5차 금강산 이산가족 순차상봉 후보자 명단을 교환했다.

남측은 이날 컴퓨터 추첨을 거친 후보자 200명 명단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북측은 지난해 2차 방문단 교환에 앞서 이미 생사·주소를 확인한 이산가족 27명과 3차 교환에 앞서 생사·주소를 확인한 93명 등 120명의 명단만 보내왔다.

★북측제시 후보명단 본지 인터넷 홈페이지(www.sedaily.com) 참조 /이성훈기자 shlee@sed.co.kr

한국경제

이산상봉 후보자 명단 교환

남북한은 지난 24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추석 전 실시될 제5차 금강산 이산가족 순차상봉 후보자 명단을 교환했다. 남측은 이날 컴퓨터 추첨을 거친 후보자 200명 명단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북측은 2.3차 방문단 교환에 앞서 이미 생사·주소를 확인한 1백20명의 명단을 보내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한국일보

南北 상봉자 후보 명단교환

南 200명-北 120명 보내

남북은 24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추석 전 실시될 제5차 금강산 이산가족 순차상봉 후보자 명단을 교환했다.

이번 후보자 명단 교환은 24일 까지 명단이 교환돼야 추석 전 상봉이 가능하다는 북측 조선적십자회의 제의를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徐英勳)가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관련기사 29면

남측은 이날 컴퓨터 추첨을 거친 후보자 200명의 명단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북측은 지난해 2차 방문단 교환에 앞서 생사·주소를 확인한 이산가족 27명과 3차 교환에 앞서 생사·주소를 확인한 93명 등 120명의 명단만 보내왔다.

북적이 전달해온 이산가족 명단을 살펴보면 남성이 102명이었고 여성은 18명에 그쳤으며 연령별로는 60대가 47명, 70대가 69명, 80대가 4명 순으로 나타나 이산가족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이 재확인됐다.

북측 후보자 중 최고령자는 경기도 여주군이 고향인 리규영(82)씨로 남측의 딸 진옥(59), 진금(53)씨와 상봉하게 되며 나이가 가장 적은 이산가족은 66세의 함원식, 백정순, 리숙희, 배재인씨로 나타났다.

한직과 정부는 이날 북측 후보 120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남측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봉의사 확인 작업 등에 나섰다.

북측후보자명단 @1147481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신청 3번만에 아버지 만날수 있다니...”

5차 이산가족 표정

5차 이산가족 상봉 북측 후보자 명단이 발표되자 남한의 이산가족들은 50여년 만에 합육을 만날 수 있게 됐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25일 북측 후보 명단에 최고령자로 알려진 아버지 이규엽씨(82)가 포함됐다는 소식을 접한 진옥씨(60·여·청주시 사창동)는 “꿈에 그리던 아버지의 품에 안겨 목놓아 울고

싶다”면서도 못믿겠다는 표정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실시된 이산가족 상봉에서 최종 순간에 아버지 이 품이 잇따라 누락돼 50여년간 기다려온 상봉의 꿈을 접어야 했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아버지가 의용군으로 끌

려가 돌아가신 줄 알고 지난해 편지 등을 교환, 생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매년 9월9일 제사를 올렸다”며 “1993년 남동생은 아버지의 생사도 모른 채 세상을 떠다”며 이내 눈시울을 적셨다.

북측 후보 명단에 막내 동생 이은

의용군 끌려가 소식끊긴 동생

서신교환 오빠와 재회 기다려

식씨(67)가 포함된 은준씨(75·전북 진주시 진북동)는 “6·25가 터지면 서군산중 3학년이 재학하던 동생이 의용군으로 끌려간 후 소식이 끊겼다”며 “전쟁에서 죽은 줄만 알았다”고 재회의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

은준씨 집안에서는 은식씨의 바로

위 형인 은경씨(당시 전주 신홍중 4년)도 학도병으로 징용돼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씨는 “6·25로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74년 사망)는 평생의 한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셨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북측명단에 형 홍경표씨(70)가 들어 있다는 소식을 접한 국표씨(68·경기 수원시 매탄동)도 “형 제사를 지낸 지가 30년을 넘었는데 살아 있다니 꿈만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 막내 오빠 이강록씨(74)의 소식을 전해들은 옥려씨(69·인천시 부개3동)는 “지난해 이산가족 서신교환 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오빠로부터 편지를 받고 무척 기뻐다”며 “이젠 만나 볼 수 있게 돼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기뻐했다.

전국부

경향신문

2·3차때 누락자 다수 포함

• 5차 이산상봉 북측명단

남북이 24일 교환한 5차 금강산 이산상봉 명단에는 고령자들이 다수를 차지해 민회소심치 등 제도적 차원의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재확인케 했다. 북한에서 보내온 명단을 확인한 남측의 가족들은 북한의 가족들을 하루빨리 만나기를 기대했다.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통보한 제5차 이산상봉 북측 후보자 120명에는 제2, 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후보자 예비명단에 포함됐다가 최종 방문단에 들지 못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다. 유명인사가 없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영재학교인 평양 제1고등학교 교장인 교장(66)과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을 지낸 하영순씨(72·여) 정도다. 경북 안동 출신인 배씨는 '6·25때 원북해 평양사범대학(현 김형직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교육자의 길을 걸었으며, '노력영웅' 칭호를 받기도 했다. 충남 금산 출신인 하씨는 충북 옥천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

120명 전원이 60대 이상 유명인사 없는 것 특징 국군포로 출신 2명 포함

하던 43년 8월 월북, 초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북측 명단에는 또 제3차 이산상봉 후보명단에 포함됐다가 탈락한 국군포로 출신 리기탁씨(74)와 손운모씨(68)도 포함돼 있다.

북측 후보자들의 연령분포는 ▲60대 47명 ▲70대 69명 ▲80대 4명 등으로 나타났다. 북측 후보자 중 최고령자는 경기도 여주군이 고향인 리규엽씨(82)로, 남측 딸 진옥(59)·진금(53)씨와 상봉할 계획이다.

북측 이산가족의 상봉 대상자로 확인된 남측 가족들은 대한적십자사 분사(02-3705-3705)로 연락하면 된다.

○...아버지 리상실씨(76)를 만날 수 있게 된 이영옥씨(55·서울 강북구 수유동)는 25일 지난해 남북서신 교환때 받은 아버지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가 의용군에 입대한 후 곧바로 6·25가 터져 생이별을 한 이씨는 “나이가 젊어 아버지 상봉을 포기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2월 북측의 아버지가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하루도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말했다.

동생 황흥성씨(69)가 상봉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접한 예성씨(72·경기 고양시)는 흥성씨와 함께 의용군으로 끌려간 오빠 오성씨를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 생각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예성씨는 “어머니가 하늘에서라도 셋째 아들과 남한의 형제·자매들이 만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4차 상봉때 형 손운모씨(68)가 후보 명단에 올랐으나 최종 상봉 대상자에서는 탈락해 신망의 나날을 보내던 삼모씨(65·경남 사천시 축동면)는 “윤모 형님이 10대임에도 만형을 대신해 입대했다”면서 “큰형은 그후 작은형을 그리워하다 지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용욱기자·전국종합·연합

유명인 적고 주로 형제자녀 찾아

5차 이산가족상봉 北후보명단

추석전 열리게 되는 5차 이산가족상봉단 북측 후보명단에서 유명인사는 별로 포함되지 않았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로는 영재학교인 명영제고등학교 교장인 (60) 교장과 최고인민

회의 제1기 대의원을 지낸 하영순(72·여)씨 정도가 꼽힌다. 또한 이들이 찾는 남쪽의 친척은 대부분 현재 자매들로 부모를 찾는 사람은 최순옥(71·여)씨가 유일하다.

연명명로는 60대가 47명, 70대가 69명, 80대가 4명 순으로 나타나 이산가족 1세대들의 고령화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상봉을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북측 후보자 중 최고명지인 경기도 여주군이 고향인 리규영(82)씨와 남측의 딸 진옥(59·진규(53)씨와 상봉하게 되며 나이가 가장 적은 이산가족은 66세의 함영식, 백경순(여), 리숙희, 배재인씨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7명, 경북 16명, 서울, 전남, 강원이 각각 10명씩이었다. 다음은 북측이 생사 확인을 의뢰한 북측 후보자 127명 명단이다. 괄호안은 성별, 나이, 남한내 출생지.

김진태(남·73·서울 종로구) 김정배(여·69·서울 황금정) 김원희(여·74·서울 종로구) 리덕임(여·69·서울 성북구) 박숙영(여·69·서울 종로구) 박종민(남·70·서울 종로구) 신영규(남·71·서울 서대문구) 오명순(여·67·서울 성동구) 조병숙(여·69·서울 종로구) 지종원(남·70·서울 성동구) 김민기(남·69·경기도 화성군) 김병춘(남·70·경기도 여주군) 김유준(남·77·경기도 김포군) 김봉철(남·67·경기도 여주군) 김필두(남·71·경기도 양주군) 리강복(남·74·경기도 부천시) 리규연(남·82·경기도 여주군) 리병중(남·72·경기도 양평군) 리병진(여·69·경기도 안성군) 리인영(남·69·경기도 장단군) 심수연(수·여·70·경기도 수원시) 안종원(남·69·경기도 시흥군) 윤창중(남·67·경기도 파주군) 윤희상(남·70·경기도 안성군) 윤희진(남·68·경기도 안성군) 조남철(남·69·경기도 양주군) 전한태(남·69·경기도 양평군) 진준만(남·68·경기도 안성군) 최수영(남·73·경기도 고양군) 최영득(남·70·경기도 고양군) 한동원(남·73·경기도 파주군) 황두섭(남·70·경기도 평택군) 김성환(남·70·인천시 강화군) 리대우(남·68·인천시 송림동) 리무새(남·72·인천시 강화군) 리영식(남·68·인천시 강화군) 김경남(남·71·강원도 홍천군) 김순권(남·69·강원도 강릉군) 김옥림(남·73·강원도 춘천군) 김학래(남·74·강

원도 강릉군) 김홍민(남·79·강원도 삼척군) 리상실(남·74·강원도 화천군) 리종화(남·71·강원도 명천군) 차만준(남·72·강원도 횡성군) 최순옥(여·71·강원도 강릉군) 함영식(남·66·강원도 강릉군) 강인규(남·73·충북 제천시) 김원철(남·71·충북 제천시) 권오승(남·81·충북 충주군) 권영옥(남·73·충북 충주군) 김동성(남·68·충북 청원군) 김재혁(남·69·충북 청원군) 리우문(남·70·충북 제천시) 리종섭(남·72·충북 청주시) 백경순(여·66·충북 보은군) 심기룡(남·67·충북 괴산군) 유호영(남·68·충북 충주군) 조흥식(남·75·충북 청원군) 지충길(남·69·충북 청원군) 김재환(남·72·충남 공주군) 김운영(남·70·충남 천안군) 김순식(남·68·충남 서천군) 리민환(남·71·충남 예산군) 리성숙(여·72·충남 아산군) 리숙희(여·66·충남 아산군) 리종원(남·79·충남 예산군) 류정수(남·75·충남 공주군) 배순식(남·68·충남 서천군) 임원규(남·75·충남 서천군) 윤갑중(남·73·충남 논산시) 지강세(남·67·충남 아산군) 조철호(남·75·충남 아산군) 하영순(수·기·여·73·충남 금산군) 한상호(남·72·충남 천안군) 홍경표(남·70·충남 논산시) 황용성(남·69·충남 연기군) 김세진(남·69·경북 안동군) 김재현(남·70·경북 예천군) 김중학(남·73·경북 안동군) 김태환(남·69·경북 청

송군) 남태진(남·69·경북 영덕군) 리기대(남·74·경북 상주군) 리민수(남·71·경북 영일군) 리병택(남·69·경북 청송군) 리진우(남·77·경북 영일군) 리원석(남·69·경북 상주군) 박태숙(남·76·경북 안동군) 박정원(여·67·대구시) 배재인(남·66·경북 안동군) 서석재(남·72·경북 영주군) 송재명(남·67·경북 상주군) 최광우(남·70·경북 예천군) 채종식(남·71·경북 상주군) 리동춘(남·81·경남 시천군) 류필권(남·69·경남 시천군) 방재원(남·72·경남 시천군) 손윤모(남·68·경남 통영군) 민종훈(남·68·경남 시천군) 조영호(여·69·경남 통영군) 김경수(남·80·전북 고창군) 리은식(남·67·전북 김제군) 류인호(남·69·전북 고창군) 박정환(남·71·전북 이리시) 오진영(남·70·전북 고창군) 유동식(남·76·전북 정읍군) 정동수(남·71·전북 김제군) 채정식(남·72·전북 옥구군) 김래진(남·70·전북 해남군) 김병준(남·73·전남 나주군) 김인복(여·69·전남 함평군) 도영준(남·70·전남 고흥군) 박희영(남·72·전남 신안군) 림종실(남·79·전남 부안군) 열동기(남·71·전남 나주군) 배연재(남·68·전남 영암군) 조명현(남·74·전남 진도군) 조운복(여·67·전남 광주시) 조인현(남·70·전남 영광군) 리인하(여·69·제주도 제주시) 김재중(남·70·일본 오사카시)

올 추석 북한땅 밟으려나

이산상봉 설레는 南가족

“올 추석에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지요.” 다음달 추석을 전후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북측 가족들이 5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남측 가족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교사가 꿈이었던 남동생 윤숙자(尹淑子·79·여·서울 강서구 가양3동)씨는 남동생 회상(裴相·68)씨가 만나고 싶어한다는 연락을 듣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6·25 나서마자 어질 먹고 김유 나가더니 그후로 소식이 끊겼어. 인친 송림고 3학년이 다녔는데 영어도 잘 하고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

윤씨는 지난해 10월 3차 상봉 단

시 남동생의 생존 소식을 처음 알았다. 금방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명단에서 빠져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했다.

●얼굴도 미음도 고약한 ‘짬뽕이’ 경북 청도가 고향인 박정철(朴正哲·73·여·서울 강북구 수유동)씨는 52년 9월 헤어진 정원(鄭源·66·여)씨를 ‘고약한’ 동생으로 기억한다.

박씨는 당시 어려운 환경에 집이 붕어 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을 때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았던 동생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어반에 만나면 정원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한번 내송으로 끓여주고 싶어.” 50여년을 허우겁어 동생을 잊지 못한 박씨의 소박한 소망이다.

●구해경 이세영기자 kochy@kda.y.com



김승규 할머니가 딸의 명단이 담긴 제5차 이산가족 상봉 북측 후보 명단을 보고 또 보여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김홍도인일보 제공

“50년만에 만날 딸... 눈물만이”

93세 김승규 할머니 사연

“생전에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다음달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큰딸 최순옥(71)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김승규(93·강원도 강릉시 지면동 덕인아파트) 할머니는 큰딸과 헤어진 6·25 당시를 떠올

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김 할머니는 아흔이 넘은 고령에도 기억력이 좋고 건강한 편이지만 치매증세에警惕며 딸에게 가족들은 할머니의 소원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바라왔다.

그리던 지난 2000년 북한의 최씨가 뜻밖에 상봉 신청을 해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산가족 상봉 때

다 만남을 약속고대했다. 하지만 이번이 만남에서 누락되자 “살아서는 못 만날 것 같다.”며 기력을 잃어갔다.

며느리 이씨는 “어머니가 방송프로그램인 TV는 사랑을 싣고”를 시청할 때마다 “왜 내 딸은 찾아주지 않느냐.”고 맨날 물을 때 가장 언짢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번 만남이 성사된다 해도 어머니가 치매증세로 큰딸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할까 걱정이었다.

●김홍도인일보 제공 be21@kda.y.com

“신혼의 모습 간직하고 52년간 수절”

남편 만날 꿈에 부푼 김기연씨

“꿈에도 그리던 얼굴을 보게 된다니 잠이 오지 않아요.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5차 이산가족 상봉 복측 후보자 120명의 명단에 포함된 이진우씨(77)의 부인 김기연(金基軟·76·경북 포항시)씨는 52년 전에 헤어진 남편을 만난다는 생각에 요즘 뜬눈

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잦다.

김씨는 1차 상봉 때 북에 다녀온 사람을 통해 남편의 생존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대한적십자사에 수차례 상봉 신청을 했지만 번번이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김씨는 혹시 이번에도 남편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으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김씨가 남편과 헤어진 것은 6·

25전쟁 발발 직후인 50년 8월. 당시 24세로 아직 신혼이었던 김씨는 불일을 보러 아침에 집을 나간 남편이 동네 청년들과 함께 일꾼으로 동원돼 북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끝으로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김씨는 한 살과 세 살짜리 두 아들을 남겨둔 남편이 인젠기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갖고 두 아들을 키우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왔다. 포항=정용균기자

cavalina@donga.com

“30년 제사 올렸는데 살아계시다니...”

팔순 아버지 만나는 이진옥씨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만 알고 30년 동안 제사를 올렸는데 살아계시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5차 이산가족상봉 복측 후보 명단에 최고령자로 아버지 이규엄씨(82)가 포함됐다는 소식을 접한 이진옥(李珍玉·59·여·충북 청주시)씨.

그는 “하루빨리 아버지 품에 안겨

목놓아 울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어머니와 막내 동생이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됐다는 걸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진옥씨가 아버지와 헤어진 것은 8세 때. 아버지가 의용군으로 끌려갔다는 얘기만 듣고 할머니와 어머니, 두 동생의 손을 잡고 고향인 경기 여주를 등진 채 피란길에 올랐다.

“전쟁 당시 너무 어려서인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나와 여동생 진금씨, 남동생 진봉이에게 개구리 뒷다리를 구워 주시던 모습은 지금도 어렵듯이 생각나요.”

이진옥씨는 전쟁이 끝난 뒤 서울과 경기에서 샴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가던 어머니 김민희씨(94년 작고)를 가족과 함께 살다 70년 결혼하면서 충북 청주에 정착해 지금까지 닭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월척어 타고라도 50년 恨 풀어야죠”

남동생 만나는 윤숙자씨

“월척어에 의지해서라도 생전에 꼭 한번은 봐야지요.”

5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 명단에 남동생이 포함됐다는 소식을 들은 윤숙자씨(79·서울 강서구 가양동·사진)는 “죽기 전에 봐야 하는데...”라고 되뇌며 말을 잊지 못했다.

5남매 중 외아들이던 동생 윤희상씨(69)는 50여년 전 인천 송의고 3

학년 때 친구를 만나러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 말팔로 태어나 출가를 한 뒤에도 친청 근처에 살면서 10세나 어린 동생을 어머니처럼 돌봐온 윤숙자씨, 알뜰 아버지를 여읜 어려움 속에서도 공부를 잘해 대학 진학의 꿈에 부풀어 있던 동생의 실종은 그녀에겐 천천벽력과 같았다.

그 동생이 북한에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북한의



이산가족이 할머니를 찾는다면 전해준 서류몽치에서 동생의 얼굴을 발견한 것. 50여년의 세월이 흘러 노인이 다 된 동생이었지만 윤숙자씨는 한눈에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지난번 이산가족 상봉 당시 막판에 명단에서 빠졌을 때 몹시 서운했다는 윤숙자씨는 이번엔 50년의 한을 풀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김진균기자 leon@donga.com

“이번에도 못 만나면 어쩍니까”

5차 이산상봉 南후보들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냈는데... 형을 만난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추석전 있을 예정인 제5차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북측후보자 명단 120명의 한 가족인 차봉준(67·서울양천구신정동)씨는 북한에 있는 형 만준(71)씨가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차씨가 형의 생존소식을 처음 들은 것은 2000년 남북이산가족 상봉 때.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조차 가물거리는 형의 생존 소식을 듣고 며칠동안 밤잠을 이

형님 기다리는 차봉준씨
남편 생존확인 김기연씨
또 탈락될까 마음 못놔

루지 못했다는 차씨는 매년 후보 명단에 오르고도 상봉 대상지에서는 빠지는 아픔을 맛봐야 했다.

차씨가 형 만준씨와 헤어진 것은 1951년 1·4후퇴 때. 4형제 중 셋째였던 만준씨는 열네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 가족과 떨어져 살았고, 1·4후퇴 때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후 “총살당했다” “북한에 있다더라”는 등의 소문만 무성할 뿐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만준씨를 애타게 기다리던 차씨 가족은 결국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고 한을 품은 채 반세기를 살아왔으며, 죽은 줄 알고 한번도 빠지지 않고 제사까지 지내 왔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는 차씨는 “형의 생존사실을 확인한 이상 죽기 전에 꼭 한번만이라도 만나 보는 것이 소원”이라며 상봉이



50년전 사진첩 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북측의 차만준씨를 만나게 된 차씨의 남동생 봉준(왼쪽)씨와 여동생 순애씨가 25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봉준씨의 집에서 만준씨와 함께 찍은 빛 바랜 가족사진을 보고 있다. /실헬경기자

이뤄지길 소망하는 간절함을 나타냈다.

북측 후보자의 다른 가족인 김기연(75·경북포항시흥해읍)씨도 남편 리진우(77)씨와의 부부 상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남편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들은 김씨는 “지난 1차 때부터 상봉신청을 했는데 매년 최종에서 탈락, 또다시 좌절감을 맛보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또 남한의 딸 이영옥(55)씨와 북의 아버지 리상설(76)씨의 부녀상봉도 예상된다. 고향인 강

원도 화천군 간동면에 38선이 그어지면서 아버지가 의용군에 입대해 소식이 끊겼다는 이씨는 “나를 안고 빙빙 돌려주던 아버지 생각이 어렵듯이 떠오른다.”며 상봉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다. 한편 합경도 출신 신헌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인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 위치한 아바이마을에 살고 있는 신헌민들은 제5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명단에 한명도 포함되지 않아 섭섭한 감정을 내비쳤다.

/김준모·우한울기자, 속초=박연직기자 jmkim@sgt.co.kr

상봉합의 열흘만에 명단 교환

■ 5차 이산상봉 어떻게 돼가나

남북이 7차 장관급회담에서 '추석(9월21일)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한 5차 이산가족 상봉은 추석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적십자사(한적)와 조선적십자회(북적)가 '추석 전 상봉'을 목표로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실무 준비 절차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적십자사는 상봉 합의(14일) 열흘 만인 24일 상봉 후보자 명단을 주고 받았고, 생사확인 결과 통보도 일어를 만난 다음달 5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준비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 지역에서 순차 방문 형식으로 이뤄질 5차 상봉을 추석 전에 모두 마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적은 24일 5차 상봉 사업을 다음달 13~18일 실시하며 교통 체증이 격심한 추석 연휴 직전에 상봉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제의했지

내달 5일 '생사' 통보 '추석전 만남' 발걸음 재촉 북 120명 전원 '남쪽'출신...유명인사 많지않아

만, 북쪽은 '4차 적십자회담에서 논의한 것'은 원론적 답변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쪽의 이런 태도는 7차 장관급회담 때 '추석 전 상봉'이라는 남북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5차 상봉 시기를 공동보도문에 '추석을 계기로'라고 명시한 것과 때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쪽의 '의지 부족'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북쪽의 교통 문제와 실무 준비 기간 부족 탓에 남북 제안대로 다음달 13일 이전에 상봉 준비를 모두 마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추석 연휴 이전에 상봉 사업을 마친다는 게 우리쪽 생각이지만, 북쪽과 합의 과정에서 추

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추석 전과 추석 연휴 직후로 나눠 상봉을 실시할지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쪽이 상봉 후보자 명단을 200명씩 주고받았던 1~4차 때와 달리 120명만 보낸 사실은 '추석 전 상봉 실시'의 기대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 북쪽이 2·3차 방문단 교환 사업에 앞서 이미 남북 가족의 생사·주소가 확인된 사람(2차 27명, 3차 93명)로만 후보자를 구성한 것은 실무 준비기간을 줄이려는 나름의 노력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북쪽 후보자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원 남쪽 출신 '월북자'(일본 출생자 1명 포함)들로 이뤄져 있다. 연령도 남쪽이 70살 이상 고령자가 84.5%(80살 이상 40%)인 반면

북쪽은 80살 이상이 4명뿐이다. 남녀 구성비도 남쪽은 132명 대 68명으로 대략 2대1인 반면 북쪽은 102명 대 18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전에 비해 북쪽 상봉 후보자 가운데 '유명인사'가 많지 않은 것도 전과 다른 대목이다. 북쪽이 홍보한 상봉 후보자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은 북한의 대표적 임제대학교 졸업생인 평양 제1고등중학교 배재인 교장(66),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을 지낸 허영순(72)씨 정도다. 서울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신명균(71), 서울대 고등간호학교(현 서울대 간호대학) 출신 리인하(69), 고려대에 다녔던 김중학(73)씨 등 고학력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밖에 한국전쟁 중 전사자로 처리돼 국립묘지에 위패까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군출신 리기덕(74), 손문모(68)씨가 북쪽 상봉 후보자에 들어 있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제사 지내온 아버님 빌것” “힐체어라도 타고 가야지”

■ 추석무렵 5차상봉 설레는 이산가족

“힐체어라도 타고 가야죠. 가다가 죽는 현이 있어도 겁 없습니다”

다음달 추석을 전후해 만날 예정인 제5차 이산가족 상봉후보 명단에 북녘의 남동생(윤희상·69) 이름이 올라 있어, 반세기 민의 해후를 앞두고 있는 윤숙자(79)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몸져 누워 거동을 못하면서 “오늘이 어머니 제산대... 만나서 어머니 제산날이라도 꼭 알러줘야 한다”며 상봉에 굳은 의지를 보였다.

관절염 앓아온 윤숙자할머니 “동생에 어머니기일 알러줘야”

윤 할머니가 동생의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4월 이산가족 상봉 후보 명단에 동생이 포함됐었다는 연락을 받고서였다. 1950년 당시 17살이던 동생은 인천 집에서 이장을 먹고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 서울 가양동의 아

파트에서 살고 있는 윤 할머니는 “아버지와 큰오빠가 6·25 시변 전에 모두 죽어, 우리 집안에 남자라곤 남동생뿐이었다”며 “어머니가 평생 남동생을 기다렸는데...”라고 울먹였다.

그러나 윤 할머니처럼 제5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 명단에 오른 남쪽 이산가족들은 “이번에는 꼭 만날 수 있느냐”고 되묻는 등 조바심을 감추지 못했다.

120여명 상봉후보자들의 기다림은 한결 같았지만, ‘부자 상봉, 부녀 상봉’을 앞둔 남쪽 자식들의 심정은 또 남달랐다. 아버지 이기탁(73)씨를 기다리는 태석(52·경북 성주군)씨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군에 입대한 뒤 소식이 끊겨 얼굴조차 본 적이 없다”며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50년 가까이 제사를 모셔온 아버지를 꼭 만나 나도 남들처럼 ‘아버지’라고 크게 한 번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2000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받은 편지와 사진으로 아버지의 생존을 확인한 이씨는 “북에서 새장가를 들어 술하에 4형제들 두고 있다는 편지 내용에 어머니는 한편으로 설심해하면서 “살아있으면 됐다”고 말끔하셨다”며 “평생 아버지만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어머니를 꼭 모시고 가겠다”고 말했다.

“피난통 쫓겨난 할머니 남매 모두 해후했으면”

세살 때 헤어진 아버지 이상실(74)씨와 만날 기대에 푹푹 있는 이영옥(55·서울 김북구 수유동)씨는 “아버지가 지난해 보낸 편지에서 이복동생들의 이름과 주소할 일일이 알려주며 통일이 된 뒤라도 꼭 만나보라고 당부했다”며 “행재가 없어 외로웠는데 이번 기회에 동생들도 만나게 돼 너무 기쁘다”고 설레어 했다.

“행재 상봉”을 앞둔 노인들도 눈물을 흘렸다. 어려서 아버지를 폐결핵으로



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북쪽의 남동생을 만나는 윤숙자씨가 25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가양동 집에서 동생과 헤어질 당시의 심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심한 관절염 때문에 거동을 할 수 없는 윤씨는 동생을 만났다면 죽어도 이한이 없다고 말했다.
서경신 기자 raoul@hani.co.kr

없고 어머니와 어렵게 생활하다 6남매가 피난통에 쫓겨난 할머니와 어머니와 여동생, 남동생 2명은 북으로 가고, 자신과 인니, 오빠가 남쪽에 남은 박진영(71)씨는 “동생 3명은 모두 살아있을 것”이라며 “우리 남매가 모두 해후했으면 한다”며 눈시울을 moist했다.
신원동욱 서정민 기자 syuk@hani.co.kr

“사망신고 뉘 살아있다니”

■ 5차 이산상봉 北 후보 명단 발표

24일 제5차 이산가족 상봉 북측 후보 120명의 명단이 발표된 뒤 남한내 가족들은 밤잠을 설치며 반세기 만의 상봉에 대한 기쁨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상봉자 가족중에는 애간장을 태우다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부모들이 적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했다.

○...북측 후보명단에 동생 황용삼(69)씨가 포함됐다는 소식을 접한 누나 애성(72·경기 고양시)씨는 “헤어지기 직전 충남 공주의 중학교에 다녔던 동생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애성씨는 “어머니는 생전 ‘용성이는 반드시 살아 있을 것’이란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면서 제사도 못 지내게 했다”며 “북으로 간 아들을 그리다 88년 세상을 떠난 어머니도 이제 한을 푸실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 후보 명단에 포함된 윤갑중(73)씨의 남쪽 동생 민중(68·인천 남구)씨는 “형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해 전쟁이 끝난 뒤 사망신고를 했었다”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는 예전에 살던 집 문밖에 자

주 나가 형님을 기다릴 만큼 많은 세월을 보냈다”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북측 후보명단에서 남편 리진우(77)씨를 확인한 아내 김

수절 아내 “남편 살아있어 다행” 담담

두차례 누이상봉 좌절 “이번만은...”

기연(75·경북 포항시)씨는 “살아있어 다행”이라며 애써 담담한 모습을 지어보였다. 반세기동안 독수공방하며 두 아들을 키운 김씨는 1차 상봉 때 북에 다녀온 사람을 통해 남편의 생존을 확인하고 직십자사에 계속 상봉 신청을 했지만 번번이 탈락. 또 다시 좌절감을 맛보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했다.

김씨는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살아있는 게 확인되지 않아 74년부터 아들들이 제사를 지내

왔다”면서 “전쟁 직후 동네청년들과 함께 북으로 갔던 남편이 북쪽에서 대학도 다니고 큰 고생은 하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북측 후보자 리인하(73·여)씨의 남동생 이병준(64·한국항공대 교수)씨도 “이번만은 누님과 의 상봉이 꼭 실현돼 쌓인 한을 풀 수 있길 바란다”며 상봉을 기대하면서도 혹시나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리씨는 2000년 11월과 2001년 2월 진행된 제2, 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으나 최종 방문단에는 끼지 못해 남쪽 가족들을 애태우게 했다.

○...3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산가족 상봉에비 후보 300명에 포함됐지만 가족들의 반대등을 이유로 스스로 기회를 포기한 이들이 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는 예비후보 300명 중 57명이 건강검진에 불참했으며 이 중 21명은 스스로 기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 연락이 되지 않았거나 연락이 됐지만 불참한 사람도 32명이었으며 2명은 이미 숨졌고 2명은 해외이민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종합

‘면회소 상봉’ 아직은 먼길

北赤 공감표시 불구 장소등 실무협의 거쳐야

북한 적십자회 장재언(張在彦) 중앙위원장이 4차 적십자 회담(9월 4~6일) 개최전에 미리 ‘면회소 설치 합의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방도’라고 덧붙이고 있어, 장 위원장이 말하는 면회소는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의 핵심사업으로 꼽고 있는 ‘상설면회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적십자회담의 핵심 의제가 면회소 설치 논의가 될 것이라는 점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미 예고된 사항이어서 그리

‘놀라운 소식’은 아니다. 그렇지만 ‘면회소 설치 운영문제 등을 협의한다’(장관급회담 합의문)가 ‘면회소 설치 합의에 공감한다’로 바뀐 것은 북한이 상당히 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남북적십자사의 총재급이 나서는 회담이어서 원칙적인 합의 이상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회담관계자들의 조심스러운 관측이다. 실제로 면회소 설치에 합의하더라도 어느

위치에 건물을 만들 것인지, 1년에 몇 차례 상봉을 할 것인지, 상봉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문제는 또 다른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의견집근을 이뤄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 위원장의 언급은 글자 그대로 면회소 설치에 대한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 4차 적십자 회담 직후부터 상설면회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 당국자들은 “북측도 면회소 설치와 상봉행사를 지속하는 것이 남북관계 진전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국민일보

2002. 8.30(금)

北赤 “면회소 설치 동감”

韓赤에 전화 통지문

북한 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은 29일 대한적십자사 서영훈 총재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번 금강산 남북적십자 회담(9월 4~6일)에서 쌍방이 면회소 설치 등 흠어진 가족·친척 문제의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 방도에 합의하지는 귀하의 입장에 동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또 “이번 회담의 경과 의의에 부합되도록 대표수를 5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며 자신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보내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측이 적십자사 총 책임자인 총재급을 단장으로 하는 회담을 수용한데 이어, 면회소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하며 회담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면서 “이산상봉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호기자

世界日報

2002. 8.30(금)

北赤 “면회소 설치동감”

4차회담 대표명단 통보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29일 오전 장재언 위원장 등 제4차 남북적십자 회담(9월 4~6일·금강산) 북측 대표 5명 명단을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에 통보해오면서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에 대한 동감을 표했다.

이날 장재언 위원장은 서영훈 총재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이번 회담에서 쌍방이 면회소 설치 등 흠어진 가족 친척 문제의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 방도에 합의하지는 귀하의 입장에 동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조정진기자 jjj@sgt.co.kr

한겨레

2002. 8.30(금)

북 “이산가족 면회소 동감”

조선적십자회(북적) 중앙위원회는 29일 4차 남북 적십자회담(9월 4~6일·금강산) 북측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면서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논의하지는 남측 제의에 동감을 표시했다. 장재언 북적 위원장은 서영훈 한적 총재 앞으로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 “이번 회담에서 쌍방이 면회소 설치 등 흠어진 가족·친척 문제의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 방도에 합의하지는 귀하의 입장에 동감을 표시한다”라며 “이번 회담의 경과 의의에 부합되게 대표 수를 5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경향신문

2002. 8.30(금)

北 “이산 면회소 설치 공감”

적십자회담 명단 통보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29일 오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북측 대표 5명 명단을 대한적십자사에 통보해 오면서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에 대한 동감을 표했다. 북측 장재언 위원장은 한적 서영훈 총재 앞으로 보낸 전화통

지문에서 “이번 회담에서 쌍방이 면회소 설치 등 흠어진 가족 친척문제의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방도에 합의하지는 귀히의 입장에 동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장재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 대표단은 리금철(북측 중앙위원)·김일훈(·), 김학철(·), 리호림(· 중앙위 부서기장) 등 5명이다. 이윤옥기자

매일경제

2002. 8.30(금)

北赤 “면회소 설치논의 共感”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29일 오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북측 대표 5명의 명단을 남측 대한적십자사에 통보해 오면서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에 대한 동감을 표시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북측 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은 29일 한적 서영훈 총재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이번 회담에서 쌍방이 면회소 설치 등 흠어진 가족·친척문제의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 방도에 합의하지는 귀히의 입장에 동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또 “이번 회담의 경과 의의에 부합되게 대표수첩 5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서 지난 24일 한적 서영훈 총재는 적십자회담 남측 대표 5명의 명단을 북측에 알리는 통지문에서 “이번 회담은 분단 후 처음으로 쌍방 적십자단체 책임자급이 마주앉는 자리인 만큼 분단으로 인한 고통의 상징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북측이 통보해 온 대표단은 다음과 같다.

△단장 장재언 △대표 리금철(북측 중앙위원), 김일훈(·), 김학철(·), 리호림(· 중앙위 부서기장) 전병록기자, ibdoc@mk.co.kr

대한매일

2002. 8.30(금)

“면회소설치 합의에 동감”

북측, 대표5명 명단 통보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29일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북측 대표 5명 명단을 남측 대한적십자사에 통보해 오면서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에 대한 동감을 표했다. 한적(韓赤)에 따르면 북측(北赤) 장재언 위원장은 한적 서영훈 총재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이번 회담에서 쌍방이 면회소 설치 등 흠어진 가족·친척문제의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방도에 합의하지는 귀히의 입장에 동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 박옥심기자 youngtan@kdaily.com

5차 이산가족 상봉 13~18일 금강산서

南北 사실상 합의

남북한 각각 100명의 이산가족이 상대측 지역 가족·친척을 만나는 5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을 오는 13~15일, 16~18일 잇따라 금강산에서 갖기로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관 접촉 등을 통해 사실상 합의됐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가 1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13일부터 15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금강산에서 남측 가족·친척들을 만나고, 이어 16일부터 18일까지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같은 장소에서 북측의 가족·친척들과 상봉하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또 오는 4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연내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해 정례적인 상봉을 갖자고 북측에 제의할 방침이다.

정부와 한적(韓赤)은 또 면회소 상봉과 별도로 매년 설과 추석, 8·15, 6·15 등 특별한 계기마다 남북 각각 100명씩의 상봉단 교환사업도 계속 추진하되, 추석 전 5차 상봉단 교환에 이어, 금년 내 6차 상봉단 교환을 한 차례 더 실시하며,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확대를 위해 1만명의 남측 이산가족 명단을 북측에 전달하는 문제도 제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 31일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仁기기자 ginko@chosun.com

5차 이산상봉 13~18일 금강산서

남북이 5차 이산가족 상봉을 13~18일 금강산에서 갖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1일 "5차 이산가족 상봉을 13~15일과 16~18일로 구분해 금강산에서 갖자고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에 제의했다"며 "이에 대해 북측이 확답을 해오진 않았으나

북측 연락관에게서 '그렇게 하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3~15일은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남측 가족·친척을 만나고 16~18일은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북측 가족·친척을 상봉하게 된다고 한적 관계자는 전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이산상봉 13~18일

南北 연락관접촉서 합의

남북은 5차 이산가족 상봉을 13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일 "7차 남북 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13일부터 상봉을 시작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최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상봉일정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3~15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100명과 남측 가족 친척들이 상봉하고, 16~18일까지는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헤어져 북측 가족 친척들을 만나게 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문화일보

2002. 9. 3(화)

南北 이산명단 교환

적십자회담 이를 연기

남북한은 내주 말부터 시작될 5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상봉 행사에 참여할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 결과를, 3일 판문점을 통해 교환한 뒤

방문단 100명의 명단을 확정해 오는 5일 최종 대상자 명단을 교환하기로 했다. 한편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 문제를 논의할 4차 남북 적십자회담은 당초 4일부터 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금강산일대 태풍 피해가 심해 6일로 이를 연기됐다.

/한중호기자 idhan@munhwa.co.kr

내일신문

2002. 9. 4(수)

남북 5차 상봉후보 생사확인 교환

남북은 3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5차 이산가족상봉 남북 후보자 200명과 북측 후보자 120명의 생사확인 결과를 교환했다. 북측 조선적십자회(위원장 장재연)가 홍보해온 남측 상봉후보자 200명에 대한 생사확인 결과에 따르면 북측의 가족·친척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남측 후보자는 109명이며, 사망 등으로 상봉 대상자가 없는 남측 이산가족은 91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이날 오후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환)는 북측 후보자 120명의 재남 가족·친척 생사확인 결과를 북측에 전달

했다. 북측 후보자 120명 전원의 가족·친척이 남측에 생존해 있으나 재북 이산가족 1명의 재남가족은 연락이 안돼 생사확인 이 안됐고 6명의 재남가족은 지병 등으로 상봉을 포기했다. 생사와 주소가 확인된 재남가족은 북측이 요청한 452명과 추가로 확인한 199명 등 모두 651명이다. 한적은 상봉 후보자 가족·친척 생사확인 회보서가 교환됨에 따라 4일 5차 인신위원회를 열어 최종 상봉단 100명을 확정, 5일 북측과 최종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경향신문

2002. 9. 4(수)

남북 이산상봉 후보 생사확인 명단 교환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3일 북한 조선적십자회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13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릴 제5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의 가족·친척 생사확인 회보서(回報書)를 교환했다. 생사확인 결과 남측 상봉후보자 200명중 109명이 북측에 가족·친척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91명은 북측 가족의 사망 등으로 상봉 대상자가 없었다. 북측 상봉 후보자 120명 중 113명이 상봉대상 재남 가족을 찾았다.

한적은 최종 상봉단 100명을 확정, 5일 북측과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날 교환된 생사·주소확인 결과는 경향신문 인터넷(www.khan.co.kr)이나 대한적십자사 본사(02-3705-370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문화일보

2002. 9. 4(수)

“네살때 헤어진 아버지 얼마나 변했을지...”

5차 이산상봉 앞둔 서울 이영옥씨

“4살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 근처 큰 집에 놀러갔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새 50년이 훌쩍 넘어버렸으니...”

추석전 금강산에서 이뤄질 제5차 이산가족 상봉 최종후보자 명단에 든 이영옥(여·56·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사진)씨는 아버지 이상설(74)

씨를 만날 생각에 한껏 들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최종명단에서 떨어질까 못내 조바심이 났다.

이씨가 아버지의 생사를 알게 된 건 지난해 2월 3차 이산가족 상봉 때. 상설씨가 남쪽 딸을 만나고 싶다



고 우리측 적십자사에 의뢰했다. 이씨는 3차상봉과 올해 4월 4차상봉 모두 후보로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 들지 못했다. 대신 아버지가 보내 온 편지와 사진으로 마음을 달랬다.

이씨는 전쟁중이 아버지가 북한 인민군 의무병으로 끌려가면서 생이 별했다. 군대에서 갈 있다는 아버지의 편지가 왔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피난지에서 어머니는 아버지 할 보고 싶다는 말만 남긴채 세상을

떠났다. 이씨는 “이번에 만나면 아버지와 동생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고 싶다”며 “이번에는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또 다른 이산가족들도 북의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북에 할 심호(71)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동생 한상규(64·서울시 서초구 밤배동)씨는 “죽은 줄 알았던 둘째 형이 살아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대한적십자사는 최종 상봉단 100명을 확정, 5일 북측과 명단을 교환한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kr

南北, 상봉자 생사확인 교환

남북은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할 제5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앞서 3일 판문점 접촉을 통해 북측 상봉 후보자 120명과 남측 후보자 200명의 생사 및 주소 확인 결과를 교환했다.

한적은 "5일에는 최종 상봉자 100명씩의 명단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북측이 전달한 생사확인 결과에 따르면 북측에 가족 친척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남측 상봉 후보자는 109명이며, 91명은 상봉희망 재북가족을 찾지 못했다.

북측 가족을 만나게 될 남측 최고

당자 정제원(94)씨의 경우 어머니(106)와 부인(79)의 상봉을 희망했으나, 아들 동인(56)씨만 북측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적은 북측 상봉 후보자 120명에 대해 재남 가족 생존여부 확인 작업을 진행, 이중 119명의 가족을 확인했다. 생존이 확인된 재남가족은 ▲ 부모 1명 ▲ 배우자 4명 ▲ 자녀 14명 ▲ 형제자매 325명 등 651명이다.

교환된 생사확인 결과는 한적 본사(02-3705-3705)에 문의하거나 한국닷컴 홈페이지(www.hankook.com)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hk.co.kr

적십자회담 6일로 연기

4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4차 남북 적십자회담이 금강산 일대의 태풍 피해로 이튿날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다. 북측은 3일 남측으로 전화동지문을 보내 "강원 통천과 고성 지방에서의 태풍 피해로 금강산에서 열 4차 적십자회담을 부득이 9월 6일부터 8일 사이로 늦추지 않을 수 없다"고 제의했고, 남측은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영섭기자

대한매일

2002. 9. 4(수)

남북 이산상봉 명단 교환

남 651명·북 200명 생사확인

남북 적십자는 3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13~18일 금강산에서 실시 예정인 제5차 이산가족 방문 후보단이 갖는 부모형제, 친척의 생사 및 주소 확인 회보서를 교환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徐英勳)는 이날 북측 후보자 120명 중 거동 불능 등 이유로 상봉을 포기한 6명과 연락이 닿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13명의 남측 가족의 생존 등을 확인한 결과를 북측에 넘겨준다.

북측에서 찾은 남측 가족 452명에 추

가로 확인된 199명 등을 포함해 모두 651명의 생사 및 주소를 확인했다. 이중 사망은 16명이고 확인 불가능이 2명이었다. 최고령자는 북측 최순옥(71·여)씨의 어머니 김승규(93)씨와 이우문(70)씨의 장모 김유중(93)씨로 확인됐다. 북측 조선적십자회 역시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00명의 가족 및 친척의 생사 및 주소를 확인했다. 생존이 확인된 북측의 부모 형제 친척은 200명 중 109명이다.

●박희삼기자 youngtan@kdaily.com

경향신문

2002. 9. 4(수)

이산 상봉단 생사확인 교환

남북은 추석(9.21) 전 실시 예정인 제5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앞서 3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 후보자 120명과 남측 후보자 200명의 생사 및 주소확인 결과를 교환했다. ★제5차 방문단 후보 생사확인 결과 본지 인터넷사이트(www.sedaily.com) 참조 한편 4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적십자 회담은 금강산 일대의 태풍 피해로 이를 연기돼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게 된다.

世界日報

2002. 9. 4(수)

이산상봉 가족·친척 937명 생존확인

남북한은 3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320명(남 200, 북 120)의 가족·친척 생사확인 회보서를 교환하고 남측 651명, 북측 286명 등 모두 937명이 살아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북측이 전달한 회보서에 따르면 북측의 가족·친척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남측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는 109명이며, 사망 등으로 상봉 대상자가 없는 남측 이산가족은 91명으로 집계됐다.

남측 방문단 후보 중 최고령자는 정제원(94)씨로, '재북' 어머니 리병만(106)씨와 부인 김현숙(79)씨 등 모두 7명의 생사확인을 신청했으나 아들 동인(56)씨만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손종학(70·여)씨는 북측 아버지 진환(89)씨를, 정영엽(68)씨는 북측 어머니 방영순(92)씨를 찾았다.

북측 의뢰자 120명의 남측 가족은 전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2002. 9. 4(수)

금강산 일대도 '루사' 강타 피해 심각

5차 이산상봉 차질 우려

현대아산 조사단 곧 파견

태풍 루사에 의한 금강산 일대 피해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밤 늦게 설봉호를 타고 금강산에서 돌아온 관광객과 현대아산 직원 등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금강산 관광지 곳곳에서 도로와 교량이 유실됐다.

온천장 앞 교량이 유실했으며 온천장 주변의 전주들이 넘어져 현재 비상발전기를 가동 중이다. 또 김정숙휴양소 앞 심거리 도로가 유실됐으며 장전항~온정각 구간 관광 기본도로 4곳에 산사태가 났으나 관광 기본도로는 응급복구될 전망이다. 생활관광할 금강1교도 교각이 내려앉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금강산에 근무하는 현대아산 직원용 생활단지인 금강빌리지 전체가 물에 잠겨 직원들이 해상호텔로 숙소를 옮겼다. 전화도 끊겨 현지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

현대아산은 우선 정확한 피해 진단과 복구를 위해 4일 20~3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금강산에 보내기로 했

다. 현대아산은 "조사단이 피해조사 및 복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6일 조사단이 돌아와봐야 복구 완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구작업이 늦어질 경우, 13일로 예정된 5차 이산가족 상봉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4일 금강산에서 업기로 했던 남북적십자회담은 이를 연기했으나 적십자회담과 달리 이산가족 상봉은 대규모 회합이기 때문에 도로나 숙박시설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다.

현대아산측은 "시한이 촉박하기는 하나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작업을 마칠 것"이라며 "북한측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은 또 "상봉장소 접근이 어려울 경우 북측과 협의해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강산관광 재개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현대아산측은 "복구작업이 얼마나 신속히 이뤄질 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남중기자 njkim@kmb.co.kr

2002. 9. 4(수)

적십자회담 6~8일 北 요청으로 연기

금강산 지역의 태풍 피해로 4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남북 적십자회담이 이를 늦게 열리게 됐다.

북한의 장재언(張在彦)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은 3일 판문점을 통해 서영훈(徐英勳)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강원도 통천·고성 지방의 태풍과 무더기 비(집중호우)에 의한 피해 관계로 금강산에서 가지게 된 제4차 북남적십자 회담을 부득이 6일부터 8일까지 사이로 늦추지 않을 수 없음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한적은 북측 제안을 수락했다.

한편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3일 "고성·통천·문천 등 강원도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하루 5백50mm 이상의 폭우가 내려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수십명의 사망자와 행방 불명자,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영중 기자 <yilee@joongang.co.kr>

한겨레

2002. 9. 4(수)

남북 5차상봉 후보자 생사확인 통보

적십자회담 6~8일로 연기

남북은 추석을 계기로 치르기로 한 5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앞서 3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 상봉 후보자 120명과 남측 후보자 200명의 생사·주소 확인 결과를 주고 받았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북측 상봉 후보자 120명 가운데 연락이 되지 않은 1명을 뺀 119명에 대해, 113명은 상봉 대상 가족이 있으나 6명은 남측 가족들이 거동불능·지병 등의 이유로 상봉을 포기했다고 전달했다. 북측 후보자들의 남측 상봉 대상자는 부모 1명, 배우자 4명, 자녀 14명 등 모두 633명이다.

북한적십자회는 남측 상봉 후보자 200명 가운데 109명의 북측 가족이 살

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보해 왔다. 가족관계로는 부모 3명, 부부 12명, 자녀 26명 등이다. 북측 상봉 후보자의 재남 가족 가운데 최고령자는 북측 최순옥(71)씨의 어머니 김승규(93)씨와 리우문(70)씨의 장모 김유중(93)씨이며 남측 최고령자는 김기유(93)씨다.

한적은 5차 인선위원회를 열어 최종 상봉단 100명의 명단을 확정해 5일 북측과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한적은 금강산에서 4~6일 열릴 예정이던 4차 남북 적십자회담이 6~8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한적은 "북한이 금강산 지역의 태풍 피해를 이유로 적십자 회담 연기를 요청해와 북측 제안에 동의한다는 전화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東亞日報

2002. 9. 4(수)

北 적십자회담 연기 요청 통천·고성 태풍피해 이유

4일부터 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이 북측 요청에 따라 6~8일로 연기됐다.

북한적십자회는 3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강원도 통천, 고성지방이, 태풍과 무더기(폭우)로 피해를 보는 바람에 제4차 북남적십자회담을 부득이 9월6일부터 8일로 늦추지 않을 수 없음을 통지한다"며 회담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고성군 530mm, 통천군 525mm를 비롯, 일부 산간지역에는 7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고 통천군 금강리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며 "수십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北이산가족 상봉 꺼린다

남한내 이산가족들이 가족·친지 상봉을 학수고대하며 상봉 대상자로 뽑히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측 이산가족들은 상봉 대상자로 선발되는 것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상봉 장소에서 발생한 사소한 말 실수로 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고, 상봉을 전후해 엄격한 사상교육과 몸세탁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2월 말 제3차 이산가족 상봉 때 서울에 왔던 북측 이산가족 중 한 사람이 "텔레TV가 있느냐"는 남측 기자의 질문에 "텔레TV도 없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북한으로 돌아간 뒤 처벌받았다고 최근 탈북한 김기



상봉 전후 엄격한 사상교육·통제
사소한 말 실수로 처벌될 위험도

영(기명)씨는 전했다. 함경북도 회령시 소재 한 기업소 간부 출신인 김씨는 "회령에 거주하는 이 주민은 서울에서 가족·친지와 상봉한 뒤 북한에 돌아가자마자 국가안전보위부의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며 "나중에 그는 '교육 빈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수용소로 갔다"고 말했다.

북측 이산가족들은 상봉 전 두 달에 걸친 김도 높은 '사전 교육 과정'과 상봉 후 남측 가족들과 취재지역에서 지우기 위해 비교적 장시간 갖는 '자기 반성 시간' 때

문에 괴로워한다고 김씨는 전했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이산가족 상봉자로 뽑히는 것을 내심 꺼린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장소를 금강산으로 고집하는 데는 이런 사정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지난 8월 19일 "제5차 이산가족 상봉 방문단 교환을 위해 생사·주소 확인 의뢰자 200명 명단을 서울 뒤 교환하자"고 재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8월24일 200명 명단을 전달한 남측과 달리 130명 명단만 통보해 왔다. 한 전문가는 "북한으로선 내세울만한 상봉 대상자가 비다 나기도 했지만 북측 이산가족들이 상봉 이후 여러 후과(後果·나쁜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도 예정보다 80명이나 모자란 상봉 후보자 명단을 전달해 온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李敏賢 기자

대한매일

2002. 9. 5(목)



“이젠 큰소리로 맘껏 불러 불겁니다”

아버지

5차 이산상봉단 이태석씨

“아버지 리고 큰소리로 한번 불러 불겁니다.” 추석 전에 있을 예정인 제5차 이산가족 금강산 순차 상봉지로 북경편 이태석(52·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모리)씨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아버지 이기택(77·경남 숙천군 숙천읍)씨를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다.

제3차 이산가족 생사확인 절차에서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최종 상봉자 명단에는 번번이 탈락해 이번 상봉이 더욱 기대된다고 한다.

아버지 이씨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 곧바로 입대해 갖이 가족과는 마지막이

이산가족 상봉대상자인 이태석씨가 4일 동해 공원에서 사진촬영을 할 때 아버지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다.

●성주 한현규기자

고 공부도 잘했다고 들었다. “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15세 때 결혼해 4년만에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고 유복자인 이씨를 혼자 키운 어머니 조금래(73)씨도 “북한에서 결혼해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다는데...”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만날 수 있느냐.”고 되물어 남편과의 재회할 거라고 있음을 보여줬다.

조씨는 “52년 동안 혼자 살면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한없이 쌓여 있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면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씨는 “생존 사실을 안 뒤부터 이산가족 이야기 가 나오면 가슴이 아팠다. “면서 “남편에게 ‘고생했다.’는 한마디는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씨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조씨, 작은 아버지와 고모 등 5명이 상봉단에 포함된다. ●성주 한현규기자 cghan@kday.co

世界日報

2002. 9. 6(금)

4차 남북적십자회담

오늘 금강산서 개최

금강산 일대 태풍 피해로 이틀 연기된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이 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다.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장재언(張在彦) 북한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연내 면회소 설치 ▲생사 및 주소확인 확대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집중 논의한다. (관련기사 5면)

양측은 또 13~18일로 예정되는 제5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일정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남북은 5월 제5차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의 명단을 각각 확정, 교환했다. /김기동기자

한국경제

2002. 9. 6(금)

오늘부터 남북 적십자회담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이 6일부터 3일간 금강산에서 열린다.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대표단과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문제 등을 논의하고 제5차 이산가족 상봉방문단 교환 일정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남북은 5일 판문점 적십자-연락관 접촉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5차 이산가족상봉에 참여할 1백명씩의 명단을 교환했다.

홍익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서울경제

2002. 9. 6(금)

남북 이산상봉 명단 교환

남북은 5일 오후 판문점의 적십자사 연락관 접촉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제5차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할 각각 100명의 명단을 교환했다.

한국일보

2002. 9. 6(금)

南北, 상봉 100명 명단교환

남북은 5일 판문점 적십자사 연락관 접촉을 통해 13~18일 금강산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인 5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할 각 100명의 명단을 교환했다. 남측 방문단 100명 가운데 최고령자는 정제원(94)씨로 북측 아들 동인(56)씨를 만나게 된다. /이동준기자

東亞日報

2002. 9. 6(금)

5차 이산상봉 명단 교환

남북적십자사는 5일 판문점에서 연락관 접촉을 갖고 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할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씩의 명단을 교환했다.

남측 방문단 100명의 연령별 구성은 △80세 이상 43명 △70~79세 41명 △60~69세 16명 등이고 북측 방문단 100명은 △80세 이상 3명 △70~79세 56명 △60~69세 41명 등으로 80세 이상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명단은 동아닷컴(www.donga.com)에서 볼 수 있다. 심동기기자 esprit@donga.com

대한매일

2002. 9. 6(금)

5차 이산상봉 대상자

남북 100명씩 명단교환

남북적십자사는 5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13~18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릴 예정인 5차 이산가족 순차상봉 참가자 최종명단 100명씩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13~15일 1차로 북측 상봉단 100명을 만나기 위해 남측 가족 500명이 금강산으로 가게 되고, 2차로 16~18일 북측 가족들을 만나는 남측 상봉단 100명이 금강산을 찾아 상봉행사를 갖게 된다.

이복삼기자

youngtan@kdaily.com

경향신문

2002. 9. 6(금)

남북적십자회담 오늘 개막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이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예정보다 이틀 늦은 6일 금강산에서 시작된다.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수석으로 한 남측 대표단 5명과 장재언(張在彦)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 대표단 5명은 2박3일동안 금강산여관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남북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방문단 교환일정을 확정하고 금강산 면회소 설치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이용욱기자

면회소설치 진전예상

남북직접대화 의제일까

6~8일 열리는 제4차 남북 직접 대화는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에 초점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함은 이번 회담 수석대표를 직접접촉 총재급으로 격상.

이산가족문제 제도적해결 중점

추석전 5차상봉 합의이행 낙관

어떻게든 매듭을 짓겠다는 각오다.

최대 관심사는 ▲연내 상설 면회소 설치 ▲생사 및 주소확인 확대 문제다. 이미 지난달 14일 제7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면회소의 필요성에는 공감. 대립 이룬 상태여서 진전이 예상된다.

남측이 그동안 면회소 장소로 고집하던 경의선 '도라산역'을 양보. 북측의 금강산 면회소를 수용할 방침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하지만 면회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 확인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들 어떻게 다루야 할지, 정부측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면회소 설치에 주력하고, 면회소 운영방안 등 부차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의견만 개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행 가능성이 높은 건부터 합의할 도출하겠다는

얘기다.

정부의 협상전략은 '연내 면회소 설치 합의'→'세부사항 추후 실무협의'→'면회소 설치 이전까지 한시적인 이산가족 상봉'으로 요약된다.

북측도 이 정도 선이라면 도장을 찍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이 북측의 요구조건을 사실상 들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5차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세부일정은 '추석전'이라는 건추위 2차회의 합의에 따라 쉽게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중앙일보

직접대화 오늘부터

금강산면회소등 논의

이산가족 상봉 확대방안 등을 논의할 남북 직접대화가 6일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열린다. 2000년 6월 첫 만남 이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네번째인 이번 회담은 특히 최초로 양측 직접접촉 총재(북측은 중앙위원장)가 만난다는 점에서 면회소 개설 문제 등과 관련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직접접촉자와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금강산면회소의 연내 개설과 함께 고향 우선으로 수천명 규모의 생사·주소확인을 실시하고자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남북 직접접촉자는 5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하고 추석(9월 21일)에 맞춰 금강산에서 치를 5차 이산상봉 대상자 각 1백명의 명단을 교환했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국민일보

5차 이산상봉 명단 교환

오늘 금강산서 직접대화

남북은 5일 오후 판문점의 직접접촉관 접촉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제5차 이산가족 순차 상봉에 참여할 각각 100명의 명단을 교환했다.

금강산에서 북측 협육을 만날 남측 방문단 100명 가운데 최고령자는 94세의 정재원씨로 재북 어머니 이병만씨(106)와 부인 김현숙씨(79) 등

모두 7명의 생사확인을 신청했으나 북측평에 살아 있는 아들 동인씨(56)를 만나게 됐다.

한편 제4차 남북직접대화가 태풍 투시의 영향으로 예정보다 이틀 늦은 6일 금강산에서 시작된다.

서영훈 대한직접접촉자 총재급 수석대표로 한 남측대표단 5명과 장재언 조선직접접촉자 위원장급 단장으로 하는 북측대표단 5명은 6일부터 2박 3일 동안 금강산여관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창호기자

내일신문

2002. 9. 6(금)

“면회소 설치, 월2회 상봉 추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이 6일부터 서울간 금강산에서 개최된다.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단장으로 한 남측 대표단은 오늘 오전 정세현 통일부장관의 환송을 받은 후 금강산으로 출발했다.

서 총재는 “총재급 회담은 처음이고 북측에서 요청해 온 것이니 만큼 결과가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 총재는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합의가) 될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산가족들이 한 달에 두번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1년에 한차례 서신교환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4면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4차 적십자회담 무엇을 논의하나

면회소 설치 등 제도적 해결책에 초점

생사확인·서신교환도 협의 ... 최초 총재급 회담에 기대상승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6일부터 2박3일간 금강산여관에서 열리는 4차 적십자회담의 주요 의제는 제5차 이산가족 상봉방문단 교환일정 확정과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방안 논의다.

특히 이번 적십자회담은 최초의 총재급 회담이고 남북간 화해협력에 가속도가 붙는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남북 사이에 면회소 설치·생사확인·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책 협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5차 이산상봉 13~18일 사실상 합의
=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지난 7차 장관급회담(8월 12~14일)과 이에 앞서 열린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8월 2~4일)에서 추석을 계기로 진행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이번 적십자회담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나 추석 직전인 13~18일 사이에 진행한다는 데 남북간에 이미 교감이 이뤄져 있는 상태다.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와 북측 조선적십자회(위원장 장재언)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상봉후보자 명단 교환과 생존확인 결과 통보, 최종 명단 교환 등 실무절차를 밟아왔다.

과거 전례에 비해 최소 15~20일이 걸리

는 사전준비 기간이 이번에는 12일만에 전격적으로 처리됐다.

특히 북측은 실무준비 일정을 이틀씩 앞당기자며 먼저 서둘렀고 24일 연락관 접촉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13~18일에 상봉행사를 진행키 위한 것”이라는 우리측 언급에 대해 “알았다”고 답해 상봉일정에 사실상 합의의사를 밝혔다.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방안은 금강산 면회소 연내 설치가 핵심사안이다.

지난 2차(2000년 9월 20~23일)와 3차(2001년 1월 29~31일) 적십자회담에서 양측은 면회소 설치·운영의 필요성 자체에는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면회소 설치 장소를 둘러싼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아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4차 회담으로 논의를 미뤘다.

남측은 판문점 각자 지역에 면회소를 각각 설치하자고 제안한 반면, 북측은 금강산에 우선 설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1년 6개월여만에 열리는 이번 4차 회담을 앞두고 북측과 합의 가능성이 높은 금강산 면회소 연내설치를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북측은 지난달 29일 회담 대표단 명단을 알려온 전화통지문에서 “면회소 설치 등 풀어진 가족·친척문제의 근본적이고 제

도적인 해결방도에 합의하지는 귀하의 입장에 동감을 표시한다”고 밝혀 금강산 면회소 설치에 합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여기에 북측이 지난 회담 동안 금강산 면회소 우선 설치를 주장하면서도 “앞으로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거기에도 면회소를 설치하는 게 합리적”이란 의견을 보여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이 경의선 철도의 연내 연결 및 내년 봄 도로개통에 합의한 만큼 경의선 연결지점에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서신교환·생사확인=상설 면회소가 설치돼 남북 이산가족간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생사와 주소 확인, 서신교환 등을 통한 상봉의사 확인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고려자 중심으로 수천명의 생사 및 주소확인 등을 제의할 생각이다.

서신교환은 지난 3차 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작년 3월15일 남북 각각 300명을 대상으로 편지와 1~2매의 사진을 동반한 서신을 교환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이들 300명간의 답신 교환을 포함, 서신교환 규모를 늘리고 정례화하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쪽에도 면회소 서나

■ 적십자회담 전망

'1개나, 2개나.' 이번 4차 남북적십자회담의 핵심 의제는 '이산가족 면회소 갖추'다. 이미 남북은 금강산에 면회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의 합의했다.

문제는 실제로 금강산 면회소를 가동하는 일과 더불어 도라산역에 면회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총재徐英勳)에서 북측 금강산 면회소 운영 방안을 아니라

금강산 면회소 합의상태
도라산역 설치 집중논의

밤에 부서운 꿈을 꾸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동담조로 얘기하며 이번 회담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회담장 주변이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아 회담의 원활한 진행에 대해 위구심을 높기도 했다.

현장 도로의 교량 등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데다 금강산과 서 울을 잇는 유선통신시설

은 현재 불

은 현재 불

사실은 가동되고 있다고 전해 왔다.

남측 대표단은 대체수단으로 멀티미디어 위성통신 이동 서비스인 '인망넷' 3대, 위성전화 6대 등을 이용해 남북간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

● 박희삼기자
youngtan@kdaily.com

면회소 설치만 합의하면 이산가족 수시 상봉은 물론 생사 및 주소 확인, 서신 교환 등 남은 과제들이 모두 일사천리(一擧千里)로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남북이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남북은 면회소 설치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도라산역과 금강산을 면회소의 적재적소로 각각 주장해 왔다.

서 총재는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 한담장에 중립모를 쓰고 나타나 "간

北에 월 2회 이산가족 상봉 제의

어제부터 남북 적십자회담 면회소 설치 등 제도화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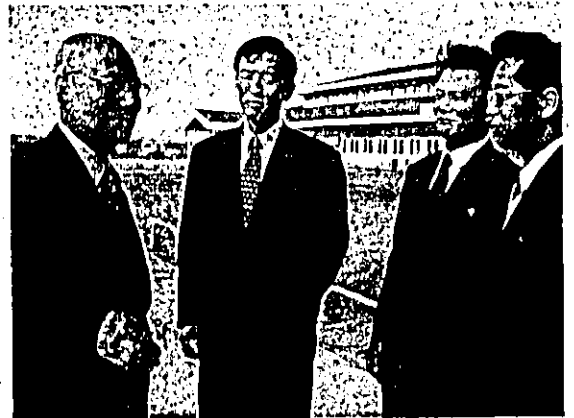
남북은 6일 오후 금강산여관에서 제4차 적십자회담을 열어 면회소 설치 등 비롯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남측 적십자사 총재금이 처음으로 참가하는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도라산역과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 월 2회 만남을 제의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서영훈 한직총재는 출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강산에 면회소를 설치하니까 남측에도 하나 있어야 한다"면서 "경의선 연결지점인 도라산역에 면회소 설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총재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규모가 만나기는 어려운 만큼 월 2회 정도 만남을 제안할 것"이라며 "상봉이 이뤄진 이산가족은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서신교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측은 그동안 금강산에 면회소



남북적십자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금강산 공전함에 도착한 서영훈 한직총재(왼쪽)가 6일 오후 북측 적십자회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통취재단

를 지어달라고 남측에 요청했다"면서 "금강산에 관공을 설치 새로 지을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은 당초 4일부터 일주일

장이었으나 태풍 루사로 인해 현지 도로와 교각, 통신시설에 피해가 발생해 북측 요청으로 이틀 연기됐다.

금강산=공통취재단

서울경제

南, 월2회 이산상봉제안
남북적십자회담

남측 대한적십자사는 6일부터 금강산에서 시작되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해 월 2회 정도 상봉행사를 갖자고 북측 조선적십자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남측 수석대표인 서영훈 한직 총재는 이날 금강산으로 향하는 출발선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규모가 만나기는 어려운 만큼 월 2회 정도 만남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매일

도라산역 면회소 설치
월2회 이산상봉 추진
서영훈총재 北에 제의키로

정부는 금강산과 도라산역 등 두 곳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해 한 달에 두 차례씩 번갈아가며 상봉행사를 갖는 안을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북측도 면회소 설치 원칙에는 사실상 합의한 상태에서 금강산면회소 연내 설치에 의견이 모아질지 주목된다.

6~8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리는 4차 남북적십자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6

일 "금강산에서 한번 하면 남측에서도 한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의선의 남측 연결역인 도라산역 면회소 설치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직측은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 ▲5차 이산가족 상봉 일정을 확정 짓고 ▲고령자 중심 수천명 생사·주소 확인 ▲이산가족 서신교환 등을 제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남측 대표 5명과 수행원 17명 등 32명의 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 철경호면으로 속초항을 출발해 오후 3시 회담장 검속소인 금강산여관에 도착, 북측 대표단과 만남을 가졌다.

● 금강산공통취재단·박희삼기자
youngtan@kdaily.com

한겨레

2002. 9. 7(토)

월2회 면회소상봉 제안

한적 총재 회견...남북, 금강산서 적십자회담 시작

대한적십자사(한적)는 6~8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한달에 두차례 남짓 면회소 상봉 행사를 하자고 북쪽 조선적십자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4면

남쪽 수석대표인 서영훈 한적 총재는 6일 금강산으로 향하는 실봉호 선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부터 너무 많은 규모가 만나기는 어려운만큼 월 2회 남짓 만남을 제안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서 총재는 특히 "금강산에 면회소를 설치하니까 남쪽에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경의선 연결 지점인 도리산역에도 면회소 설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쪽이 그동안 금강산에 면

회소를 지어달라고 남쪽에 요청해왔다"며 "금강산여관을 (그대로) 쓰지 새로 지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쪽도 면회소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첫 (적십자) 총재회담을 제안한 것 같다"며 "면회소 심사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서 총재를 비롯한 대표 5명과 진행요원 17명, 취재진 10명 등 남쪽대표단 32명은 이날 오후 금강산에 도착해 장재언 북적 중앙위원장이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남북은 7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4차 적십자회담 첫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금강산/공동취재단 nomad@hani.co.kr



금강산-시정공동취재단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오른쪽)가 6일 오후 금강산여관 환영만찬에서 장재언 북한 조선적십자회 위원장과 건배하고 있다.

南 "월 2회 면회소 상봉 제안"

남북적십자회담 시작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6일 "(금강산에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가 설치되면) 월 2회 정도 만남을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A5면에 관련기사

6~8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의 수석대표인 서 총재는 금강산으로 향하는 실봉호 선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 총재는 "금강산에 면회소를 설치하니까 남쪽에도 (면회소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경의선 연결지점인 도리산역에도 면회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남측대표단 32명은 이날 북한 장전항에 도착, 북측이 마련한 환영만찬에 참가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한국일보

2002. 9. 7(토)

도리산역 이산면회소 北에 제의

■ 南北적십자회담 개막.

금강산면회소는 의견 접근

남북은 6일 금강산 여관에서 개막한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 지역에 상설 이산가족 면회소를 개설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남측 지역인 경의선 도리산역에 추가로

면회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금강산 면회소는 북측이 먼저 제안해 온 만큼 이견이 없었다"면서 "금강산여관 측은 장전항 인근 보세구역(CIQ) 건물을 보수하거나, 온정각 앞에 새로 건물을 세우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측은 이와 함께 도리산역 측은 동해선상의 남측 지역에 상설면회소를 설치, 운영하고 상봉이 이뤄진 이산가족들이 1년에 한 차례 이상 서신을 교환할 것을 북측에 제안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면회소를 설치하더라도 최소한 월 2회 이상

상봉행사를 가져야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실봉호 편으로 금강산에 도착한 남측 대표단은 북측 수석대표인 장재언(張在彦)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한 뒤 북측과 실무접촉을 통해 의견을 조율했다. 남북은 8일 면회소 설치,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 방안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동준기자 dilee@hk.co.kr

南 “도라산에도 면회소” 제의

• 남북적십자 회담 전망

6~8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적십자회담 사상 처음으로 남북의 적십자사 총재급이 테이블에 마주앉는 만큼 어느 때보다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연내 상설면회소 설치 ▲생사 및 주소확인 확대 ▲서신교환 등이다. 남북은 특히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면회소 설치 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터여서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남측 수석대표인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출발에 앞서 "제도를 위해 (연내) 면회소가 설치돼야 하는 데 남북간에 합의가 있는 걸로 안다"면서 "북측도 면회소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첫 총재급 회담을 제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제도적해결' 초점 생사·주소확인 확대도 관심 총재급 머리맞대 성과기대

그동안 쟁점이던 면회소 설치장소와 관련, 남측은 북측이 요구했던 금강산 면회소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경의선 도라산역에 추가로 면회소를 설치하지고 제안할 방침이다.

서총재는 "금강산에 면회소를 설치하니까 남측에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경의선 연결지점인 도라산역 등에도 면회소 설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 규모 확대도 회담의 주의제라고 밝히고 있다. 면회소의 정

남북적십자회담 의제

| | |
|-----------------------|---------|
| 금강산의 도라산 추가 상설면회소 설치 | 금강산 |
| 연 2회 이상 정례회 및 서신교환 횟수 | 이정 |
| 규모(내국·해외) | 생사·주소확인 |
| 연 1회 이상 | 서신교환 |
| | 이정 |

상운영을 위해선 반드시 선결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외하게 면회소 설치 후 이산상봉의 횟수 및 서신교환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총재는 "생사확인 이후 상봉이 점례화돼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참가하지 못한다면 한 달에 두어번이라도 남북의 이산가족이 가급적 만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상봉이 이뤄진 이산가족은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서신교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측은 우선 이행가능성이 높은 '연내 상설면회소 설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선 면회소 설치에 주력하고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의견만 개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협상 전략은 '연내 면회소 설치 적십자회담에서 합의-재부시향 추후 실무협의-면회소 설치 이전까지 한시적인 이산가족 상봉' 순이 될 것 같다.

금강산에서 이뤄질 제5차 이산가족 상봉 일정은 '추석전'(9·21)이라는 남북경제협력 추진위 2차회의 합의에 따라 쉽게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북이 '이산가족 제도적 해결' 원칙에 이미 합의한데다 최근 북측의 전향적 자세를 감안할 때 이번 회담에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이 비전향 장기수 추가 송환 문제를 재론하거나, 남측이 이에 맞서 남북자·국군포로 문제를 거론한다면 회담이 의외로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서영훈 한국적십자사 총재(오른쪽)와 장재연 북적 대표가 6일 저녁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북측 초청민찬에 참석, 건배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世界日報

2002. 9. 7(토)

南 “月2회 면회소상봉 갖자”

금강산 직십자회담서 제의

6~8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 4차 남북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은 금강산에 면회소를 설치, 월 2회 상봉행사를 갖자고 북측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수석대표인 서영훈(徐英勳) 한적 총재는 6일 “면회소 설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가 관건”이라며 “처음부터 너무 많은 규모가 만나기

는 어려운 만큼 월 2회 정도 만남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은 또 북측이 주장하는 금강산면회소 외에 남측 경의선 연결지점인 도라산역에도 면회소를 설치할 것을 재의기로 했다.

한편 서 총재를 비롯한 회담대표 5명과 취재진 10명 등 32명은 이날 오후 금강산에 도착, 7일부터 본격적인 회담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대한매일

2002. 9. 7(토)

“금강산-도라산역에 이산 면회소 추진”

서영훈 韓赤총재

사상 처음으로 남북 직십자단체의 책임자들이 직접 회담태이블에 앉은 제4차 직십자회담(6~8일)의 최대 관심사는 상설면회소 설치문제다. 1975년 10월 남북 직십자 실무접촉에서 처음으로 논의한 이후 직십자회담이 열릴 때마다 주요 안건으로 다뤄져왔지만, 아직까지 실행력을 찾지 못한 난제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우선 지난달 29일 잠재인 북측 직십자위원장이 “면회소 설치 등 흠어진 가족 친척문제의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방도에 합의하는 귀히의 입장에 동감을 표시한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측은 또 여러 차례 “금강산에 면회소를 갖자”고 재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면회소 설치에 중요한 이유는 이산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 지금까지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남북이

합의해 각각 100명씩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는 방법도 있으나 ‘이벤트식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북측이 1차 직십자회담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시한 금강산 상설 면회소를 먼저 설치하고, 이어 생사 및 주소확인을 확대하면서 주소확인자첩 대상으로 서신교환을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판문점 남측 지역에 면회소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남측 수석대표인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6일 금강산으로 가는 배에서 “금강산에 면회소를 설치하니까 남측에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경의선 연결지점인 도라산역에도 면회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남측 면회소 설치에 의욕을 보였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성통기자사 esori@donga.com

“수해 아프지만 北딸 만나야죠”

13일 이산상봉 수해인들

가슴에 못이든 딸을 만날 생각을 하면 수해(水害)의 아픔도 견딜 만합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제5차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에서 큰딸 최순옥(71)씨를 만나는 최승규(83·여·강원도 강릉시 지면동)씨는 지난달 30일 뚝난리를 당해 강릉시 교동동의 둘째 아들 집으로 피신했다.

최씨가 사는 지면동 아파트 일대 주민들은

근처 죽한저수지가 뚫어남 물로 붕괴 위험에 직면하고 식수와 전기마저 끊기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한다. 큰며느리 김구경(64)씨는 6일 “어제 저녁에 전기는 들어왔지만 아파트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고, 수돗물에서 기름이 뜬 흙물만 나온다.”고 말했다.

그래도 아흔이 넘은 최씨는 “순옥이를 만나면 육번지를 선물할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최씨는 농사를 지으며 힘들게 5남

매를 키웠으나 아직까지 지방에 의지하지 않고 곁에다닐 정도로 정정하다.

최씨는 6·25에 강릉여고 졸업반이었던 큰 딸이 어느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난리통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여기고 체념했다고 한다.

50년 세월을 훌쩍 뛰어 넘은 큰딸의 얼굴을 기억하느라고 혼자 ‘애미’를 샀는데 당면하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TV에서 이산가족 상봉 장면만 나오면 눈물을 생각하며 눈물짓던 큰아들이 지난해 전폐증으로 눈을 감은 것이 원통하다.”며 혼자된 며느리 김씨의 두 손을 꼭 쥐었다.

강릉 연곡면에서 농사를 짓는 김준래(金俊來·73)씨도 이번 수해로 눈이 멀어 잠기고 집이 파손됐지만 큰딸 황래(恒來·78)씨를 만날 생각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큰딸은 6·25에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

김씨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어 명절 때마다 밥을 차려놓고 행을 기다렸다.”면서 “10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고 울먹였다. 그는 엄청난 수해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행과 헤어진 지난 세월을 생각하며 위안을 삼고 있다.”며 날짜를 곱했다.

●강릉 구곡동 윤향수기자 seo0k@daily.com

문화일보 2002. 9. 7(토)

이산상봉 매달 정례화 접근

남북직십자회담 첫 회의

면회소 1~2곳 연내 설치도

연내에 1~2개의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가 설치되고 월 1회 정도의 정기적인 상봉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합은 7일 오전 금강산에서 열린 제4차 남북직십자회담 첫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원칙에 대해적인 합의를 이루고 오후부터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이 들어갔다. 이날 회담에서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지점에 각 1개씩의 면회소를 설치하고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들이 한달에 두번 정도 상봉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도 면회소 설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어서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의 한 회담 관계자는 이날 3차까지의 회담을 통해 면회소 설치에는 원칙적 합의가 돼 있다”며 “이번 회담은 북측이 총재급으로 격을 올리자고 제의해 열린 만큼 거래 앞에 선봉을 내놓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면회소 설치 장소로 서쪽

에서는 경의선의 남측 연결지점인 도라산역을, 동쪽에서는 금강산 혹은 11월 말 임시 개통될 동해선 도로의 ‘편리한 지점’을 거론하고 있으며 북측은 그동안 임시 상봉소 역할을 해 온 금강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수석대표인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6일 금강산으로 향하는 실행호 선상에서 “북측이 금강산에 면회소를 지어달라고 남측에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면회 횟수도 남측은 월 2회를 겨

우 이상의 생사 및 주소확인이 어려운 만큼 실제 면회상봉단의 규모나 상봉 횟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면회소 설치와 함께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생사확인이다. 대규모 상봉이 어려운 만큼 11만여명(남측)에 달하는 상봉신청자들이 우선 생사확인을 거쳐 서신교환이라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서 총재는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전면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북측이 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오후 금강산에 도착한 대표단은 수해를 입은 금강산 지역의 피해 복구가 늦어져 북측 금강산 여관 대신 현대이산이 운영하는 해금강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또 금강산 현지와 서울·평양을 각각 연결하는 통신선이 끊겨 회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중호기자 ichan@unhwa.co.kr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산면회소 2곳 설치

금강산 6개월내 우선 준공...6·25행불자 생사확인

남북 적십자회담 6개항 합의

서부지역 면회소는 경의선 완공후 확정 5차 이산상봉단 교환 13~18일 갖기로

남북은 이산가족 면회소를 금강산 지역에 남북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6·25 전쟁 당시 행방자들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남한 대한적십자사와 북한 조선적십

자회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북한 금강산 지역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제4차 적십자회담을 마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항의 합의서를 발표했다.
/ 관련기사 3면

남측 수석대표인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금강산 면회소 설치 시한을 내년 3~4월로 못박으려 했지만 안됐다"면서 "하지만 실무접촉을 10월 중순쯤 하고 11월에 착공하면 6개월 이내에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또 금강산 면회소 완공 후 면회소를 정례화하고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서부지역에도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확정하기로 했다.

당초 남측은 경의선 남측구간 최북단인 도라산역에 면회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번에는 장소문제를 완전히 매듭짓지 않았다.

금강산 지역에 면회소를 개설하는 문제와 관련해 남측은 자재와 장비류, 북측은 공사인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착공일자는 지질조사와 설계 등 선행 공정을 빨리 진척시키고 필요한 자재 등을 확보한 뒤 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6·25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생사 확인 문제도 협의·해결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이산가족 생사 및 주소 확인과 서신교환을 확대하되 구체적인 규모나 방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면회소 설치운영과 첫 면회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10월 중순 금강산에서 가질 예정이다.

남북은 5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행사를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편으로 북한 장전항을 출발, 속초로 귀환했다.

금강산 / 공동취재단·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중앙일보

2002. 9. 9(월)

6·25 行不者 생사 확인

南北적십자 합의 금강산 면회소 우선 설치

남북한 적십자사는 8일 이산가족 면회소를 먼저 금강산지역에 남북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서쪽에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확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하나로 6·25전쟁 당시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북한 금강산지역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남측 수석대표인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행방자 생사·주소

확인문제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지시라며 북측이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6·25전쟁중 남북자는 7천34명이며 국군포로는 1만9백여명으로 이중 생사가 확인된 사람은 남북자가 3백37명, 국군포로가 3백43명이다.

금강산지역에 설치하는 면회소의 경우 자재와 장비는 남측이, 공사인력은 북측이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착공일자는 지질조사와 설계 등 선행 공정을 진행시킨 뒤 추후에 정하며 착공식은 남북이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徐총재는 이와 관련, "오는 11월에 착공하면 내년 3~4월까지 준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을 계속 확대하되 구체적인 규모나 방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으며, 면회소 설치·운영과 첫 면회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쯤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제5차 이산가족 상봉단(1백명씩)교환 행사를 오는 13~18일 금강산에서 두 차례 열기로 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편으로 장전항을 출발, 속초로 돌아왔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고수석 기자

<sskom@joongang.co.kr>

6·25행불자 생사확인 합의

금강산에 이산면회소... 서부지역 1곳 협의

남·북 적십자회담 6개항 발표

남북은 8일 이산가족 면회소를 금강산 지역에 공동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6·25전쟁 당시 소식이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 확인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徐英勳)와 북한 조선적십자화 중앙위(위원장 張在彦)는 6~8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같은 내용과 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등 모두 6개항에 합의했다.

남북은 특히 합의서에 6·25전쟁 행불자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으로써 국군포로와 남북자 문제와 관련, 주목된다. 서영훈 총재는 "행불자 생사·주소

확인 문제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지시라며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것" 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남북한은 그러나 면회소 설치, 전쟁행불자 생사확인 등을 이행하는 구체적 일정에 합의하지 않아 이행 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회담을 마치고 이날 오후 속초항으로 돌아온 서 총재는 면회소 설치와 관련, "오는 10월 중순 남북간에 실무접촉을 하고 나서 11월에 착공하면 내년 3~4월까지의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 과정에서 내년 3~4월까지의 준공한다고 못박으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됐다."고 설명했다.

서 총재는 이어 "면회소 설치나 상봉

정례회라는 용어를 이번에 남북이 합의했다."면서 "실향사민(이산가족 등) 문제를 합의한 것은 전에 없던 것으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금강산 면회소 설치와 함께 서부지역에도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확정하기로 했다.

이는 남측이 선(先) 금강산 면회소-후(後) 도라산역 면회소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측이 발표한 합의서는 '확정'이라는 표현이 없이 '합의'하기로만 명기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남북은 또 면회 정례회는 금강산 면회소 완공 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금강산 지역에 설치하는 면회소의 경우 자재와 장비는 남측이, 공사인력은 북측이 제공하기로 했으며 지질조사와 설계 등

선행 공정을 따라 착공일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을 계속 확대하되 규모나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고, 면회소 설치 운영과 첫 면회 시기를 논의하기 위해 10월 중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북측은 남측의 서신교환 확대 제안에 대해 남북 주민 모두의 서신교환이 이뤄질 때까지 유보하자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오는 13~18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금강산에서 5차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금강산관광선 실봉호를 타고 장전항을 출발, 속초로 귀환했다.

●박희삼기자·금강산 공동취재단

국민일보

금강산면회소 설치 합의

적십자 회담- 13-18일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적십자사는 8일 이산가족 면회소를 우선 금강산 지역에 남북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서부지역에도 면회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확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전쟁으로 소식이 끊긴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6일부터 서울 동인 금강산여관에서 제4차 적십자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개항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양측은 금강산 지역 면회소 설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했으나 착공 일자는 지질조사와 설계 등 선행 공정을 빨리 진척시키고 필요한

자재들을 선행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정하고, 착공식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금강산 지역 면회소 완공 후에는 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강산 지역 면회소 설치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는 남측이, 공사 인력은 북측이 제공하며, 면회소 설치 운영 등 협의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 이행하기 위해 내달 중순 실무접촉을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 100명씩을 대상으로 한 제 5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행사를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남북은 이와 함께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며,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북측은 그러나 합의문 중에 서부지역 면회소 설치와 관련한 '확정'과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관련한 '확대' 표현을 삭제한 문서를 발표해 남북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남측 대표단은 오후에 금강산 관광선 실봉호를 타고 장전항을 떠나 속초로 귀환했다.

·신청호기자 proc01@kmib.co.kr

6·25行不者 생사확인 합의

南北적십자회담 폐막 금강산면회소 설치키로

서부지역 면회소는 경의선 연결후 논의 5차이산가족 상봉 13~18일 금강산서

남북은 8일 끝난 제4차 적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 면회소를 금강산에 설치키로 합의하고 6·25전쟁 당시 행방불명자의 생사주소 확

인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장재언(張在彦) 북한 적십자회중앙회 위원장은 6일부터 3일 동안 금강산 여관에서 제4차 적십자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6개항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3-21면)

남북은 특히 합의서에 '6·25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 및 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키로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국군포로와 남북자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했다.

국군포로 문제는 미래연합 박근혜(朴根惠) 대표가 지난 5월 방북 당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언급한 것으로,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김정일(金正日)의 지시'라며 먼저 의제로 제시했다.

양측은 또 금강산 면회소와는 별도로 서부지역에도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후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키로 하고 이를 위

한 실무접촉을 10월중 갖기로 했다.

금강산 면회소는 남측이 자재와 장비, 북측이 공사인력을 제공하며 착공일자는 지질조사와 설계 등 선행 공정과 필요한 자재를 확보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서영훈 총재는 이날 오후 속초항으로 귀환하면서 "10월 중순 남북간 실무접촉을 하고 나서 11월에 착공하면 내년 3,4월까지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총재는 "회담 과정에서 준공 시기를 못박으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됐다"며 "북측에서 지질조사·설계 등을 하자고 해 늦게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가졌으나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준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은 5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행사는 13~18일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서울경제

금강산 면회소 공동운영

南北赤, 6개항 합의 13~18일 이산상봉

남북한 적십자사는 8일 이산가족 면회소협 우선 동부 지역인 금강산 인근에 남북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면회소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6·25동란 당시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6일부터 3일 동안 북한 금강산 지역의 금강산여관에서 제4차 적십자

회담을 열고 6개항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4면

금강산 지역에 설치하는 면회소의 경우 자재와 장비는 남측이, 공사인력은 북측이 제공하기로 했으며 착공일자는 지질조사와 설계 등 선행공정을 빨리 진척시키고 필요한 자재들을 선행·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한 면회소 설치 운영과 첫 면회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순께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남북은 동부 지역 금강산 면회소와 별도로 서부 지역에도 경의선 철도-도

로가 연결되면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 확정하기로 했다. 서부 지역 면회소 후보지로 경의선 남측 종단역인 도라산역 등이 검토되고 있다. 양측은 또 5차 이산가족상봉단 교환 행사를 13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 지역에서 갖기로 했다.

이산가족 생사확인회 서신교환도 앞으로 확대 추진하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앞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금강산 관광선인·설봉호편으로 장진항을 떠나 속초로 귀환할 예정이다.

/이성훈기자 shlee@sed.co.kr

6·25 行不者 생사확인 합의

南北, 금강산면회소 공동 운영키로

서부지역 면회소는 京義線연결후 논의
적십자회담 발표... 5차상봉 13~18일에
2만6000여 국군포로·납북자 해결 계기

남북한 적십자사는 8일 금강산에서 제4차 적십자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면회소를 금강산 지역에 공동 설치·운영하고, 적십자사 차원에서 6·25전쟁 당시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 및 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 회담을 벌인 양측은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항의 합의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A3면

회의 후 남측 회담대표인 서영운(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행방불명자의 생사 확인문제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지시라며 북측이 먼저 의제로 꺼냈다"고 말했다. 회담에 배석했던 남측 관계자는 "북측은 행방불명자 6·25전쟁 당시 군인이거나 민간인으로 행방 불명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해 6·25 당시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을 상징하고 협의할 진행했음을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단 한 명도 없고, 6·25 당시의

거 인북한 장병과 민간인만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6·25전쟁 중 민간인 납북자는 7034명, 국군포로는 1만9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생사가 확인된 납북자는 337명, 국군포로는 343명이다. 양측은 '행방불명자'의 구체적인 대상이나 생사·주소 확인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합의서 내용의 실천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들이다.

양측이 발표한 합의서는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운영한다 ▲앞으로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서부 지역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확정한다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 확인문제를 협의·해결한다 ▲제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각기 100명씩 9월 13~18일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照天기자 hecho@chosun.com /공동취재단

朝鮮日報

2002. 9. 9(월)

東亞日報

2002. 9. 9(월)

6·25行不者 생사확인 합의

남북赤, 금강산에 상설면회소 설치키로

서부지역 면회소는 경의선 연결후 협의

남북은 8일 금강산에서 제4차 적십자회담을 갖고 '6·25전쟁 당시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 및 주소확인 문제를 협의해 해결키로 합의했다. ▶A3면에 관련기사

이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생사 확인에 관한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 존재 자체를 부인해 온 국군포로 문제 등을 적십자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전쟁 중 북한군에 끌리긴 납북자는 7034명, 국군포로는 1만9000여명이며 이 중 생사가 확인된 납북자는 337명, 국군포로는 343명이다.

남북은 또 북측의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설치하는 데 합의하고 남측 서부지역의 면회소도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다시 협의하고 확정키로 해 사실상 두 곳의 면회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서영운(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정재연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은 이날 3일간의 회담을 마무리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면회소 설치에 합의했지만 정례적인 상봉은 금강산 지역 면회소가 완공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가까운 시일 내의 실천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산 지역 면회소는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하되 자재와 장비는 남측이, 공사인력은 북측이 제공키로 했다.

남북은 면회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 금강산에서 실무 접촉을 갖기로 했다. 남북은 이와 함께 당초 예정대로 추석 직전인 13~18일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금강산 면회소 공동설치·운영

면회 정례화

남북 적십자사 합의

경의선 연결뒤 추가설치

6·25 행불자 생사 확인

남북 적십자사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금강산 지역에 남북이 함께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면회 시기는 면회소가 완공된 뒤부터 정례화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서부지역에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확정(북쪽은 '합의'라고만 표현)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지난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남북은 6일부터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4차 적십자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모두 6개항의 합의사항이 담긴 '합의서'를 주고받고 8일 발표했다. 남북은 '면회소 설치·운영 등 이번 회담의 합의사항을 이룬 시일 안에 이행해 나가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다음달 중순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

금강산에 설치할 면회소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건설하며, 자재와 장비는 남쪽이, 공사 인력은 북쪽이 제공하기로 했다. 또 면회소 건설 착공 날짜는 지질조사·설계 등 선행 공정을 빨리 진척시켜 필요한 자재들을 앞당겨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정하

기로 했다. 착공식은 남북이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서신 교환 사업을 계속 확대·추진(북쪽은 '추진'이라고만 표현)해 나가며, 규모·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앞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남쪽은 8일 실무대표 접촉 등에서 금강산 면회소 완공 전이라도 기존 시설을 이용해 면회할 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쪽이 난색을 표시해 면회 시기는 뒤로 미뤄졌다. 남쪽 수석대표인 서영훈·대한적십자사 총재는 "행불자 생사·주소 확인 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라며 북쪽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관영 <중앙방송>은 이날 회담 소식을 전하며 "우리(북)측 단장은 면회소 설치 문제,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 교환 정례화 문제,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 조국해방전쟁 시기 행불자 생사확인 문제, 제5차 흡어진 가족 친척 상봉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남북은 또 5차 이산가족 상봉은 쌍방 100명씩으로 해서 13~18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실무접촉 문제는 4차 상봉의 전례를 따르기로 했다. 남쪽 대표단은 이날 오후 금강산 관광선 설봉초 편으로 장전항을 출발해 속초로 돌아왔다.

이재훈 기자, 금강산/공동취재단 nomad@hani.co.kr

매일경제

2002. 9. 9(월)

금강산 면회소 합의

남북적십자 회담...6·25 행불자 생사확인도

금강산=공동취재단

남북 적십자사는 8일 이산가족 면회소를 금강산 지역에 공동 설치해 운영하고 6·25전쟁 당시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와 주소 확인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6일부터 서울 동안 북한 금강산 지역 금강산여관에서 제4차 적십자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항에 합의했다.

남북은 그러나 서부지역에도 면회소를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협의·확정

하기로 미뤘다. ▶관련기사 5면
금강산지역에 설치하는 면회소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는 남쪽이, 공사 인력은 북쪽이 제공하기로 했다. 착공일자는 선행 공정 이후 필요한 자재조달 방안 등을 협의한 뒤 정하기로 했다.

또 면회소 설치 운영과 첫 면회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중순께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기로 했다.

6·25전쟁 행불자 문안과 관련해 남측 수석대표인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행불자 생사·주소 확인 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라며 북쪽이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금강산에 상설면회소 설치

6·25行不者 생사 확인키로

한국일보

2002. 9. 9(월)

■ 南北 적십자회담 6개항 합의

경의선 연결후 서부 면회소설치 협의

이산가족 생사확인·서신교환도 확대

남북은 8일 상설 이산가족 면회소를 금강산에 설치·운영하고, 1950~53년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생사 및 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북 적십자사는 6일부터 이날까지 금강산 여관에서 열린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개항의 합의서를 교환,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구체적 이행시기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실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산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북측이 처음으로 한국전쟁 행방불명자 문제의 해결 의지를 보임으로써 국군포로와 납북인사의 생사 및 주소 확인을 위한 길이 열렸다.

★관련기사 3면

남북은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도리산역 등 서쪽에도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확정키로 했다. 남북은 10월 중순 실무접촉을 갖고 금강산 면회소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하며, 자재와 장비는 남측이, 공사인력은 북측이 제공키로 했다.

~18일 금강산에서 순차적으로 갖기로 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합의서 문안 협상을 계속했으나, 북측이 면회소 설치 전에도 기존 시설을 이용해 상봉을 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난색을 표시하는 바람에 최종 전체회의가 3시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남측 대표단은 금강산 관광선 실봉호 편으로 귀환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동준기자 dilee@hk.co.kr

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내용

- 금강산 면회소 설치·운영
남측 자재제공, 북측 인력제공
10월 중순 관련 실무접촉
면회소 완공 후 이산가족 면회 정례회
- 서부지역 면회소 설치
경의선 연결 후 협의 확정
-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 확대방안 지속적 협의
- 한국전쟁 행방 불명자 문제
생사·주소 확인 사업 협의
- 5차 이산가족 상봉
9월13~18일 금강산에서 진행

한겨레

2002. 9. 9(월)

'이산'해법 제도적 틀 마련

■ 남북 면회소 설치 의미
구체상봉일정 마련 과제로
'6·25행불자 확인' 합의로
국군포로 논의 길 열어

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에 면회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 것은 남북이 뒤늦게나마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제도화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할 만하다. 사실 면회소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6월 27~30일 1차 적십자회담에서 그 설치·운영에 원론적 합의를 했으나 2년 2개월여 만에 결실을 본 셈이다.

면회소란 정기적 만남을 전제하는 만큼, 분명 생사 확인, 서신 교환의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산가족들의 정기적 만남이 실현된다면, 분단 반세기 넘게 재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남북의 접근법은 질적으로 다른 단계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회담에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이후 서부지역에 면회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도 협의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남북은 한반도 동쪽과 서쪽이 풀류와 인적 만남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물론 이번 합의내용이 이행돼 현실이 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과정들이 적지 않다. 우선 면회소 완공일과 첫



8일 북한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서양문 남북 수석대표(오른쪽)와 북측 장재연 단장이 면회소 설치 및 면회 정례회를 배대로 한 합의서를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금강산·시진공동취재단

면회소 상봉 일정이 적시되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다음달 중순에 열기로 한 금강산 실무접촉의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 전망이 가능할 듯하다.

남북은 회담 수석대표인 서양문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6일 '면회소 생사 문제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힌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주 만나는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북측은 면회소 설치·운영에만 동의했을 뿐, 5차 상봉 이후 추가 만남에 대해선 확실한 답을 피했다. 이는 의지 부족 탓도 있지만, 1~4차 상봉 행사에서 드러났듯이 북측이 이산가족 문제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엿보게 하

는 대목이다. 북측이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 교환 사업에 대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합의에만, 그것도 남측이 '계속 추진'이라고 표현한 것을 '계속 추진' 수준에서만 동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듯하다.

이밖에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자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하기로 한 것은 이번 회담에서 처음 합의한 내용이다. 남측 회담 대표단과 정부는 이를 북측이 그동안 존재를 인정하지 않던 '국군포로' 문제를 공식화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협의·해결의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離散 제도적 해결 '큰틀'에 만족

· 4차 남북직접회담 결산

제4차 남북 직접회담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국군포로 의 생사·주소확인에 합의,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큰 틀을 마련했다. 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에 합의한 것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전향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면회소 착공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면회소 완공 이전의 상봉 정례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 아쉬움을 남겼다.

면회소 완공전 정례상봉 불발 아쉬움
국군포로 생사확인 실마리 찾아 주목
'구체일정 빠진 합의' 北의지에 달려



남북 직접회담 결과

| 남북 합의 | 북측의정 | 합의 |
|-----------------|--------------|-----------------------|
| 생사면회소 설치 | 금강산 도라산역 설치 | 금강산 우선 설치, 서부지역 설치 협의 |
| 생사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 정례회에 참석 동의 | 금강산면회소 완공후 정례회 |
| 생사확인, 서신교환 | 서신교환 | 규약외 시기 상봉 합의 |
| 남북직접회담 | 이산가족 범주에서 해금 | 생사 확인토록 합의 |
| 이전상 정거수 | 총합의 시간 | 합의서에 포함 안함 |

합의서 교환

8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4차 남북 직접회담에서 서울은 남북 수석대표(오른쪽)와 공작인 북측 대표가 합의서를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금강산/시안공동취재단

남북은 우선 이산가족 면회소를 금강산에 설치, 남북이 공동 운영하고 경의선 철도·도로 완공 후 추가로 서부지역에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확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일련성 이벤트로 진행했던 이산가족간 상봉을 정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북측이 구두로만 약속했던 '면회소 설치'를 문서로 합의하고 '6·25 전쟁중 생사확인'을 명시한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길이 열린 것은 회담 성과를 과소평가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국군포로 문제는 북측이 일관되게 존재자제를 부인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사안. 그러나 북측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전쟁중 행방자들의 생사 확인을 지시했다'며 먼저 거론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측 회담장에서는 "북측이 전쟁중

군대에 있거나 민간인으로서 행방불명된 사람이라고 지칭했다"면서 "지난 5월 방북했던 박근혜(朴槿惠) 의원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던 제의를 김 위원장이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큰 원치 않았던 합의점을 구제자인 이종걸을 명시하지 못한 것은 적지 않은 부탄이다. 우선 남북이 설치에 합의한 금강산면회소의 경우 착공일자를 명시하지 못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서영훈(徐英勳)은 "합의는 '상대가 상대인 만큼 다 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실무접촉을 10월 중순 하고 나서 11월에 착공하면 3~4월까지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은 또 "월 2회 이상상봉을 정례화 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면회소 완공 이후 하자"고 미뤄 실제 정례회가 이뤄지기까지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간의 합의서 문구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서부지역 면회소의 경우, 남측 합의서에는 '경의선 완공 후 협의·확정한다'고 명시했지만 북측 합의서에는 '경의선 완공 후 협의한다'고만 명시했다.

공 후 협의한다'고만 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다소 의문을 주고 있다. 또한 남측은 '서신교환 사업을 계속 확대·추진해 나간다'고 발표했으나 북측은 '계속 추진해나간다'고만 명시했다.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은 북측의 이종걸의지에 달려있다"(정부당국자)는 코멘트는 합의서 문구보다 북측의 실현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욱기자 woody@kyunghyang.com

중앙일보

2002. 9. 9(월)

박근혜의원 5월 제의 金위원장이 수용

行不者 확인 합의의 뒷얘기

8일 끝난 남북직접회담에서 북측은 남측에 6·25 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을 전격 제안해 남측을 놀라게 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서영훈(徐英勳) 대한직접자사 총재는 "북측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전쟁 중 행방자들의 생사·주소 확인

을 지시했다면서 먼저 제안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방북한 박근혜(朴槿惠)의원이 제의한 것뿐 金위원장이 수용했다는 것이었다. 북측은 지금까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으나 이번이 이를 인정함으로써 남북 간 화해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한 또 한발을 내디딘 셈이다. 또 북측의 이같은 움직임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의 방북을 앞두고 일본인 납치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적십자회담 결산

남북한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면회 정례회에 합의한 것은 이산가족의 숙원사항 하나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강산 면회소 건설 일정이나 면회 정례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우익이 좁은 주장해 온 서부지역 면회소 설치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는 10월 중순에 갖기로 한 실무접촉 때 북측 태도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면회소 설치=양측이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문에 못박은 것은 그동안 북측의 구두 약속만 있던 부분을 문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금강산 면회소 건설과 관련한 인육 협력 방안을 문서화한 것은 면회소 설치물 기성기에 넣는 성과로 볼 수 있다. 합의문에 지질조사와 설계 등 공정을 빨리 진척시키고 자체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착공일자를 결정, 남북 공동으로 착공식을 갖기로 한 점도 남북간은 의기 진전된 것으로 볼 만하다.

그러나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는 마냥 지연될 수도 있다. 회담을 미치고 귀환한 서영웅 대한적십자사총재는 "금강산면회소를 내년 3~4월 중에 준공하고 합의문에 못박았으나 이

4차 남북적십자회담 주요 합의 내용

- 이산가족 면회소 금강산·성지, 경의선 철도·연립후 추기호 서부지역 설치 합의
- 금강산·면회소·남측 차대·장비·복합·공식인력 제공
- 면회소 건설비용일차 추후 결정
- 면회소 운영·면회 정례회
- 이산가족 생사확인인력·생사확인사업 계속 확대
- 한국전쟁 생사 미확인자 생사 및 주소 확인 문제 합의
- 5차 이산가족 상봉 13~15일 금강산에서 진행

면회소 설치·상봉 정례화 '문서화' 불구 이행 미지수 南 "내년 3-4월 준공 기대"

뤄지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실무접촉에서 오는 11월 착공기로 합의하면 그때쯤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우익측이 주장해 온 서부지역 면회소 설치문제에 합의문에 포함된 점도 북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이

문제를 합의기로 한다고만 되어 상사 가능성은 현재로서 희박하다. 지난달 30일 끝난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 경의선 철도를 연말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지만, 도로에 대해서는 2003년 봄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면회 정례회=이산가족들의 면회를 정례화하는 문제가 합의에서 명문화된 점도 성과로 평가된다. 면회 정례회 시기는 금강산면회소 완공후로 정했다. 그러나 북측은 새로운 면회소 설치 전까지 금강산 지역에서 기존 시설을 이용해 면회를 계속해 나가자는 우익측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외교적 부담으로 느끼는 북측 입장이 여간함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정례 면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우익측이 이미 지난해 1월29~31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3차 적십자회담에서 매주 한 달 100명씩 면회를 정례화할 것을 재의했었던 것에 비해 보면 이번 합의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면회 정례화가 문서화된 의미가 작지 않다"면서 "첫 면회 시기도 다음달 실무접촉에서 최종 합의·결정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971년 남북 적십자회담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총재급이 참석한 이번 회담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김의구기자 egkim@kmb.co.kr

'면회소' 발표내용 미묘한 차이

南 "협의를·확정한다" 北선 "협의를한다"

약반까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는 진함적인 남북 대화의 마지막날 모습은 8일 끝난 양측의 4차 적십자회담에서도 여지없이 벌어졌다.

결국 양측은 합의문도 서로 다르게 발표했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경의선 연결 후 서부지역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우익측은 "협의를·확정한다"고 발표한 데 비해 북측은 "협의를한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생사확인 등에 대해서도 우익측은 "계속 확대·추진"으로 북측은 "계속 추진"으로 발표했다.

이들 두고 안고래도 합의사항 대부분이 추상적인데 서로 쟁점 사항을 다르게 해석할 정도라면 양측 사이에 큰 양극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익측 대변인인 이병중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과 북측 이금철 대표는 오후 2시20분쯤 우익측 공동취재단과 북측 기자들에게 따로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헌신기 뒤 합의문 내용 중 일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중요 대목에 대한 합의문 내용이 다르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현지 관계자뿐 아니라 통일부 관계자들은 비딱 긴장했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오후 1시30분까지 열리지 않았고 양측은 전날부터 밤샘 협다리를 벌였다. 양측 대표단의 발표를 잠은 것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회 시기와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양측 대표단간에는 한때 교성이 오가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 단장인 정재현 북한적십자사 위원장이 이산가족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선 보안법 등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쪽에 비한 주장을 들고오자 우익측 수석대표인 서영웅 한적 총재가 "보안법이 그동안 이산가족 교류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북소리를 높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익측 관계자는 "첫날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문제점 등이나를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북한 대표단은 회담이 계속되지 실망스러울 정도로 후퇴했다"고 전했다.

신창호기자



서영웅 대한적십자사 총재(오른쪽)와 정재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8일 금강산여관에서 남북적십자 회담을 마치고 회담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김경산=사진공동취재단

6·25 행불자 생사확인 합의

국군포로·남북자 소식 기대 각각 1만9천명·7034명 추산 北 전향적 태도 성사 가능성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을 계기로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끌려간 군인과 민간인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북한측이 존재 자체를 부인해 온 국군포로와 남북 민간인의 생사 및 주소 확인을 우익측이 먼저 제의했고, 양측이 이를 문제 해결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북측은 우익측이 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조국의 품에 스스로 안긴 사람은 있어도 포로는 없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북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위한 만큼 이 문제 해결에 진심호가 커진 셈이다.

북한은 최근 일본과의 적십자회담을 통해서도 그동안 지 길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겨온 일본인 행방불명자들에게 대한 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

북측은 적십자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라면서 "전쟁중 행방불명자들의 생사·주소 확인을 협의·해결하자"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박근혜 의원이 병복했을 때 거론한 문제를 김위원장이

이 수용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합의문에 명시된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의 개념은 우익측에서 볼 때 국군포로와 남북 민간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 북측이 볼 때는 징구 북한군과 탈북자, 민간인 중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익측 회담관계자는 "회담도중 우익측이 북측에 '도대체 행불자가 뭐냐'고 묻자 북측은 '전쟁중에 군대에 있다가 행방불명된 사람과 민간인으로서 행방불명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하고 "그래서 우익측은 국군포로와 실형사민(失形私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중 북한에 끌려간 남북자는 7034명, 국군포로는 1만9000여명이며 이중 337명의 남북자, 343명의 국군포로의 생사는 이미 확인된 상태다.

북측의 이번 제안은 전쟁포로 등을 이산가족 생사확인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00년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본인 회담에 따라 북송된 이후 2차 이산가족 상봉때 남북자 1명과 국군포로 1명, 3차 상봉때 남북자 1명과 국군포로 2명이 각각 남북 가족을 만난 데 이어 4차 상봉때도 남북자 가족 상봉이 이뤄졌다.

남북한이 추가합상을 통해 국군포로와 남북자의 생사 및 주소가 확인될 경우 이들의 집단 이산상봉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신창호기자 procol@kmb.co.kr

이산상봉 확대·제도화 '진일보', 제도화 확대·제도화 '진일보'

▶ 남북적십자회담 성과·문제점

면회소 설치·서신교환등 정태화 틀 마련 이행 날짜 명시안돼 '문서만의 성과' 우려

북한이 8월 27일 1975년 남북 적십자 회담 이후 처음으로 총대금 회담을 갖고 면회소 설치와 서신교환 확대 등에 합의한 것은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인 해결이라 볼 수 있을 만큼 미흡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13~18일 금강산 이산상봉 운영 체제에 고는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인 이행 날짜가 명기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합의서 일부 문구가 불리 또 다 시 '북한의 성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북적인 금강산면회소를 우선 설치하고 서부지역에는 경의선 출도도로 연결 지어져 면회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서부지역 면회소는 앞으로 남북한간 국제적 인 연의가 필요하고 경제 상봉 역시 면회소 설치 이후로 맞춰보지만 한쪽측은 내년 1~2월께 금강산면회소가 준공되면 이산 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새 면회소를 건설할 때까지 금강산 지역의 기존 시설을 이용, 면회소를 계속하자는 남북 제언을 끝내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이는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에 대한 북측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특히 금강산 지역 동을 감안할 때 연세 상반된 이산가족은 남북측이 23일과 24일 도합해 70여만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1세 또는 120여만명, 특히 7세 이상 고령이산자는 3만명 정도도 추산된다. 7월 말 현재 이산상봉을 신청한 사람은 11만 2천3백여명이다. 문제는 고령 이산자들이 1년에 1만명 정도 사망한다는 사실이다.

북한 북측은 합의문 1조 2항에서 "경의선 면회소 후 서부지역 설치 문제를 협의한다"고 밝힌 것이다. "고만 했다. 합의 확정한다"고 밝힌 우리측 합의문과 다르다. 2항 "영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의 확대 부분도 우리측과 달리 북측은 "이를 계속해 나가기로 한다"고만 했다. "고만 했다. 우리의 '서정' 약속이 불행하게 일어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북측은 최근 5차 이산가족 상봉 명단과 편을 하면서도 지난 3·4차 상봉시 후보 명단에 들어간 12명의 명단만 보내와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확대할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북측 관계자를 은 이산가족 상봉 준비가 어렵다는 반응을 토로, 내부적 난관에 위음을 내비쳤다.

우리 정부는 남북 합의에 따라 오는 10월 중순 실무 협상을 열어 면회소 설치 운영에 관한 구체 사항과 첫 면회 일정 확정, 영사·주소 확인 및 서신 교환 규모 시기 등 합의의 실행을 도출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북측의 자세로 볼 때 어느 정도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회담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5·25 전쟁 중 생사불명 수 없는 사립'이라고 명시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공식 제기도 마찬가지로 '문서상 성'으로 끝났는데도 모든다는 우리가 제기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이산문제를 포함 한 한인들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공인되어 있다는 자체가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자세 변화가 주목된다. ● 김수형기자 osyul@daum.com



합의서 교환 및 금강산에서 열린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서정문(왼쪽 오른쪽) 남북 수석대표와 북측 수석대표의 인영이 담겨서 들고 촬영된 뒤 우회하고 있다. ● 금강산 서정문회담취재단

납북자·국군포로 '이산차원' 해결

■ 행불자 생사확인 의미 납북자등 680명 생사확인 北측이 이례적 먼저 제안 비전향수와의 연계 가능성

이번 4차 적십자회담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엿보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이룰 만한 거대한 믿음 같은 가능성을 보이는 대목이다.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3조를 보면 '지난 전쟁 시기 생사불명 수 알려면 자들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 협의'라고 돼 있다. '고 밝혔다. 우회적인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북측에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존재할 부인했던 국군포로 및 납북자를 의 존자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북측은

703명, 국군포로는 1만 9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307명의 납북자, 96명의 국군포로의 생사가 확인된 상태다.

북측 회담 관계자들은 "전쟁 중 사망 위원이 전일 중 행불자들의 생사·주소 확인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의 적십자회담에서도 일련된 행불자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다.

북측이 이러한 전향적으로 나오는 것은 지난 7월 시카고 경제개발의 연료인상에서 생사확인 등에 연인하기보다는 내장 것은 내주며 우선적으로 경자를 제국도 의뢰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또한 북측이 대립했던 전향의 양금을 찾아내고 인도주의적 국가로 대외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현재 남측에 남아 있는 비전향장기수의 2차 송환 문제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복안일 수도 있다. 지난 2001년 9월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북으로 송환됐으나 추가 송환을 요구하는 비전향장기수 30여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결국 북측은 이들을 인도주의적의 상징적사업인 인간적 상봉 방주에 포함시키고 만남을 지속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한 진일보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박희정기자 youyul@daum.com

‘行不者 확인’ 北서 먼저 제안

4차 南北 적십자회담

8일 끝난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은 일단 금강산 상설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진전'으로 평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면회가 이뤄지고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가 꾸준히 이어지면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者)'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그동안 북측이 입에 올리지 못했던 금강산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문제도 해결기로 양측이 뜻을 모은 것은 기대 밖의 성과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전쟁시기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내용

- 1. 금강산 면회소 설치 및 운영
- 2. 1. 김정은 연립시 서부지역 면회소 설치 협회 면회소 완공 후 면회 정례회
- 3. 이산가족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계속 추진
- 4.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형자들에게 대한 생사주소확인문제 협의 및 해결
- 5. 면회소 설치 등 함께 이행 위한 실무접촉, 10월 중금강산에서 개최
- 6. 5차 이산가족 상봉, 각기 100명씩 13~18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
- 7. 생명이 서약하고 교환한 날(19일 8일)부터 일제서 유희 발생

그러나 이산가족 면회소의 착공 및 완공시기를 못박지 못하고, 우리측이 원했던 '면회소 완공 후 면회 정례회'로 결론이 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정일 지시”- 박근혜 訪北제안 수용한듯 이산가족 면회소 공사시기는 확정못해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북측은 군대에 있다가 행방불명된 사람, 민간인으로서는 행방불명된 사람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히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포함된 개념임을 분명히 했다.

이 문제를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것도 의미가 있다. 북측 회담 관계자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께서 전쟁 중 행방불명된 생사·주소 확인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5월 반박한 박근혜(朴槿惠) 의원이 김 위원장과 만나 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 위원장이 "히했다"고 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도 "그동안 이산가족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하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남측 수석대표인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금강산으로 떠나면서 "면회소 공사문제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가 관건"이라며 '월 2회 면회' 실시를 강조했다. 북측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더구나 양측은 이날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경의선 연결시 서부지역 면회소 설치 문제에 대해 남측은 '합의·확정'으로, 북측은 '협의'로만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양측 대표가 합의문에 자립 서명한 만큼 '표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지만, 이날 합의사항의 상당수가 북측의 의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어서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중앙일보

2002. 9. 9(월)

‘국군포로 해결’ 北서 먼저 제안

生死·주소 확인 등 생사 가능성 커 정례적 離散상봉 기틀도 마련

금강산 적십자회담 성과

8일 끝난 4차 남북 적십자회담은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와 함께 국군포로의 생사·주소 확인에도 합의,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의 틀을 마련했다.

그동안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그쳤던 이산가족 상봉이 면회소 설치와 상봉이 정례회담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우선 이산가족 면회소를 동쪽의 금강산지역과 서쪽의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북한 지역에서 이뤄진 '제한된 이산가족 상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물론 서쪽 지역은 앞으로 남북한 간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정례적인 상봉 역시 면회소 개설 이후로 이뤄져 실제 상봉이 이뤄지기까지는 거쳐야 할 단계가 남아 있다.

그러나 면회소 설치 자체가 그동안 북측이 구두(口頭)로만 약속해 오다가 이번에 문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가질 만하다는 게 남측 회담 관계자의 전망이다.

면회소 설치 문제는 1975년 10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논의된 이후 남북 적

십자회담 때마다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가 이번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열매를 맺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달 27~30일 금강산에서 제1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한 후 제3차 회담에 이르기까지 면회소 설치문제를 다뤘으나 남측은 판문점 남측 지역에, 북측은 금강산지역을 고집함에 따라 매번 실패했다.

'6·25전쟁 중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명시된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길이 열린 것도 이번 회담의 큰 성과다.

특히 이 사안은 북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생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일본과의 적십자회담을 통해서도 일본인 행방지에 대한 조사를 약속한 데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일본 총리의 17일 방북을 앞두고 남측에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측이 새로운 면회소를 건설할 때까지 금강산지역의 기존 시설을 이용해 면회를 계속하자는 남측 제안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대목은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가 여전히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고수석 기자
<sskom@joongang.co.kr>

‘국군포로 생사확인’ 뜻밖성과

남북직접지회담 결산

8일 끝난 4차 남북 직접지회담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합의와 함께 진척 기대치 않았던 6·25생방분령지의 생사주소 확인에도 합의하는 등 양회의 소득을 올렸다.

이산가족 상봉과정에서 광의(廣義)의 이산가족으로 다루었던 국군포로나 납북자 가족의 상봉 해법에 새로운 진기가 마련된 셈이다. 북한은 그동안 국군포로나 납북자는 한명도 없고, 6·26전쟁 당시 의기투합한 장병과 민간인만 있다며 논의자체에 불쾌감을 표시해왔다. 하지만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6·25전쟁 시기 생사불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북한

은 우리측이 꺼내지도 않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공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우리측이 오히려 당혹스러웠다는 후문이다.

북측 회담 관계자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전쟁중 행방

주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측은 그동안 납북자나 국군포로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키자고 꾸준히 북측에 요구해왔다. 정무가

상봉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면회소를 동부의 금강산과 서부의 경의선 철도 연결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 북한내에서 만 이뤄지던 제한된 이산가족 상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면회소 설치 문제를 문서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6개 항목에 걸쳐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일정은 다소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라산역 면회소 문제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이후 추후 논의하고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한 금강산 면회소 역시 지질조사와 설계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3,4월에야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측이 금강산 면회소 가동 이전이라도 기존 금강산 시설에서 면회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손사래를 쳤다.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문제의 규모나 시기 등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는데 그쳤다. 우리측이 기대하던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은 여전히 북측의 ‘이행의지’에 매달려 있는 양상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北 “金위원장 지시”... 먼저 제의 이례적 면회소 첫 문서화... 제도적상봉 길터 규모-시기등 구체 이행일정없어 ‘불안’

자들의 생사주소 확인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남북이 이날 ‘행불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리지 않았지만, 남측 대표단측은 “박근혜 의원 방북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군포로로써 언급한 점에서 이산가족 범

파악하고 있는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각각 7034명과 1만90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납북자는 337명, 국군포로는 343명의 생사가 확인됐다.

북한의 의도가 어떠한 의견상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이산가족

이산 문제해결 제도적 틀 마련

■ 4차 南北赤회담 성과

8일 끝난 4차 남북 직접지회담은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와 함께 국군포로의 생사주소 확인에도 합의,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의 큰 걸음 마련했다. 특히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 확대에 합의한 것은 적지않은 성과다.

우선 이산가족 면회소를 동부의 금강산 지역과 서부의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북한 지역에서만 이뤄진 ‘제한된 이산가족 상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물론 서부지역 면회소는 앞으로 남북한간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정례적인 상봉 역시 면회소 개설 이후로 미뤄져 실제 상봉이 이뤄지기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회소 설치’ 자체가 그동안 북측이 구두로만 약속해오다가 이번엔 문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가질 만하다는 게 남측 회담 관계자의 전망이다.

‘6·25 전쟁 중 생사불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명시된 국군포로



제4차 남북 직접지회담 서영훈(오른쪽) 남측 수석대표의 정재인 북측 단장이 3일간의 회담일정 마지막날인 8일 북한 금강산 지역 금강산여관에서 양측 합의서류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금강산=시진공동취재단

의 생사확인의 길이 열린 것도 이번 회담의 큰 성과. 특히 이번 이산인은 북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생사 가능성을 높게 한다. 북측 회담 관계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쟁 중 행방지들의 생사주소 확인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방북한 박근혜 의원이 제의한 것을 김 위원장이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북측이 새로운 면회소를 건설할 때까지 금강산 지역의 기존 시설을 이용해 면회를 계속하

자는 남측 제의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대목은 북측에게는 여전히 이산가족 문제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 양측 모두 이번 회담이 양측 총재가 참가한 회담이리 평가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으나 이산가족 문제가 갖는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이행 일자들을 명시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도 적지않은 부담으로 남는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서울경제

2002. 9. 9(월)

“6·25 行不者 찾아보자”

北, 뜻밖의 先제안

“박근혜 지난 5월 제의
금위원장님 수용한것”

8일 급한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은 남북한 적십자사 총재가 처음으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할 만 뒤, 전쟁시기(6·25 전쟁)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 및 주소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자는 ‘뜻 밖의’ 제안을 해 이 둘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북측 회담 관계자들은 회담장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전쟁 중 행방불명자들의 생사·주소 확인을 지시했다”며 “이는 지난 5월 방북한 박근혜(朴槿惠) 의원이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6·25 당시 행방불명된 군인과 민간인의 생사확인 문제를 김 위원장이 수용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적십자사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남아 있는 민간인 납북자와 국군 포로는 2만6000여명 선이다. 하지만 북측 적십

자사 관계자는 남측 관계자에게 “전쟁 중 행방불명자는 6·25 전쟁 기간에 군대에 있거나 민간인으로 생사불명인 자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전쟁 이후 납북된 어부와 민간인 등은 감안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양측은 또 이들에 대한 주소와 생사확인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에 대해서는 10일 중순 업무 실무접촉으로 넘겨, 그 실행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단계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이다.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우리 측이 제안한 도리산역에 추가적인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나 2회의 정례적인 상봉행사,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을 계속 확대한다는 대목에 대해 남측이 발표한 합의시에는 ‘계속 확대·추진’이라고 되어 있으나, 북측 합의서는 ‘계속 추진’으로만 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曹熙天기자 hcho@chosun.com /공동취재단

상설면회소 설치돼도-

北 전산망 미비... 대규모 상봉 힘들듯

남북이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상설면회소 설치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정례 상봉’이 이뤄질지 미리 짐치는 힘들다.

일단 합의문만으로 보면 정례적인 상봉은 면회소 설치가 완료된 뒤에나 가능하며, 그 시기는 이번 내년 3월이 될 전망이다.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8일 합의문 발표 직후 “면회소 설치 운영문제를 논의하는 실무접촉을 10월 중순에 갖고, 11월에 착공하면 내년 3. 4월에는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이 경의선 연결지점인 도리산역에 설치하고 싶어하는 서부지역 상설면회소는 ‘경의선 완공 후 협의’키로 합의한 만큼 금강산보다 훨씬 늦어질 게 분명하다. 또 면회소가 설치돼도 북측의 행정능력이 문제다.

행정전산망을 갖추지 못한 북측

은 5차 상봉(9월 13~18일, 금강산)의 경우 남측이 신청한 200명 중 103명의 생사불명 확인하는 데도 보름이 걸렸다. 북측이 1년 내내 조사하더라도 이런 상대라면 상봉 규모가 연간 2400여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얘기다.

흔히 1000만명이라고 불리는 이산가족 가운데 한직에 상봉을 신청한 사람은 7월 말 현재 11만8384명. 이 중 2000년 8월 1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이후 상봉가족은 총 4500여명. 한직 관계자는 “면회소가 본격적인 기동여 들어가도 북한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산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남측 이산가족 명단을 통째로 받아 일시에 생사확인작업을 벌이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 한 지속적인 대규모 상봉을 통한 근본적인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힘들다는 얘기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한국경제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남북 적십자회담 합의 6·25 행방불명자 생사확인 협의

남북한은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해 공동운영하기로 했다. 또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된 후에는 이산가족 면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8일 금강산에서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항에 합의하고 2박 3일간의 회담일정을 마무리했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서부지역에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 확정키로 했다. 금강산 면회소는 남측이 자체의 장비로, 북측이 공사인력을 각각 제공해 건설키로 했다. 착공일자는 지체조사나 설계 등 공정을 진척시킨 후 결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6·25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을 계속 확대해 나가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오른쪽)와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8일 금강산에서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을 마친 뒤 협의를 교환하고 있다. /금강산·시진공동취재단

기로 했다. 그러나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남북은 제5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

환을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 지역에서 2박3일씩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남북한이 이번엔 이산가족 면회소

를 설치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산상봉이 정례화, 제도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6·25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은 국군포로 생사 확인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금강산 지역 면회소 착공일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경의선 도리산역 면회소 설치 방안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여서 합의가 어느 정도 성실하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생사 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와 시기 등을 추후 논의키로 한 것도 논란거리다. 이산가족들의 면회가 이뤄지려면 이에 관한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이 작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면회소 상봉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산문제 '제도적 해결' 일단 물꼬 터

■ 南北적십자회담 합의 의미

6~8일 금강산에서 열린 4차 적십자회담은 사상 첫 총재회담에 모인 기대만큼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큰 업적을 쌓았다. 우리측이 1975년부터 제기했던 면회소 설치 문제가 27년 만에 구체적인 운과 잡았고, 북측이 존재자체를 부인했던 국군포로 문제는 한국전쟁 후 처음으로 공식적 제가 됐다. 최대 성과는 휴전선을 경계로 동서 양쪽에 각각 면회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북측에 부수적인 관광수익도 인겨줄 금강산 면회소는 지질조사 등 선행 공정이 이뤄진 뒤 10월 중순 실무협력이 열리면 착공될 전망이다.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1월에 착공하면 내년 3~4월에 준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물론 도라산역 등 서부지역 면회소는 경의선 연결공사와 맞물려 있고 추가 협의가 필요해 실제 여기서 상봉이 이뤄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이 말로만 약속해 온 면회소 설치 합의가 처음으로 문서화한 의미는 작지 않다.

정례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가능하게 하는 생사 및 주소 확인과 서신교환을 합의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북한이 먼저 제기한 국군포로 문제도 이 틀 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남북은 이번에도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양측 모두 적십자사 최고위원이 나선 터라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으나,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일자를 못박진 못했다. 북측은

특히 면회소 착공 및 인공 시정을 명시하고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는 금강산여관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해 상봉행사를 갖자는 남측 제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측은 이산가족 행사 준비가 어렵다고 토로했고, 서신교환도 '남북 전체 인민들이 서신교환을 할 때까지 유보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북측엔 이산가족 문제가 여전히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면회소 설치를 위한 실무협력을 8차 장관 회담(10월19~22일, 평양)이 열리는 10월 중순에 갖기로 한 것도 다른 정치적 이슈와 이 문제를 연관 지으려는 계산일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인도적 입장을 강조했다지만 아직도 정치적 담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면서 "합의사항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27년만에 면회소 구체화

徐총재 "이르면 11월착공"

합의 이행일자 명시안해

北실천의지 여전히 관건

큰 정치적 이슈와 이 문제를 연관 지으려는 계산일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인도적 입장을 강조했다지만 아직도 정치적 담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면서 "합의사항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北합의서 일부 南과 달라

서신교환 조항중 '화대' 빠져

남북은 8일 4차 적십자회담에서 문구가 약간씩 다른 합의서본 교환, 이행 과정에서 논란가

능성을 노정했다.

남측은 1조 2항 서부지역 면회소 설치에 대해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협의·확정한다'고 밝혔으나, 북측 합의서에는 '확정'이라는 표현이 없었다. 북측은 또 남측 합의서 2조에 명시된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계속 확대도 '확대'를 빼고 발표했다.

경향신문

2002. 9. 9(월)

면회소 설치 '27년 숙원' 풀리나

남북한이 8일 사상 처음 열린 총재급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면회소를 금강산 지역에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약속대로 이행된다면 27년만에 숙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문제는 1975년 10월23일 개최된 제13차 적십자 실무회의에서 남측이 '노부모와 이산자녀간의 방문점 면회소 및 우편물 교환소 운영'을 제의하면서부터 공론화됐다. 남북은 70~90년대 10차례 적십자회담과 실무협력을 갖고 면회소 설치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면회소 설치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다. 남북은 6·15 공동선언 발표를 계기로

1975년 우리측 제의 공문화 6·15정상회담 이후 새국면 '先금강산 後도라산역' 가닥

같은 해 6월 금강산에서 제1차 적십자회담이 열렸을 때부터 이 문제를 재론했다. 남측은 면회소를 방문점 '자유와 집' 또는 '홍일각'에 설치해 합법 4회, 매회당 100명씩 만날 것을 제안했다.

같은 해 9월 제2차 적십자회담에서 남측이 방문점지역 면회소 설치를 주장한 반면 북측은 금강산에 면회소를 설치하되 운영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는 같은 해 12월 중순 결정하자고 맞섰다.

남측은 2001년 1월 개최된 제3차 적십자회담에서도 방문점지역에 면회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으나, 북측은 계속 금강산 설치를 고수했다. 남측은 이후 각종 회담에서 경의선 연결지점인 도라산역에 면회소 설치안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기존 입장을 고집했다.

남북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7차 장관회담에서 면회소 설치에 공감대를 이루는 등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리고 남측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북측 장재인(張在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이 최초로 머리 맞댄 이번 4차 회담에서 '선(先) 금강산, 후(後) 도라산역'으로 일단 운과 잡혀갔다. 이용목기자

“면회소 1월 착공... 내년 3~4월 준공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일... 전쟁행불자 합의 큰 발전

■ 서영훈총재 일문일답

“면회소 설치와 실행사민(이산가족 등) 문제를 합의한 것은 전례 없던 성과로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최심지회담을 마지막 돌아온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회담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적십자 회담에 총재급이 나선 것은 1971년 남북 적십자회담을 가진 이래 처음이며, 세계적으로 전례가 별로 없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은 강원 속초항으로

돌아오는 실행호 선상에서 가진 서 총재와 일문일답.

● 이번 합의의 의미는

바라는 대로 모두 되지는 않았지만 의미도 크다. 면회소 설치나 상봉 정례회를 합의한 것과 전쟁행불자 문제를 합의한 것은 큰 발전이다.

● 면회소는 언제 짓나

복측이 짓길 전사, 설계를 하자는 등 절차가 까다롭게 제시해 착공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그럴지는 없을 것이다. 최소한 6개월 이내 준공될 것이다.

사실 내년 3~4월까지 준공한다고

합의사에서 뜻을 밝히고 했는데 못했 다. 하지만 실무접촉을 10월 중순에 하고 11월에 착공하면 3,4월까지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장재언 위원장 의견은

사진에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쪽에서 도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다.

● 이번 회담 결과가 애초 세운 목표와 비교할 때 어떤가

면회소 설치 등은 원래 세웠던 목표와 다르지 않다. 더 많이 했으면 좋았겠지만 서로 사정이 있는 만큼 실무접촉 및 다음 회담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김강산 공동취재단

世界日報

2002. 9. 9(월)

“혈육상봉 恨 풀게 됐다” 기대감

‘면회소 설치’ 이산가족 반응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합의 소식이 알려진 8일 이산가족들은 “이산상봉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특히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전쟁 기간 남북자나 국군포로의 생사 주소 확인문제 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자 가족들은 “이제서야 한을 풀게 됐다”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함경도 실향민들이 모여사는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속칭 ‘아바이마을’ 노인회장 박임학(75)씨는 “아바이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명단에 계속 탈락해 크게 좌절했는데 상설 면회소 설

치 소식에 크게 고무돼 있다”며 “이제 죽기 전에 북에 있는 가족 친지들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돼 한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6·25전쟁남북인사가족 모임 이미일 이사장은 “무엇보다 서신교환 문제를 확대 합의한 것이 가장 기쁘다”며 “특히 이번에 북한이 압록자라는 병칭 대신 ‘생활자’라는 명칭을 쓴 것은 큰 태도 변화로 매우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北태도변화 고무적”

평양 시위위원회 명예 위원장인 윤세금(83)씨 역시 “3차 이산가족 상봉 때 협했지만 결국 가족생사를 확인하지는 못해 겪었던 마음

고생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다고 기쁨을 나타냈다.

일부선 “낙관은 일러”

반면 구체적인 상설면회소의 설치 시기 등 세부사항이 합의되지 못한 것과 관련, “기뻐하기는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평양시 명예위원장인 김병구(71)씨는 “이북에 동생들이 있는데 만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지금까지 북측의 행태를 보면 결과를 낙관만 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번 합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냉철한 자세로 향후 회담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오·이범준기자 jmkim@sgt.co.kr

한국일보

2002. 9. 9(월)

■ 北연금 ‘6·25 行不者’ 범위는

4차 적십자회담 합의사에서 언급된 ‘전쟁 중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는 누구일까. 북측은 ‘전쟁 중에 군인이었거나 민간인으로 행방불명된 자’라고 답했다. 남측 관계자는 ‘국군포로와 실행사민으로 이해했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북측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지시할 거론한 것으로 미뤄 1만9,000여명(생사확인 343명)의 국군포로는 명백히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군포로외

남북인사도

포함 가능성

해석따라 달라 논의필요

용했다. ‘6·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가 최근 공개한 남북인사 8만2,959명도 민간인 행방지로서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지와 전쟁포로는 현명도 없고, 의거 입북한 장병과 민간인만 있다는 북측의 주장이 반복된 셈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북측의 눈치를 피해 이들 가족을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조심스럽게 1, 2명씩 끼워 합육을 만나도록 배려해왔다.

그러나 전쟁 중 행불자는 평의의 이산가족이어서 해석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북측이 엄동하게 원만한 인사들을 거론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북측은 전쟁 후 납북된 어부 등 7,034명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동준기자

2000년 이후 남북적십자회담 결과

| 시 기 | 합 의 사 항 |
|------------------|---|
| 제1차 2000.6.27~30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2000.8.15~18 100명씩 서울과 평양 동시방문 ▲이산가족연락처 설치 운영 ▲비전향장기수 9월초 북측 송환 |
| 제2차 2000.9.20~23 |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교환 2차교환-2000.11.2~4 3차교환-2000.12.5~7 ▲이산가족 100명씩 생사-주소확인 ▲이산가족 300명 서신교환 ▲제3차 적십자회담 12.13~15 금강산에서 개최 |
| 제3차 2001.1.29~31 | ▲3차 이산가족방문단 2001.2.26~28 서울과 평양 동시교환 ▲3.15 만민포럼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통해 생사-주소 확인원 300명 서신교환 ▲생사-주소확인 대상자 명단 29 교환 2.23 결과 통보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시범 확대 ▲4차 적십자회담 4.3~5 개회 장소는 추후 협의 |
| 제4차 2002.9.6~8 | ▲금강산지역 면회소 공동 설치 운영 공역선 면회 소 설치로 서부지역에 설치하는 문제, 협회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6.25 동맹자 생사-주소확인문제 협의 해결 ▲10월중순 금강산에서 면회소 실무접촉 ▲9월 13~18일 제5차 이산가족상봉 |

□ 이모저모

'기존시설 이용 면회 시작'
北거부로 합의 막판 진통

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쉽게 진행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여는 남북 회담때처럼 4~5차례에 걸친 숨겨진 막후 접촉을 통해 예정보다 3시간 가량 지연된 끝에 여덟개 합의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지난 7일 공동 만찬을 끝낸 뒤 8일 새벽 3시까지 '마련된 실무접촉'을 가졌고 회담 마지막날인 8일 오전에도 계속 실무접촉을 가지며 합의서 내용을 수정하는 등 이번 회담이 순탄하지는 않았음을 확인시켜 줬다.

남북 대표단은 8일 합의서 직성을 위한 실무접촉을 거듭하며 점심식사까지 건너뛰다가 돌아오는 길목에서 오후 4시 가까이 돼서 겨우 점심식사를 할 수 있었다.

한 때 북측에서 장기수 문제를 거론하자 회담이 걸림돌을 만나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막판까지 남북 적십자사가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은데는 '금강산 면회소 설치 전까지 기존 시설을 이용한 면회를 시작하자.'는 남측 제안에 북측이 끝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점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측 장재연(張在善) 위원장은 지난 7일 오전 첫 전체회의에서 "이산가족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한 때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측 수석대표인 서영훈(徐英勳) 한직 총재가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이산가족 교류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더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이번 적십자회담은 대북 '루사'의 영향으로 이를 미뤄져 열렸으나 여전히 금강산 현지의 전화와 팩스 등 유선통신이 복구되지 않아 남측 대표단은 위성전화를 동원해 서울과 교신하는 등 2차 3일 일정에내 애를 먹기도 했다. 이는 북측에서도 마찬가지로 북측 대표단 관계자는 "평양과 연락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평양에서 금강산으로 올 때도 길이 끊긴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금강산 공동취재단·박복심기자

대한매일

2002. 9. 9(월)

매일경제

2002. 9. 9(월)

적십자회담 면회소설치 의미와 전망

이산상봉 정례화 기틀 마련

금강산=공동취재단·전병욱 기자

남북은 8일 끝난 4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운영에 합의함으로써 그 간의 '제한 상봉'에서 벗어나 '상봉의 제도화' 토대를 마련했다.

면회소 설치에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그 동안 북측이 구두로만 약속해 오던 시안을 이번엔 문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는 게 남측 회담 관계자의 말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지난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이뤄져 왔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상봉 사업이 이제 제도화 단계로 진입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 동안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에 그쳤던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정례화, 제도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얘기다.

앞으로 남북은 지질조사와 설계 등 공정을 거쳐 남측의 자재와 북측의 인력으로 면회소를 지어 면회사업을 정례화한다. 첫 면회소는 다음달 개회 예정인 적십자

남북적십자회담 주요 합의사항

1. 면회소 설치
 - 금강산 지역에 설치 운영
 - 남측은 자재·공비, 북측은 인력 제공
 - 회담일자는 지질조사 등 이후 결정
 - 남북 공동 측량식, 면회 정례화
 - 10월 중순 실무접촉
 - 금강산 철도-도로 연결되면 서부지역에 추가로 설치
2.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 교환
 - 확대 추진, 시기와 규모는 추후 협의
3. 6.25전쟁 동맹자 생사-주소확인문제 협의
4. 13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5차 이산가족 상봉

전히 이산가족 문제를 꺼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우리측이 주장한 도라산역 면회소 설치도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이후로 미뤄지고 '상봉의 제도화'에 걸맞은 상봉의 실질적인 정례화, 다시 말해 '월 2회 상봉' 등의 내용이 없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6.25 전쟁중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명시된 국군 포로의 생사확인도 길이 열린 것도 이번 회담의 큰 성과다.

전북과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6.25전쟁 중 북한군에 끌려간

남북자는 7034명, 국군포로는 1만 90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337명의 남북자, 국군포로 343명의 생사가 확인된 상태.

특히 이번 이 사안은 북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상사 가능성을 높게 본다. 북측 회담 관계자는 "강경일 국방위원장이 전쟁중 행방지불자의 생사-주소 확인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 동안 국군포로 문제도 부연해왔던 북측이 이번엔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ibdoc@mk.co.kr

구체내용 실무접촉 미룬 미완의 합의

北, 국군포로문제 먼저 제기해 성사

실무접촉에서 최종 확정된다.

적십자 실무접촉에서는 어느 위치에서 건물들 만들 것인지, 1년에 몇 차례 상봉할 것인지, 상봉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서 북측이 새로운 면회소를 건설할 때까지 금강산지역의 기존 시설을 이용해 면회하자는 남측 제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대목은 북측이 여

'상봉' 제도화... 조기실행 불투명

남북적십자회담 6개월 합의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이 금강산 면회소 설치, 6·25 당시 행방불명자 생사확인 등 6개월의 합의문을 채택하고 7일 내렸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지난 75년 13일 적십자 실무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이래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던 면회소 설치와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제도화'에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

그러나 언제부터 면회소상을 시작할 것인지, 또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은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큰 틀에서는 상호 입장이 접근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는 여전히 과제를 남겨둔 회담이었다.

◆면회소 설치=회담에서 남측은 한반도의 동쪽(금강산)과 서쪽(도리산)등 두 곳에 면회소를 설

금강산면회소 공동운영등

한국戰 행불자 생사확인도

치하자고 재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금강산만을 고집했고, 답으로 금강산 면회소를 지어달라고 남측에 요구했다. 남측 합의서에는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서부지역에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확정한다"고 돼 있지만 북측 합의서는 "협의한다"라고만 돼 있다. 좁혀지지 않은 입장 차를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생사확인·서신교환=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의 또 한 축인 생사확인·서신교환에 양측이 서로 합의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남측이 합의서에서 이를 "계속 확대·추진해 가며"라고 표기한 반면 북측은 단순히 "추진해 가며"라고

만 한 것도 상당한 뉘앙스 차이가 발견되는 대목. 북측은 서신교환을 확대하지는 남측 주장에 대해 "남북한 전체 인민들이 서신 교환을 할 때까지 유보하자"며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6·25 행방불명자 생사·주소 확인=이번 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전쟁 당시의 행방불명자 확인을 하기로 한 대목이다. 서영훈 남측 수석대표는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의 지시라며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은 행불자의 범위가 분명치 않지만 ▲국군포로·남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오던 북측이 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점 ▲국군포로 문제를 정전협정·군사회담의 틀이 아니라 '포괄적 이산가족 문제'로서 적십자회담의 틀 안에서 풀어보겠다는 정부 입장을 북한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짝지 않다.

북측의 진화한 의도는 10월에 열릴 적십자 실무 회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호기자 idhan@munhwa.co.kr



8일 오후 제4차적십자회담에서 공동합의문을 교환한 뒤 승용차를 타고 회담 장소인 금강산리관을 떠나는 남측 서영훈대표를 장재언(왼쪽)·북측대표가 배웅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9.6-8) 합의문 요약>

- ① 양방은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운영한다. 우선 이산가족 면회소를 금강산 지역에 설치하며 앞으로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서부지역에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확정한다. 금강산 면회소는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하며 지재와 경비는 남측이, 공사 인력은 북측이 제공한다. 면회소 건설 착공일자는 지원조사, 설계 등 선협공정을 빨리 진척시키고 필요한 자재들을 산행하여 보장하는 기초에서 정한다. 착공식은 남·북이 공동으로 한다. 금강산 지역 면회소 완공 후에는 면회를 정례화한다.
- ② 양방은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며 규모·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협의한다.
- ③ 양방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문제도 협의·해결한다.
- ④ 양방은 면회소 설치 운영 등 본 회담 합의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해 나가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10월 중순에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 ⑤ 양방은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병방 각기 100명씩으로 하여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사이에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이에 따른 실무접촉 문제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때의 진척에 따른다.
- ⑥ 이 합의서는 양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금강산 면회소 내년 봄 준공”

서영훈 한적 총재 회견 ... 6·25행불자 생사확인 합의

/속초=공동취재단·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남북이 제4차 적십자회담(6~8일·금강산여관)에서 설치·운영키로 합의한 금강산 면회소가 이르러 오는 11월 착공, 내년 3~4월께 준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십자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이날 오후 속초항으로 귀환하면서 “오는 10월 중순 남북간에 실무접촉을 하고 나서 11월에 착공하면 내년 3~4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총재는 “회담 과정에서 내년 3~4월까지의 준공한다고 못박으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됐다”며 “북측에서 지질검사, 설계 등을 하자고 해 늦게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졌으나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준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회소 설치나 상봉 정례화라는 용어를 이번에 남북이 합의했다”며 “늦게 봐서 (6·25전쟁 이후) 실행사민 문제를 합의한 것은 전에 없던 것으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 회담 관계자는 “합의서에 표현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는 이번 회담 과정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북측은 회담과정에서 ‘행불자가 뭐냐’는 우리측 질문에 ‘전쟁중에 군대에 있다가 행방 불명된 사람, 민간인으로서 행방 불명된 사람’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또 “박근혜 의원이 지난 5월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국군포로’를 언급했고 북측 관계자 역시 이 문제가 김 위원장의 지시라고 밝

힌 것으로 미뤄 ‘국군포로’ 등 실행사민이 아니겠느냐고 남측에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25전쟁 중 행불자 문제를 공식 거론해 협의의 해결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과 북은 이번 회담에서 금강산 면회소 설치, 경의선 연결지점에 추가 면회소 설치 협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계속 추진, 10월 중순 실무접촉 등 6개항에 합의했다.

내일신문

2002. 9. 9(월)

●제4차 금강산 적십자회담 성과

“전쟁행불자 해결 김위원장 지시”

면회소 설치·생사주소 확인 등 제도적 기틀 마련

/금강산=공동취재단·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8일 끝난 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와 함께 국군포로의 생사·주소 확인에 합의,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의 틀을 마련했다.

남북 양측은 동부의 금강산 지역에 면회소를 우선 설치하고, 서부의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지역에도 면회소 설치할 추후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할 수 있는 길을 닦았다.

하지만 서부지역 면회소는 앞으로 남북한간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정례적인 상봉 역시 면회소 개설 이후로 미루어져, 합의서의 현실화 여부가 북측의 실천 의지에 의존하게 된 측면이 크다.

그러나 ‘면회소 설치’ 자체가 그동안 북측이 구두로만 약속해 오다가 이번에 문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가질 만하다는 게 남측 회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회담 수석대표인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금강산 면회소가 오는 11월 경에 착공해 내년 3~4월쯤 준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인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6.25 전쟁중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명시된 국군포로의 생사확인도 길어졌던 것도 이번 회담의 큰 성과이다. 특히 이번 이산안은 북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생사 가능성을 높게 한다.

북측 회담 관계자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쟁 중 행불자들의 생사·주소 확인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박근혜 의원이 제의한 것을 김 위원장이 수용했다는 설명이었다. 또 “행불자의 의미가 무엇이나”는 우리측 질문에 대해 “전쟁 중에 군대에 있다가 행방 불명된 사람, 민간인으로서 행방 불명된 사람”이라고 대답, 국군포로와 전쟁시기 남북자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북측이 새로운 면회소를 설치할 때까지 금강산 지역의 기존 시설을 이용해 면회를 계속하자는 남측 제안을 끝내 받을 수 없다고 한 대목에서 북측에겐 여전히 이산가족 문제가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음 유감되게 한다.

서부지역 면회소 설치에 대해 남측 합의서는 ‘협의·화정’, 북측 합의서는 ‘협의’로 표현하고,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문제에 대해서도 남측의 ‘회담·추진’과 북측의 ‘추진’ 등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양측의 적십자사 총재가 참가한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일단 이산가족 제도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여부는 10월 중순께 갖기로 한 실무접촉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좀더 분명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삿날이나마 알게 돼 다행”

‘6·25 行不者 확인’ 납북자 가족 반응

제4차 남북직접자회담에서 ‘6·25 행방불명자’ 생사확인 합의가 이루어지자 6·25 전쟁 납북자 가족들은 환영일색의 반응을 보였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6·25 이후 납북자 가족들은 크게 반발했다.

<관련기사 5면>

6·25에 피신한 남편 대신 당시 17세였던 아들 안호철(60)씨를 북으로 보내야 했던 김직자(83)씨는 이

인 대상자 선정 등 값이 없다’면서 ‘납북자 가족들이 죽기 전에 정부가 어서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군포로 가족들도 생사확인 합의 소식을 반겼다. 함 재공(77)씨가 포로로 북에 끌려간 박재근(70)씨는 눈물부터 흘렸다. 박씨는 “그 동안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화도 많이 났지만 이제는 남은 생애



6·25 때 납북된 안호철(왼쪽사진 오른쪽)씨의 어머니 김직자(왼쪽)씨와 동생 창자씨가 9일 서울 삼계동 자택에서 안씨의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김정현기자 theos@munhwa.co.kr

“일흔 안된 아들 살아있을 것” 기대 ‘6·25이후 피랍’은 제외되자 반발도

직 일흔을 넘지 않은 아들이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에 가슴이 설었다. 아들을 대신 보낸 죄책감에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한 남편 생각도 절실했다. ‘국경의 밤’의 시인 김동환씨의 아들 영식(70)씨는 9일 “이미 100세가 넘으셔서 작고하셨겠지만 제삿날이라도 받는 게 어디나”며 기뻐했다.

6·25 납북자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소식을 듣고 50년 넘게 수집하신 어머니가 안세를 부르셨다”며 반가움을 숨기지 못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이제부터 생사확

회망이 생겼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국군포로가족협의회 허태석 회장은 “그리움에 지친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정부가 이제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납북자가족모임 회장을 대표하는 “정부가 6·25 이후 피랍자 문제에 대해서는 ‘확’에 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에 공식 항의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적극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정현기자 theos@munhwa.co.kr

대한매일

2002. 9.10(화)

제4차 남북직접자회담 합의서 표현이 남북 사이에 서로 달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합의서 1조 2항의 ‘(면회소통) 서부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들 협의·화정한다.’는 문구에서 북측 합의서에는 ‘확정’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2조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서신교환을 계속 확대·추진해 나가며’

라는 조항에서 ‘확대’라는 표현이 빠졌다. 나중에 이산가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하지만 북측은 “전화가 불통이라 평양의 혼령을 다시 받으려면 1시간 넘게 걸리는 통천까지 가야되는 데다 수해로 다리까지 끊겨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총재급 회담이 나가 큰 틀에서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중순 실무급 회담에서 하자.”라는 말로 ‘문제의 문구’를 짚는 것을 남측 관계자에게 통사정했다는 후문이다.

북측은 또 “계속 ‘추진’ 하다보면 당연히 ‘확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남측의 양해를 거듭 당부했다.

남측 관계자들 역시 “남측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남북 협의과정에서는 사실상 모두 합의된 부분”이라면서 “10월 중순 실무회담에서 더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별 문제없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한 관계자는 “북측이 이산가족 사업 입장을 구체화하는 것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고 전혀 순탄하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박복삼기자

youngtan@kdaily.com

“비전향자 - 국군포로 맞교환 추진”

□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 마친 서영훈 총재

“북측이 그동안 존재를 부인했던 국군 포로와 남북 인사들 사실상 인정한 만큼 남북의 비전향장기수 문제와 연계해서 해결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가졌던 서영훈(徐英勳) 대한 적십자사 총재는 10일 대한매일과 가진 단독 회견에서 적십자회담 후속 조치를 얘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총재는 “북북지와 국군포로 등의 생사확인과 유해라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로 조만간 신청을 받아 기준에 갖고 있는 실대 자료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총재는 “북측에서 (적십자회담) 기초방안을 통해 비전향장기수와 추가송환을 요구했다. ‘면서 북측이 국군포로 생사 및 주소 확인 등에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비전향장기수할 연계에 요청하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1년 남북 적십자사가 교류를 시작한 이래 총재가 직접 회담장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세계 각국 적십자간 교류에서도 전례가 없다. 이번 장재현(張在顯)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은 그만큼 각별한 의미와 빈 회담이었다는 것이 서 총재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남북 일부에는 그 성과물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들이 있다.

서 총재도 이런 부정적 견해들을 잘 알고 있었다. 서 총재는 “사실 북측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기에는 경제·정치적 한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매우 많다. ‘면서 이런 점을 외면하면서 우리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북측을 다그치기만 하면 될

일도 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총재는 도착 직후 관련부처와 회담 결과 발표 논의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움직였다. 지난해 1월 3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가진 뒤 1년7개월 동안 끊겼다가 다시 열린 회담인 만큼 공을 많이 들였다는 느낌을 주었다.

●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면회소 설치로 이산가족 면회소 정례화한 것은 커다란 성과다. 이밖에 생사 및 주소 확인과 서신 교류를 합의한 것도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성과다. 비록 합의에서 빠지는 했지만, 도라산역에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도 사실상 북측의 동의가 받은 것이다.

면회소 설치뿐 아니라 국군포로, 남북자 존재의 사실상 인정, 서신 교환 지속 등 과거에 북측에서 기피하고자 했던 내용이 이번 합의서에 다 들어갔다.

● 도라산역 면회소 설치에 북측이 주저했던 이유는.

도라산역을 미국 부시 대통령이 다녀가는 등 미군부대가 근접해 있다는 사실에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부지역에 면회소를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한 만큼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 국군 포로, 남북자 문제는 어떻게 풀릴 수 있는가.

과거에 부인하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대단한 진전이다. 물론 지난 53년 남북은 체내비합정이 따라 전쟁포로를 교환했으며 ‘공식적인 전쟁포로’는 없을 수 있다. 사실상의 전쟁포로를 의미하더라도 ‘전쟁포로’라고 하면 적십자사에서 다룰 수 있는 범주 밖 넘어서 버린

다. 남북인사 중 임시정부 및 지도층 인사들이 만만치 다뤄질 것 같다. 유해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북측의 요청이 있으면 비전향장기수 문제와 연계해 남측 비전향장기수와 국군포로, 남북자의 실대 파악 및 추가 신청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다.

● 북측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의견.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는 세계의 흐름에 맞추지 않으면 고립됨을 북측은 잘 알고 있다.

제한된 범위내에서 외국의 자본과 문화, 기술을 받아들이고 인도주의적인 사업을 펼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할 수 있었다. 특히 과거와 다른 점은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남측을 중심으로 교류협력, 인도주의 사업을 중진시키겠다는 방향을 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우리의 이산가족 신청자가 11만명이 넘는 반면 북측은 1만명 남짓 정도로 추정되는 것처럼 이산가족 규모가 다른 문제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갖는 정치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 사업을 전진시킬 수 없을 때도 많을 것이다.

● 앞으로 취할 후속조치는.

이번 회담을 통해 북측에 추가로 비호 10만 명 보내고 겨울내륙 200만명을 곧 보내기로 했다.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 등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려 한다.

● 남북 교류를 진행하다보면 ‘상호주의’ 주장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적십자회담에서는 어떤가.

필요한 것은 남북간의 이해와 믿음의 존진

이며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위해 공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북측을 더 안 좋게 생각하지만 도울 것은 돕고 있는데 더불어 남북은 형제간 아니겠느냐. 비록 한때 사이가 안 좋았지만 현재 한쪽이 사정이 어려워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런지런 반대급부의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건이 다함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강조해서는 안된다. 인도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부닥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동포애다.

● 남북 적십자간 회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은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이어야 한다. 어느 한 쪽에서 체제를 지원하려 해서도, 체제를 비판하려 해서도 안된다.

전쟁이 끝나고 반세기 동안 서신교류도 못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반만년 역사를 자부하는 한민족으로서 비극이고 수치다.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화해와 협력을 해야 한다. 첫번째가 이산가족 문제다. 모든 정치체제를 초월해 발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부끄럽지 않을 일이다.

●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 담화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가.

북측 인사들과 직접적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적십자 총재가 아닌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김 위원장이 담화해야 한다고 본다. 평양의 고위 당국자가 최근 외국인들을 만나 아시아인 게임 대결(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들었다. 아시아게임은 아시아인들의 평화의 체육 제전이며 김 위원장의 담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나쁘지 않다고 본다.

● 박흥삼기자 youngtan@kdaily.com

□ 이산가족 실태·과제

앞으로 10년 안에 80세 이상의 남북 이산가족들이 북측의 부모, 형제들을 만날 수 있을 까.

이산가족 상봉에서 이들을 최우선 순위로 배려하고 매달 한 번에 100명씩 10년간 50배 만난다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고작 1만 2000명에 불과하다.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1만 8859명으로 이들 모두 상봉의 감격을 누릴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이들이 90세 가까운 장수(長壽)를 누린다는 전제하에서다.

현재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는 11만 8814명이다. 이중 1만 5000명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이다. 80세 이상이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70~79세 연령대의 이산가족이 4만 421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 수명은 남자 71.7

한달 200명씩 만나도 50년 걸려

신청자 11만여명...70세이상 고령자 60% 차지

세, 여자 79.2세(2001년 현재)다. 이산가족중 남성이 70%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61%의 이산가족들이 이미 평균 수명을 넘겼음을 의미한다. 즉 이산가족 상봉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이산가족들이 눈을 감기 전 상봉을 기억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예초 4차 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이 북측에 제안한 대로 한 달에 100명씩 두 차례 만난다고 하더라도 1년에 2400명, 10년이면 2만 4000명에 불과하다.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신청한 사람들이 모두 상봉하려면 산술적으로 50년 이상이 걸린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는 이마저도 구체적으로 합의

하지 못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현재 이산가족 2대, 3대를 비롯해 미처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면 이산가족은 약 76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사망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가 한시도 지체하기 어려운 시급한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산가족들은 “이산가족 공동거주지역 지정하거나 이산가족들에 한해 거주지 선택권 부여 등 획기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다소 ‘이상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임순희(林順熙) 연구위원은 “면회소 설치 등 제도적 정책을 마련했

이산가족 실태 (단위: 명)

| | |
|------------|-------------------------|
| 현재이산가족(추정) | 767만 |
| 상봉 신청자 | 11만8814(신청률: 사망 1만5000) |
| 80세 이상 | 18% (8560) |
| 70~79세 | 43% (42100) |

이산가족 교류 현황

| 분류차별 | 명 | 기간차별 | 건 |
|-----------|------|-------|------|
| 이산상봉(4차대) | 4500 | 제3국상봉 | 718 |
| 생사·주소 확인 | 2267 | 생사 확인 | 1570 |
| 서신교류 | 800 | 서신교류 | 3078 |

다는 차원에서 이번 적십자회담이 큰 성과를 낸 것에는 분명하다. ‘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적 한계는 많으므로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확실치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대규모 상봉은 사실상 쉽지 않은 만큼 우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서신교환 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박흥삼기자

중앙일보

2002. 9.12(목)

이산가족 교육장에 특별환전소 설치

외환은행(www.keb.co.kr)은 북한에 사는 가족과 상봉하는 남한 이산가족이 달러를 쉽게 환전할 수 있도록 교육장소인 강원도 속초시 한화리조트에 12일과 15일 '북한 방문 여행경비 임시특별 환전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또 환전금액에 관계없이 환전수수료를 30% 깎아 주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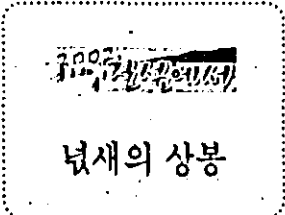
이번 주말부터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다. 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사연들이 쏟아질는지... 이산 상봉 얘기만 나오면 이제는 '이산사인'으로 불리는 장귀업 할머니가 땀만 저 뚝뚝이다. '넋새'라는 가슴아린 표현 때문이다. 한 많은 사람은 죽어 넋이 되어 구천을 헤맨다는 오랜 민속 신앙에서 비롯된 정한(情恨)의 언어. 50년이 흐른 지금, 다른 여인의 남편이 되어 버린 그 어릴 적 혼례를 올린 신랑을 만나 한 많은 세월을 털어놓은 서러움의 응축이기도 하다.

사무치는 그리움은 늘 서러운 이별에서 오는

것인가. 넋새의 압권은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 살다 간 조선조 여류시인 이옥봉의 몽혼(夢魂). '近來安否問如何 月到紗窓妾恨多 若使夢魂行有跡 門前石路半成沙' (요즈음 어떻게 지내시나요 달이 비치는 비단창에 저의 한은 많습니니다. 만약 꿈속의 넋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당신 문 앞의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겁니다)

최근 남북이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키로 합의했으나 하루빨리 문을 열어 넋새의 눈물을 줄였으면 좋으련만...

●양승원 논설위원



오늘부터 5차 이산상봉

금강산서 두차례 나눠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13일부터 18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상봉한다. 북측 이산가족 100명을 만날 남측 가족 457명은 13일 관광선 설봉호를 타고 금강산에 도착, 2박3일간 그리운 가족들을 만날 예정이다. 16일부터는 남측 고령 이산가족 99명이 금강산으로 가 재북 가족들과 상봉한다. 5차 상봉에 참가한 이산가족은 단제상봉, 개별상봉, 참관상봉, 작별상봉 등을 통해 12시간 가량 헤어진 가족들과 함께 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한국일보

2002. 9.13(금)



"드디어 만나는가"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금강산으로 떠날 남측 상봉단 458명 중 한 가족이 12일 강원 속초의 숙소에서 북한 가족들에게 전달 산물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한겨레

2002. 9.13(금)

오늘부터 5차 이산상봉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할 남측 상봉단 587명이 13일 오전 11시 강원 속초항에서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편으로 금강산으로 떠난다. 남측 상봉단은 북한 이산가족 100명을 만날 가족·친척 457명과 지원요원 100명, 취재진 29명 등이다. 이산가족들은 13일부터 15일까지 △첫날 단제상봉(2시간)과 만찬(2시간) △둘째날 개별상봉(2시간)과 공동중식(2시간), 참관상봉(3시간) △마지막날 작별상봉(1시간) 등 모두 6차례 12시간 동안 북측 가족을 만나게 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이산가족 건강검진 남북 이산가족의 금강산 상봉을 하루 앞둔 12일 이산가족들이 집결장소인 강원도 속초시 한화콘도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속초=사진공동취재단

경향신문

2002. 9.13(금)

오늘 금강산 이산상봉 남측가족 458명 출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할 남측 상봉단 1진 458명(단장 李榮求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11시 속초항에서 실봉호를 이용, 금강산으로 출발한다.

상봉단 458명은 2박3일간 금강산에 체류하며 북측 이산가족 100명을 만날 예정이다.

이들 외에도 지원요원 100명과 취재진 29명 등이 동행한다. 이산가족 상봉단 458명은 지난 4월의 4차 상봉 때와 마찬가지로 12일 속초 한화콘도에 미리 모여 하룻밤을 보냈다.

한편 북한의 김순경씨(69)를 만날 누나 김진명씨(84·강원 강릉시) 가족 중 강릉에 사는 조카 김진만씨(59)는 수해를 입어 11일 밤 늦게 금강산행을 포기했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대한매일

2002. 9.13(금)

오늘 이산가족 상봉 2차상봉은 16~18일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13일부터 18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만난다.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삼성동 남북회담사무국에 집결한 뒤 속초로 출발, 이날 오후 이산가족 방문단 안내교육에 나서는 등 상봉사업을 위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금강산에서 북측 이산가족들을 만날 남측 가족·친척 458명은 이날 속초 한화리조트에 집결해 안내교육을 받은 후 13일 오전 11시 관린선 실봉호를 타고 강정항으로 향한다. 이들은 2박3일 동안 여섯차례 북측 상봉단을 만나게 된다.

또한 2차 상봉단 99명은 15일 속초에 집결한 뒤 16일부터 18일까지 마친가지로 여섯차례 북측 가족·친척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지난 11일 저녁 판문점 연락관 집회를 통해 백영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부위원장에게 제5차 이산가족 상봉단 북측 단장을 맡게 된다고 알려졌다. 남측에서는 한적 이영구(李榮求) 사무총장과 조성은(趙成恩) 강원지사회장이 순차상봉 남측 단장을 각각 맡았다. *박희삼기자

동해선 DMZ개방 합의 유엔사·北 장성급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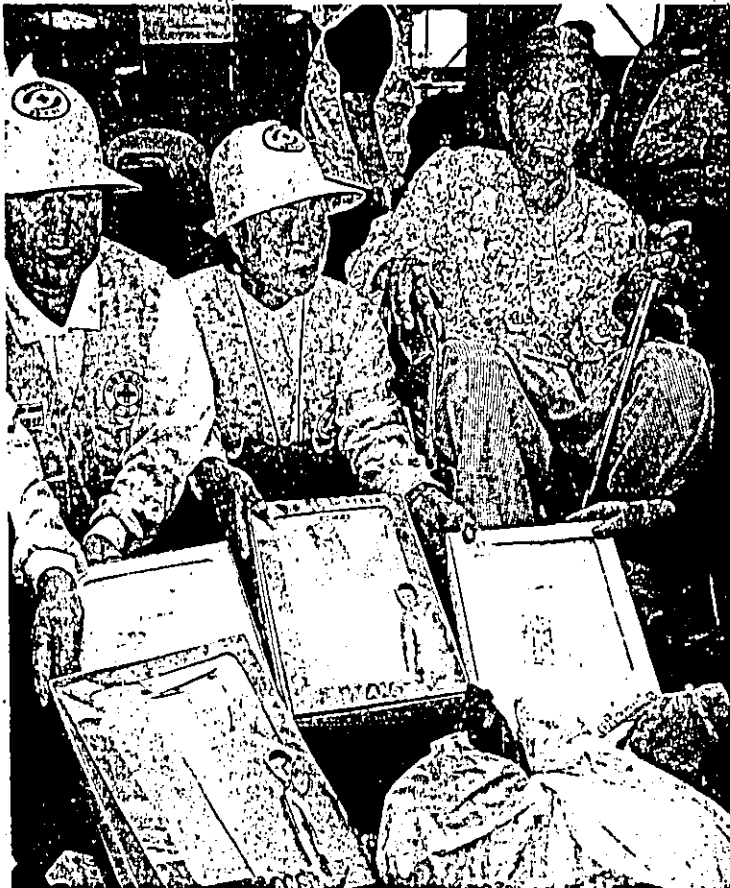
주한 유엔군사령부와 북한 인민군은 12일 오후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열고, 동해선 부근 비무장지대(DMZ) 개방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어 양측은 지난 2000년 10월 서명했던 경의선 DMZ 개방합의서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오는 18일로 예정된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를 앞두고 남북 양측이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군사보장합의각서를 교환하는 절차만 남게 됐다. 이번 장성급회담에는 제임스 솔리건 소장이 유엔사측 대표로, 이찬복 상장이 북한측 대표로 참석했다. 솔리건 소장은 합의서에 관해 "유엔사는 남한측에 동해안 비무장지대 관리권을 이양했으나 유엔사에서 모든 DMZ 관할권을 갖고 있으므로, 남한으로부터 공사장 출입 인원과 장비 등을 확보받는다."고 설명했다.

오석영기자 palbat@kdaily.com

국민일보

2002. 9.13(금)



마음은 벌써 북녘에...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장에 가기 위해 강원 속초에 온 남측 가족들이 12일 북측 가족에게 줄 선물을 정리하고 있다. 속초=맹

世界日報

2002. 9.13(금)

금강산서 5차 이산상봉

오늘~18일 두차례나눠

철도-도로회담도 열려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이 13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북측 가족 100명을 만날 남측 가족·친척 456명은 12일 속초에 모여 안내교육을 받은 뒤 13일 오전 설봉호편으로 방북. 금강산여관에서 단체상봉과 공동만찬을 갖는다.

이들은 14일 개별상봉과 참관상봉을 통해 혈육의 정을 나누며 15일

작별상봉을 끝으로 귀환한다.

2차 상봉그룹인 남측 방문단 99명은 16일 금강산으로 향한다. 상봉단의 북측 단장은 백용호 조선적십자회중앙위 부위원장이 맡으며 남측에선 대한적십자사 이영구 사무총장과 조성은 강원지사 회장이 순차상봉의 단장을 맡았다. 한편 남북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1차 실무회담도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다. /윤상훈기자 shyyoon@sgt.co.kr

이산가족 500여명 금강산 상봉

반세기 동안 남과 북으로 헤어져 있던 이산가족들이 13일 눈물의 상봉을 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4월에 이어 다섯달 만으로 또 다시 금강산에서 이뤄졌다.

남측 이산가족 4백55명은 이날 오후 금강산 현대아산의 온정각에서 1백명의 북측 이산가족들과 단체상봉을 했다. <관계기사 30면>

두시간 동안 진행된 단체상봉에서 혼자 몸으로 딸 셋을 키운 남측 아내 박중하(80)씨는 1950년 여름에 아침을 먹고선 출연하지 사라졌던 북측 남편 권오섭(81)씨를 만나자 지난 세월의 설움이 되살아나는 듯 히엄없이 눈물

만 흘렸다. 또 남측의 조금래(73)씨는 전사(戰死)처리돼 국립묘지에 위패까지 봉안된 북측 남편 이기탁(74)씨를 만나는 등 곳곳에서 50여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통한의 상봉이 끊을 이었다.

남측 상봉단은 단체상봉에 이어 북측 단장인 백용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주최의 환영 만찬장에서 북측 가족들과 다시 만나 식사를 함께 했다. 남측 상봉단은 14일 개별상봉, 삼일포 공동참관 행사 등을 한 뒤 15일 속초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교수석 기자 <sskom@joongang.co.kr>

南北 555명 상봉

13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이뤄진 제5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북측 100명과 남측 455명이 상봉했다.

남측 상봉단의 최고령자인 김순규(93) 할머니는 50여년 만에 만난 북측의 딸 최순옥(72)씨의 주름진 얼굴을 쓰다듬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북측 리우문(70)씨는 처음 만나는 장모 김유중(93)씨에게 큰 절을 올렸고 김씨는 상봉장에 나오지 못한 딸 이경란씨를 사진으로 확인했다.

<관련기사 22면>
남북 이산 가족들은 이날 단체상봉에 이어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14일에는 개별 상봉을 한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경향신문

남북 이산 '금강산 상봉'

남455·北100명 반세기만의 재회감격

제5차 이산가족 방문단으로 방북한 남측 이산가족 455명이 13일 금강산에서 북측 가족 100명과 반세기 만에 다시 만났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첫날 단체상봉, 환영만찬 등 4시간의 만남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14일 개별상봉·공동중식·삼일포 참관상봉, 마지막날인 15일 작업상봉 등 2박3일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12시간 동안 재회의 감격을 나누게 된다. /관련기사 5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금강산 온정

각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단체상봉에서 남측 상봉단의 최고령자 김순규 할머니(93)는 50여년 만에 만난 북측의 딸 최순옥씨(72)가 상봉장에 들어서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몸이 불편해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측의 조금래 할머니(73)는 전사(戰死)로 처리돼 국립묘지에 위패까지 봉안된 북측 남편 이기탁씨(74)가 상봉장으로 걸어들어오자, 실감이 나지않는 듯 망연자실해 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단체상봉에 이어 북측 단장인 백용호 조선적십자회 중

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같은 장소에서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한 뒤 각각의 숙소인 해금강호텔과 실봉호, 금강산 여관으로 돌아가 잠 못 이루는 첫날밤을 보냈다.

남측 상봉단은 당초 458명이었으나 3명이 갑작스런 건강악화 및 고령 등 개인사정으로 방북을 포기, 455명으로 줄어들었다. 남측 이산가족 455명은 오는 15일 금강산을 출발, 속초항으로 귀환하고 이어 남측 상봉단 2천 99명이 오는 16일부터 2박3일 동안 금강산을 방문할 계획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한겨레

남 455명-북 100명 눈물의 재회

이산가족 첫날 상봉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한 북측 이산가족 100명과 남측 가족·친척 455명이 13일 오후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50여년 만에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남측 상봉단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김순규(93)씨는 북측의 딸 최순옥(72)씨를 만났다. 김씨는 딸과 함께 실

종된 남편이 1954년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말을 잊지 못했다. 50년 여된 아침 밥을 먹고 나간 뒤 소식을 끊간 북측의 권오섭(81)씨는 50년 동안 흠뻑으로 딸 셋을 키운 남측의 아내 박중하(80)씨의 손을 쓰다듬으며 "젊었을 적에는 여쁘고 바느질 잘하기로 소문났다"고 말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날 단체상봉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저녁을 함께하

고 각각 숙소인 해금강호텔과 실봉호(이상 남측), 금강산여관(북측)으로 돌아가 따로 잠을 잤다.

남측 상봉단은 애초 458명이었으나 3명이 수해복구와 건강을 이유로 방북을 포기해, 이산가족 455명, 지원인력 79명, 취재진 29명이 이날 오전 속초항에서 실봉호를 타고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남측 두 딸의 큰 절

제5차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진 13일 오후 금강산 온정각에서 북측의 이규영씨가 큰 절을 올린 남측의 두 딸을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기사 4면)

금강산 사진공동취재단

이산가족 방북단 50대 이하 제외

새달 추석 전에 이뤄질 예정인 5차 이산가족 방북단 교환에서 50대 이하이거나 재북 가족이 3촌 이상인 재남 이산가족은 방북단 100명에서 제외된다.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는 19일 인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후보 선정 기준을 마련, 5차 상봉 예비후보 300명을 컴퓨터로 추첨했다.

한적은 이번 추첨에서 직계 가족과 고령자 우선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부모·부부·자식 간은 가중치 6을, 형제·자매는 3을 각각 부여하는 한편 3촌 이상은 가중치 0을 부여해 사실상 제외했다.

또 80대 이상 고령자에게는 가중치 13을, 70대에는 5를, 60대에는 2를 각각 부여했지만 50대 미만은 0을 부여해 제외했다.

한적은 20일쯤 예비후보 300명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한 뒤 오는 22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오는 24일까지는 후보 200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적 관계자는 "부모, 자식 간이나 고령자 중에서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에 따라 3촌 이상이나 50대 이하를 제외했다"고 말했다. /연합

서울경제

2002. 8.21(수)

이산상봉 예비후보 추첨

80세 이상이 전체 46%

대한적십자사는 20일 제5차 이산가족 상봉 예비후보 300명을 컴퓨터로 추첨한 결과 최고령자인 전모(95)씨 등 80세 이상 고령자가 136명으로 46%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70~79세는 129명(43%), 60~69세는 35명(12%)이었지만 50대 이하는 한 명도 없었다.

예비후보 300명 가운데 재북 가족이 부모나 부부·자식인 경우는 213명(71%)이고 형제·자매인 경우는 87명(29%)이다.

한편 출신지역별로는 황해도 출신이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남이 53명으로 뒤를 이었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 105명, 경기도 67명, 인천 30명, 강원도 20명, 부산 19명 등의 순이다.

내일신문

2002. 8.20(화)

대한매일

2002. 8.21(수)

80세 이상이 전체 45%

5차 이산상봉 1차 후보 300명 선정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지난 19일 대한적십자사(총재 徐英勳)는 다음달 추석을 계기로 이뤄질 예정인 5차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방문단 1차 후보자 300명을 선정했다. 신청자가 11만 8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경쟁률은 39대1이나 된다.

24일까지 신체검사 등을 진행한 뒤 2차 후보자 200명을 선정, 복측과 교환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적은 22일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최종 방문단 선정에는 직계 가족, 고령자 우선 원칙에 따라 50대 이하이거나 재북 가족이 3촌 이상인 이산가족은 사실상 제외된다.

이에 따라 부모·부부·자식은 가중치 6을, 형제·자매는 3을 각각 부여하지만, 3촌 이상은 아예 가중치를 주지 않는다.

또 80대 이상

고령자에게는 가

중치 13을, 70대

에게는 5를, 60대

에는 2를 각각 부여

했고 50대 미만은 0을 부여한다.

이에 앞서 한적은 지난 17일 오전 북한 조선 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5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제의했다.

한적은 전문문에서 '장관급회담 합의 정신에 맞게 추석전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

5차 이산상봉 예비후보 300명 현황

| 연령별 | 구분 | 80세 이상 | 70~79세 | 60~69세 |
|-----------|----|----------|----------|---------|
| 인원수(300명) | | 136(45%) | 129(43%) | 35(12%) |

| 출신지역별 | 구분 | 평남 | 경북 | 충남 | 충북 | 경기 | 강원 | 기타 |
|-----------|----|----|----|----|----|----|----|----|
| 인원수(300명) | | 81 | 53 | 31 | 42 | 10 | 12 | 8 |

| 거주지역별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대전 | 충남 | 충북 | 경기 | 강원 | 제주 |
|-----------|----|-----|----|----|----|----|----|----|----|----|----|
| 인원수(300명) | | 105 | 19 | 5 | 30 | 1 | 10 | 2 | 67 | 20 | 7 |

| 성별 | 재북가족관계 | | | |
|-----------|--------|-----|-----|----|
| | 구분 | 남 | 여 | |
| 인원수(300명) | 195 | 105 | 213 | 87 |

50대이하·재북가족 3촌이상 제외

황해도출신·서울거주자 가장 많아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다음달 4~6일 총재급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제도화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을 방침"이라면서 "이런 경우, 설, 단오, 6·15, 8·15, 추석 등 절기별로 5차례 상봉이 되거나, 월별로 상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복삼기자

世界日報

2002. 8.24(토)

오늘 이산상봉 명단교환

대한적십자사는 추석 이전에 이뤄질 제5차 이산가족상봉 후보자 200명의 명단을 24일 판문점에서 북측 조선적십자회측이 작성한 명단과 교환한다. /김기동기자



“여보, 그만 울구려” 제5차 이산가족상봉 첫날인 13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북쪽의 리진우씨가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남측 부인 김기연씨를 달래고 있다. /금강산=연합

반세기만의 만남 눈물바다

금강산서 이산상봉 남측 455명, 北가족 100명 만나

남측 이산가족 455명은 13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반세기만에 북측 가족 100명과 감격스러운 상봉을 가졌다. (권연기사 5-18-19면)
 지난 4월에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남북의 혈육 상봉이 이뤄진 금강산 일대는 눈물 바다를 이뤘다. 남측 상봉단의 최고령자인 김순규(93) 할머니는 50여년만에 만난

북쪽의 딸 최순옥(72)씨의 손을 잡고 굵은 눈물만 뚝뚝 흘렸다. 북쪽의 오빠 김학래(74)씨는 “불쌍한 내동생 살아있었구나”며 앞을 못보는 남쪽의 여동생 근래(68)씨를 부둥켜 안았고, 근래씨는 음성으로 오빠를 확인하고는 손수건으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만 닦았다.

북쪽의 권오설(81)씨는 반백년간 수절하면서 딸 셋을 잘 키워준 남쪽의 아내 박중하(80)씨의 손을 쓰다듬으며 “젊었을 때에는 예쁘고 바느질 잘하기로 소문났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윤상환기자, 금강산=공동취재단 shyoon@sgt.co.kr

금강산 이산상봉

▶ 1면서 계속

하지만 북쪽의 량희명(72), 김홍만(79)씨는 남쪽의 아내들이 재가했다는 이유로 이번 상봉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의 짧은 단체상봉을 가진 뒤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이어 각자의 숙소인 해금강호텔과 설봉호, 금강산여관으로 돌아가 첫날 밤을 보냈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14일 개별상봉과 참관상봉을 통해 혈육의 집을 나눈 뒤 15일 직별상봉을 끝으로 속초항으로 귀환한다.

世界日報

2002. 9.14(토)

금강산이 또다시 눈물 바다

시각장애인, 北 오빠 상봉

목소리만으로 확인 '오열'

구순노모-칠순딸 恨 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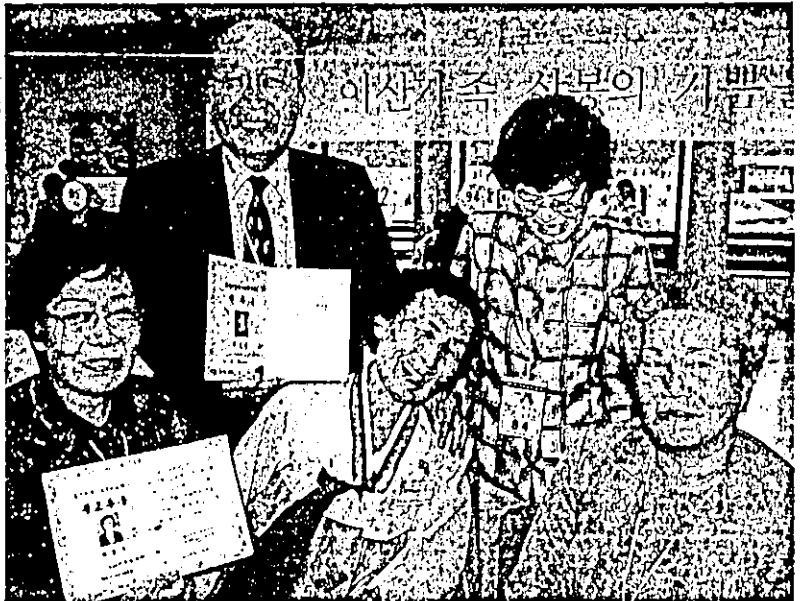
가아내 못 만나 탄식도

금강산이 다시 눈물바다를 이었다. 남 상봉단 455명과 북측 가족 100명은 13일 오후 금강산 자락의 온정각에서 실시한 제5차 이산상봉에서 그리던 부모와 아들·딸, 형제·자매, 부부끼리 부둥켜 안고 50여년간 가슴속에서 식어 온 이산의 한을 쏟아냈다.

○...시각장애인 김근래씨(68)는 북측 오빠 학래씨(74)를 목소리만으로 알아보고 눈물을 쏟았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인 근래씨는 오빠를 만나자 "목소리가 예전 그대로"라고 울먹거리며 학래씨의 얼굴을 더듬어 이마에 난 상처를 확인하고는 오열했다. 3남매의 맏이로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어릴 때부터 눈이 먼 근래씨를 업고 피란을 가기도 했던 학래씨는 "헤어져 있는 동안 항상 네가 마음에 걸렸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남측 상봉단 가운데 이영훈씨(66)는 폐암 2기 선고를 받은 딸로 형 이명식씨(68)를 만났다.

○...손갑순씨(78·여·경남진주)는 휴전 직후 전사 통보를 받고 국립묘지에 위패를 봉인한 북측 동생 윤모씨(68)를 만나자 "산에 꽃이 피었다"며 얼굴을 어루만졌다. 윤모씨는 지난 50년 12월 말청 심모씨 대신 군에 입대하면서 가족과 헤어졌다. 동생 상모(66) 재모씨(59)로부터 큰형이 미안한 마음을 간직한 채 20년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어머니 생전에 형을 위해 매일 기도할 잊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 듣자 윤모씨는 연방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북측 동생 지중길씨(69)를 만난 누나 묘식씨(74)도 한국전 당시 북한군에 징용됐다는 소문을 들은 후 사망신고를 했던 동생이 나타나자 감격의 울음을 터뜨렸다. 묘식씨는 작년부터 총길씨가 가족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십자사로부터 세차례 들었지만 상봉신청을 내지 못하다가 정부보조금 덕분에 이번엔 동생을 만났다.



“교수증 좀 보시라요”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13일 오후 금강산 온정각에서 북측 상봉자 박옥영씨(가운데)가 남측 가족들에게 교수증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고 있다. 북측 상봉자들은 훈장, 교수증 등 한 가지씩 자랑거리를 들고 나왔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남측 최고령자인 김순규 할머니(93)는 한국전쟁 중에 잃었던 딸 최순옥씨(71)가 할머니가 돼 나타나자 주름살을 만지며 세월의 아축함을 탄식했다. 순옥씨의 사촌동생 태규씨(65)는 "실종 당시 주소인 김풍시 초당동에서 이사할 땐 번도 가지않아 누나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순규씨와 같은 나이인 김유중 할머니(93)는 사돈지간인 이우섭씨(68) 형제와 나란히 방북길에 올라 국군포로로 북에 남겨 됐던 사위 이우문씨(70)를 만났지만 황해도에 살고 있는 딸 이김란씨(67)가 상봉장에 나오지 않아 사위가 간낸 딸의 사진만 어루만져야 했다.

○...남측 박중하 할머니(80)는 28세때인 1950년 여름 헤어진 남편 권오실씨(81)를 만나자 50여년동안 수절하며 시어머니를 모셨던 기억이 떠오르듯 눈을 감았다. 권씨는 아내의 손을 쓰다듬으며 "짚있을때 예쁘고 바느질 잘하기로 소문났었다"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조금래 할머니(73)도 국립묘지에 위패까지 봉안했던 남편 이기탁씨(74)가 상봉장으로 걸어들어오자 기가 막히듯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나 북측의 양희영씨(72)는 아내인 박모씨가 외동

딸이 총격으로 숨진 뒤 재기를 해 상봉장에 나타나지 않자 회한을 감추지 못했다. 김홍만씨(79)도 자신을 애타게 찾던 남쪽의 아내 박모씨(74)가 "재기를 했으니 안 만나겠다"고 상봉을 한사코 거절한 사실을 조카들을 통해 전해 듣고 잠탄식을 하기도 했다.

○...6·25 당시 '서울십포니' 멤버였다가 9·28 서울수복때 단원들과 함께 북으로 갔던 피바다극단 단장을 지낸 신명균씨(71)는 남쪽의 심균씨(66) 등 동생 4명을 만났다. 심균씨가 미리 준비해간 플루트로 고향의 봄과 도리타령을 불러 분위기를 돋우자 공훈배우 자격증을 보여주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던 명균씨는 춤을 추기도 했다. 목포상고 출신으로 북한에서 문화예술계 책임자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진 북측 임종섭씨(79)는 9~12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가씨(76) 등 남측 동생들을 만났다.

○...남측 상봉단 가운데 이관재씨(54)는 12일 저녁식사후 갑자기 쓰러져 방북길에 오르지 못했다. 북한의 김순경씨(69)를 만나려던 조카 진민씨(59·강원강릉시)도 수해복구 때문에 금강산행을 포기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김의구기자

“죽은 줄 알았는데...” 오열

• 이산상봉 첫날 안팎

곳곳이 울음바다였다. 제5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첫날인 13일 금강산 온정각은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50여년이라는 세월 끝에 상봉한 남-가족들은 서로의 주름잡힌 얼굴과 허약하게 변한 머리를 어루만지며 세월을 원망했다.

부부상봉=다리가 불편해 휠체어에 의존해 30년 조금래 할머니(73)는 국군포로 출신인 남편 리기탁씨(74)를 보고 말문을 잊지 못했다. 조할머니는 6·25전쟁중 전사처리된 남편의 위패를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봉안하고 제시할 지내왔다. 리씨가 “여보, 이리 가까이 와서 이야기지”라고 말하자, 조할머니는 새색시처럼 수줍어하며 말을 잊지 못했다. 리씨는 헤어질 당시 부인의 뺨속에 있었던 아들 태석씨(53)의 집을 받고는 “뺨속에 들어있어 알지도 못했던 유복자야...”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박중하 할머니(80)도 28세때 헤어진 남편 권오철씨(81)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오열했다. 남편 권씨는 1950년 여름 아침식사를 마친 후 박할머니와 아들 1명, 딸 3명을 남겨둔 채 집밖에 나갔다가 소식이 끊어졌다. 권씨는 “박할머니가 홀로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말을 듣고 ‘내가 할아버지, 당신이 고생했어...’라며 박할머니의 손을 쓰다듬었다.

◇형제상봉=“우리 오빠 목소리 맞아”, 남측 시각장애인 김근래씨(68·여)는 음성만으로도 북측 오빠 최래씨(74)를 알아보고 눈물을 쏟았다. 최래씨는 “내 등에 얹혀 피난나섰던 게 어찌께 같은데 어느덧 늙어내렸다”면서 “그래도 살아있는 남 보니 너무 좋다”고 근래씨를 부둥켜안았다.

남측 손잡손 할머니(78)는 전사통보통 받고 국립묘지에 위패까지 봉안된 북측 동생 윤모씨(68)를 만나자 “선산에 꽃이 피었다”며 기뻐했다. 남측 홍국표씨(68) 등 4형제는 북



戰死처리돼 제사지내온 남편보고 말문 잊지못해 세월의 실타래 풀며 눈물

측 말청 김표씨(70)를 만나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보여주며 “형님이 제사를 지내오. 잡손이 지내이지”라고 말했다.

종기씨 등 5명의 남측 동생과 헤어진 립종섭씨(79)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목포상고 3년 선배이며, 문화예술계 책임자로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동생 신성균씨(66) 등과 상봉한 북측 명균씨(71)는 ‘피리다가극단’ 단장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균씨는 동생이 준비해간 컴퓨터로 ‘고향의 봄’을 연주하자 비자에 맞춰 손을 추가도 했다.

◇부녀상봉=남측 딸 이영옥씨(54)는 4살 때 헤어진 북측 아버지 이상철씨(74)를 만나자 울음을 터뜨렸다. 영옥씨가 “어머니가 아버지와 헤어진 뒤 3년만에 화영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자녀까지도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전쟁전 고향인 강원 화천군에서 상삼씨는 인민군에 입대했으며, 영옥씨의 어머니는 휴전 후 화천군이 휴전선 이남에 포함되면서 아버지와 헤어졌다. 영옥씨와 함께 동행한 남측 이윤철씨(63)는 처음으로 대하는 장인에게 큰절을 올렸다. 이진욱(59)·진금(53)씨 지매가 6·25때 헤어진 북측 아버지 규업씨(82)를 만나 “아버지 그 때 왜 남 안 데려갔어”라고 묻자 규업씨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면서 울먹였다. 규업씨는 큰 아들 진병씨가 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뒤 고개끝 숙이며 말을 잊지 못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설레는 출발
제5차 이산가족 남측 상봉단이 13일 오전 설봉호에 승선하기 위해 강원 속초시 여객터미널에 집결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만남의 금강산' 또 눈물의 메아리



"오빠..." 13일 오후 제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김원도 태백에 사는 김육양씨(오른쪽)가 친오빠인 김세진씨를 부둥켜 안으며 오열하고 있다. ●금강산 사진공동취재단

5차 이산상봉 첫날

반세기만의 만남에서는 늘 그랬던 것처럼 만남보다 눈물이 앞섰다.

5차 이산가족 상봉 첫날인 13일 오후 금강산 온정각휴게소 단체상봉장에 북쪽 가족이 하나씩 얼굴을 드러내자 남쪽의 이산가족들은 여기저기서 반가움의 울음을 토해냈고 상봉장은 곧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50여년 동안 뽕매에도 잊지 못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형, 동생, 아들, 딸의 얼굴을 한참 비껴대고 어두만친 뒤 울음을 그친 이들은 그제서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북의 권오섭(81)씨는 반세기 동안 딸 셋을 키우며 수절한 아내 박중하(81)씨에게 "내가 철쭉자지. 당신, 고생했어."라고 말했다. 박씨는 그동안의 고생과 전쟁중에 전염병으로 숨진 아들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50년 동안 끊겼던 부부의

부모·부부·형제만나 비비고 어루만지고 곳곳 통한의 애기꽃

연이건만 다시 잇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내갈 때 헤어진 아버지 이상설(74)씨를 만난 남쪽의 딸 영옥(54)씨는 "어머니는 아버지랑 헤어진 뒤 3년만에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10년 전까지 아버지를 기다리다 돌아가셨다."고 말했다고 이씨의 대답은 '목놓은 풀'이었다. 52년 전 헤어진 북의 아버지 이규엽(82)씨를 만난 진옥(60)씨는 "아버지, 나 모르겠어? 아버지, 한번만 안아줘."라고 말하며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태평양을 건너온 심민자(75·여·미국 LA)씨는 북쪽의 동생 수영(70)씨

를 만나자마자 손을 부여잡고 "혼자 4남매를 키우던 어머니는 네가 북에서 죽은 줄로만 알고 눈물로 보내다 15년 전 돌아가셨다."고 애절한 사연을 전했다.

합육을 찾아야 하는 절박함 앞에는 불치병도 어찌지 못했다. 북의 형 이영식(68)씨를 만난 메임 2기의 영준씨는 언제 댁이 아꼈냐는 듯 형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또한 남쪽의 신성균(68)씨는 음악가였던 북의 형 명균(71)씨를 위해 할부름로 '고향의 봄' 등을 연주하기도 했다. 남측 최고령자인 김순규(93) 할머니는 자신만큼 늙어버린 딸 최순옥(72)씨의 얼굴만 쓰다듬으며 말을 잊지 못했다. 남쪽의 가족들은 이날 단체 상봉에 이어 저녁식사를 한 뒤 다음날 만남을 기약하면서 각자의 숙소인 해금강호텔, 설봉호와 금강산여관으로 돌아가 흥분된 첫날 밤을 보냈다. ●금강산 공동취재단·박복심기자

youngtan@daily.com

南시각장애인 상봉기

"우리 오빠 맞아, 오빠..."

52년을 절절히 그리워했던 피붙이를 알아보는 데는 징겨온 목소리 하나면 충분했다. 앞모 보는 눈은 반백년을 참았던 눈물을 쏟아 내기에도 부족했다.

남쪽의 선천성 시각장애인 여동생 김근래(68)씨는 오빠 학래(74)씨가 "근래야."하면서 자신을 부르자 대뜸 오빠임을 알아보고 하얏잖이 눈물을 쏟았다. 손가락으로 오빠의 얼굴을 더듬어보다 어마의 심처를 확인한 뒤 "오빠, 맞아."라며 다시 오열했다.

이마상처 더듬으며

"오빠 맞아"

학래씨는 "근래가 이렸을 때부터 앞을 못봐서 항상 안쓰러웠다."면서 "오빠로서 눈을 못고쳐준 것이 마음에 걸렸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학래씨는 "영영 못볼 줄 알았는데 살아서 날 만나게 되니 아주 좋다."고 기뻐했다.

다른 남매들의 시샘을 받을 정도로 각별했던 오누이였다. 남동생 준래(73)씨는 "근래가 형님 얘기만 나오면 아무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고 말했다. 6·25때 오빠의 등에 업혀 피난길에 나섰던 곱디 고왔던 열여섯살의 누이는 전쟁중에 인민군이 돼 북으로 간 오빠를 징감있는 목소리와 푸근한 등짐의 느낌으로 52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 근래씨는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할 수 없는 오빠의 목소리를 귀에 새겨놓으려는 듯 상봉 내내 한 마리 어린 새처럼 오빠 곁에 꼭 붙어 있었다.

●금강산 공동취재단·박복심기자

“50년만에 딸 보러 왔는데...”

5차 이산상봉- 南최고령 김유중할머니 사위만 만나

“북에까지 왔는데도 살아 있는 딸을 만나지 못하다니...”

13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이뤄진 5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남측 상봉단 가운데 최고령자인 김유중할머니(93)는 말없이 눈물만 삼켰다. 생전 처음 보는 북의 사위 이우문씨(70)를 만났지만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셋째딸 이경란씨(67)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 만난 사위에게 삼가운 말을 건네는 것도 쑥스러운 듯, 김 할머니는 사위가 건넨 딸의 사진만 말없이 어루만졌다.

이씨와 경란씨는 둘 다 남쪽 출신으로 북에서 만나 결혼한 사이. 경란씨는 경기여중 재학 중이던 1951년 1·4후퇴 때 당시 임신 중인 어머니를 보살피느라 피란을 못 가고 서울에 남아 있다가 중공군에 탈북해 북으

로 끌려갔다. 전쟁 당시 서울공고 졸업반이던 이씨는 같은 해 7월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의용군에 끌려가는 바람에 가족과 헤어졌다.

신청자 아니라 딸 못나와

이씨는 이날 “나는 황해남도 감령군 부모에서 수산학교 교장을 했고 처는 의사를 지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사위 이씨가 남측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잠모인 김 할머니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덕분에 상봉 대상자에 포함되기는 했으나 딸 경란씨는 이산상봉 신청자가 아니라 이 이유로 상봉장에 나오지 못했다. 김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도 혹시 딸을 만날지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와 사위 얼굴이라도 봐야겠다는 심정에 고려의 몸을 이끌

고 방북길에 나섰다.

김 할머니처럼 안타까운 사연이 생긴 것은 경직된 이산가족 상봉 절차 때문. 이번에는 북한 가족 1명당 남한 가족 5명이, 16일부터 진행되는 두번째 상봉 때는 남한 가족 1명당 북한 가족 5명이 상봉기로 규모를 제한하는 바람에 북에 외서도 딸을 못 만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생겼다.

경직된 절차로 아픔 더해

더욱이 김씨 할머니가 딸 경란씨를 만나려면 다시 상봉신청을 해 10만명의 이산가족 중 추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이 없는 실정이다. 김 할머니는 이날 온정각을 떠나며 딸의 모습을 찾는 듯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금강산=공동취재단



“아버지 절 받으세요”

13일 오후 제5차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진 북한 금강산 온정각에서 북에 사는 이규영씨(왼쪽)가 큰절을 올리는 남측 두 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있다.

금강산=

73살 할머니 “남편 제사까지 지냈는데...” 50년 恨풀린 ‘亡者’와의 재회

南 조금래·北 리기탁씨

“제사를 지냈는데 이렇게 살아 있었구나...”

13일 제5차 남북이산가족 단체 상봉이 열린 북한 금강산 온정각. 합체어를 타고 상봉장소에 들어선 조금래(73씨는 남편의 비자출을 부여받고는 명한듯 한동안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6·25전쟁 중 전사(戰死)처리돼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까지 지내온 남편 리기탁(74씨)을 살아 대면했으니 꿈인듯 생시인듯 분간이 안 갔다. 조씨는 한참이 지나서야 지승이 아닌 이승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50년 만에 재회한 자신을 발견하고는 연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남한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남편 리씨가 주름진 남쪽의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리고는 합체어에 의지한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며 눈시울을 붉혔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 리씨의 생존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00년 10월. 2차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후보자 생사확인 과정에서 남편이 북한에 살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조씨는 “죽기 전에 단 한번 만이라도 남편을 만나게 해 달라”고 국립묘지를 찾아 하늘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하지만 남편이 최종 상봉자 명단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살아서 만날 인연이 못되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을 감추질 못했다. 뜬 눈으로 밤 새우기를 수십차례, 그 리움에 사무쳤는지 남편의 몽환

(夢幻)까지 비쳤다. 노모의 안타까움을 옆에서 지켜 봐야 했던 맏아들 태석(53씨)은 이날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것을 확인하고도 만날 수 없으니 차라리 생존사실을 모르는 것이 더 맞

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고 술회했다. 그는 “명절 때면 아버지 산소에서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가 이제야 한을 풀게 돼 정말 기쁘다”고 울먹였다.

리씨는 그 사이 북한에서 새 아내를 맞아 4형제를 두었다. 이날 그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태석씨는 “하루 빨리 동생과 조카를 만날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며 아버지에게 그들의 안부를 물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6·25때 전사처리...극적상봉에 연신 눈물 맏아들 “北동생-조카들도 빨리 만났으면”



“아버지 큰절 받으세요” 제5차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진 13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50여년만에 북쪽의 남편 리기탁씨(왼쪽 두번째)를 만난 조금래씨(왼쪽)의 아들 태석씨가 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리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南 시각장애 여동생
얼굴만져 흥터 확인
"오빠맞네~ 오빠" 눈물

"우리 오빠 목소리 맞아"
남측 시각장애인 김근래(58)씨는 13일 금강산 온정각휴게소에서 목소리만으로 북측 오빠 화진(74)씨를 알아보고 허겁지겁 눈물을 쏟았다. 화진씨도 "불쌍한 내 동생 살아있었구나"라며 근래씨를 부둥켜 안고 눈시울을 붉혔다.

신천성 시각장애인인 근래씨는 오빠의 얼굴을 더듬으며 어릴 적 이마에 난 상처를 확인하곤 연신 "오빠 맞네"라며 오열했다.

화진씨는 "내 동에 업혀 피란 나섰던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늙어버렸다"면서 "그래도 살아있는 널 보니 너무 좋다"고 동생을 어루만졌다. 근래씨와 같이 금강산을 찾은 남동생 근래(73)씨는 "이젠 재사상을 차리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3남매의 맏이인 화진씨는 6·25 전쟁이 일어나자 어릴 적부터 눈이 안 통성 근래(당시 16세)씨를 업고 고향인 김홍시 연평면 영진리를 떠나 피란길에 올랐다. 그러나 인민군에 끌려가면서 행방이 묘연했다. 화진씨는 "36년 동안 종업원이 1600명이나 되는 기계공장의 지배인으로 조국에 봉사했다"면서 "전쟁 때 수렁남 중에 안 건 게 다행"이라고 한마디했다. 하지만 정치적 동은 말 속에 가슴은 미어졌다. 동생 근래씨는 시종 큰오빠의 손을 잡은 채 말이 없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꿈만 같다” 뜨거운 포옹

이산상봉 이모저모

제5차 이산가족 상봉 첫날인 13일 금강산 온정각은 북한 이산가족과 남측의 어머니, 딸, 아들, 형제자매들의 감격적인 만남으로 온통 눈물바다를 이뤘다. 50여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상봉한 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소리내어 울고 웃으면서 협육의 정을 통족 느꼈다.

“오빠” 연신 얼굴부벼

◆북비행기 상봉=북한의 도영문(70)씨는 이날 누나와 여동생 등 7남매를 찾았지만 모두 건강을 이유로 금강산에 오지 못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신 동갑내기 고종사촌 박청권(70)씨만이 가족을 대표해 혼자서 도씨를 만났다. 박씨는 "누이 두분은 이번 수해로 발목을 포기었고 한분은 무릎 수술을 받아 함께 오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도씨에게 술을 한잔 따르며 서운한 마음을 다독여줬다.

북한에 있는 김승식(63)씨를 만나기 위해 10남매가 준비물을 했던 남동생 교식(67), 승식(59)씨와 여동생 애식(64), 인희(50)씨는 승식씨가 상봉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두 손을 모은 채 입구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인희씨는 오



“오빠” “동생이” 13일 오후 금강산 온정각에서 김경도 태대에 사는 김옥환(84)씨가 50년만에 북측 오빠 세진(69)씨를 만나 부둥켜 안고 오열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빠를 보지 "오빠 맞아, 오빠 맞아"를 연신 외치며 얼굴을 부벼주고 승식씨는 "이렇게 기쁜 날에 왜 무느냐"며 동생의 등을 토닥거렸다.

고향의 봄 즉석연주

◆합체상봉=6·25전쟁 때 단점이 모두 남북됐던 '서울 심포니 서양악단'의 멤버였던 신명균(71)씨는 온정각 상봉장에서 남측의 동생 상균(66·종교인), 공자(61·여), 향균(54·여·서예가), 문균(56·기업인)씨 등 남측 가족들과 뜨거운 포옹을 나눴다. 명균씨는 50여년만에 만난 오빠 명균씨의 뒷발을 만지면서 "오빠 맞네, 우리 핏줄 귀가 맞네"라며 울먹였고

명균씨는 "내가 막내로구나"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성균씨는 큰형이 "아버지가 황해도에서 인민위원의 서기장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이내 고개를 떨쳤다. 성균씨는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플루트를 꺼내 "형이 서울대 음대 다닐 때 플루트를 잘 불렀지"라며 '고향의 봄'을 연주, 상봉장이 한때 숙연해졌다.

딸의 손잡고 눈시울

◆부녀상봉=내날 때 헤어져 아버지의 얼굴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 남측의 딸 이영옥(57)씨는 막상 아버지 상실(74)씨를 만나자 반가움과 당황스런 마음에 울음을 터뜨렸다. 딸이 "어머니는 아버지

와 헤어진 뒤 3년만에 회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주름 가득한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영옥씨가 아버지와 헤어진 것은 전쟁이 나던 1950년. 인민군에 입대한 아버지를 기다리던 영옥씨와 어머니는 53년 휴전 후 회천군이 휴전선 이남 지역으로 포함되는 바람에 인민군에 입대했던 아버지와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영옥씨는 지난해 1월 3차 이산가족 상봉 때 꿈에 그리던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편지를 받고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이날 영옥씨와 함께 동행한 남편 이윤철(63)씨는 처음으로 대하는 장인에게 큰절을 올렸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재회의 건배

제5차 이산가족상봉 첫날인 13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남북의 이진욱(왼쪽 두 번째)씨 가족이 50여년만에 만난 북쪽의 아버지 리규업(오른쪽 두 번째)씨와 재회의 건배를 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금강산면회소 설치 술한난관 예상 이산상봉 정례화 '먼길'

5차 이산가족 상봉이 13일 예정대로 이뤄짐에 따라 상봉 정례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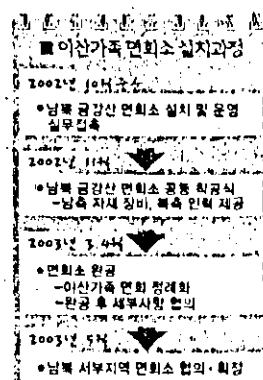
남북은 지난 8일 끝난 4차 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지역 면회소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상봉 정례화에 한발 다가섰다.

그러나 상봉 정례화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현 정부들어 네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으로 4500여명의 가족과 친척이 만났다.

생사·주소확인 두 차례, 서신 교환도 한 차례 실시됐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일회성·이벤트성 행사였다. 이산가족의 한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한 것이다.

지난 8월말 현재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는 11만8814명이 등록, 상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산 2~3세대를 포함하면 대략 767만명이 혈육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화병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산 1세대의 사망 이전에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상봉이 이뤄져



면회소는 늦어도 11월에는 착공식을 가지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우리측은 자재와 장비, 북측은 공사인력을 제공한다.

공사시간은 대략 5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공사기간이 동절기 임을 감안할 때 완공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 남북은 면회소 완공에 맞춰 면회 방식 등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 금강산지역 면회소가 본궤도에 오르고 경의선이 연결되면 양측은 서부지역 면회소 설치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도리산역으로 잠정 결정

내달 실무접촉 규모등 협의 北, 반대급부 요구 진통클듯

아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면회소 설치까지는 술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남북은 10점 중순 금강산지역 면회소 설치와 운영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접촉을 갖는다.

양측은 면회소 규모, 설치지역 등을 협의한 뒤 면회소 설치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질조사와 설계에 착수한다.

돼 있다. 면회소 설치의 관건은 전반적인 남북관계다. 북측은 그동안 남북간 협상에서 우리측에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이산가족 상봉이었다.

북측의 행태로 미뤄볼 때,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따른 엄청난 반대급부를 원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가 순항하면 상봉 정례화도 제대로 진행되었지만 난항을 겪으면 상봉 정례화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엄존한다.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13일 오후 금강산 온정각에서 북측 신영군씨가 남측 동생 성군씨의 즉석 플루트 연주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 [금강산=연합]

앞 못보는 여동생 오빠 얼굴 더듬다 오열

금강산 이산상봉 표정

“우리 오빠 목소리 맞아.” (남측 여동생)

“불쌍한 내 동생 살아있었구나.” (북측 오빠)

시각장애인 여동생 김근래(68)씨가 6·25전쟁 중반에 인민군으로 끌려간 오빠 학래(74)씨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학래씨는 시각장애인이었던 여동생 근래씨를 등에 업고 고향인 강원도 강릉시 안곡면을 떠나 피란길에 나섰던 기억들이 눈물 속으로 스쳐 지나갔다.

근래씨는 오빠의 얼굴을 더듬어 이마에 난 상처를 확인하고는 오열했고, 학래씨는 “어렸을 때부터 앞을 못봐서 항상 불쌍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살아있는 너를 보니 너무 좋다”며 부둥켜 흐느꼈다.

남북 혈육 상봉으로 금강산은 또 다시 눈물바다가 됐다.

13일 오후 5시20분쯤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남측 이산가족 4백55명은 북측 가족 1백명과 감격적인 단체상봉을 가졌다.

6·25전쟁 때 헤어진 북측 아버지 이규영(82)씨를 만난 남측 딸 진옥(60)·진금(54)씨 자매도 감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진옥씨는 상봉장에서 만난 누이에게 “아버지 나 모르겠어”라고 묻자, 누이는 50여년의 헤어진 세월을 원망하는 듯 울음부터 먼저 터뜨렸다.

진옥씨도 “아버지 나 한번만 안아줘”하며 누이에게 안기면서 북반쳐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강원도 원주시가 고향인 누이 가족은 6·25전쟁이 터지자 피란길에 나섰다가 헤어져 남과 북으로 찢어지고 말았다.

북한에 살아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30년 넘게 제사를 지내왔으며, 진옥 자매의 어머니는 9년 전 7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진금씨는 “6·25전쟁 중에 아버지의 사진까지 모두 타버려 얼굴조차 모른 채 지냈는데 너무 놀랍고도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상봉장에는 지난해 4월 숨진 아버지 김갑원씨를 대신해 김성(60)씨가 북측 고모 오복(69)씨를 만나 주위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동덕여고 졸업반 때 간호원으로 인민군에 강제 징집된 오복씨의 생사가 쏜씨의 아버지에게 전해진 것은 식도암으로 투병 중이던 2000년 10월이었다. 2차 이산가족 상봉 직후였다.

생사는 확인했지만 상봉자 명단에서 계속 누락되면서 김원씨의 기쁨은 점점 고통으로 변해갔다.

쏜씨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까지도 ‘여동생을 꼭 보고 싶다’고 연신 흐느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쏜씨로부터 사진을 건네받은 오복씨는 사진 속의 오빠의 얼굴을 만지면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고수석 기자 <sskom@joongang.co.kr>



◇ "살아있었구나" 13일 오후 제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금강산 온정각에서 강원도 태백에 사는 김옥랑(64·오른쪽)씨가 친오빠인 김세진(69)씨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환갑 딸 "아버지 나좀 안아줘"

남북 이산가족 555명 금강산 상봉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13일 오후 북한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이뤄졌다.

남측 상봉단 중 최고령자인 김순규(93) 할머니가 50년 만에 북측의 딸 최순옥(72)씨를 만난 것을 비롯해 남측 이산가족 455

명은 북측 100명과 기쁨과 눈물을 나눴다.

휠체어에 앉아 있던 남측의 조금래(73)씨

는 전사(戰死)처리돼 국립묘지에 위패까지 봉안된 북측의 남편 이기탁(74)씨가 상봉장에 나오자 말을 잊지 못했다. 선천성 시각장애자인 김근래(68)씨는 북측의 오빠 하래(74)씨의 얼굴을 더듬어 이마의 상처를 확인하고는 "우리 오빠 맞네"라며 오열했다. 하래씨는 "불쌍한

내동생이 살아있었구나"라며 부둥켜 안았다.

북측의 권오설(81)씨는 수절하며 시어머니를 봉양한 아내 박중하(80)씨를 만나자 "내가 불효자지. 당신 고생 많았어"라며 손을 맞잡았다.

시각장애 여동생, 얼굴만져 "오빠맞네"

戰死처리된 남편 나타나자 할말없어

네살 때 헤어진 아버지 이상선(74)씨와 만난 남측의 딸 영옥(57)씨는 "어머니는 아버지가 찾아올까 하는 마음에 고향집에서 10년 넘게 기다리다 33세에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6·25때 딸과 헤어진 이규업(82)씨는 남측의 딸 진옥(60)씨가 "아

버지, 나 한번만 안아줘"라며 외라 품에 안기자 눈물만 흘렸다. 휴전 직후 동생의 전사 통보를 받았던 손갑순(78)씨는 북측의 남동생 윤모(68)씨를 만나자 "선산에 꽃이 피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전쟁 전 '서울 심포니' 멤버였다가 다른 단원과 함께 북으로 끌려

갔던 신명균(71)씨는 동생 성균(66)씨로부터 트럼본과 '가요반세기'라는 악보집을 선물받았다. 미국 LA

에서 날아온 언니 심민자(75)씨와 동생 소영(66)씨를 만난 북측의 수영(70)씨가 연신 "(김정일) 장군님의 배려로 어려움없이 생활했다"고 말하자 소영씨가 "돌아가신 임마보 다 장군님이 더 좋으냐"고 말해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묘지에 누워있는줄 알았는데...”

■ 이산상봉 표정

휴전직후, 전사통보 동생
죽은줄 알았던 남편 만나
뺨에 사무친 사연 나눠

이산가족 상봉은 여러차례 이뤄졌지만, 당사자들에게겐 여전히 반세기 만의 기막힌 만남이었다. 사망신고 뒤 재사를 지내온 파벌이, 한곳에서 나고 자랐지만 남과 북, 일본, 미국에 흩어져 살아온 이들, 그 사이 세상을 등진 부모의 영정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이들... 뺨에 사무치는 사연은 끝이 없었다. 13일 오후 남북 이산가족의 단체 만남이 있었던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는 언제나 그랬듯이 통곡으로 시작됐다.

◇ “선산에 꽃이 피었네”=손운모(68)씨는 한국전쟁 이후 줄곧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의 “호국영령”으로만 존재했다. 휴전 직후 남한 정부가 가족들한테 전사했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북녘에 살아 있었다. 누이 갑순(78)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흐느끼며 동생을 어루만지더니 “선산에 꽃이 피었네”라며 기뻐했다. 휠체어에 의지해 금강산 뱃길을 건너 온 조금래(73)씨도 국립묘지에 위패로만 남아 있던 남편 리기탁(74)씨를 만났다. 조씨는 심정이 복잡하지 않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 “보지 못해도 우린 만난다”=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김근래(68)

씨는 북녘의 오빠 학래(74)씨를 목소리로 만났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근래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오빠 목소리 맞아?” 그는 학래씨의 이마 상처를 확인하자 “오빠 맞네”라며 오열했다.

◇ “흩어진 가족, 바다를 건너”=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던 심민자(75)씨는 30년 동안 북한 관영 <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를 했다는 동생 수영(70)씨를 만나기 위해 이를 전 귀국했다. 그는 함께 온 기섭(69)·소영(66)씨를 보며 “반세기 만에 4남매가 한자리에 모였다”며 감격스러워했다. 북녘 김택중(70)씨 7남매는 전쟁 중에 흩어져 남과 북, 일본에서 제각각 살아왔다. 남녘의 딸자(57)씨는 “일본에서 사는 윤자(68) 언니는 병석에 누워

있고, 큰 오빠는 오래 전에 일본 땅에서 숨졌다’는 소식을 전하곤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 “보고싶지만, 만날 수 없습니다”=북녘의 김흥민(79)씨는 조카 김재열(56)·재봉(49)씨를 만났으면서도 쓸쓸한 낯빛을 감추지 못했다. 남녘의 아내 박아무개(74)씨가 ‘재가를 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며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녘의 도영문(70)씨는 고종사촌 박형권씨만 만난 걸 못내 아쉽고 서운해 했다. 남녘에 형제가 7명이나 살아 있음을 확인했지만 다들 사업과 병치레를 이유로 금강산에 오지 않은 탓이다. 반세기 분단은 혈육의 정으로도 건너기 어려운 감이었다.

이재훈 기자, 금강산/공동취재단
nomad@hani.co.kr



13일 오후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금강산 온정각에서 경기 평명시에 사는 이진옥(59, 왼쪽 위)씨 가족이 부친 리규업(오른쪽에서 두번째)를 만나 건배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南시각장애인 동생, 北오빠 목소리에

“우리 오빠 맞아” 오열

■ 5차 이산상봉 현장

13일 반세기 만에 만난 남북의 부부, 부자, 모녀, 모자, 형제 자매는 금강산 온정각 상봉장을 눈물 바다로 만들었다.

그러나 전체적 분위기는 그동안의 상봉 때보다 차분해진 모습이었다.

“우리 오빠 목소리 맞아”. 남측의 선천성 시각장애인 김근래(68)씨는 음성만으로 북측 오빠 학래(74)씨를 알아보았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고 오빠는 여동생을 부둥켜 안았다.

동생은 오빠의 얼굴을 더듬어 이마에 난 상처를 확인하고는 다

4남매 잘키운 아내에
“50년간 고생 많았소”

처음본 장모 건강 걱정도

시 “오빠 맞아”라며 오열했다. 오빠는 “내 등에 얹혀 피란에 나섰던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늙어 버렸다”며 눈물을 흘렸다.

50여년간 수절한 남쪽 아내 박중하(80)씨를 만난 권오성(81)씨는 “젊을 때는 예쁘고 바느질 잘하기로 소문이 났었지”라며 4남매를 잘 키운 아내를 위로했고, 북측의 리기택(74)씨는 다리가 불편한 남의 아내 조금래(73)를 보고는 안쓰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남측 최고령 김유중(93) 할머니는 북측 사위 리우문(70)씨가 가져온 딸 이경란씨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언제 찍은 것이냐”며 애뜻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내를 집에 두고 외 미인한 리씨는 “귀가 잘 들리느냐”며 처음 본 장모의 건강에 신경을 썼다.

전사자로 처리돼 국립묘지에 위패가 봉안된 북측 동생·손을



13일 제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금강산 온정각에서 김분득(82·아래)씨가 막내 동생 영자(61·위 오른쪽)씨와 함께 북측 남동생 중학(75)씨를 만나 감격의 물음을 터뜨리고 있다. /금강산=공동사진취재단

모(68)씨를 만난 누나 갑순(78)씨는 “선상에 꽃이 피었다”고 말했다.

만형 성모(시망)씨 대신 군에 자원 입대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윤모씨에게 남측의 갑순씨, 동생 삼모(66)씨 부부, 재모(59)씨 부부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윤모씨는 만형 성모씨가 동생에 대한 미안함을 건넸던 채 20년 전에 세상을 떠다는 소식에

연신 눈물을 흘렸다.

서울심포니 서양악단 멤버로 활동하다 남북대 피비바다극단 악장을 지낸 신명균(71)씨는 동생들을 만나 북에서 음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녀들의 근황을 소개했고, 동생 성균(66)씨는 “형이 서울대 음대 다닐 때 플루트를 잘 불어 가져왔다”며 고향의 밥, 도리지 등을 연주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오빠 목소리는 안변했네요”

南시각장애인 김근래씨 오빠 만나 오열

금강산서 어제 5차 남북이산상봉

지난 4월에 이어 다섯달 만에 또 다시 금강산이 반세기 만에 성사된 이산상봉으로 눈물비더를 이뤘다.

13일 오후 금강산에 자리잡은 한 대아산 온정각에서는 북한 이산가족 100명이 각각 남북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들과 감격스런 상봉을 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날 단체상봉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14일 개별상봉을 기억하면서 각자 속속한 해금강조羹과 설병호, 금강산어관으로 풀이거 산뜻이무는 첫날밤을 보냈다.

○눈물바다 된 상봉장=제5차 남북 이산가족 순차 상봉행사에 참가한 남북 가족·친척 455명은 13일 오후 5시 20분께 금강산 온정각휴게소에서 북쪽 가족 100명과 단체상봉을 통해 감격적인 해후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설병호 편으로 금강산에 도착한 남북 가족들은 전남 오후 금강산어관에 미리 도착했던 북쪽 가족과 온정각휴게소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내 살 때 헤어져 아버지 얼굴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 남북 딸 이영옥 씨(57)는 막상 아버지 리상실 씨(74)를 만나자 반가움과 당황스런 마음에 울음을 터뜨렸다.

영옥 씨가 “어머니가 아버지랑 헤어진 뒤 3년 만에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이씨는 “지난해까지도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라며 딸 영옥 씨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시각장애인 오열 “목소리는 안 변했네요”=시각장애인인 여동생과 오빠의 만남은 주변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북쪽 오빠 김화래 씨(74)는 “불쌍한 내 동생 살아 있었구나”며 앓을 못보는 남북 여동생 근래 씨(68)를 부둥켜 안았다.

근래 씨는 “오빠 목소리는 안 변

했네요. 금방 목소리로 알아보겠어요”라고 용감으로 오빠를 확인하고 힘겹게 눈물만 흘렸다. 이어 오빠 김씨도 “근래가 어릴 때부터 앓을 못 봐서 항상 별칭했는데...”라며 한없이 오열했다.

○반세기 만에 부부상봉=50년 여름 아침을 먹은 뒤 사라졌던 북쪽 권오실 씨(81)는 반세기 동안 수줍히면서 딸 셋을 잘 키웠던 남북 아내 박중하 씨(80)에게 “고맙다”는 말로 미안함을 대신했다.

몸이 불편해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쪽 조규래 할머니(72)는 전사(戰死) 처리돼 국립묘지에 뉘 때까지 불안된 북쪽 남편 리기덕 씨(74)가 상봉장으로 걸어 들어오자 실금이 나

지 않는 듯 아무 말을 못했다.

○올후드로 “고향의 봄” 연주=6·25 전쟁 때 단원이 모두 남북됐던 ‘서울 심포니 서양악단’ 멤버였던 신영관 씨(71)는 온정각 상봉장에서 남북 동생 상균(66·종교인), 공자(61·여), 정균(54·여·서예가), 문균(56·기업인) 씨 등 남쪽 가족들과 포옹했다.

정균 씨는 50여 년 만에 만난 오빠 영균 씨 귀를 만지면서 “오빠 말네. 우리 핏줄 귀가 맞네”라며 울먹었다. 상균 씨는 “북에 가신 아버지님...”이라는 돌음에 영균 씨가 “황해도에서 인민위원회 서기장을 하시다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정각 했지만...”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선산에 꽃이 피었다”=6·25전쟁 때 헤어져 죽을 줄 알고 제사를 지냈던 남쪽 빙문단은 북쪽 가족들을 데

리고서 “선산에 꽃이 피었다”며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휴전 직후 전사 통보를 받고 국립묘지에 위패까지 봉안된 북쪽 동생 손운모 씨(68)가 상봉장에 들어서자 삼모 씨(66)는 “이이고 형님이냐요”라며 덩어리께 달려갔다.

누나 김순 씨(78)는 “선산에 꽃이 피었다”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세 차례나 찾은 끝에 상봉=“미안하다. 살아 돌아온 사람을 이제야 만나러 나왔구나.” 지난해부터 세 차례나 동생 지춘길 씨(69)가 남쪽 가족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직선자편 통해 들었으나 어려운 형편에 상봉비용을 충당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누나 묘식 씨(74)는 이제야 상봉길에 나서 동생을 만나고서 미안하고 기쁜 마음이 말을 잊지 못했다.

<금강산=김종원기자>



13일 오후 제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금강산 온정각에서 경기도 광명에 사는 이진옥 씨(59·왼쪽 위) 가족이 부친 리규영 씨(오른쪽에서 둘째)를 만나 건배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병취재단>



남북 이산상봉 13일 오후 제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금강산 온정각에서 강원도 태백에 사는 김덕희 씨(64·오른쪽)가 친오빠인 김세진 씨(69)를 만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관련기사 31면 <사진공병취재단>

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눈물바다' “제사까지 지냈는데...”

제5차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3일 지난 4월에 이어 5개월만에 금강산에서 열렸다.

남북 가족 5백50여명은 이날 오후 금강산 온정각에 마련된 단체상봉장에서 반세기만에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며 부둥켜안은 채 회한을 달렸다. 이날 상봉장은 온통 울음바다였다.

○...남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인 김순규 할머니(93)는 50여년만에 만난 북측 딸 최순옥씨(72)의 주름진 얼굴을 쓰다듬으며 한동안 할을 잊지 못했다. 전쟁통에 죽은 줄만 알았던

큰딸이 살아서 상봉장 입구에 들어오자 김씨와 최씨의 사촌 동생 태규씨(65)는 최씨를 알아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백발의 노부부들도 부둥켜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조금래씨(73,여)는 한국전쟁 중 전사 처리돼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위패까지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온 남편 리기탁씨(74)가 행사장에 나타나자 실감이 나지 않는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에 의지한 조씨의 모습에 남편

리씨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네 살 때 헤어져 아버지의 얼굴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 남측의 딸 이영옥씨(57)는 막상 아버지 리상설씨(74)를 만나자 반가움에 울음을 터뜨렸다.

영옥씨가 “어머니가 아버지랑 헤어진 뒤 3년만에 회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리씨는 “작년까지도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라며 딸 영옥씨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홍영식 기자·금강산 공동취재단
yshong@hankyung.com



북측 리숙희씨(가운데)가 13일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단체상봉에서 자매인 이순녀씨(왼쪽)와 이순례씨를 부둥켜 안고 있다. /금강산=정동현 기자 dhchung@hankyung.com



“오리버니-” 감격의 상봉

김광산=서진공공취재단

13일 오후 제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북한 금강산 온정각에서 강원 태백시에 사는 김옥량씨(오른쪽)와 북측의 친오빠 세진씨가 서로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A30면에 관련기사

서울경제

2002. 9.14(토)

7旬 딸 일싸안고 눈물

■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가이유 상봉포기에
北남편 서운해하기도

13일 오후 금강산에 자리잡은 현대이산의 온정각에서는 북한 이산가족 100명이 각각 남측의 어머니·아들·딸·형제·자매들과 감격스런 상봉을 가졌다.

남측 상봉단의 최고령자인 김순규(93) 할머니는 50년여 만에 만난 북측 딸 최순옥(72)씨의 주름진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만 흘렸고 북한 황해남도 강령에서 수산학교 교장을 지냈다는 리우문(70)씨는 처음 만나는 남측의 '가시어머니

(장모) 김유중(93)씨에게 큰절을 읊었다.

지난 50년 여름 아침을 먹은 뒤 사라졌던 북의 권오설(81)씨는 반세기 동안 수절하면서 딸 셋을 잘 키워준 남의 아내 박중희(80)씨에게 “고맙다”는 말로 미안함을 대신했다. 몸이 불편해 휠체어에 앉아 있던 남측의 조금래(72) 할머니는 천사 처리돼 국립묘지에 위패까지 봉안된 북측의 남편 리기탁(74)씨가 상봉장으로 걸어들어오자 실감이 나지 않은 듯 아무 말을 못했다.

반면 북측의 김흥민(79)·랑희영(72)씨는 모두 남측의 아내들이 재가했다는 이유로 이번 상봉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서운한

을 감추지 못했으며 초등학교 교사 시절 지내다가 외용군으로 북에 간 조흥식(75)씨는 아들 찬주(52), 딸 혜숙(53)씨로부터 아내가 재가 후 83년 시망했다는 소식을 들어 아꼈다.

휴전 후 고향 회천군이 남한 지역에 편입돼 돌아올 수 없었던 아버지 리상설(74)씨는 가슴에 안겨 통곡하는 딸 영옥(57)씨의 등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고 북한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인 리규임(82)씨도 딸 진옥(60)·진금(54)씨를 부둥켜 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날 단체상봉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14일 개별상봉을 기약하면서 각자의 숙소인 해금강 호텔과 설봉호·금강산여관으로 돌아가 잠 못 이루는 첫날밤을 보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1차상봉단 455명 귀환

2박3일 일정 끝내고 北가족과 작별

2진 99명 오늘 출발

제5차 이산가족 상봉단 1진 455명은 15일 오전 금강산에서 북측 가족과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고 2박3일간의 짧은 상봉을 마무리했다.

남측 가족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동안 온정각 주차장에서 작별상봉을 갖고 기억없는 재회를

다짐하면서 이별의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여생 동안 건강하도록 당부하거나 미처 건네지 못한 선물을 북측 가족들에게 쥐어주기도 했다. 남측 가족들은 작별상봉 후 실봉호에 승선, 이날 밤 속초항으로 귀환했다.

그러나 낮 12시에 장전함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남측 이산가족 455명을 태운 실봉호가 남북철도도로실무회담 지연을 이유로 2시

간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김계업(80) 할머니가 저혈압으로 쓰러져 실사와 탈수증상을 보여 의료진을 긴장시켰다.

한편 북측 가족과 상봉할 상봉단 2진 99명은 강원 속초시 한화핀도에 집결, 하룻밤을 묵은 뒤 16일 오전 실봉호를 타고 금강산으로 향한다.

/윤상환기자, 금강산=공동취재단 shyoon@sgt.co.kr

이산가족 상봉 마치고 귀환

제5차 이산가족상봉을 위해 지난 13일 북한 금강산을 방문한 남측 이산가족 455명은 15일 오전 금강산 온정각휴게소에서 북측 이산가족 100명과 아쉬운 작별상봉을 끝으로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장전함을 출발해 속초항으로 돌아왔다. 한편, 16~18일까지 금강산 온정각휴게소에서 북측 이산가족 255명을 만날 남측 이산가족 99명은 16일 오전 금강산으로 떠난다.

/금강산=공동취재단

한국일보

2002. 9.16(월)

이산상봉 2진 99명

오늘 금강산으로 출발

제5차 이산가족 상봉 남측 가족 455명이 북측 가족 100명들 13일부터 2박3일간 만나고 귀환한 데 이어 남측 이산가족 99명이 16일 금강산을 찾아 북측 가족들과 상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0면 남측 이산가족 99명은 15일 강원 속초에 집결, 안내교육을 받은 후 16일 오전 11시 관방선 실봉호를 타고 금강산 장전항으로 향한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16일부터 18일까지 단체상봉, 개별상봉, 참관상봉, 작별상봉등 6차례에 걸쳐 12시간동안 북측 가족들을 만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한겨레

2002. 9.16(월)

오늘 이산가족 2차 상봉

1차 455명은 돌아와

5차 이산가족, 교향방문 1회차 상봉에 나섰던 남측 이산가족 455명은 15일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 주차장에서 북측 가족 100명과 1시간 남짓 작별상봉을 마지막으로 2박3일간의 짧은 만남을 마쳤다. 이들은 금강산

관공선 실봉호 편으로 이날 저녁 속초로 돌아왔다. ▶관련기사 4면

또 16~18일에 이뤄질 2회차 상봉을 위해 서울을 출발한 남측 방문단 99명은 북측 가족 230명을 만나러 금강산으로 떠나기에 앞서 속초에 집결해 하룻밤을 보냈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2002. 9.16(월)

93세노모 사위 잡고 "아픈딸 잘 돌봐주게"

5차 이산가족상봉-455명 귀환, 99명 오늘 출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에 나선 남측 가족과 친척 455명이 금강산에서 2박3일간 북측 가족 100명을 만나고 15일 돌아온 데 이어 남측 이산가족 99명이 16일 북측 가족(200명)을 찾아 또다시 금강산으로 떠난다.

○남측 방문단 455명은 귀환하기에 앞서 15일 금강산 온정각휴게소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 작별상봉을 했다.

그러나 이산가족들은 상봉행사와 동시에 열린 남북 철도 도로 실무협의회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남측 대표단이 이날 정오 장전함을 떠날 예정이던 실봉호의 출발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2시간여 동안 발이 묶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방적했던 김계업 할머니(80)가 실사와 탈수로 저혈압 증세를 보이고 이산가족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대표단은 건강 배려 먼저 출발시켰다.

○마지막 작별상봉에서 북측 양원규씨(75)는 남측 동생인 천규씨가

가족들과 찍은 사진을 건네자 "이게 마지막 사진이구나. 이번 상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사진을 많이 찍은 것인데..."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이우문씨(70)는 남측의 장모 김유중씨(93)에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십시오"라며 손을 꼭 잡았다. 김씨는 생사가 확인됐지만 이번 상봉에서 만나지 못한 딸 이경란(67)씨의 이름을 거듭 부르며 사위에게 "여(경란씨)가 신경통이 있으면 약 잘 먹으라고 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진우씨(77)와 남측 아내 김기영씨는 오랫동안 손을 꼭 잡은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씨는 "간 강해, 동얼만 되면 다시 볼 수 있겠지"라고 말하자 김씨는 "지만 건강하면 되나요, 당신도 건강해야지"라며 눈물을 흘렸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금강산=공동취재단



"누님, 저 또 올게요"

금강산=이진경특파원

제5차 남북이산가족상봉 셋째날인 15일 금강산 온정각휴게소에서 작별상봉을 마친 남측의 조병철씨가 차에 탄 북측의 누나 조병숙씨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작별을 고하고 있다.

2002. 9.16(월)

“통일때까지 건강해라”

이산가족 555명 아쉬운 작별... 손 놓지못해

남과 북의 이산가족 555명은 15일 오전 금강산 온정각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의 작별 심봉을 마치고, 2박3일간의 심봉 일정을 끝냈다. 2박3일간의 심봉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이산가족들의 호느낌은 점차 높아졌다.

북측 남편 리진우(77)씨와 남측 아내 김가영(76)씨는 말없이 손을 꼭 잡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다. 심봉이 끝날 무렵 리씨가 “건강해. 통일만 되면 다시 볼 수 있겠지”라고 말하자 김씨는 “당신도 건강해야지”라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 상호씨는 “부부들은 하룻밤이라도 같이 지내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안타까워했다.

남의 여동생 이종순씨는 북의 오빠 종화씨에게 “가슴이 미어져요. 오빠 언제 또 만나, 그날이 언제야”라며 오열했다. 북측 리규연(82)씨는 남의 딸 진옥, 진금씨에게 “울지 말라”고 했지만 진옥씨는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나죠”라고 울먹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신인 북측 김용희(76·여)씨는 남측 이종시촌 여동생과 동요 ‘반달’을 나치며 부르면서 “기쁘게 만났는데 웃으면서 헤어지지”며 가족들을 다독거렸다. 남측 누나 손갑순(78)씨는 북의 동생 윤모(68)씨 손을 잡고 “내일이면 뵈실인데 너를 다시 보지 못하고 죽었구나”라고 탄식했다.

리우문(70)씨는 남측 장모 김유중(93)씨에게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계세요”라고 말했다. 김유중씨는 사위에게 “애(상봉장에 못나온 김씨의 딸 이경련씨)가 신경통이 있으면 약 꼭 먹으라고 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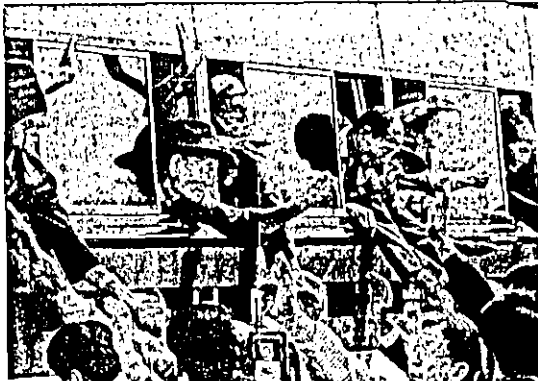
시각장애인 남측 여동생 김근래(68)씨와 헤어지는 하례(74)씨는 연신 담배만 피웠고, 동생은 혼잣말로 “아쉬워요”라고 되뇌었다. 심봉을 끝낸 북측 오빠 최수영씨가 버스로 먼저 떠나자 남측 여동생 손애씨는 버스를 떠나기다 잠시 실신하기도 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산가족 기약없는 이별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심봉 셋째날인 15일 금강산 온정각휴게소에서 작별 심봉을 마친 북측 심봉단이 버스를 타고 출발하려 하니 남측 가족들이 손을 잡고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대한매일

2002. 9.16(월)



아쉬운 이별 15일 오전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제5차 이산가족 심봉을 마친 뒤 버스에 오른 북측 가족들이 차량 밖으로 남측 가족들의 손을 잡고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금강산 사진공동취재단

이산상봉 2진 99명 오늘 출발

제5차 이산가족 상봉 남측 가족 455명이 북측 가족 100명을 2박3일간 만난 데 이어 남측 이산가족 99명이 16일 오후 북측 가족들을 만난다.

남측 이산가족 99명은 방북을 하루 앞둔 15일 속초로 집결, 안내교역을 받은 후 16일 오전 11시 관광선 실봉호를 타고 금강산 정전항으로 향한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첫날 단체상봉(2시간)과 만찬(2시간) ▲둘째날 개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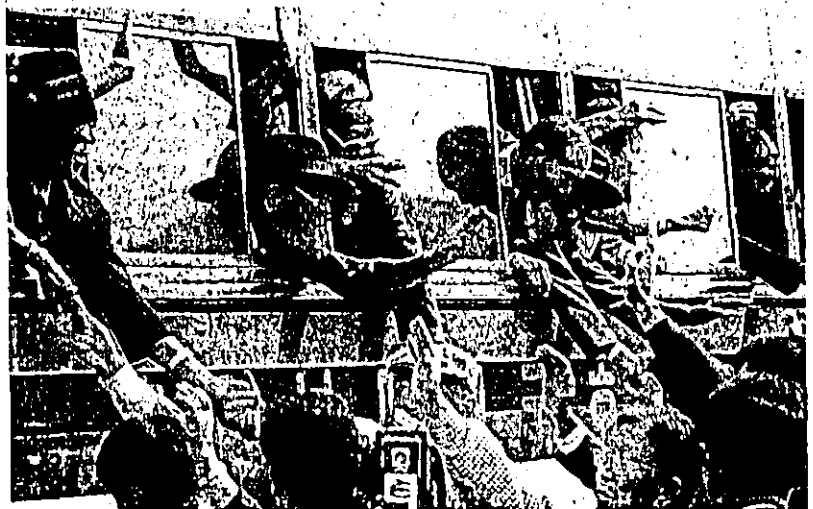
봉(2시간)과 공동중식(2시간), 합관상봉(3시간) ▲마지막날 개별상봉(1시간)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2시간 동안 반세자 이산의 한을 풀게 된다. 북측 가족들은 200여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1차로 상봉한 남북 이산가족들은 15일 오전 금강산 현대이산 휴게소인 온정각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 아쉬운 작별의 정을 나눴다. ●김수경기자 crystal@daily.com

중앙일보

2002. 9.16(월)

한겨레

2002. 9.16(월)



다시 이별 15일 오전 금강산 온정각휴게소에서 작별심봉을 마친 뒤 버스에 오른 북측 가족들이 차량 밖으로 남측 가족들의 손을 부여 잡고 기약없는 이별을 슬퍼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아버지! 언제 또 만나나요”

이산가족 1차 상봉단 귀환

2박3일 동안 1차로 금강산을 방문, 북측 이산가족 100명과 상봉한 남측 가족·친척 455명은 15일 오전 1시간 동안의 작별상봉을 끝내고 설봉호를 이용해 속초로 귀환했다. 2차 상봉을 위한 남측 이산가족 99명은 16일 금강산을 찾아 18일까지 머물면서 반세기 이별의 아픔을 달랠 예정이다.

남과 북의 이산가족 555명이 작별의 만남을 가진 금강산 온정각 주차장은 온통 눈물바다였다. 북측 가족 중 최고령자인 이규영씨(82)는 남쪽의 두 딸 진옥, 진금씨를 만나 “울지 말라”고 했지만 진옥씨는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참아요,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나죠”라며 울먹였다. 진옥씨가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라며 울먹이자 이씨는 “통일되면 다시 만나자” “통일이 되면 너희를 만날 수 있으니 걱정 말라”며 달랬다.

양원규씨(75)는 남측 동생인 천규씨가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건네자 “이게 마지막 사진이구나. 이번 상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사진을 많이 찍은 것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용휘씨(76·여)는 남측 이종사촌 여동생 배순옥씨 등과 동요 ‘반달’을 나직이 부르면서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이화여전 피아노과 출신인 김씨는 여러가지 동요를 직접 부르면서 “기쁘게 만났는데 웃으면서 헤어지자”며 가족들을 다독거렸다.

이진우씨(77)와 남측 아내 김기영씨는 오랫동안 말없이 손을 꼭 잡고 서로 얼굴만 바라봤다. 이씨가 “건강해. 통일만 되면 다시 볼 수 있겠지”라고 말하자 아내 김씨는 “지만 건강하면 되나요? 당신도 건강해야지”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남편이 탄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자 김씨는 버스에 기대 통곡하기 시작했고 아들 상호씨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우문씨(70)는 남측 장모 김유중씨에게 “아프지



이별의 눈물 남북 이산가족 상봉 마지막날인 15일 북측 가족들이 작별행사를 마치고 금강산 온정각을 떠날 때 남측 조병철씨가 버스에 오른 북측 누나 변숙씨의 손을 어루만지며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마시고 건강하게 계세요”라며 손을 꼭 잡았다. 곁에 있던 남동생 우범씨는 “면회소가 설치되면 또 한번 만날 수 있겠지”라고 말했다. 유중씨는 우문씨에게 “애(김씨 딸 경란씨를 지칭)가 신경통이 있으면 약 잘 먹으라고 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이산가족들은 남북 철도·도로 회담 남측 대표단 귀환문제로 출발이 늦어지자 현대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신창호기자

“아버지 또 언제...” “통일뒤 보자”

이산상봉 이모저모

“울지 마. 이렇게 왔으니 됐잖아...”

15일 오전 9시쯤 금강산 현대아산 휴게소인 온정각 주차장은 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마친 남북 이산가족들의 붐북으로 삼시간에 눈물바다가 됐다. 반세기동안 오매불망 그리던 협육을 만난 지 불과 사흘만에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맞이한 남북가족들은 1시간 가량 진행된 작별상봉에서 서로 부둥켜안은 채 뜨거운 눈물과 한 울 쏟아냈다. 일부는 탑진으로 작별상봉을 못하거나 이별의 충격으로 실신하기도 해 주위들 안타깝게 했다.

○...북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인 리규업(82)씨는 연신 눈물을 떨어뜨리는 딸 진옥(60), 진금(54)씨의 어깨를 다독이며 “울지 마라”고 했지만, 진옥씨는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참아요.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나죠”라며 울먹였다.

이어 진옥씨가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라고 말하자 리씨는 “통일이 되면 너희를 만날 수 있으니 걱정 말라”며 달랬다.

버스앞서 대성통곡

○...부부상봉자인 리진우(77)씨와 남측 아내 김기영씨는 한동안 말없이 손을 꼭 잡은 채 서로 얼굴만 바라봤다. 리씨가 “건강해, 통일만 되면 다시 볼 수 있겠지”라고 말하자 김씨는 “저만 건강하면 되나? 당신도 건강해라지”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남편이 탄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자 김씨는 버스에 기대 통곡하기 시작했고, 곁에 있던 아들 상호씨가 김씨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다.

○...오전 10시쯤 북측 가족들이 모두 버스에 올라 유리창 밖으로 손을 내밀자 남측 가족들은 한 번이라도 손을 더 잡아보려고 버스에 매달렸다. 북측 가족들은 한결 같이 “통일되면 다시 만나자”고 말한 뒤 열제히 ‘다시 만나요’와 ‘우리는 하나’, ‘대감조선’ 등 북측 가요를 불렀다.

가족과 삼일포 관광

○...앞서 남북 이산가족들은 14



귀환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해 북한의 가족을 만나고 온 한 할머니가 15일 오후 강원도 속초항에 도착, 마중나온 손녀와 불을 비비고 있다. /속초=협

일 오후 3시부터 3시간가량 금강산의 명소인 삼일포를 함께 관광했다. 이들은 삼일포에 도착한 직후 남측 가족들을 위해 북측이 준비한 과자와 음료수, 과일 등을 나눠 먹고 뛰어난 경치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함께할 시간이 짧다는 생각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북측의 오빠 김학래(74)씨의 손목을 꼭 잡고 참관상봉에 나선 남측의 시각장애인 여동생 근래(68)씨가 “대어섯살 때까지 (오빠가) 날 업고 다녔죠”라며 어릴 적을 회상하자, 학래씨는 “경치가 너무 좋아 3일동안 놀고 가서 삼일포라 부른다”며 삼일포의 유래를 들려 주기도 했다.

설봉호 출항지연

○...이날 부근에서 열린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가 양측의 신경전으로 지연되면서, 남으로 함양 설봉호의 출항시간이 당초 낮 12시에서 2시간가량 늦춰지자 고통자가 많은 남북이산가족들이 항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특히 북측 여동생 수영(71)씨를 만난 심민자(73·여·미국LA)씨 등 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부 이산가족들은 “비행기 예약시간에 늦으면 누가 배상을 할 것인가”며 출항 지연에 따른 불만을 터뜨렸다.

△이강은기자, 금강산=공동취재단

꿈결같은 사흘 "통일되면 다시 만나자"

■ 이산가족 상봉 표정

온정각 이별 울음바다...가족들 노래로 혈육 보내

제5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1차 상봉을 했던 남북 455명은 북쪽 100명의 가족과 단체상봉과 개별상봉, 삼일포 참관 등 꿈결 같은 사흘 동안 만남을 뒤로 하고 15일 오후 실향호편으로 속초항으로 돌아왔다.

○15일 오전 다시 헤어져야 하는 이산가족들은 마지막 상봉장이 된 금강산 현대미안 휴게소인 온정각 주차장에서 부여잡은 손을 놓지 못해 다시 찾아온 이별의 아픔에 푼부엌했다.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높아졌다.

리진우(77)씨는 남쪽 아내 김기영 씨의 손을 꼭 잡고 "건강해 통일만 되면 다시 볼 수 있겠지"라고 말하지 아내 김씨는 "저만 건강하면 되나요? 당신도 건강해야지"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겹쳐서 지켜보면 이들 상호씨는 "어머니가 이번 만남의 승격을 어떻게 이겨내실지 걱정"이라며 "부부 둘은 허뿔뿔이라도 같이 지내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안타까운 미음

을 토로했다. 남편이 탄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자 김씨는 버스에 기대 통곡했다.

○북쪽 여동생 김오복(69)씨를 만난 남한의 언니 계임(80)씨는 14일 밤 탈진해 직별상봉에 참가하지 못하고 숙소인 혜금강호텔에 머물렀다. 조카 김성씨는 "작은고모가 가족 안 부보다 '장군님' 이야기만 해서 큰고모가 많이 서운해 하셨다"며 "사는 이기도 돌아보고 안타까워 하시다가 어젯밤 잠이 들었다"고 말했다.

○후전 10시경 북쪽 가족들이 모두 버스에 올라 유리창 밖으로 손을 내밀자 남쪽 가족들은 한번이라도 손을 더 잡아보고 버스에 예달했다. 북쪽 가족들은 한결같이 "통일되면 다시 만나자"고 말한 뒤 일제히 (다시 만나요)와 (우리는 하나), (대양 조산) 등 북쪽 기요를 불렀다. 버스 뒤쪽에 앉은 한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통해 남쪽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16일부터 진행되는 5차 남북 이산가족 7회차 상봉을 하루 앞두고 15일 오후 속초 현대미안호편에 탑승한 남북 이산가족들이 건강상태를 점검받고 있다. 속초시관광진흥재단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의 합의문 작성 지연으로 이날 낮 12시로 예정되었던 실향호 출발이 늦어지자 일부 고령 이산가족들의 건강을 우려한 협회가 벗어지기도 했다. 실향호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김계임(80)씨가 지혈암으로 쓰러지자 실무협의회의 대의단은 나중에 귀환하기로 하고 이산가족들부터 오후 2시에 우선 귀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실무협의회의 대의단과 취재진은 16일 남쪽 이산가족 99명을 태우고 장전항으로 도착하는 실향호편으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귀환하기로 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파월, 11월 서울 방문

【뉴욕=AFP 연인】폴리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회 '민주주의 공동체' 회의에 자신이 직접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파월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최성룡 외교총장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신의 서울 방문 계획을 최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서울 회의는 11월10일부터 서울간 열린다.

경향신문

2002. 9.16(월)

'면회소 생기면 꼭, 다시 만나자'

· 이산가족 555명 '또 기억없는 이별'

"면회소가 생기면 또 만날 수 있겠지"
15일 오전 1시간 동안 금강산 온정각 주차장에서 남북 이산가족 555명은 허겁지겁 눈물을 흘렸다. 2박3일간의 짧은 상봉일정은 그렇게 끝났고 남쪽 상봉단은 이날 오후 금강산 관경산 실향호 편으로 속초로 귀환. 또 다시 기억없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돌아갔다.

○직별상봉=북쪽 가족 최고령자 리규영씨(82)는 눈물을 흘리는 남쪽의 두 딸 진옥·진금

씨에게 "올지 말라"며 등을 다독였다. 진옥씨가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어찌 어떻게 하죠"라고 말하자 리씨는 "뜻깊이 되면 만날 수 있으니 걱정 말라"며 두 딸을 달랬다.

50여년 만에 만난 부부의 정은 남았다. 리진우씨(77)와 남쪽 아내 김기영씨는 딸없이 손을 꼭 잡고 서로 얼굴만 바라봤다. 리씨가 "건강해, 통일만 되면 다시 볼 수 있겠지"라고 말하자 아내 김씨는 "저만 건강하면 되나요? 당신도 건강해야지"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들 상호씨는 "어머니가 이번 만남의 승격을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남편이 탄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자 김씨는 버스에 기대 통곡했고 상호씨는 어머니를 끌어당기며 눈물을 흘렸다.

리우문씨(70)는 남쪽 정모 김유경 씨에게 "어찌 마세요"라며 손을 꼭 잡았다. 김유경씨는 리우문씨에게 "예(김씨 딸 경란씨를 지칭)가 신경통이 있다는데 약 잘 먹으려고

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강복씨(74)는 직별상봉 아내 남숙의 두여동생 옥순, 옥례씨

의 손을 놓지 못하고 "건강하게 살아서 통일된 조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옥순씨는 "어버지 소식이나 들을까 했는데 다 돌아갔다는 말을 들어서 어젯밤 내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수취한 표정=고령인데다 상봉의 승격으로 말갠 직별상봉에 참석하지 못한 이산가족의 시연은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북쪽 여동생 김오복씨(69)를 만난 남한의 언니 계임씨(80)는 14일 밤 탈진, 이날 직별상봉에 참가하지 못했다.

오전 10시쯤 북쪽 가족들이 모두



15일 오전 금강산 온정각휴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마친 북쪽 가족들을 태운 버스가 떠나려하자 남쪽 가족들이 치성으로 내민 손을 부여잡고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시진공동취재단

버스에 오르지 상봉정은 눈물바다가 됐다. 북쪽 가족들은 유리창 밖으로 일제히 손을 내밀었고 남쪽 가족들은 한번이라도 손을 더 잡아보기 위해 버스에 예달했다. 북쪽 가족들은 "통일 되면 다시 만나자"고 말한 뒤 일제히 북쪽 기요 '다시 만나요' '우리는 하나' 등을 불렀다. 버스 내 뒤쪽에 앉은 한 할아버지는 유리창으로

남쪽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나누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이날 낮 12시 출발 예정이던 실향호는 남쪽 철도·도로 실무협의회의 늦어지면서 출발이 다소 지연됐으나 정부는 오후 2시쯤 실무협의회의 대의단의 일정에 상견없이 서둘러 실향호를 출항시켰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15일 오전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마친 남북 가족들이 떠나는 버스 인편에서 손을 접으며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보 다시 볼날 있을까” 울먹

“통일되면 다시 만나자.”

남과 북의 이산가족 555명은 15일 오전 금강산 현대아산 휴게소인 온정각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의 작별상봉을 마지막으로 2박3일간의 상봉일정을 모두 끝냈다.

1~4차 상봉 때보다는 차분했지만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리진우(77)씨와 남쪽 아내 김기영씨는 오랫동안 말없이 손을 꼭 잡고 이별의 아픔을 달래느라 서로 얼굴만 바라봤다. 리씨가 “건강해. 통일만 되면 다시 볼 수 있겠지”라고 말하자 김씨는 “저만 건강하면 되나요. 당신도 건강해야지”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남측 가족 손갑순(78)씨가 북의 동생 윤모(68)씨의 손을 잡고 “나는 내일이면 80인데 다시 못보고

■ 어제 이산상봉 마지막날

잡은손 차마 못놓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

죽겠구나”라고 하자 윤씨는 “그래도 이번엔 적은 사진이 있지 않느냐”며 애써 두니를 위로했다.

북측의 이강록(74)씨는 작별상봉 내내 남측 두 여동생 옥순·옥례씨의 손을 놓지 못하고 “건강하게 살아서 통일된 조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리중희(71)씨는 앉자마자 종이를 꺼내 남측 여동생 중순씨에게 “남측 가족 주소를 모두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중순씨는 함께 방북한 조카가 앞에서 주소를 적고 있는 동안 “울고 싶어도 못 울었는데 오늘은 실컷 울어야겠다”며 울먹였다.

13일 오후 금강산을 찾아 북측 이산가족 100명과 상봉한 남측 상봉단 455명은 15일 오전9시부터 1시간 동안 이렇게 작별상봉을 끝내고 설봉호편을 이용해 속초로 귀환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이성훈기자
shlee@sed.co.kr

남측 이산 99명 16일 방북

제5차 이산가족 상봉 남측 가족 455명이 북측 가족 100명을 2박3일간 만난 데 이어 남측 이산가족 99명이 16일 금강산을 찾아 반세기 이별의 아픔을 달랠 예정이다. 남측 이산가족 99명은 방북에 하루 앞서 15일 속초에 집결, 안내교육을 받은 후 16일 오전11시 관광선 설봉호를 타고 금강산 장전항으로 향한다.

2차로 금강산을 방문할 남측 이산가족 중 4명이 건강상 이유로 상봉을 포기함에 따라 후보자였던 송윤태(68), 이인규(69), 김연옥(62)씨로 교체, 모두 99명이 방북하게 된다.

남북어부 34년만에 어머니 만나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16일 금강산이론엔 다시 눈물바다기 됐다. 남북 가족 99명은 북측 가족과 친척 253명을 만나 할육의 정을 나눴다.

○...김수동씨 맞아요? 나, 김정순...

반세기라는 세월의 벽은 남매가 어색한 대화를 하게 만들었다.

군대 간다며 집을 떠난 뒤 소식이 끊겼던 오빠 수동씨(75)가 열렬하게 살아 눈앞에 나타나자 남측 여동생 용순씨(68)는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국립묘지에 위패를 모셨고 제사까지 지내 왔던 오빠를 만났다는 사실이 어린 듯 꿈만 같았기 때문이다.

수동씨는 "통일되면 부모님 제사를 내가 모시겠다. 나는 100세까지 살 테니 좀 간간하게 오래 살아라"며 동생을 달랬다.

반공포로 출신도 8명 포함

○...이번 이산가족 상봉단에는 반공포로 출신 이산가족 8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쟁 후 남북을 떠난 사실이 알려져 북측 가족이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고 걱정한 이들은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옛날 일은 그만 얘기하자"고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이명복씨(80·여)는 남북 어부인 아들 정장백씨(53)를 34년 만에 만났다.

정씨는 68년 동해 어로지시선 근처에서 조업하던 중 실종됐다. 당시 남측 인원은 정씨 등 선원 6명과 어선 1척이 남북했다고 보도했으나 99년 북한 평양방송에 출연한 정씨는 열복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상봉장에 아내 문명숙씨(48)와 아들 남진군(18)을 데리고 나와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번 상봉행사를 통해 남북지는 세 번째, 국군 포로는 네 번째의 상봉이 이뤄졌다.

北送 재일교포 첫 상봉

○...남측 손종희씨(71·여)는 북측 재일교포인 아버지 손진환씨



“아들이 살아있었구나”

16일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남북 이명복할머니가 60년대 남북인 아들 정장백씨를 만나 오열하고 있다.

(89)와 북측의 의붓어머니 유복이씨(67)를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북측 재일교포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가족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수피해로 통신두절

○...지난달 7차 장관급회담에서 각종 남북교류사업이 합의된 이후 금강산 지역에서는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홍수로 인한 통신두절과 정전사태로

갖가지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남북 대표단은 통신이 두절되자 금강산에 설치된 방송사 위성방송 장비(SNG)를 이용해 서울 본부에 회담 진행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남북 기자단은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서울 남북회담사무국으로 기사를 송고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인공로 작성한 뒤 이를 TV 카메라로 촬영해 SNG로 송신하는 '비상직전'을 쓰고 있다.

김영식기자 seos@donga.com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산2진 방북 감격상봉

南 99명·北 253명 금강산서 6차례 재회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방북한 남측 이산가족 2진 99명이 16일 금강산에서 북측 가족 253명과 반세기 만에 감격의 상봉을 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첫날 금강산여관에서 단체상봉, 환영만찬 등 4시간여의 만남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17일 개별상봉·공동중식·삼양도 캠프 상봉, 마지막 날인 18일 작별 상봉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2시간 동안 재회 기회를 얻는다. / 관련기사 17면

자 및 국군포로 상봉 실현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김형식(74)·이용원(70)씨 등 반공포로 출신 남측 이산가족 8명이 북측 할육과 상봉했으며 손종희씨(71·여)는 북측 재일동포인 아버지 손진환씨(89)를 60년 만에 만나 재회의 기쁨을 누렸다. 북측 재일동포가 가족 상봉을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산가족들은 단체상봉에 이어 북측 단장인 백용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같은 장소에서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한 뒤 금강산호텔과 실봉호, 금강산여관에서 밤을 보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한겨레

2002. 9.17(화)

이산가족 오늘 개별상봉

반세기 만에 터진 남북 이산가족들의 눈물 샘은 잠시 마를 줄을 몰랐다. 16일 오후 5차 이산가족 상봉 2회차 행사에 참가한 남측 99명과 북측 가족·친척 253명이 만난 금강산여관은 다시 눈물 바다기 됐다. > 관련기사 19면

양측 이산가족들은 상봉 이틀째인 17일 오전 금강산여관 북측 가족 방에서 가족끼리 개별상봉을 하고 오후엔 삼일포를 함께 관광한다.

금강산/공동취재단

世界日報

2002. 9.17(화)

이산상봉2진 99명 北가족과 재회

금강산여관 또 '눈물바다'

제5차 남북이산가족 순차 상봉행사로 남측 가족 99명이 16일 오후 금강산여관에서 꿈에도 그리던 북측 가족 253명을 만났다. 지난 13~15일 남측 가족·친척 455명이 북측 가족 100명을 2박3일간 만난 데 이어 두번째다. (관련기사 22면)

손종희(여·71)씨는 이산가족 상봉사업상 처음으로 북측 재일동포인 아버지 손진환(89)씨를 만나 재회의 기쁨을 눈물로 대신했다. 남측 어머니 이명복(79)씨는 68년 4월 친연호 어부로 남북했던

아들 정진백(54)씨를 부둥켜안고 용어라진 한을 풀었다. 또 김용술(66)씨는 국군포로 출신 오빠 수동(75)씨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얗게 남은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합선을 맞춘 남측의 임형림(69)씨는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 조삼희(90)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지 않던인 말문을 잊지 못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이번 방문단에는 김형식(74)·이용원(70)씨 등 반공포로 출신 남측 이산가족 8명이 북측의 아들 김유하(53)·여동생 이봉나(60)씨 등 할육과 상봉했다. /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남북어부·국군포로 가족 '눈물의 상봉'

금강산 2차 이산상봉

52년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틈도 없었다. 제5차 이산가족 두번째 남북상봉단 99명은 16일 오후 금강산여관에서 북측 가족 250명을 만났다. 금강산여관은 15일 끝난 북측 상봉단의 남측 가족과 만남 이후 또 다시 눈물비가 내렸다.

이산가족들은 상봉장 곳곳에서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손을 놓지 못했다. 북측 가족 중 몇몇 사람은 "이렇게 기쁜 날에 무슨냐"며 노래를 부르며 울음 추기도 했다.

남측 상봉단 중 최고령자인 94세의 정재원씨는 지팡이를 짚은 몸으로 북측의 둘째 아들 동인씨(56)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손을 떼지 못했다.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평안 대동강 남쪽 전기공장에서 일하다 1·4 후퇴 당시 대동강 다리가 끊기면서 감 북쪽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정씨는 그 길로 단신 월남한 뒤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다. 상봉 며칠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지팡이를 짚은 아버지에게 동인씨는 "어머니와 힘도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그리워했다"면서 "이렇게 생전에 뵈게 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기뻐했다.

93세의 김채연씨는 북측 두 아들 인식(66) 영식(63), 딸 현식(60)씨와 부인 박종정씨(90)를 만났다. 김씨는 박씨에게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게 꿈이오 생시오"라며 어쩔 줄 몰라했다. 남측 상봉단 중 두번째 고령자인 김씨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이렇게 살아 있어줘 고맙다"는 말을 덧붙이고 반백하며 굵은 눈물을 흘렸다. 구슬눈 넘긴 백발의 노부부는 거친 손미디를 서로 어루만지며 52년 세월의 흔적을 지우려고 애썼다. 평안남도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김씨는 온 가족이 피란길에 나섰다가 둘째 아들이 놀러가 있는 교묘점에서 합류하기로 하고 먼저 대동강을 건넌다가 의숙시안까지 가족들이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단신 월남했다.

남에서 올라간 아버지 명해복씨(90)를 50년만에 만난 준지(61), 숙지(57)씨 자매는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눈물을 쏟았다. 명씨는 한달 만에 환이오겠다며 아들(당시 2살)과 아내 김순남씨(83)를 데리고 남하했다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헤어질 당시 각각



“내 아들이...” 가로작업 중 남북단 정정배씨가 16일 오후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제5차 남북이산가족 단체상봉에서 만난 어머니 이명복씨를 감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금강산=사천공동취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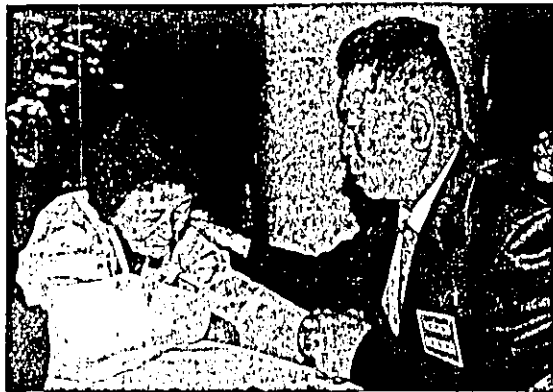
50대아들에 “못난 아비 용서들” 九旬 노부부 “살아줘서 고맙소” 오늘 금강산 여관서 개별 상봉

11살, 7살이었던 두 자매에게 명씨는 "미안하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며 눈물을 쏟았다. 우리측 상봉단 석영자씨(91·여)는 딸 아들 표현준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북측 며느리 김상연씨(63)에게 전해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와 함께 상봉장인 금강산여관 곳곳에서는 활약을 만난 이산가족들의 기구한 시연들이 쏟아져 나왔다. 북측의 국군포로 출신 김수동씨(75)는 남측의 여동생 김용순씨(66)를 만나 그동안의 힘겨운 이별과 지난 68년 남북분리 상봉을 기념하며 정정배씨(54)는 남측의 어머니 이명복씨(79)와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또 남측의 손종희씨(71·여)는 1945년에 헤어진 아버지 손진환씨(89)를 만났다. 아버지 손씨는 지친 북송한 총련 간부출신 재일교포로 아들 부녀는 서로 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남측의 박창규씨(84)는 전쟁때 잠깐 몸을 피한다고 집을 나왔다가 헤어진 부인 김순덕씨(76)를 만나 죄책감 때문인지 한동안 말을 못꺼냈다.

이밖에 상봉단에는 반공포로 출신 남측 이산가족이 8명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한국전쟁 뒤 남쪽을 떠난 사실 때문에 북측의 가족들이 괴로움 입지나 않을까 "옛날 일은 그만 얘기하지"며 손사래를 쳤다. 또 한국전쟁에 인민군으로 참전했다가 북측 가족과 헤어진 김형식씨(74·경기 평택시)는 52년만에 아들과 동생을 만난 뒤 울담배를 피우며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뤄야 했던 일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단체상봉에서 이어 깊은 잠소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각자 숙소인 해금강호텔(남측), 금강산여관(북측)으로 돌아가 따로 잠을 잤다. 양측 이산가족들은 상봉 이튿날인 17일 오전 금강산여관 방에서 가족끼리 개별상봉하고, 오후에는 금강산 삼일포를 함께 둘러 보며 참관상봉을 한다. 신창호기자



국군모로... 16일 오후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6·25 전쟁 때 국군모로 끌려간 북측 김수동(오른쪽)씨가 돌아오는 여동생 김명순씨를 위로하고 있다. ●금강산 사전공동취재단



남북선원... 남북 이명백 할머니가 16일 금강산 상봉장에서 1968년 초입종 남북원 아들 정장백씨를 보고 오열하고 있다. ●금강산 사전공동취재단

남북 선원·8순 노모 34년만의 재회

■ 금강산상봉 2진 이모저모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2진으로 참여한 99명의 남북 가족들은 16일 오후 금강산 여관에서 품에 그리던 북측의 가족들과 만나 이산의 한을 풀었다.

특히 이번 상봉에는 68년 초입종 남북원 장영호 신원정장백(66)씨, 6·25 국군 모로 김수동(75)씨가 남북 가족들을 만났고, 반공모로 출신 남북 이산가족 8명도 북측 가족들을 만남으로써 향후 남북자 및 국군모로 상봉 실현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남북은 최근 제4차 직십자회담에서 '전쟁 당시 행방지' 문제 해결에 노력한다고 합의, 남북 및 국군모로 가족에게 새 희망을 불어넣었다. 현재 남북자는 480명, 생존 국군모로는 300여명에 이른다.

■ 아들 얼굴 만지고 또 만지고

●지난 68년 4월16일 동해에서 초입종 남북원 아들 정장백씨를 만난 남측의 어머니 이명백(80)씨는 34년 만에 아들을 부여안으며 눈물을 쏟았다. 생사를 저며내는 아픔으로 지낸 세월을 한꺼번에 보상이라든 하려는 듯 아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졌다.

정장이 됐던 4급 장영호는 당시 동해 어로 저지선 근처에서 초입종 북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씨는 어머니에게 남편을 잃은 여동생의 소식을 들은 "어떻게 사나, "며 여동생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 반세기만에 마주본 9순부부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어. 이렇게 포글포글해질 줄 몰랐어..."

남측 이산가족방문단 중 9순으로 두 번째로 행사장 김해연 할머니는 동갑내기 아내 박종정 할머니와 북측의 아들 인식(66)·영식(63)씨, 딸 현식(50)·래식(57)·명식(55)씨 등 북측 생존가족 6명을 모두 재회하는 기쁨을 누렸다.

김 할머니는 세월이 한스러울 듯 "어허, 도무지, 어허..."라는 말만 한참을 되뇌이다. "구순(九旬)" 을 훌쩍 넘겨버린 백발의 아내의 손을 잡고 "꿈에도 나타나다."며 애절한 마음을 전했다. 50여년 만에 남편을 만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어머니가 인디끼온 듯 딸 현식씨는 "엄마, 아버지 몰라 보겠소? 몰라 보겠소?"라며 딸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 국군·반공모로 출신가족 상봉

●국립묘지에 위패를 모셔두고 제사까지 지낸 오빠 김수동씨를 만난 동생 명순(68)씨는 "어릴 적엔 통통하고 참 건장했는데..."라며 세월의 흔적이 깊어 패인 오빠 얼굴을 어루만

지며 울고, 또 울었다.

윤순씨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원과 남동생의 사망사실을 전하자, 수동씨는 "통일이 되면 내가 모시겠다."며 동생을 달랬다. 수동씨는 포로로 잡힌 뒤 북에서 결혼, 자녀까지 두었다.

●남측의 손종학(여·71) 할머니는 북측의 아버지 손진형(82)씨를 보자마자 회인의 눈빛을 쏟아냈다. 일본으로 건너갔던 손씨 가족은 해방이 되자 고향 검주로 돌아왔으나 아버지만 일본에 남았다.

일본서 초종련 선전부장으로 활동하던 손씨는 해방이 되자 '북'을 택했다. 12살 초등학생에서 주류살 가득한 할머니가 되어 나타난 딸의 손을 잡은 손 할머니 옆에 딸보다 어린 북쪽 아내 류복이(67)씨가 눈시울을 붉혔다.

●금강산 공동취재단·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대한매일

2002. 9.17(화)

중앙일보

2002. 9.17(화)

南 어머니 "내 아들은 어디 갔어"

금강산 이산 상봉

며느리·손자 만나

사망 확인하고 통곡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제2진인 남북 이산가족 99명이 16일 금강산여관에서 반세기 만에 북측 가족 2백53명과 만나 이산의 정을 나눴다. 이들은 182일까지 금강산 지역에 머물며 북측 가족들과 재회를 나누고 돌아온다.

○"올지 마라, 이렇게 좋은 날

왜 우니."

북측 오빠 김수동(75)씨는 이우리 간첩을 해도 머리를 수그러들지 흐느끼는 남측 동생 명순(66)씨를 달랬다.

6·25 때 군대에 간다며 집을 떠난 뒤 소식이 끊겨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낸 오빠를 만난 윤순씨는 "오빠,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내 종아리 때린 죄 기억나"하며 옛 기억을 더듬었다.

동생으로부터 부모의 기일을 들은 윤씨는 "홍일이 되면 내가 모시겠다. 나는 1백살까지 살테니 몸 건강하게 오라 살아라"며 동생의

등을 두드렸다.

윤순씨가 윤씨의 소식을 들은 것은 4년 전 국군모로 출신으로 북측에 살다 국내에 들어온 양순씨가 오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부터다.

윤씨는 "북측에서 결혼해 자식 낳고 잘 살고 있으니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리"며 동생 명순씨의 손을 꼭 잡았다.

○"남측 석영자(91·여)씨는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뒤 이미 북측 아들 표한준씨의 사망 소식을 들었지만 "살마, 살마"하며 그 말을 믿지 않다가, 상봉장에 나온 북측 며느리 김상연(63)씨로부터 확인

한 뒤 오열했다.

"내 아들은 어디 갔어. 내 아들 어디 갔어."

복받쳐 오는 김침을 억제할 수 없어 턱지를 벌잡고 울고 있는 식씨를 윤씨가 "어머니, 대신 저희들이 왕장아"요 하며 달랬다.

석씨는 처음 본 며느리와 손자 김경(36)·김남(29)씨의 큰절을 받으며 손자들로부터 아들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썼다. 아들 표씨는 6·25 때 19세 나이로 의용군에 참가하는 바람에 석씨와 헤어졌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고수석 기자
<sskom@joongang.co.kr>

90대 노부부 “살아있어줘 고맙소”

■ 이산가족 2회차 상봉도 눈물바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에게 지난 반세기는 '정지된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몸은 세월의 풍파에 휩쓸려 낡고 녹슨것만, 마음은 반세기 전 그대로다. 구순의 할머니는 역시 노년에 들어선 딸을 보자마자 '내 새끼'라고 절규한다. 얼굴에 검버섯이 핀 노부부는 그저 '꿈이오 생시요'를 연발하며 서로 살아 있

음에 고마워할 뿐이다. 반세기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는 울부짖음... 한많은 세월, 스산한 시연은 잠시 뒤로 밀쳐두었다. 16일 5차 이산가족 상봉 2회차 행사의 단체상봉이 이뤄진 금강산여관. 부모는 미안해 하고, 자식들을 애달파했다.

◇ '국군포로, 납북자, 반공포로,

북송 동포...=남쪽 손중학(71·여)씨는 해방 직후 일본에서 소식이 끊긴 북송 재일동포인 아버지 손진창(89)씨를 58년 만에 만나 기쁨을 눈물을 쏟았다. 공무원 생활을 하는 두 남동생은 '보호'하느라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했던 '불효'도 미칠내 털어냈다. 중학씨는 "아버지도 당신 때문에 자식들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남쪽으로 오지 않고 북송을 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송 재일동포가 남북간 이산가족 행사에서 가족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쪽 이명복(79)씨는 1968년 참영호의 어부로 '납북'된 북녘의 아들 정장백(54)씨를 34년 만에 부둥켜 안고 한많은 세월을 감물에 띄워보냈다. 김용순(66)씨는 국립묘지에 위패를 모시고 제사까지 지내온 국군포로 출신인 북녘 오빠 수동(75)씨를 만난 게 실감나지 않는 표정이었다. "김수동씨 맞아요? 나 김용순." 첫 인사는 서먹했지만, 핏줄임을 확인한 뒤, 반세기 가슴에 쌓아둔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김정민(71)씨는 한국전쟁에 인민군으로 나섰다가 포로로 잡혀 남한에 계속 산 경우, 평생을 수절했다는 북녘 아내 정귀너씨는 김씨를 보곤 말을 잊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안 늙었네. 옛 모습 그대로야." 아내를 달래려던 김씨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남쪽 상봉단 99명 가운데 '반공포로'출신은 모두 8명이다.

◇ "살아 있어줘서 고맙소"=김혜연(93) 할머니는 북쪽의 아내 박종정(90) 할머니를 보고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백발의 노부부는 거칠고 쇠약해진 손마디로 서로 얼굴과 손을 어루만져가며, 말없는 눈빛으로 52년 성상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 있다니, 이게 꿈이오 생시요." "오래 사니까 이렇게 만나는구려. 살아 있어 줘서 고맙소."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 북송 재일동포 남쪽가족 첫 해후 수절 아내보곤 "옛모습 그대로야"



"어디보자, 내새끼" 16일 오후 금강산여관에서 남쪽 이명복 할머니가 답북된 아들 정장백씨를 만나 감격에 겨워 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남북어부' 아들 만나 34년恨 풀어

■ 이산가족 2진 상봉

16일 오후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한 남쪽 가족 99명과 북쪽 가족, 친척 253명이 만난 금강산여관은 다시 눈물바다가 됐다. 이산가족들은 상봉장 곳곳에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일부 가족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얼굴을 쳐다보고 있기만 했다. 몇몇 가족들은 '이렇게 기쁜 날 왜 우느냐'며 '고향의 봄'을 합창하기도 했다.

북송 재일동포

첫 만남 기록

국군·반공포로도

혈육과 상봉

남측의 손종학(71·여)씨는 북송 재일동포인 아버지 손친환(89)씨와 의붓어머니 류복이(67)씨를 만나 기쁨을 눈물로 대신했다. 북송 재일동포가 남북 이산가족 행사에서 가족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복(80·여)씨는 1968년 4월 17일 참영호 선원으로 어로작업 중 납북됐던 아들 정장백(54)씨와 며느리 윤명숙(48)씨, 손자 정남진(18)군 등 북측 혈육의 큰절을 받고 34년의 한을 풀었다. 또 김용순(66·여)씨는 국군포로 출신의 큰오빠 김수동(75)씨, 조카 명월(37·여)씨와 만났다. 남쪽에 서 광의의 이산가족 개념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남북자 상봉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국군포로 상봉은 네 번째다. 김형식



16일 오후 북한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에서 남측의 이명복(80)씨가 1968년 어로작업 중 납북된 아들 정장백(참영호 선원)씨와 열싸안고 혈육의 정을 나누고 있다. /금강산·연합

(74)씨는 북측의 아들 유하(53)씨, 이용천(70)씨는 여동생 봉녀(60)씨를 만나는 등 남측 반공포로 출신 8명이 북측 혈육과 재회했다.

남측 이산가족 가운데 최고령자인 정제원(94)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서 북측의 둘째 아들

동인(56)씨를 만나 얼굴을 어루만지며 기뻐했다. 또 93세의 김혜연씨는 북측의 아들 인식(66)영식(63)씨, 딸 현식(60)씨, 그리고 아내 박종정(90)씨 앞에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이게 꿈이오 생시오"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34년만에 만져본 아들얼굴...

남북어부 모자 상봉

• 이산 2진 금강산 상봉

제5차 이산상봉 2진으로 금강산에 온 99명의 남북 가족들은 16일 오후 금강산여관에서 꿈에 그리던 북쪽 가족들과 만나 이산의 한을 풀었다.

○...1968년 4월 동해에서 조업하다 납북된 아들 정장백씨(56)를 34년 만에 만난 남측의 어머니 이명복씨(80)는 아들을 품에 안은 채 눈물을 쏟았다. 마음속에 사무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한꺼번에 쏟아내듯 이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졌다. 정씨 옆에는 그동안 아들의 외로움을 달래줬을 북의 며느리와 손자가 아들을 지켜왔다. 정씨는 어머니에게 남편을 잃은 여동생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시느냐"며 남에 두고 온 여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김용순씨(66·여)는 국군포로 출신의 큰 오빠 김수동씨(75)를 만나 자마자 머리를 수그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국립묘지에 위패가 모셔져 제사까지 지내는 작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올지마라. 이렇게 좋은 날 왜 우냐"라는 오빠의 간청도 소용이 없었다.

○...남측 이산가족 가운데 93세로 두번째 고령자인 김혜연 할머니는 동갑내기 아내 박종정 할머니, 북측의 아들 인식(66)·영식(63)씨, 딸 현식씨(60)를 만나고서도 지난 세월이 한스러울 듯 "어허, 도무지..."라는 말만 한참 되뇌었다. 구순(九旬)을 훌쩍 넘겨버린 백발의 노부부는 거칠고 쇠약해진 손을 꼭 잡은 채 잃어버린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50여년 만에 남편을 만나고도 고개만 숙이고 있는 어머니가 안타까운 듯 딸 현식씨는 "엄마, 아버지 몰라보셨소?"라며 발음 뚱뚱 구르기도 했다.

○...남측의 손종학씨(71·여)는 북측의 아버지 손진환씨(89)를 보자마자 60년 만의 재회가 믿기지 않는 듯 말없이 회한의 눈물을 쏟아냈다. 일제시대 일본으로 건너갔던 손씨 가족은 해방이 되자 다시 고향 경주로 돌아왔으나 아버지만 "곧 건너가겠다"며 일본에 남았다. 일본에서 조종련 선전부장으로 활동하던 손씨는 해방이 되자 북한행을 택했고 뒤에 재흔해 북에도 자식을 뒀다. 12살 초등학생에서 할머니가 된 딸의 손을 꼭 잡은 손씨 옆에서는 딸보다 어린 북측 아내 류복이씨(67)가 눈시울을 붉혔다. 금강산 / 공동취재단·이용욱기자

경향신문

2002. 9.17(화)

한국경제

2002. 9.17(화)



금강산여관에서 16일 열린 제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에서 남측 김인성씨(왼쪽)가 동생 김인순씨를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금강산·시진공동취재단

“이게 꿈이요 생시요”

5차 이산상봉 금강산여관은 '눈물바다'

50여년 만에 터진 남북 이산가족들의 눈물샘은 좀처럼 마를 줄 몰랐다. 16일 오후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석한 남측 가족 99명과 북측 가족 및 친척 2백53명이 만난 금강산여관은 다시 눈물바다가 됐다.

남측 가족 가운데 최고령자인 94세의 정제원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서 북측의 둘째 아들 동인씨(56)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또 93세의 김혜연씨는 아들 인식(66), 영식(63), 그리고 딸 현식씨(60)와 함께 온 아내 박종정씨(90) 앞에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게 꿈이요 생시요"라며 어찌할 줄 몰라했다.

남측의 손종학 할머니(여·71)는 북측의 아버지 손진환씨(89)를 보자마자 60년만의 재회가 믿어지지 않는

듯 회한의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를 삼도록 불러보았다. 일본으로 건너갔던 손씨 가족은 해방이 되자 다시 고향 경주로 돌아왔으나 아버지만 '불 일이 있다'며 일본에 남았다가 이산가족이 됐다.

북측의 아버지 손씨도 12세 초등학생 딸이 주름살 가득한 할머니가 되어 나타나자 말을 잊지 못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날 단체 상봉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저녁밥을 먹고 각자 숙소인 해금강호텔(남측) 금강산여관(북측)으로 돌아가 따로 잠을 잤다. 양쪽 이산가족들은 상봉이후인 17일 금강산여관 방에서 가족끼리 개별 상봉을 하고 오후에는 삼일포에서 참관 상봉을 한다.

금강산공동취재단·홍영식 기자 ygkim@hankyung.com

매일경제

2002. 9.17(화)



눈물의 이산상봉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순차상봉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99명이 2박3일 일정으로 금강산을 찾았다. 이들은 첫 날인 16일 오후 금강산 여관에서 북측 가족 친척 253명과 만났다. 이날 상봉에서 부친 손진환씨(왼쪽)를 만난 남측의 딸 정희 씨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시진취재단]



남북어부아들 "다시 뵈다나..." 16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이산가족 단체상봉에서 남측의 이명복(왼쪽)씨가 1968년 청영호의 어부로 남북친 아들 정장백씨를 만나 오열하고 있다. /금강산=협

93세 동갑아내 만난 南남편 "꿈에서도 생각" 애뜻함 표시

2진 이산상봉 이모저모

금강산이 또 한번 이산가족들의 눈물의 상봉장이 됐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남한의 가족·친척을 만난 데 이어, 16일에는 남측 이산가족 99명이 꿈에 그리던 북측 가족들을 만나 부둥켜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어머니사망" 애 눈시울

○...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 "3년 전에 갑자기 뇌출혈로..." 열여덟 꽃다운 나이에 어머니(조삼희)와 헤어진 지 어느덧 50여년.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 뵈리라는 임형원(69·여)씨의 기대는 금강산여관에 마련된 상봉장에 들어서서는 순간 물거품이 됐다. 생존해 있다는 북측의 통보를 받고 아픈 몸을 이끌고 방북한 환원씨는 동생 옥경(59·여)씨의 말을 듣고 "살아서 만나볼 줄 알았는데..."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4남매의 말편담게 마음을 가리안

힌 입씨는 동생윤 끌어안고 "괜찮아.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건 당연하지"라며 동생들을 다독거렸다.

北처자식 6명 감격재회

○... 이날 오후 금강산여관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단체상봉에서 김혜연(93) 할아버지는 북측의 동갑내기 아내인 박종정씨와 아들 인식(66) 영식(62)씨, 딸 현식(60)례식(57) 명식(55)씨 등 생존가족 6명을 모두 재회하는 감격을 누렸다.

김 할아버지는 아내인 박 할머니를 보자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어. 이렇게 조금조금해줄 줄 몰랐는데..."라며 안쓰러운과 미안함을 전하는가 하면 "꿈에도 (아내) 자주 생각이 난다..."며 애뜻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아들 인식씨가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라고 인부를 묻자 "쓰러져 여러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만나려고 살았나 보다"라며 울먹였다.

/이준섭기자,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산방문단 北가족 개별방문

금강산여관서- 오후엔 삼일포 나들이

상봉 이틀째를 맞은 제5차 이산가족 남측 방문단 98명과 북측 친인척 253명은 이날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개별상봉을 가진 뒤 오후에는 50여년 만에 삼일포로 가족 나들이를 떠났다.

(관련기사 22면)

개별상봉에서 재일동포로 북송 선을 뒀던 아버지 손진환(89)씨를 만난 종학(71·여)씨는 큰 걸음을 리며 기쁨을 대신했다.

삼일포 근처 오솔길을 내려오던 장신중(88)씨는 아들 근석(60)씨

의 손을 잡고 "그동안 애비 노릇을 못해 미안했는데 늦게나마 가족소풍을 나오니 50여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한편 남측 강기원(91) 할아버지는 이날 새벽 갑작스런 정신착란(급성섬망증세)으로 이날 오전 8시30분 실종으로 귀환했다. 딸 옥순(62)씨와 가족들은 장전항까지 배운을 나와 "아버지 뵈일땐 때까지 살아주세요"라며 기약없는 생이별을 아쉬워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대한매일

개별상봉뒤 삼일포 산책 방북 방문단 2진 오늘 귀환

상봉 이틀째를 맞은 제5차 이산가족 남측 방문단 98명과 북측 가족 253명은 17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개별상봉을 한 뒤 오후에는 삼일포 함린을 함께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삼일포 호수가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50여년 만에 가족나들이를 즐겼으며 앞서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이뤄진 2시간 가량의 개별 상봉에서는 상봉장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의 인부와 근황을 묻고 준비한 선물 등을 교환했다.

한편 남측 이산가족중 강기원(91)씨는 이날 새벽 갑자기 정신착란증세를 보여 실종으로 오전 장전항에서 속초항으로 이송됐다. 이산가족 방문단은 18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진 뒤 속초항으로 돌아온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북송선 탄 87세 老父에 일흔아들 50년만에 큰절

2진 이산상봉

제5차 이산가족상봉 이틀째인 17일 남측 방문단 98명과 북측 가족 253명은 오전에 북측 가족 숙소인 금강산 여관에서 개별상봉을 한 뒤 오후에는 삼일포로 자리를 옮겨 가족들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첫날 못다한 이야기 꽃을 피우며 선물을 주고 받았고, 삼일포 호반을 신책하며 50여년만의 가족 나들이를 즐겼다.

“한번더 안아보자”

◆개별상봉=재일동포로 일본에서 북송선을 탔던 아버지 손진환(87)씨를 만난 종학(70)씨는 50여년 동안 못다한 효도의 선물을 보따리를 풀었다.

종학씨는 방에 들어서며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라고 문안 인사말 한 뒤 반백년 만에 처음으로 큰절을 올렸다.

종학씨는 귀가 어두운 아버지를 위해 소리지르듯 목청을 높여 얘기해야 했지만 가족들은 마냥 행복한 표정이었다.

정인찬(87)씨가 북측의 여섯 아들 딸이 묵고있는 객실에 들어서자 딸 명옥씨와 인옥씨는 “아버지, 지난 밤 편히 주무셨어요. 지

회는 어제 아버지와 민한을 하고 헤어진 뒤 가슴이 살레 제대로 못 잤어요”라며 매달렸다.

그러자 장씨는 “내일이면 헤어지는 데 한 번 더 안아보자”며 눈시울을 붉혔고 아들 딸들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50년 걸릴 줄이야”

◆삼일포 관광=1968년 동해에서 조업을 하다 납북됐던 아들 장정백(56)씨를 극적으로 만난 이명복 할머니(80)는 삼일포 나들이 내내 아들의 손을 꼭 쥐 채 놓지 않았다.

이 할머니는 “살아서 너를 만나니 너무 좋다. 내가 말년 복은 있는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장백씨도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면서 “어머니의 얼굴을 직접 보니 별효의 짐이 조금 덜어진 것 같다”고 노모의 건강을 밝혔다.

북의 조카(명옥순, 명상원)들이 삼일포 앞 산책로를 따라 활제어 활 밀어주자 명해록(90)씨는 “피란 나올 때는 누구냐 한 두달이면 돌아올 줄 알았지. 60년이나 걸릴 줄 누가 알았겠나. 앞으로는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준섭기자

금강산=공동취재단

世界日報

2002. 9.18(수)

경향신문

2002. 9.18(수)

‘할멈...영감...’ 껴안고 눈시울

• 금강산 상봉 들녘

반세기 동안 헤어졌던 과꽃이를 만나는 감격의 크기는 상봉 들녘 날에도 첫날 못지 않았다. 이산가족 방문단 99명은 17일 오전 금강산여관의 북측 가족 숙소에서 개별적으로 상봉해 첫날 못다한 얘기꽃을 피웠고 각자 준비한 선물을 주고 받았다.

남측 가족들은 주로 내의 참과 시계 등을, 북측 가족들은 솜 옷감 등을 선물했다. 이산가족들은 지난 분단의 세월 동안 자식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위해 함께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6·25 전쟁때 남쪽으로 내려온 주도성씨(89)는 북측 막내딸 해옥씨(56)와 삼일포를 다정히 거닐며 반세기동안 못 나섰던 부녀의 정을 만끽했다.

부녀 곁에는 이번 상봉행사에서 할아버지와 첫 만남을 가진 외손녀 김상희씨(32)가 동행, 외할아버지를 부축했다. 세 시간 가량 진행된 삼일포 참관 상봉 내내 50여년간 떨어져 있었던 부녀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주씨는 딸 해옥씨에게 “여기 오니까 감지도 좋고 기분도 좋다”며 “너를 계속 곁에 두고 만날 수 없다는 게 아쉬울 뿐”이라고 인다끼워 했다.

○남측의 박장규 할아버지(77)는 북측의 아내 김순득 할머니(76), 딸 홍나씨(56)와 다정히 손을 잡은 채 삼일포 호수를 배강으로 가족들과의 단란한 모습을

老부녀 손 꼭잡고 삼일포 구경 90대노인 정신차란 속초항 이송

하니라도 더 시선에 담기 위해 여념이 없는 모습이였다. 박씨의 딸 홍나씨는 “아버지, 엄마 좀 꼭 안아주세요”라며 다정한 부모의 모습을 시선에 담으려고 분주한 모습이였다. 박할아버지가 “할멈, 오래 살아서 동얼되면 꼭 만납시다”라며 김할머니를 끌어안자, 할머니는 “영감도 오래 시어아 해요. 통일돼서 꼭 만나야지요”라며 눈시울을 적셨다.

○6·25 전쟁중에 헤어졌던 남편과의 예뻐한 정을 잊지 못해 50여년간, 수절하며 살아온 조돈화씨(73·여)는 50여년만에 만난 북측 남편 상대용씨(71)의 손을 꼭 붙잡았다. 삼일포 주변을 남편과 함께 거닐던 돈화씨는 “검치가 참 좋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금강산 금강산 히는 커구나”라며 “이거 하나 드셔봐요”라고 남편에게 정성스레 짚은 사과를 권했다.

한편 남측 이산가족 강기원씨(91)는 이날 새벽 갑자기 정신착란증세를 보여 설봉호반으로 정전행에서 속초항으로 이송됐다.

이산가족 방문단은 18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진 뒤 속초항으로 돌아온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연합뉴스

2002. 8.15(목)

< 남북장관급회담 > 이산상봉 어떻게 하나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 남북은 제7차 장관급회담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9.21)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상봉단의 규모와 상봉절차는 지난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의 관례에 따르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문제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상봉 시기와 인원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석 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이 금강산에서 만난다는 대원칙에는 합의가 된 만큼 최소한 남북한 각각 100명씩의 상봉단이 금강산에서 순서를 바꿔가며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이루어진 4차 상봉에서는 먼저 남측 방문단 99명이 4월 28-30일간 금강산에서 북측 가족 183명과 만나 반세기 이산의 한을 풀었다.

이어 5월1일부터 사흘간 역시 금강산에서 남측 가족 466명이 북측 상봉단 100명과 만났다.

이들은 첫날 단체상봉과 이튿날 개별상봉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모두 10~12시간을 헤어졌던 가족과 함께 보냈다.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은 판문점 협의에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제4차 상봉 때 처럼 방문단 후보자 선정과 명단 교환, 생사확인, 최종방문단 명단 교환 등의 절차를 거쳐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장관급회담에서 구체적인 상봉 날짜를 명시하지 못한데다 앞으로 남북회담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다른 회담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그해 8월 15일을 기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1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한 데 이어 2차(2000.11.30-12.2)와 3차(2000.12.26-28)를 거쳐 4차 상봉(2002.4.28-5.3)에서 장소를 금강산으로 하고 상봉방식도 순차상봉으로 변경됐다.

< 남북장관급회담 > 적십자회담.이산상봉 기대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남북 양측이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추석(9.21)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금강산 순차상봉과 앞서 9월 4-6일 제4차 적십자회담 개최 등 인도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고령화를 감안, 책임자급을 수석대표로 한 제4차 적십자 회담을 새달 4일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개최해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 등을 협의한다'고 공동보도문에 명시한 점은 상봉 제도화에 한발짝 다가섰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 당국자도 '이번 합의가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면회소 설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확대 등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문제의 시급성을 남북 양측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 제도화 문제가 풀려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김령성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이 지난달 25일 서해교전 유감표명 관련 전화통지문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중요하게 거론해 주목됐지만 장관급회담 합의 결과는 기대치에 훨씬 못미친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정부는 당초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상봉을 정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상봉 날짜도 채 명시하지 못했다.

양측은 판문점을 통해 구체적인 상봉 절차를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회담의 결과에 좌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다음 김 북측 단장은 상봉 시기를 추석 직전이라고 말해 다소나마 안도감을 갖게 했다.

물론 대북 쌀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8.26~29, 서울) 성과 여부나 향후 남북관계에 따라 전망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면회소 설치 문제 또한 재작년 6월 하순 금강산에서 열렸던 제1차 적십자회담 합의 수준에 그쳐 제4차 적십자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원론 수준의 의견 밖에 교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제도화'를 올해 중점과제로 설정한 데 이어 철도,도로 및 금강산 육로 연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도라산역,금강산 면회소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급을 수석대표로 적십자회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면회소 설치에 대한 의견이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살아 있다.

< 남북장관급회담 > 면회소 설치 어떻게 되나

(서울=연합뉴스) 정연식기자 = 남북은 제7차 장관급회담에서 내달 4-6일 금강산에서 4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면회소 설치와 운영문제 등을 협의키로 해 면회소 설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면회소 설치 문제는 지난 75년 10월 23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논의된 이후 남북 적십자회담 때마다 주요 안건으로 다뤄져 왔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해묵은 현안이다.

판문점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남측 제안에 대해 북측이 거부 입장을 표명, 접점을 찾지 못했던 이 문제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남북은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담은 6.15 공동선언 발표를 계기로 그해 6월 금강산에서 제1차 적십자회담을 열고 회담 합의서에 이 문제를 담아 전망을 밝게 하는 듯 했다.

그렇지만 1차 적십자 회담 이후 4차 적십자 회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으나 남북은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어왔다. 남한은 판문점 자기측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북측은 금강산을 고집함으로써 매번 '다음 회담 때 다시 논의하자'는 선에서 어정쩡하게 마무리를 저왔다.

남북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2001년 4월 열기로 했다가 무산됐던 4차 적십자회담을 개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해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특히 남한에서는 최근 경의선 연결과 맞물려 금강산에 면회소를 설치하자는 분위기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 남북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접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 현황 >

| 회담 | 기 간 | 장 소 | 비 고 |
|-----|--------------|-----|---|
| 제1차 | 2000.6.27-30 | 금강산 | -8.15때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비전향장기수 2000.9 송환 |
| 제2차 | 2000.9.20-23 | 금강산 | -생사, 주소 확인 후 서신교환 |
| 제3차 | 2001.1.29-31 | 금강산 | -판문점 연락사무소 통해 서신교환 |

연합뉴스

2002. 8.16(금)

정통일 '北 추석상봉 의중 비쳐'

(서울=연합뉴스) 문관현기자 =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5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시기로) 추석이라고 못박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회담 과정에서 북측이 그런 의중을 비쳤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15일 말했다.

정 통일 장관은 이날 KBS 뉴스라인 출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히고 제4차 적십자회담(9.4-6)에서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제도화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정 장관은 '제4차 적십자회담을 통해 면회소 설치 문제를 매듭 짓고 서신교환과 주소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남측 입장'이라며 '4차 적십자회담을 대표자급, 즉 총재급으로 갖자는 것으로 미뤄 북측에서 준비가 돼있지 않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달말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열리면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가 가시권으로 들어 올 것'이라며 '이번 장관급 회담으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북한 체제 특성상 이 문제에 대해 단번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게 북측의 한계라고 덧붙였다.

khmoon@yna.co.kr (끝)

연합뉴스

2002. 8.19(월)

韓赤, 오늘 5차 상봉 후보 300명 추첨(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徐英勳)는 19일 오후 인선위원회를 거쳐 제5차 이산가족 방문단 예비후보 300명을 컴퓨터로 추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1만8천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경쟁률은 390:1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적 관계자는 '인선위원회가 열려야 알겠지만 4차 상봉 당시 연령이 다소 낮은 이들이 많이 포함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5차 상봉에서는 고령자 비중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측은 이날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오는 22일 방문단 교환을 위한 생사.주소 확인 의뢰자 200명 명단을 교환하자'고 제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적은 '22일은 너무 촉박한 만큼 26일째 교환하자'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적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예비 후보 300명도 선정하지 않았는데 200명 명단을 22일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일 5차 방문단 예비후보 300명이 추첨으로 결정되면 이들의 신체검사 등이 24일 오후 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25일까지는 이종 방문단 후보(생사.주소 확인 의뢰자) 200명이 결정돼 26일 교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한적은 지난 17일 오전 북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제의했다.

한적은 전통문에서 장관급 회담의 합의 정신에 부합되게 추석 전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제4차 상봉 전례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 문제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협의하자고 제안했었다.

chungwon@yna.co.kr (끝)

연합뉴스

2002. 8.19(월)

< 빨라지는 5차 금강산 상봉 일정 >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추석(9.21)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뤄질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양측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게 됐다.

북측은 19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오는 22일 방문단 교환을 위한 생사 및 주소 확인 의뢰자 200명 명단을 주고 받으며 적극적인 입장을 전달해 왔다.

대한적십자(총재 서영훈,徐英勳)는 19일 오후 인선위원회를 거쳐 제5차 이산가족 방문단 예비후보 300명을 컴퓨터로 추첨할 예정이다.

한적 관계자는 '인선위원회가 열려야 알겠지만 4차 상봉 당시 연령이 다소 낮은 이들이 많이 포함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고령자 비중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측이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방문단 교환을 위한 생사,주소 확인 의뢰자 200명 명단을 오는 22일 교환하자'고 제의해 왔지만 한적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26일께 교환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날 정부 당국자 '상봉 후보자 200명 명단을 넘겨주고 내부적으로 조회작업을 거친 뒤 최종명단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 15~2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차 방문단 예비후보 300명이 추첨으로 결정되면 이들의 신체검사 등이 24일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25일까지는 이중 방문단 후보(생사,주소 확인 의뢰자) 200명이 결정돼야 26일 명단이 교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예비후보 300명 선정→최종 후보자 200명 선정→남북 후보자 명단 교환→이산가족 확인→최종 100명 명단 선정 및 교환 등이 이뤄진 후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이 이뤄지게 된다.

여하튼 명단 교환 날짜를 떠나 북측이 이산가족 교환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략 한달가량 소요되던 이산가족 상봉 일정이 다소 빨라져 추석(9.21) 이전 실현될 전망이 높아졌다.

지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상봉 시기가 추석을 계기라는 표현으로 어림잡아 합의됐지만 회담 이후 남북 관계자들이 추석 이전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한 대목에 바야흐로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이번 총재급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제도화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자는 입장'이라면서 '향후 제도화될 경우 일년 중 설, 단오, 6.15, 8.15, 추석 등 계절로 5차례 상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월별로 상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nksks@yna.co.kr (끝)

연합뉴스

2002. 8.19(월)

5차 방북단 3촌 이상 제외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새달 추석 전에 이뤄질 예정인 5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서 50대 이하이거나 재북 가족이 3촌 이상인 재남 이산가족은 방북단 100명에서 제외된다.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徐英勳)는 19일 인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후보 선정 기준을 마련, 5차 상봉 예비 후보 300명을 컴퓨터로 추첨했다.

한적은 이번 추첨에서 직계 가족,고령자 우선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부모,부부,자식 간은 가중치 6을, 형제,자매는 3을 각각 부여하는 한편 3촌 이상은 가중치 0을 부여해 사실상 제외했다.

또 80대 이상 고령자에게는 가중치 13을, 70대에는 5를, 60대에는 2를 각각 부여했지만 50대 미만은 0을 부여해 제외했다.

한적 관계자는 '부모,자식 간이나 고령자 중에서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에 따라 3촌 이상이나 50대 이하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적은 이후 19-20일 중 예비후보 300명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한 뒤 오는 22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오는 24일께까지는 후보 200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chungwon@yna.co.kr (끝)

연합뉴스

2002. 8.20(화)

5차 상봉 예비후보 80세 이상 45%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徐英勳)는 20일 5차 이산가족 상봉 예비후보 300명을 컴퓨터로 추첨한 결과 최고령자 전모(95)씨 등 80세 이상 고령자가 136명으로 46%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한적에 따르면 70~79세는 129명(43%)이었고 60~69세는 35명(12%)이었지만 50대 이하는 한 명도 없었다.

또 300명 중 재북 가족이 부모나 부부.자식인 경우는 213명(71%)이었고 형제.자매인 경우는 87명(29%)이었다.

앞서 한적은 300명을 추첨하면서 80세 이상은 가중치 13점을, 70대에는 5점을, 60대에는 2점을 각각 부여하는 한편, 50대 이하는 0점을 부여해 사실상 제외했다.

또 재북 가족이 부모.부부.자식인 경우는 6점을, 형제.자매인 경우는 3점을 각각 부여하는 한편, 3촌 이상인 경우는 0점을 부여해 사실상 제외했다.

한편 출신지역별로는 황해도 출신이 81명, 평남 출신이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이 105명, 경기도가 67명, 인천이 30명, 강원도가 20명, 부산이 19명, 대전이 10명 순이었다. < 표 있음 >
chungwon@yna.co.kr (끝)

연합뉴스

2002. 8.20(화)

< 표 > 5차 이산상봉 예비후보 300명 현황

▲ 연령별

| 구 분 | 80세 이상 | 70-79세 | 60-69세 |
|-----------|----------|----------|---------|
| 인원수(300명) | 136(45%) | 129(43%) | 35(12%) |

▲ 출신지역별

| 구 분 | 황해 | 평남 | 평북 | 함남 | 함북 | 경기 | 강원 | 기타 |
|-----------|----|----|----|----|----|----|----|----|
| 인원수(300명) | 81 | 53 | 31 | 42 | 10 | 12 | 8 | 63 |

▲ 거주지역별

| 구 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인원수(300명) | 105 | 19 | 5 | 30 | 1 | 10 | 2 | 67 | 20 | 7 | 7 | 6 | 3 | 9 | 7 | 2 |

▲ 성별

| 구 분 | 남 | 여 |
|-----------|-----|-----|
| 인원수(300명) | 195 | 105 |

▲ 재북가족과 관계

| 구 분 | 부모.부부.자식 | 형제.자매 |
|-----------|----------|-------|
| 인원수(300명) | 213 | 87 |

(끝)

▶남북, 생사.주소 확인결과 3일 교환(종합)

5차 이산상봉 '금강산 13-18일' 유력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남북은 추석(9.21) 전 실시 예정인 제5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앞서 3일 생사 및 주소 확인 결과를 교환한 뒤 방문단 100명의 명단을 오는 5일 교환하기로 했다.

2일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徐英勳)에 따르면 남북은 애초 오는 5일 생사 및 주소 확인 결과를 교환한 뒤 7일 방문단 100명의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었지만 북측 제의로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

정부와 한적에 따르면 북측은 5차 상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일정을 앞당기자고 제의해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적 관계자는 "북측이 지난달 24일 보내온 후보자 120명은 이미 2,3차 방문단교환에 앞서 남측 가족과 친척의 생사를 확인한 바 있지만 그동안 일부 가족과 친척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2일 밤까지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이번 상봉을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이런 스케줄에 대해 북한이 호응해 온 걸로 미뤄 13-18일 행사에 대해 북한도(같이) 인식하는 토대 위에 움직이고 있다"며 "상봉 일시는 적십자 회담서 논의된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끝)(YONHAP) 020902 1648 KST 1021

연합뉴스

2002. 9. 3(화)

▶ 이산상봉 남측후보 재북가족생사 공개(종합)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3일 오후 북측 조선적십자회로부터 통보받은 제5차 남측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00명에 대한 가족.친척 생사확인 회보서를 공개했다.

북측이 전달한 생사확인 결과에 따르면 북측의 가족.친척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남측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는 109명이며, 사망 등으로 상봉 대상자가 없는 남측 이산가족은 91명으로 집계됐다.

상봉 대상 후보자 109명 중 남측 기준 가족관계는 ▲부모 3명 ▲부부 12명 ▲형제.자매 51명 ▲자녀 26명 ▲3촌 이상 17명 등이다.

북측 가족을 만나게 될 남측 방문단 후보 최고령자는 정제원(94)씨로, 재북 어머니 리병만(106)씨와 부인 김현숙(79)씨 등 모두 7명의 생사확인을 신청했으나 아들 정동인(56)씨만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측 이산가족인 손종학(여.70)씨는 북측의 아버지 손진황(89)씨를, 정영엽(68)씨는 북측의 어머니 방영순(92)씨를, 임황월(여.69)씨는 어머니 조삼희(90)씨를 찾았다.

앞서 한적은 이날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 후보자 120명의 재남 가족.친척 생사확인 회보서를 북측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재북 이산가족 1명의 재남가족은 연락이 안돼 생사.주소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6명의 가족은 거동이 어렵거나 지병 등으로 상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사.주소가 확인된 재남가족은 ▲부모 1명 ▲배우자 4명 ▲자녀 14명 ▲형제자매 325명 ▲손자 1명 ▲3촌 133명 ▲4촌 이상 155명 등 추가로 확인된 199명을 포함해 모두 651명으로 집계됐다.

남측 가족.친척 가운데 최고령자는 북측 최순옥(여.71)씨의 어머니 김승규(93)씨, 리우문(남.70)씨의 장모 김유중(93)씨이다.

한적은 상봉 후보자 가족.친척 생사확인 회보서가 교환됨에 따라 4일 최종 상봉단 100명을 확정, 5일 북측과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끝) (YONHAP) 020903 1857 KST

▶남북 5차 금강산상봉 명단 교환(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주용성기자 = 남북은 5일 오후 판문점의 적십자사 연락관 접촉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제5차 이산가족 순차 상봉에 참여할 각각 100명의 명단을 교환했다.

북측 혈육을 상봉할 남측 방문단 100명 가운데 최고령자는 94세의 정제원씨로 재북 어머니 리병만(106)씨와 부인 김현숙(79)씨 등 모두 7명의 생사 확인을 신청했으나 북녘에 살아있는 아들 동인(56)씨 만을 만나게 됐다.

북측 상봉단 100명중 최고령자는 82세의 리규염(경기도 여주군 출신)씨로 남측에 살아있는 두 딸 진옥(59).진금(53)씨와 동생, 손자 등과 혈육의 정을 나눌 수 있게 됐다.

남측 방문단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자가 43명이고 70-79세 41명, 60-69세는 16명으로, 북측 상봉단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자가 3명이고 70대 56명, 60대는 41명으로 각각 확인됐다.

또 남측의 손종학(여.71)씨가 북측에 있는 아버지 진황(89)씨와 의붓어머니 류복이(67)씨를 상봉하는 것을 비롯 37명이 처.자식을, 46명이 형제.자매를, 14명이 3촌을, 2명이 4촌 이상을 각각 만나게 됐다.

성별 구성은 남측의 경우 남성 66명, 여성 34명인데 비해 북측은 남성 85명, 여성 15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북측 이산가족 100명의 출신지는 ▲서울 7명 ▲경기 17명 ▲인천 4명 ▲강원 10명 ▲충북 12명 ▲충남 14명 ▲전북 5명 ▲전남 9명 ▲광주 1명 ▲경북 12명 ▲대구 1명 ▲경남 6명 ▲제주 1명 ▲일본 1명 등이다.

(끝)(YONHAP) 020905 1726 KST 1077

연합뉴스

2002. 9.10(화)

▶ 금강산상봉 선발대 북행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徐英勳)는 10일 최영운(崔永雲) 이산가족과장 등 5차 이산가족 순차 상봉 선발대 11명이 이날 속초항에서 설봉호를 타고 상봉장소인 금강산으로 갔다고 밝혔다.

최 과장 등은 13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5차 상봉에 앞서 현지 수해복구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끝)(YONHAP) 020910 1020 KST 403

연합뉴스

2002. 9.12(목)

▶ 제5차 금강산 이산상봉 일정 시작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13일부터 18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반세기만에 금강산에서 혈육과 만난다.

대한적십자사와 정부 지원인원은 방북 하루 앞서 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 집결한뒤 속초로 출발, 이날 오후 이산가족 방문단 안내교육에 나서는 등 상봉사업을 위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금강산에서 북측 이산가족들을 만날 남측 가족.친척 458명은 이날 속초한화리조트에 집결해 안내교육을 받은 후 12일 오전 11시 관광선 설봉호를 타고 장전항으로 향한다.

2박3일간 해상호텔 해금강과 설봉호에 머무를 남측 가족.친척은 △첫날 단체상봉(2시간)과 만찬(") △둘째날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참관상봉(3시간) ▲마지막날 작별상봉(1시간)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2시간 북측 가족과 상봉한다.

이번 참관상봉은 지난 4월 제4차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때 처음 실시된 이후 두번째이다.

오는 16일 2차로 금강산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남측 이산가족 100명 중 4명이 건강상 이유로 상봉을 포기함에 따라 후보자였던 송운태(68).이인규(69).김연욱(62)씨 등으로 교체, 모두 99명이 방북하게 됐다.

한편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11일 저녁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백용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부위원장이 이번 제5차 이산가족 상봉단 북측 단장을 맡게 된다고 알려왔다.

백 부위원장은 지난 84년 9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 실무접촉 대표로 참석, 같은해 수해 구호물자를 남측에 인도하기 위해 인천항을 다녀가기도 했고 97년 5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에 북측단장으로 참석했었다. (끝)(YONHAP) 020912 0911 KST 243

▶제5차 이산상봉 北단장 백용호씨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백용호 북측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13~18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5차 이산가족 순차상봉 행사의 북측 단장을 맡았다.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徐英勳)는 조선적십자회가 11일 저녁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백 부위원장이 제5차 상봉단 북측 단장을 맡게 됐다고 알려왔다고 12일 전했다.

남측에서는 한적 이영구(李榮求.59) 사무총장과 조성운(趙誠雲.71) 강원지사회장이 순차상봉 남측 단장을 각각 맡았다.

지난 83년 10월 조선적십자회 부서기장이 되면서 남북 적십자 회담 대표 등으로 활동해 온 백 부위원장은 이듬해 9월 판문점에서 열린 적십자회담 실무접촉 대표로 참석, 수해 구호물자를 남측에 인도하기 위해 인천항을 다녀갔으며 97년 5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 북측단장으로 참석했다.

그는 지난 97년 9월 미국으로 망명한 장승길 대사 후임으로 이집트 주재 대사에 임명돼 재작년 11월까지 활동한 후 지난해 7월 조선적십자회로 복귀했다. (끝)(YONHAP) 020912 0909 KST 237

▶ 상봉 앞둔 이산가족 속초에 도착

(속초=연합뉴스) 이종건기자 = 제 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참가할 남측이산가족들이 숙소인 강원도 속초시 한화콘도미니엄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한화콘도에 도착하기 시작한 이산가족들은 오후 1시30분 현재 150여명이 도착해 오후 3시부터 시작될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5차 상봉에 참가하는 이산가족들은 접수가 끝나면 오후 4시30분부터 안내 교육을 받게되며 저녁식사 이후 배정 받은 객실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13일 오전 속초항에서 설봉호편으로 금강산으로 향하게 된다.

(끝) YONHAP) 020912 1346 KST

▶이산가족 13일 금강산 상봉(종합)

남측 457명-북측 100명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할 대한적십자사 이영구(李榮求)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남측 상봉단 457명이 13일 오전 11시 속초항에서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를 타고 금강산으로 향한다.

북측 이산가족 100명을 만날 남측 가족과 친척 457명 외에도 지원요원 100명과 취재진 29명도 방북한다.

애초 남측 상봉단은 458명이었지만 1명이 빠지고 1명은 다른 가족으로 바뀌어 457명이 됐다.

북한의 동생 김순경(69)씨를 만날 누나 진명(84.강원도 강릉시)씨 가족 중 강릉에 사는 조카 진만(59)씨가 이번 수해 때문에 금강산행을 포기했으며 북측 류호영(76)씨를 만나러 방북하려던 사촌동생 호태(58)씨는 몸이 아파 조카 며느리 오병임씨가 대신 금강산 상봉 길에 합류했다.

서울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남측 가족과 친척 457명은 지난 4월 4차 상봉 때와 마찬가지로 상봉 하루 전인 12일 속초 한화콘도에 미리 모여 설레는 마음으로 하룻밤을 보냈다.

이들은 손목시계, 가족앨범, 금반지, 학용품 등 북측 가족에게 줄 선물을 다양하게 준비했는데 한적 관계자는 선물꾸러미가 대부분 4차 때보다 훨씬 크다고 귀띔했다.

이날 한화콘도에는 한적 영동북(嶺東北) 지구협의회 양양.속초.고성 지역 자원봉사자 185명이 수해복구로 바쁜 일손을 접고 나와 이산가족 상봉단을 도왔다.

한적 관계자는 185명의 자원봉사자 중 130여 명이 수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자원봉사자 김춘옥(속초)씨는 "수해를 입어 마음이 아프지만 이산가족들의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 달려왔다"고 말했고, 장영옥(속초)씨도 "파손된 집을 고치는 데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이지만 이산가족들이 반세기 만에 북의 가족들을 만나러 간다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YONHAP) 020912 1742 KST 1076

▶ 북측 이산가족 금강산여관 도착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13-15일에 열리는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금강산순차 상봉에 참가할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12일 오후 금강산여관에 도착했다.

북측 이산가족들은 이날 중.대형 버스 4대에 나눠타고 금강산여관에 도착했으나 이 여관에서 제2차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이 진행중이어서 여관앞마당에서 잠시 기다려야 했다.

북측 관계자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때문에 강바닥에 돌을 깔고 건너 이곳까지 도착했다"고 말했다.

(끝) (YONHAP) 020912 1903 KST

▶ 남측 상봉단 환자 발생(종합)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13-15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5차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하루 앞둔 12일 속초 한화콘도에 모인 남측 상봉단에서 잇따라 환자가 발생, 고령 이산가족들의 건강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북한의 이강록(74)씨를 만날 이필재(54)씨가 이날 오후 6시40분께 투숙해 있던 한화콘도 5257호에서 갑자기 각혈을 하며 쓰러져 119 구급차가 출동했다.

이필재씨는 끝내 상봉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13일 북측 이산가족 100명을 만나러 방북하는 남측 가족.친척은 456명으로 줄었다.

의료진은 의식이 혼미해진 이필재씨를 일단 부근 속초의료원으로 후송했다가 상봉 포기에 따라 인천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이씨가 폐결핵이나 기관지염 때문에 쓰러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3년전 위암 수술을 받았다는 가족의 말에 따라 위출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끝) (YONHAP) 020912 2250 KST

▶〈금강산에서 두가지 남북행사 이례적〉

관광회담 결렬뒤 상봉행사.철도연결협의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10-12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2차 금강산 관광 당국간 회담이 성과없이 끝나 아쉬움을 남겼지만 13일부터 이 지역에서 제5차 이산가족 순차상봉과 함께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가 진행된다.

재작년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치러진 남북회담사를 훑어봐도 국가적 차원의 행사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치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작년 9월 25일부터 1박2일간 서울에서 제1차 경제협력 실무접촉이, 같은 기간 제주도에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열렸지만 장소는 달랐다.

물론 북측이 회담 장소로 금강산을 고집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같은 시기, 같은 건물에서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이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이색적이다.

금강산여관 한쪽에서는 정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남북 대표단간의 뜨거운 회담 장면이, 다른 한쪽에서는 반세기만에 상봉하는 이산가족들의 눈물겨운 장면이 겹쳐지게 됐다.

이산가족 행사에 남측 이산가족 457명과 지원요원 및 취재진 등 모두 586명, 대표와 지원요원 등으로 구성된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남측 인력 27명 등 총 613명이 금강산에 2박3일 일정으로 동시 체류하는 것도 기록이다.

북측 이산가족 100명과 철도.도로연결 북측 대표단이 금강산여관에 머물 예정이기 때문에 남측 방문객들은 관광선 설봉호와 선상호텔인 해금강은 물론 현대아산 직원들의 숙소까지 이용해야 할 판이다.

이런 점에서 금강산관광 당국간회담이 관광대가 체불에 대한 '정부 보증' 논란으로 성과없이 끝났지만 곧바로 이산상봉과 남북 당국간 대화가 이어져 전반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 이산가족 상봉단 455명 금강산행

3명 수해.건강 이유로 상봉 포기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할 남측 가족.친척 455명이 13일 오전 11시 속초에서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 편에 금강산으로 출발했다.

대한적십자사 이영구(李榮求.59)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지원요원 70명과 취재진 29명 등이 동행했다.

남측 상봉단은 당초 458명이었으나 북한의 김순경(69)씨를 만나려던 누나 김진명(84)씨 가족 중 강릉에 사는 조카 진만(59)씨가 수해복구 때문에 11일 밤 늦게 금강산행을 포기했다. 이강록(74)씨를 만나기 위해 12일 속초로 왔던 이필재(54)씨가 이날 저녁 갑자기 각혈하며 쓰러져 인천으로 급히 후송돼 방북길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또 북한의 동생 윤희상(70)씨를 만나러 가던 누나 숙자(78)씨가 고령으로 여행이 쉽지 않다는 가족들의 판단에 따라 13일 아침 방북을 포기했다.

남측 가족.친척들은 반세기 만에 가족을 만나는 설렘으로 13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방북 준비로 바빠 움직였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의지한 9명을 포함, 대다수 가족들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으나 속초지방에 전날부터 비가 그치지 않자 금강산 지역의 날씨를 걱정했다.

한적 관계자는 "지난 4월 4차 상봉 때에도 금강산에 비가 내려 일부 가족들이 남북 동반관광을 포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네 자매가 유일한 남자 혈육인 오빠 윤희상씨를 만나러 금강산으로 향한다는 영자(64)씨는 "죽은 줄만 알았던 오빠가 먼저 연락했다"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배에 올랐다.

상봉단장인 이영구 한적 사무총장은 "이산가족들이 편안한 상봉을 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속초항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한적이 미리 넘겨준 이산가족 상봉단 명단과 해당자를 대조하는 것으로 출항소속을 간단히 마쳤다.

한편 상봉단을 태운 설봉호는 전날밤 늦게 끝난 금강산관광 2차 당국회담 대표단과 취재진을 태우고 장전항을 떠나 13일 새벽 속초항에 도착했다.

(끝) (YONHAP) 020913 1115 KST

▶ <금강산상봉> 특이한 형제 상봉

<이 기사는 2002년 9월 13일 16시 3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현해탄 건너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 일리오"

13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열린 5차 이산가족 단체상봉에서 남측 염매실(78.여)씨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연방 북측 남동생 동기(71)씨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남측 남동생 동덕(64), 동호(62)씨도 "해방전 일본에서 돈 벌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어떻게 된 일이나"며 형 동기씨에게 저간의 사정을 물었다.

전남 광주가 고향인 동기씨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44년 집안에 경제적 보탬이 되겠다며 홀로 일본으로 갔다. 이후 전쟁이 터지고 동기씨의 연락이 끊기자 염씨 남매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일본에서 살고 있기만을 바랐었다고 한다.

동생 동호씨는 "형님이 북한에서 우리를 찾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전쟁과가난이 우리 남매를 갈라 놓았다"고 말했다.

전쟁은 북측의 김택중(70)씨 7남매도 남과 북, 일본으로 각각 갈라 놓았다.

남측 승자(65), 달자(57) 자매는 해방후 일본과 제주도 등을 전전하다가 전쟁통에 소식이 끊긴 백발의 오빠 택중씨를 만났다.

이들 남매는 일본의 언니 윤자(68)씨가 병석에 누워 있고 큰 오빠는 오대전에 일본땅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택중씨는 남측 여동생들에게 북에 살고 있는 여동생 2명의 안부를 알렸다.

김대중 대통령의 목포상고 3년 선배인 것으로 알려진 북측 림종섭(79)씨는 5명의 남쪽 동생들과 해후했다.

북한에서 문화예술계 책임자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진 종섭씨는 일제시대 당시 동경제국대학(현 도쿄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수재로 7형제중 장남.

종섭씨는 북한에서 엔지니어와 의사 등으로 활약중인 자식들의 사진을 9~12대 국회의원을 지낸 종기(76)씨 등 남측 동생들에게 보여주며 50년 이상의 한을 달랬다.

남측 성기훈(65)씨는 전쟁때 의용군으로 징집돼 소식이 끊긴 북측 형 기룡(67)씨와 만났다.

기훈씨는 "부모님이 각각 62년과 88년 작고했지만, 형이 살아있을 것으로 믿고 호주로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기룡씨는 북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 지금은 연금을 받는다면서 자식 4남매도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닌다고 했다.

그러나 기룡씨가 전쟁때 국군포로로 북한에 남은 것으로 알려진 말형 기방씨의 안부를 기훈씨에게 전했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끝) (YONHAP) 020913 1337 KST

▶ <금강산상봉> 모녀 상봉, 사위-장모 만남

<이 기사는 2002년 9월 13일 16시 3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금강산의 온정각 A동.

아흔을 넘긴 어머니는 반세기 만에 자신 앞에 선 딸의 주름진 얼굴만 어루만졌다. 누가 그 곱던 딸의 젊음을 앗아갔는가. 어머니는 세월이 야속할 뿐이었다.

귀가 어두운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입모습을 뚫어지게 마주 보았다. 북쪽의 딸 최순옥(71)씨는 강릉여중 5학년때인 지난 1950년 전쟁통에 아버지와 함께 연락이 두절됐다.

어머니 김승규(93)씨와 다른 가족들은 최씨가 사망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다 이번 제5차 상봉에 앞서 살아있다는 기적같은 연락이 온 것이다.

순옥씨는 반세기만에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고, 누나를 찾은 남쪽의 남동생 헌규(55).록규(52)씨, 여동생 선희(60)씨는 옆에서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다.

사촌 남동생 태규(65)씨는 희미한 옛날 생각이 되살아난 듯 "누나가 맞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태규씨는 "실종 당시 주소가 강릉시 초당동이었는데 여길 떠나지 않아 누나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온정각 B동.

김순규씨와 함께 남측 상봉단 중 최고령인 김유중(93.여)씨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북의 사위 리우문(70)씨가 처음 만나는 장모님을 멍쩍게 달래도 김씨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김씨가 금강산에 온 것은 흑여 딸 이경란(67)씨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이경란씨와 리우문씨는 둘 다 남쪽 출신으로 북에서 결혼했다.

경란씨는 경기여중 재학중이던 지난 1951년 1.4후퇴 때 어머니가 임신중이라 피난을 가지 못해 결국 중공군에 붙잡혀 북으로 끌려가게 됐다는 것. 리우문씨는 여섯형제 중 셋째로 전쟁 당시 서울공고 졸업반이었다.

우문씨는 그해 7월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학생인민청년동맹에 의해 의용군으로 끌려가 가족들과 헤어졌다.

두 사람의 결혼 사실은 미국에 살던 우문씨의 외삼촌이 지난 90년 북한을 방문해 우문씨를 찾음으로써 알게 됐다. 우문씨의 말형 우관씨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월북했다가 지난 97년에 사망했고 전쟁 당시 국군포로로 잡혀갔던 둘째형인 우현씨는 평양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

우문씨의 남쪽 가족으로는 남동생 우섭(68).우범(63)씨가, 경란씨 가족으로는 언니 한복(69)씨가 사돈지간으로 함께 방북길에 올랐다.

리우문씨 3형제가 반세기만에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누느라 한참을 껴안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경란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우문씨는 "나는 황해남도 강령군 부포에서 수산학교 교장을 했고 처는 의사를 지냈다"고 하자 우섭씨는 "형님들이 북에서 잘 살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며 안도했다.

(끝) (YONHAP) 020913 1332 KST

▶ 이산상봉단 455명 北 장전항 도착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순차 상봉행사에 참가할 남측 가족.친척 455명이 13일 오후 3시 20분께 설봉호편으로 북측 장전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남측 가족들은 곧 금강산여관으로 이동, 북측 혈육과 꿈에 그리던 단체 상봉의 꿈을 이루게 된다.

앞서 남측 가족.친척을 태운 설봉호는 이날 11시 14분께 남측 속초항을 출발했다. (끝)(YONHAP) 020913 1546 KST

▶ <금강산상봉> 눈에 띄는 북측 인사

<이 기사는 2002년 9월 13일 16시 3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남측의 배재진(69)씨와 고모 현순(46)씨 등을 만난 북측의 배재인(66)씨는 평양제1고등학교 교장으로 남측 신문에 난 북한 기행문에 소개되거나 TV 화면으로도 종종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다.

생김새로도 금세 형제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남녘의 형과 닮은 재인씨는 형의 손을 잡고 "건강하시냐"고 인사한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재인씨는 서울에서 경기상업중학교 5학년(당시 17세)에 다니던 중 6.25 전쟁이 터져 경북 봉화에 살고 있던 가족과 헤어진지 50여년만에 형과 감격적으로 재회했다.

재진씨는 "89년 남쪽 신문에 실린 재미 여류작가의 북한 기행문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며 "북한 컴퓨터 학습 장면을 소개하는 TV 화면에서도 간간히 네 얼굴을 봤다"고 말했다.

재진씨는 형제 8남매 가운데 4남매가 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나머지 북측형제에 대해 차마 얘기를 꺼내지 못했는데 재진씨가 "모두 잘 있다"고만 전했다.

북측의 김옥림(73)씨는 6.25때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아예 인민군에 들어가 만기제대한 다음 김일성대학 건축공학부를 졸업했다.

남측의 동생 수림(71), 창림(61)씨 등과 만난 옥림씨는 4남매 중의 맏아들로 남측의 동생들에게 가족 근황을 묻다가 누이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안타까워했다.

옥림씨는 "북에서 결혼해서 아들 하나와 딸을 둘 두었는데 모두 김일성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동생 수림씨는 "지난해 3월 서신교환 때 형의 편지를 받고 살아계신 줄 알았다"며 "4차 상봉까지 떨어져 포기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찾아줘서 만나게 됐다"고 화답했다.

창림씨는 "전쟁이 터지기 전에 손재간이 좋아 목공을 했는데 결국 건축공부를 했습니까"라며 형의 어깨를 부여 안았다.

전쟁 당시 숙명여중 재학중 의용간호대로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겨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냈던 박숙영(71)씨는 북에서 간호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50여년만에 동생 영웅(59)씨 등 남측 가족들과 다시 만났다.

영웅씨는 "6남매 가운데 누님만 전쟁통에 소식이 끊겨 가족들이 애를 끓였다"며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어 사망신고 만큼은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숙영씨는 6남매 가운데 4명이 이미 숨졌다는 영웅씨의 말에 "너무 늦게 만나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청주농업학교 5학년때 의용군에 끌려갔다가 북에서 김일성대학을 졸업한 김재혁(69)씨는 남쪽의 형 재호(79), 누나 재정(74), 남동생 재운(67), 재신(64), 여동생 재식(61)씨를 모두 만나는 행운을 안았다.

그러나 재혁씨는 남측 형제들로부터 어머니가 아들을 잃어 버린 고통을 이기지 못한채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해 듣고 끝내 흐느껴 울고 말았다.

재식씨는 "어머니가 인민군 버스를 따라 김천까지 쫓아가며 오빠를 데려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오빠가 끝내 끌려가자 화병으로 몸져 누웠다가 67년께 돌아가셨다"고 울먹였다.

재호씨는 "네가 참 똑똑했는데 대학까지 나왔구나"라며 "점쟁이들에게도 물어보니 모두 네가 살아있다고 해 반신반의했는데 형제를 찾아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전쟁 당시 '서울 심포니' 멤버였던 신명균(71)씨는 다른 단원들과 함께 북으로 끌려갔다가 반세기만에 남쪽의 동생 성균(66), 공자(여.61), 정균(여.59), 문균(56)씨와 상봉했다.

명균씨는 북에서 '피바다 가극단' 단장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자씨는 양정중학교 3학년때부터 서울 심포니 서양악단 멤버였던 형 명균씨의 기억을 더듬어 "형님 악기를 만지다가 엉덩이를 맞곤 했던 기억이 난다"며 "이번에 형님이 부시던 슬라이 트롬본과 '가요반세기'라는 악보집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끝) (YONHAP) 020913 1445 KST

▶ <금강산상봉> 각종 특이 사연들 모음

<이 기사는 2002년 9월 13일 16시 3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미국서 날아온 가족들=

0...이번 이산가족 상봉에는 반세기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국땅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가족들이 있어 관심을 모았다.

미국 LA에서 살고 있는 심민자(73.여)씨는 북한의 동생 수영(71.여)씨를 만나기위해 상봉 이틀전 귀국했다.

남동생 기섭(68)씨, 여동생 소영(64)씨와 함께 동생을 만난 민자씨는 "헤어진 반세기만에 4남매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며 감격스러워했다.

경기도 수원에 살던 4남매가 헤어진 것은 6.25때 여고 졸업생이던 수영씨가 인민군에 끌려가 소식이 끊기면서부터.

민자씨는 "혼자 4남매를 키우던 어머니는 딸이 북에서 죽었다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고 끝내 둘째딸을 보지 못하고 15년전 돌아가셨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북측 리범중(72)씨를 만난 형 이범성(79)씨도 LA에서 5차 상봉행사 소식을 듣고 부인 양금숙(78)씨와 함께 귀국한 경우다.

당초 범중씨는 어머니 유태희씨를 찾았지만 범성씨는 이날 이미 78년에 돌아가신 어머니 영정을 동생에게 건네줄 수밖에 없었다.

범성씨는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아들 얼굴만이라고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며 안타까워했다.

범중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전쟁중 가족들과 헤어졌다.

이미 죽은 줄로만 알고 아예 상봉신청도 하지 않았던 범성씨 가족은 "동생이 먼저 남측 가족을 찾아 이렇게 만나게 됐다"며 감격스러워했다.

미국 뉴저지의 아들 집에 머무르고 있었던 조세호(60)씨도 북측 누나 조영호(69)씨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 서울로 왔다.

6.25 당시 숙명여고 3학년에 재학중 교복을 입은 채 집을 나선 누나의 뒷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던 세호씨는 영호씨의 손을 한동안 놓지 못했다.

이날 상봉으로 모두 7남매인 조씨 형제자매중에 누나 정호(75)씨, 여동생 옥호(65)씨를 포함해 모두 4남매가 재회의 기쁨을 누렸다.

=아버지 대신 상봉=

0...북의 작은고모 김오복(69)씨를 만난 김성(61)씨는 지난해 4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2000년 10월 2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생사확인때 막내 고모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시고 '죽기전에 오복이를 만나고 가는구나'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오복씨의 오빠 김갑원씨는 당시 식도암을 앓고 있었으며, 여동생의 생존을 확인했으나 그후 오복씨가 상봉단 최종명단에서 계속 누락되면서 고통스러워했다고 아들 김성씨가 전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막내동생을 꼭 봐야겠다고 하셨다"면서 "이제 만날 차례는 돌아왔지만 그렇게 허무하게 가셨다"고 허공만을 바라보았다.

오복씨는 동덕여고 졸업반때 전쟁이 터져 간호사로 인민군에 징집됐다.

=단독 상봉과 제비뽑기 상봉=

박형권(70)씨는 가족을 대표해 혼자서 북한의 의사촌 도영문(70)씨와 만나 눈길을 끌었다.

모든 가족들이 건강상 이유로 방북을 포기하면서 박씨만 17살때 헤어진 동갑내기 의사촌을 만난 것이다.

“누님 두분과 여동생 세명, 남동생 두명 등 모두 7남매이지만 해외에 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 형을 만나게 됐다”면서 “모든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일 날이 올 수 있을까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반면 북한에 있는 김승식(68)씨를 만난 가족 5명은 10남매가 모두 생존해 있어 상봉자를 정할때 준비쁨기를 했다고 해 관심을 모았다.

가족을 대표해 승식씨와 재회한 사람은 남동생 교식(67), 송식(59)씨와 여동생 애식(64), 인희(50)씨.

이들 형제의 이별은 승식씨가 충남 서천군 장항농고 3학년때 의용군으로 끌려가 소식이 끊기면서 시작됐다.

송식씨는 “형제 모두가 고향을 떠났지만 형님이 혹시 돌아올까 싶어 옛날 집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왔다”고 이날 상봉을 감격해했다.

6.25때 생이별을 했던 10남매는 그러나 52년만의 만남에도 결국 5명의 인원수 제한 때문에 다 모이지 못한 것이 또 다른 ‘한(恨)’으로 남게됐다.

(끝) (YONHAP) 020913 1430 KST

▶-금강산상봉- 단체상봉 시작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순차 상봉행사에 참가한 남측 가족.친척 455명이 13일 오후 5시 20분께 금강산의 온정각휴게소에서 북측 가족 100명과 단체상봉을 통해 감격적인 해후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설봉호 편으로 금강산에 도착한 남측 가족들은 전날 오후 금강산여관에 미리 도착했던 북측 가족과 온정각휴게소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앞서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설봉호편으로 북측 장전항에 무사히 도착, 북측 단장인 백용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 (끝)(YONHAP) 020913 1735 KST 985

▶ -금강산상봉- 금강산 또 눈물바다(종합)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지난 4월에 이어 다섯달만에 또 다시 금강산이 반세기만의 혈육상봉의 눈물바다를 이뤘다.

13일 오후 5시30분부터 금강산에 자리잡은 현대아산의 온정각휴게소에서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2시간 남짓 각각 남측의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가졌으며 이어 오후 8시에 공동만찬을 가졌다.

남측 상봉단의 최고령자인 김순규(93) 할머니는 50여년만에 만나는 북의 딸 최순옥(72)씨가 상봉장에 들어서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딸과 함께 실종된 남편이 1954년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딸로부터 듣고 말을 잊지 못했다.

1950년 여름 아침을 먹은 뒤 사라졌던 북의 권오설(81)씨는 반세기 동안 수절하면서 딸 셋을 잘 키워준 남측의 아내 박중하(80)씨의 손을 쓰다듬으며 "내가 불효자지, 당신이 고생했어..젊었을 적에는 예쁘고 바느질 잘 하기로 소문났었는데"라고 말했다.

다리가 불편한 남측의 조금래(73)씨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 북의 남편 리기탁(74)씨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남측에서는 전사통보까지 받았던 리씨가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헤어질 당시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들 태석(52)씨가 "아버님 절 받으십시오"라며 큰 절을 하자 "이사람은 뱃속에 들어있던 알지도 못했던 유복자야"라고 말하며 어쩔줄을 몰랐다.

남편이 전사한 줄 알고 2년전까지 국립묘지를 찾았던 아내 조씨가 새색시처럼 뉘가 부끄러운 듯 남편에게 다가서지 못하자 리씨는 "여보 이리 가까이 와서 앉아야지"라며 다정다감한 모습을 내비쳤다.

전장에서 숨진줄 알았던 손운모(68)씨를 본 남측의 누나 갑순.윤모씨는 "우리는 죽었다고 제사를 지냈지, 국립묘지에 모시고"라며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고, 손씨는 "금방 알아봤지, 옛날 모습이 남아 있어서"라며 누나들의 마음을 달랬다.

북측의 리우문(70)씨는 남의 동생으로부터 남쪽의 장모 김유중(93)씨를 소개받고 말을 잇은 채 손을 잡고 굵은 눈물만 흘렸다.

리씨가 품속에서 아내 이경란씨의 사진을 꺼내 장모에게 건네자 사진속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우문씨와 결란씨는 똑같이 남측 출신으로 북에서 만나 가정을 꾸렸다.

반면, 북측의 량희명(72), 김홍만(79)씨는 모두 남쪽의 아내들이 재가했다는 이유로 이번 상봉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북측의 김학래(74)씨가 "불쌍한 내 동생 살아있었구나"며 앞을 못보는 남의 동생 근래(68)씨를 부둥켜 안자, 근래씨는 "금방 목소리로 알아보겠어요"라고 음성으로 오빠를 확인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오빠 김씨도 "근래가 어릴 때부터 앞을 못봐서 항상 불쌍했었는데.."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북측의 황룡성(69)씨를 만난 남측의 여동생 춘자(62)씨는 오빠를 만난 기쁨 탓인지, 상봉 도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해 현대아산 의무실로 긴급 후송됐으나 만찬장에는 합류했으며, 남측의 신성균씨는 음악가였던 북의 형 명균씨를 위해 상봉장에서 준비해 온 플루트로 '고향의 봄'과 '백도라지'를 연주하기도 했다.

북으로 가기 전 서울 심포니 서양악단 단원이었던 형 명균씨는 피바다가 극단 공훈배우가 됐다며 춤으로 화답했다.

남북한의 가족들은 이날 단체상봉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했으며 14일 개별상봉을 기약하면서 각자의 숙소인 해금강호텔과 설봉호, 금강산여관으로 돌아가 잠 못 이루는 첫 날 밤을 보냈다.

남북 가족은 14일 오전 금강산여관 객실에서 개별상봉을 가진 뒤 공동중식으로 혈육의 정을 나눈 다음 같은 날 오후 삼일포로 참관상봉에 함께 나설 예정이다.

(끝) (YONHAP) 020913 2020 KST

▶ <금강산상봉> 미국서 날아온 가족들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는 반세기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국땅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가족들이 있어 관심을 모았다.

미국 LA에 살고 있는 심민자(75.여)씨는 북한의 동생 수영(70.여)씨를 만나기위해 상봉 이틀전 귀국했다.

남동생 기섭(69)씨는 "누나 얼굴을 몰라보겠다"며 왈칵 눈물을 쏟았고 수영씨는 "북에서 30년동안 조선중앙 TV 아나운서 생활을 했다"며 그동안 받은 훈장을 자랑했다.

민자씨는 "혼자 4남매를 키우던 어머니는 딸이 북에서 죽었다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고 끝내 둘째 딸을 보지 못하고 15년 전에 돌아가셨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수영씨가 연신 "장군님의 배려로 어려움 없이 생활했다"고 말하자 여동생 소영(66)씨는 "15년전에 돌아가신 엄마보다 장군님이 더 좋냐"고 말해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기도 했다.

경기도 수원에 살던 4남매가 헤어진 것은 6.25 때 여고 졸업생이던 수영씨가 인민군에 끌려가 소식이 끊기면서부터다.

북측 리범중(72)씨를 만난 형 이범성(80)씨도 LA에서 5차 상봉 행사 소식을 듣고 부인 양금숙(79)씨와 함께 귀국한 경우다.

당초 범중씨는 어머니 유태희씨를 찾았지만 범성씨는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며 안타까워했다.

범중씨는 어머니 대신 만난 작은어머니에게 "이것이 얼마만이냐"며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려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범중씨가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 것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근무하던 6.25 때. 이미 죽은 줄로만 알고 아예 상봉 신청도 하지 않았던 범성씨 가족은 "동생이 먼저 남측 가족을 찾아 이렇게 만나게 됐다"며 감격스러워했다.

미국 뉴저지 아들네 집에 머무르고 있던 조세호(68)씨도 52년만에 누나 조영호(69)씨를 만나 진한 혈육의 정을 나눴다.

세호씨는 언제 또 만날지 모른다는 간절함 때문에 연신 누나를 카메라에 담았고 영호씨는 "그동안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워줘서 큰 걱정이 없었다"고 남측 가족을 위로했다.

영호씨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김책공대 교원으로 재직했다며 학사증과부교수증을 내보이자 북측 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6.25 당시 숙명여고 3학년에 재학중 교복을 입은 채 집을 나선 뒷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던 세호씨 등 4남매는 한동안 말문을 잇지 못한채 흐느꼈다.

(끝) (YONHAP) 020913 1936 KST

▶ <금강산상봉> 단독 상봉과 예비접기 상봉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이번에 혈육을 만나지 못한 것은 나 하나입니다. 정말 아쉽고 서운합니다."

북한의 도영문(70)씨는 13일 단체상봉장에서 끝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누님 두분과 여동생 세명, 남동생 두명 등 모두 7남매를 찾았지만 모두 건강상이유 등으로 금강산에 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갑내기 고종사촌 박형권(70)씨만이 가족을 대표해 혼자서 도씨를 만났다.

박씨는 "누이 두분은 이번 수해로 방북을 포기했고 한분은 무릎 수술을 받아 함께 오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도씨에게 술을 한잔 따르며 서운한 마음을 다독거렸다.

그는 "상봉을 연기해보려 했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았다"며 "모든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일 날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반면 북한에 있는 김승식(68)씨를 만나기 위해 10남매가 재비뿔기를 했던 남동생 교식(67), 송식(59)씨와 여동생 애식(64), 인희(50)씨는 승식씨가 상봉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두 손을 모은채 입구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인희씨는 오빠를 보자 "오빠 맞아, 오빠 맞아"를 연신 외치며 얼굴을 부벼댔고 승식씨는 "이렇게 기쁜 날에 왜 우느냐"며 동생 등을 토닥거렸다.

이들 형제의 이별은 승식씨가 충남 서천군 장항농고 3학년 때 의용군으로 끌려가 소식이 끊기면서 시작됐다.

송식씨는 "형제가 모두 고향을 떠났지만 형님이 혹시 돌아올까 싶어 옛날 집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왔다"며 이날 상봉을 감격해했다.

6.25때 생이별을 했던 10남매는 그러나 52년만의 만남에도 결국 5명의 인원 제한 때문에 다 모이지 못한 것이 또 다른 '한(恨)'으로 남게 됐다.

(끝) (YONHAP) 020913 2020 KST

연합뉴스

2002. 9.14(토)

▶-금강산상봉- 이산가족 '혈육의 정' 나눠

개별상봉.동석오찬.참관상봉 등 세차례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5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틀째인 14일 남측이산가족 상봉단 455명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북측 금강산여관에서 각각 북측이산가족 100명과 개별상봉을 했다.

남측의 가족.친척들은 반세기 만의 만남에 대한 기쁨이 넘친듯 전날 밤을 거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아침 일찍 일어나 두번째 만남을 준비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개별상봉에서 전날 단체상봉때 못다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진한 혈육의 정을 나눴다.

남측 가족.친척들은 미리 준비해 간 선물을 건넸으며 일부 가족들은 짧은 만남을 오랫동안 담아두기 위해 기념사진을 찍었다.

전사처리돼 국립묘지에 위패까지 봉안된 남편과 아버지를 반세기만에 만난 남측의 조금래(73)씨와 이태석씨가 북의 리기탁(74)씨 자녀.손자들에게 줄 선물을 풀어놓자 기탁씨는 "고맙다"고 답했다.

북의 최순옥(72)씨는 객실 문앞까지 나와서 김순규(93)씨와 남동생 헌규(55).득규(52)씨, 여동생 선희(61)씨, 사촌남동생 태규(65)씨 등을 반갑게 맞았다.

북측 가족들이 각각 머물고 있는 금강산여관 객실에서 진행된 개별상봉은 그 동안의 관례대로 모두 아홉가족의 상봉장면이 10여분 정도 취재진에 공개됐다.

두시간 동안의 개별상봉을 마친 남북 이산가족들은 금강산여관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3시부터 3시간 남짓 손을 맞잡아 꼭 쥘 채 삼일포 관광을 다녀왔다.

관광을 마친 후 남북 이산가족들은 15일 작별전 한번 더 상봉을 약속하면서 각자의 숙소로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끝)(YONHAP) 020914 0908 KST 147

▶〈금강산상봉〉 개별상봉 이모저모-1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14일 오전 금강산여관 북측 이산가족들의 객실에서 이뤄진 남북 이산가족들의 개별상봉은 그다지 극적이지는 않았다.

북측 이산가족들은 대부분 북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말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준 것이라는 선물을 내놓았다.

취재진에게 상봉장면이 공개된 가족의 경우, 남쪽 가족들이 마련한 선물을 꺼내기 전에 북측 안내원들이 남측 취재진을 방에서 내보냈다.

○...지난 1944년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공대 재학중 의용군으로 징집된 유동식(76)씨는 남동생 판식, 여동생 정임, 외사촌 오상균씨와 헤어졌다.

김책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뒤 교수로 재직하다 2년전 퇴직한 동식씨가 "장군께서 여행도 보내주시고 혜택받고 잘 살았다"고 말하는 동안 다른 가족들은 그저 듣기만 했다.

정임씨는 "오빠가 북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잘됐다"며 "소식을 몰라 궁금했는데 이제 만났으니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재인(66)씨는 남쪽 가족들이 개별 상봉장으로 들어서자 "금강산을 본 감상이 어떠냐"고 인사했고 남의 형 재진씨는 "아침에 너무 상쾌해서 좋았다"고 답했다.

재인씨가 자신이 가져온 타계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에 함께 절하자고 제의해 남측 가족들은 이에 따랐다.

이어 재인씨는 전날 단체 상봉장에서 보여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평양 제1중학교의 실내 수영장 앞에서 김 주석과 함께 찍은 사진을 다시 꺼내 보이며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만큼 모든 학생들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지어주신 수영장"이라고 밝혔다.

재인씨는 자신의 학교에 대해 "제1외국어는 영어와 러시아어이고 제2외국어는 중국어와 일본어"라고 소개했다.

형 재진씨는 "어제 내가 부탁했던 (북에서 사망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일(忌日), 북쪽 조카들의 이름과 사진, 현주소 등을 준비했느냐"고 묻고 "혹시라도 나중에 만나면 알아볼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농사를 짓다 전쟁중 의용군에 입대해 가족들과 헤어지게 됐다고 말한 리기탁(74)씨는 남쪽 가족들을 만나 "이곳에서 군(郡)인민위원회 상업부장을 30년간 복무하는 등 잘 지냈다"고 안부를 전했다.

그러나 리씨는 남측의 국립묘지에 위패가 모셔졌던 사람이다.

리씨는 "이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뤄 4남매를 뒀다"며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남측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남측 아내 조금래(73)씨가 전날 단체 상봉장에서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리씨는 "노친네가 똥해서... 성질이 아직도 있단 말이야"라며 멧쩍어 했다.

○...전쟁중 의용군으로 북에 온 것으로 알려진 류철권(69)씨는 남측 3남매를 만난 자리에서 북측 안내원과 기자들을 의식한 듯 시종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

류씨는 "수령 품에 안겨 6남매를 잘 키웠다"며 "전쟁 때 북으로 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류씨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상봉행사를 배려해 준 선물 명세표를 내보이며 "장군님 덕택에 50년만에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됐다"면서 "남측 기자들은 현실을 똑바로 사실주의적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측의 누나 처녀(90)씨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을 만난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모두 건강하면 됐다"고 눈물을 흘렸다.

철권씨는 도자기, 책상보, 술 4병, 담배 등을 남측 가족들에게 전하며 김 위원장께서 특별히 준 것이니 잘 간직하라고 말했다.

0...양복 상의에 훈장 10개를 달고 나온 북측의 리진우(77)씨는 "반세기동안 못만난 가족을 이제야 보니 무어라 말할 수 없다"고 감회를 밝힌 뒤, 미리 준비한 도자기와 들쭉술, 인삼곡주가 든 선물 상자를 열어보였다.

남쪽의 아내 김기영(76)씨는 "죽은 줄 알고 2년전까지 제사를 지냈는데 이렇게 살아계시니 고맙다"면서도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남측의 딸아들 상호(56)씨가 남쪽 가족들의 사진을 꺼내 보이자, 아버지 리씨는 "이곳에서 재혼해 6남매를 두었다"며 미안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0...아들과 딸, 동생을 만난 북측의 조홍식(75)씨.

큰아들 찬주(52)씨와 딸 혜숙(53)씨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52년만에 큰절을 드립니다"라며 절을 하자 조씨는 어색한 듯 "무슨 절이냐"며 맞절을 했다.

이어 조씨는 "50여년 동안 한번 안아보지 못했던 아들, 딸을 만났으니, 이제 실컷 좀 안아보자"며 찬주씨와 혜숙씨의 어깨를 감쌌다.

조씨는 "남한에서는 대학을 꿈도 꾸질 못했는데 북에서 장군님의 은혜로 대학을 졸업하고 일등 교원으로 훈장까지 여러 개 탔다"고 자랑했다.

남쪽 동생 명식(73)씨가 "어제 가족들을 처음 만나 제대로 잠을 잤느냐"고 묻자 조씨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만나니 기뻐서 잠이 더 잘왔다"고 대답하며 웃었다.

0...북측의 조남룡(72)씨가 남쪽의 동생 남석(70)씨에게 "지난밤 너무 설레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하자, 또다른 동생 남철(68)씨는 "급하게 나오느라 서울에서 가져온 선물도 (숙소에 두고)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룡씨는 18세때 인민군에 자원 입대해 가족들과 헤어졌으며, 최근까지 평양시 상원군에 있는 전산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다고 설명했다.

남룡씨는 선물로 술을 준비했다며 "추석때 아버지 제사상에 꼭 올려달라"고 당부했다.

0...남측의 김순규(93.여)씨는 귀가 어두워 말을 잘 알아들지 못하지만 반세기만에 만난 큰딸 최순옥(72)의 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였다.

북측 기자가 "상봉을 축하한다"고 하자, 김씨는 "딸 보러 왔다"고 말했다.

최씨는 남북한 취재진에게 가족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어머니 김씨에게 "장군님이 주었다"며 옷감을 선물했다.

이어 최씨는 사촌동생 태규(65)씨에게 인삼곡주를, 동생 현규(55), 록규(52), 선희(61.여)에게는 들쭉술과 담배를 건넸다.

0...북측의 김택중(70)씨는 이날 자신을 만나러온 남의 여동생 승자(65), 달자(57)씨를 숙소인 금강산 여관 11층 12호에서 포옹하며 반갑게 맞았다.

택중씨는 미리 준비한 선물을 일일이 풀어 동생들의 손에 쥐여주며 반가운 마음을 표현했다.

김씨가 준비한 선물에는 '김일성화'가 들어 있는 크리스털 볼과 평양의 유명한 미술가가 그렸다는 금강산 풍경화 한점도 포함돼 있었다.

택중씨는 걸 포장지에 "보고싶은 부모님께 올립니다. 백남기 올림"이라고 쓴 술한병을 동생에게 쥐여주며 자신의 북쪽 친척이 남쪽의 가족을 찾아달라며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중씨는 18세때 인민군에 입대했고 북한에서 원산농업대학을 수석졸업하고 중앙과학기술통보사 기자생활을 36년째 계속해오고 있다고 했으며 외국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직업이라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등 4개국어를 한다고 자랑했다.

(끝)(YONHAP) 020914 1157 KST 292

▶ -금강산상봉- 세월을 뛰어넘은 공동참관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남북 이산가족들은 14일 오후 3시부터 세시간 남짓 금강산의 명소인 삼일포를 함께 관광했다.

이들은 삼일포에 도착한 직후 남측 가족, 친척들을 위해 북측이 준비한 과자와 음료수, 과일 등을 나눠 먹고 장소를 옮겨가며 기념사진을 찍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남측 가족들은 지난 4월 제4차 상봉 때 삼일포 공동관광에서 현대아산측이 관광객을 위해 마련한 탁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대부분 미리 야외용 돛자리를 준비해 오기도 했다.

북측의 오빠 김학래(74)씨의 손목을 꼭 잡고 참관상봉에 나선 남측의 시각장애인 여동생 근래(68)씨는 "대여섯 때까지 (오빠가) 날 업고 다녔죠"라며 어릴적을 회상하자 학래씨는 "경치가 너무 좋아 3일 놀고 가서 삼일포라고 한다"고 삼일포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 대해 가슴 아파 했다.

학래씨는 "매일 만나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니 어찌겠니"라며 앞 못보는 동생과의 상봉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데 대해 착잡한 기분을 드러내자 동생 근래씨는 "흑흑흑"하고 눈물을 떨궜다.

북측 남편 리진우(77)씨와 남측의 아내 김기영(76)씨는 52년만에 소풍을 나와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

리씨가 "이렇게 나오니 행복한 것은 말할 것이 없다. 많이 보고 싶었다"고 말하자, 아내 김씨는 반세기 동안 고독했던 한(恨)의 세월이 생각난 듯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북측의 손윤모(68)씨는 "경치도 좋고 기분도 좋다. 마음이 신선하다"며 처음 만난 제수 박숙경(58)씨가 깎아주는 사과를 받아 먹었다.

북측의 형 오진영(70)씨를 만난 남측의 동생 영웅(62)씨는 "이런 날은 술 한잔해야 하는데 없어서 아쉽네"라고 말해 가족 모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진영씨는 남측의 사촌여동생 연속(68)씨를 가리키며 "너는 얼굴을 다시 보니 가름한 게 옛날과 똑같네"라고 말했다.

영웅씨는 반세기 넘게 못 뵈던 형님을 만나뵈게 돼 너무나 좋다"며 준비해 온다과를 꺼내 형에게 건넸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김수림(70)씨는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북측의 형 옥림(73)씨에게 "아내와 함께 오려 했었는데, 아내가 사망해 아들과함께 왔다"고 말했다.

수림씨는 "일제시대에 장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금강산 일대에 소풍도 많이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고 회고했다.

이번 상봉에서 아들.딸을 만난 밤을 설쳤다는 북측의 조홍식(75)씨는 장남 찬주(57)씨에게 "조선시대 어느 왕이 이곳이 경치가 좋다고 해 하루 동안 놀러 왔다가 경치가 너무 좋아서 3일씩이나 있었다고 해서 삼일포가 됐다"고 설명한 뒤 "우리도 삼일포처럼 52년만에 만나서 3일만에 헤어진다"고 아쉬워했다.

북측의 홍경표(70)씨의 남측 동생 극표(65)씨는 "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마을이 점령돼 부모.형제를 대신해 형이 의용군으로 끌려가 내가 대신 장남 노릇을 하느라 고생했다"고 말했다.

극표씨는 이어 "지금까지 내가 4대 제사를 모두 모셔왔는데, 이제 어머니와 할머니 제사는 형님이 지내시라"고 말하자 경표씨는 "그래 이제 두분 제사는 내가 모시마"라고 답했다.

북측에 살고 있는 오빠 김동성(68)씨를 만난 남측의 여동생 동순(55)씨는 "오빠가 건강이 좋아 이제는 아무 걱정없다"고 말하자 남측의 남동생 동우(66)씨도 "형님이 연세에 비해 건강이 괜찮아 보인다"고 말하면서 남측 취재진 기자에게 음식을 권하기도 했다.

이어 동우씨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많이 (신문에) 실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충남 아산이 고향인 북측의 지강세(67)씨는 "고향이 어떻게 변했느냐"고 궁금해하자 남측의 동생 강연(65)씨는 "마을에 다리가 새로 생겼다"면서 종이를 꺼내 직접그림까지 그려 설명했다.

(끝) (YONHAP) 020914 1929 KST

연합뉴스

2002. 9.15(일)

▶ 남 이산가족 99명 16일 금강산 상봉길

455명은 북 가족 상봉후 15일 귀환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제5차 이산가족 상봉 남측 가족.친척 455명이 북측 가족 100명을 2박3일간 만났는데 이어 남측 이산가족 99명이 16일 금강산을 찾아 반세기 이별의 아픔을 달랠 예정이다.

남측 이산가족 99명은 방북 하루 앞서 15일 속초로 집결, 안내교육을 받은 후 16일 오전 11시 관광선 설봉호를 타고 금강산 장전항으로 향한다.

대한적십자사와 정부 지원인원은 15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속초로 출발, 금강산 이산상봉 행사 일정에 들어갔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첫날 단체상봉(2시간)과 만찬(") △둘째날 개별상봉(")과공동중식("), 참관상봉(3시간) △마지막날 작별상봉(1시간)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2시간 북측 가족.친척과 상봉, 재회의 기쁨을 나눈다.

2차로 금강산을 방문할 남측 이산가족 중 4명이 건강상 이유로 상봉을 포기함에 따라 후보자였던 송운태(68).이인규(69).김연욱(62)씨로 교체, 모두 99명이 방북하게 됐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금강산을 찾아 북측 이산가족 100명과 상봉한 남측 가족.친척 455명은 15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의 작별상봉을 끝내고 설봉호 편을 이용해 속초로 귀환했다.

(끝) (YONHAP) 020915 1207 KST

▶ -금강산상봉- 南 이산가족 99명, 16일 금강산 상봉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순차 상봉 행사로 남측 가족 99명이 16일 오후 금강산을 찾아 북측 가족 253명을 만난다. 지난 13~15일 남측가족·친척 455명이 북측 가족 100명을 2박3일간 만난 데 이어 두 번째다.

남측 가족 99명은 방북을 하루 앞둔 15일 속초 한화리조트로 집결, 안내

교육을 받은 후 16일 오전 11시 설봉호를 타고 금강산 장전항으로 향한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와 정부 지원인원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속초로 출발, 이날 오후부터 이산가족 방문단 안내 교육과 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등 상봉 사업을 위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특히 상봉단 중 고령자가 많은 만큼 의사 3명과 간호사 3명 등으로 구성된 의료진 6명은 이들을 꼼꼼히 검진했고 이날 저녁에도 이산가족들을 객실에서 회진하며 건강 상태를 살폈다.

의사 조승연(인천 적십자병원)씨는 "이산 가족들의 건강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면서 "다만 고령으로 인해 약을 소지하거나 거동이 다소 불편한 사람이 몇 분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첫날인 16일 단체상봉(2시간)과 만찬(") △둘째날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참관상봉(3시간) △마지막날 작별 상봉(1시간)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북측 가족·친척과 상봉하게 된다.

2차로 금강산을 방문할 남측 이산가족 중 4명이 건강상 이유로 상봉을 포기함에 따라 후보자였던 송윤태(68)·이인규(69)·김연옥(62)씨로 교체, 모두 99명이 방북하게 됐다.

(끝) (YONHAP) 020915 1624 KST

▶ 이산가족 455명 먼저 설봉호 귀환길(종합2보)

철도연결회담 대표단은 금강산 잔류

회담 지연에 귀환선 2시간 발뚱여

(서울.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심인성.이충원기자 = 15일 낮 12시에 장전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남측 이산가족 455명을 태운 설봉호가 남북 회담 지연을 이유로 2시간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할머니 1명이 저혈압으로 쓰러지는 등 이산가족들이 고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에 장전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설봉호는 지난 3일부터 금강산여관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발이 지연돼 오후 2시12분께에야 출항했다.

이 때문에 미리 설봉호에 승선해 있던 남측 이산가족 김계임(80) 할머니가 저혈압으로 쓰러져 설사와 탈수 증상을 보였다.

동행한 의료진은 한 때 쓰러진 할머니를 긴급 후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의식이 있는 점을 고려, 설봉호로 후송기로 했다.

김 할머니의 며느리 유경옥(57)씨는 "우리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전혀 모르고 그저 노인들이 무사히 오시는 줄로만 알았다"며 "노인들을 인질로 잡다시피 한 나쁜X들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미국 등 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부 이산가족들은 "비행기 예약 시간에 늦으면 누가 배상을 할거냐"며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에서 남북 양측이 합의문 문구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계속하자 이산가족들이 타고올 설봉호를 장전항에 잡아둔 채 회담을 계속하다 이산가족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오후 2시께에야 배를 출발시키라고 지시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환자가 있는 점 등을 감안, 평소보다 빠른 코스로 배를 운항하고 있는 만큼 오늘 오후 5시40분께에는 속초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남측 대표단과 취재진은 16일 남측 이산가족 99명을 태우고 장전항으로 다시 가는 설봉호 편을 이용, 예정보다 하루 늦게 귀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끝) (YONHAP) 020915 1538 KST

연합뉴스

2002. 9.16(월)

▶-금강산상봉-남북이산가족 첫 단체상봉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한 남측 이산가족 99명이 16일 오후 3시 북측 장전항에 무사히 도착해 2박3일간의 상봉일정에 돌입했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해금강호텔에 여장을 풀 뒤 현대 아산측이 준비한 버스를 타고 온정리로 이동, 오후 5시 금강산여관 2층 연회장에서 북측 가족.친척 253명과 만난다.

이산가족들은 단체상봉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공동만찬을 한 뒤 남측은 해금강 호텔, 북측은 금강산여관에서 각각 상봉행사 첫날밤을 보낼 예정이다.

양쪽 이산가족들은 상봉 이틀째인 17일 오전 금강산여관 객실에서 가족끼리 개별상봉을 갖고 오후에는 삼일포에서 참관상봉을 할 계획이다.

(끝)(YONHAP) 020916 1659 KST 1015

▶ -금강산상봉- 분단 뛰어넘는 눈물바다 상봉(종합)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50년만에 터진 남북 이산가족들의 눈물샘은 좀처럼 마를 줄 몰랐다.

16일 오후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한 남측 가족 99명과 북측 가족.친척 253명이 만난 금강산여관은 다시 눈물바다가 됐다.

이산가족들은 상봉장 곳곳에서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린 채 부둥켜 안았다. 일부 가족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얼굴을 쳐다보고 있기만 했다.

몇몇 가족들은 "이렇게 기쁜 날 왜 우느냐"며 '고향의 봄'을 합창하기도 했다.

손중학(71.여)씨는 북송 재일동포인 아버지 손진황(89)씨와 북측의 의붓 어머니 류복이(67)씨를 만나 재회의 기쁨을 눈물로 대신했다. 북송 재일동포가 남북간 이산가족 행사에서 가족 상봉을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복(79)씨는 지난 68년 4월 17일 창영호의 어부로 납북된 아들 정장백(54)씨와 며느리 윤명숙(48)씨, 손자 정남진(18)군 등 북녘 혈육의 큰절을 받고 34년의 한을 풀었다.

또 김용순(66.여)씨는 국군포로 출신의 큰 오빠 김수동(75)씨와 조카 명월(37.여)씨와 만났다.

남측에서 광의의 이산가족 개념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남북자는 이번이 세 번째. 국군포로는 네 번째로 상봉이 이뤄졌다.

김형식(74), 이용천(70)씨 등 반공포로 출신 남측 이산가족 8명이 아들 김유하(53), 여동생 이봉녀(60)씨 등 북측 혈육과 상봉했다.

남측 가족 가운데 최고령자인 94세의 정제원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서 남녘부산에서 달려온 끝에 북측의 둘째 아들 동인(56)씨의 얼굴을 어투만지는 기쁨을 누렸다.

또 93세의 김혜연씨는 두 아들 인식(66), 영식(63), 그리고 딸 현식(60)씨와 앉아 있던 북측 상봉자중 최고령자인 아내 박종정(90)씨 앞에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이게 꿈이오 생시오"라며 어쩔 줄 몰라했다.

박창규(94)씨는 전쟁때 잠깐 몸을 피한다고 집을 나왔다 헤어진 부인 김순덕(76)씨에게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다 "그 동안 어떻게 살아왔냐"고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날 단체상봉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저녁밥을 먹고 각자 숙소인 해금강 호텔(남측), 금강산 여관(북측)으로 돌아가 따로 잠을 잤다.

양쪽 이산가족들은 상봉 이틀째인 17일 오전 금강산여관 방에서 가족끼리 개별상봉을 하고 오후에는 삼일포로 참관 상봉을 한다.

(끝) (YONHAP) 020916 2035 KST

연합뉴스

2002. 9.17(화)

▶-금강산상봉-이산가족 금강산여관서 개별상봉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남북 이산가족들은 반세기만에 갖게된 짧은 만남의 시간을 아끼려는 듯 마주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전날 제5차 남북이산가족 단체상봉에 이어 17일 오전 북측 가족이 묵고 있는 금강산 여관에서 개봉상봉을 가진 남측 가족 98명과 북측 가족, 친척

253명은 50여년 동안 쌓인 회포를 반나절만에 풀어놓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그래도 서먹했던 감정을 털어버린 이산가족들의 상봉의 정은 북측이 마련한 공동 중식 시간까지 계속됐다.

재일동포로 일본에서 사업하던 중 북송선을 탔던 아버지 손진황(89)씨와 북측의 의붓어머니 류복이(67)씨를 만난 손종학(여.71)씨는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며 기뻐했다.

손씨는 이어 같이 오지 못한 동생들의 편지와 가족 사진을 꺼내 보였고 아버지 진황씨는 자식들의 편지와 손자들의 사진을 받아 쥐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개별상봉에서 북녘의 수절 아내 김옥녀(78)씨와 아들 상철(53), 딸 영숙(58)씨를 만난 김창빈(78)씨는 내의, 점퍼, 시계 등을 선물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남측 가족 가운데 최고령자인 94세의 정제원 할아버지는 북측의 둘째 아들 동인(56)씨가 가져온 북측 가족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정씨는 북측 손자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려는 듯 종이를 꺼내 빼곡이 적어내려갔다.

또 북측 최고령자인 아내 박종정(90)씨를 만난 김혜연(93)씨는 귀가 어두워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에 애를 태우다가 공동중식시간에 자식들이 음식을 집어주며 살갑게 대하자 환하게 웃었다.

한편 이날 새벽 갑자기 착란 상태(급성심망증세)를 보인 강기원(91)할아버지는 의료진의 보호를 받으며 이날 오전 8시30분 속초항으로 귀환하는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회의 남측 대표단과 함께 남으로 후송됐다.

개별상봉과 중식을 마친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후 북측 가족에 이어 남측 가족순으로 삼일포 참관관광을 한 뒤 따로 저녁식사를 할 예정이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18일 오전 마지막으로 북측 가족들과 작별상봉을 한 뒤 설봉호 편으로 속초로 돌아온다.

(끝)(YONHAP) 020917 1042 KST 371

▶ <금강산상봉> 삼일포 나들이 이모저모(종합)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0..6.25 전쟁때 남쪽으로 내려온 주도성(80)씨는 북측 막내딸 혜옥(56)씨와 삼일포를 다정히 거닐며 반세기동안 못나섰던 부녀의 정을 만끽했다.

부녀 곁에는 이번 상봉행사에서 할아버지와 첫 만남을 가진 외손녀 김성희(32)씨가 동행, 어머니 곁에서 외할아버지를 부축했다.

세 시간 가량 진행된 삼일포 참관 상봉 내내 50여년간 떨어져 있었던 부녀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전날 첫 상봉때 흥분으로 상기됐던 부녀의 표정은 이 날 오후에는 어느덧 밝아져 있었다.

주씨는 남쪽으로 넘어오기 전 북한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며 간간이 웃음을 머금기도 했다.

딸 혜옥씨가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빨리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다시만나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주씨는 "맞아, 통일이 빨리 돼야 할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주씨는 이어 "여기 오니까 경치도 좋고 기분도 좋다"며 "너를 만나고 나니 마음도 가볍다. 특히 혜옥이 너는 맏딸이라 많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0...삼일포 참관상봉에 나선 김혜연(93) 할아버지는 북측 아내인 박종정(93)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운 채 아들 인식(66), 영식(63), 레식(57)씨, 딸 현식(60.여),명식(55.여)씨에 둘러싸여 마지막이 될 지 모르는 가족들과의 만남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

김씨 일행과 동행한 북측 의료진들은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발이 퉁퉁 부었다고 걱정하시더라"며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김 할아버지의 혈압과 건강상태를 일일이 체크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 할아버지는 호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종이를 꺼내더니 "이렇게 혈압
젠 종이를 갖고 다녀"라며 "혈압이 낮을 때는 110까지 내려가고, 어떤 때는
200까지 올라가지"라고 최근 심근경색으로 네 번이나 쓰러져 생사의 고비를
넘겼던 사연을 털어놓았다.

김 할아버지의 막내딸 명식씨는 "아버지 통일돼서 여기 있음 얼마나 좋
간. 통일돼서 동생들이랑 다시 오자우요"라며 후일을 기약했다.

0...남측의 박창규(77) 할아버지는 북측의 아내 김순득(76) 할머니와 딸
흥녀(56)씨와 다정히 손을 잡은 채 삼일포 호수를 배경으로 사진촬영하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박 할아버지가 "삼일포를 보니, 우리 고향 황해도 웅진이 생각나는구려"
라고 말하자, 김 할머니는 "전쟁때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먼저
가라고 한 계못내 한이 됩네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박씨의 딸 흥녀씨는 "아버지, 엄마 좀 꼭 안아줘요.", "엄마, 엄마도 가깝게
좀서보라우요"라며 다정한 부모의 모습을 사진에 담으려고 분주한 모습이었
다.

박 할아버지가 "할멈, 오래 살아서 통일되면 꼭 만남시다"라며 김 할머니
를 꼭 끌어안자, 할머니는 "영감도 오래 사셔야 해요. 통일돼서 꼭 만나야지요
"라며 눈시울을 적셨다.

0...68년 동해에서 조업을 하던 중 납북됐던 아들 정장백(56)씨를 극적으
로 만난 이명복 할머니(80.여)는 삼일포 나들이 내내 아들의 손을 꼭 쥔 채
놓지 않았다.

이 할머니는 "살아서 너를 만나니 너무 좋다"면서 "손자와 며느리까지
봤으니 내가 말년 복은 있는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장백씨도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면서 "어
머니의 얼굴을 직접 보니 불효의 짐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북측 며느리 윤명숙(48)씨가 준비해온 다과와 음료수를 들면
서 "경치가 참 좋다"며 "이래서 금강산을 명산이라 하는구나"라며 감탄했다.

며느리 명숙씨는 "어머님이 많이 마르셨지만 목소리도 또렷하시고 걸음도 잘 걸으셔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손자 남진(18)군에게 "너는 얼굴을 다시 보니 가름한 게 아비랑 똑같다"면서 얼굴을 어루만졌다.

이 할머니가 이어 아들을 바라보며 "매일 만날 수 있다면 좋으련만..."이라고 아쉬워하자, 장백씨는 고개를 떨구었다.

"내 살아 생전에 너와 네 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라는 어머니 이씨에게 장백씨는 "통일될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답했다.

0...6.25 전쟁통에 헤어졌던 남편과의 애뜻한 정을 잊지 못해 50여년간 수절하며 살아온 조돈화(73.여)씨는 50여년만에 만난 북측 남편 성태용(71)씨의 손을 꼭붙잡았다.

금강산의 명소 삼일포 주변을 남편과 함께 거닐던 돈화씨는 "경치가 참 좋네요.이래서 사람들이 금강산 금강산 하는거구나"라며 "이거 하나 드셔봐요"라고 남편에게 정성스레 깎은 사과를 권했다.

남편 태용씨는 아내의 다정함에 지난 반세기간의 절망과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조씨는 남편이 "조선시대 어느 왕이 이곳이 경치가 좋다고 해 하루동안 놀러왔다가 경치가 너무 좋아 3일씩이나 있었다고해 이 곳이 삼일포가 됐다"고 삼일포의 유래를 설명하자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0...남측 최고령자인 정제원(94) 할아버지는 아들 동인(56)씨의 부축을 받으며 삼일포에 도착하자마자 "50년전엔 공원이 있었는데...해당화가 만발한 공원은 어딴노"라며 삼일포에서의 옛 추억을 되새겼다.

아들 동인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아버지의 퉁퉁부은 한쪽 발목을 한동안 안쓰럽게 어루만지며 잠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끝) (YONHAP) 020917 1956 KST

▶北방송, 5차 이산상봉 소식 보도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8일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이 16일과 17일에도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지난 13일과 14일 우리측 100명의 상봉자들이 남녘 가족친척들과 만난 데 이어 이번에는 우리측 흠어진 가족친척들이 남측 상봉자 99명과 만났다"며 "16일 우리측 흠어진 가족친척들은 먼저 남측 상봉자들과 집체상봉을 했다"고 밝혔다.

방송은 "우리측 흠어진 가족친척들은 17일 남녘의 혈육들과 가족 단위로 상봉했다"며 "북과 남의 가족친척들은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봉의 기쁨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혈육의 정을 두터이 했다"고 소개했다.

중앙방송은 "제5차 북남 흠어진 가족친척 상봉은 민족을 위한 최고의 인도주의는 조국통일에 있고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해 나갈 때 7천만 겨레가 갈망하는 조국통일의 새날이 앞당겨 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끝)(YONHAP) 020918 0808 KST

▶〈실향민들 "열차타고 고향가고 싶어"〉

(서울=연합뉴스) 장영은.이상현.황희경 기자 = "소학교 수학여행때 기차를 타고 서울을 오갔던 추억이 떠오르는데 하루라도 빨리 철도.도로가 복원돼 북한에 있는 고향마을까지 단숨에 내달리고 싶습니다"

18일 남북에서 각각 역사적인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가진 가운데 분단 이전까지만 해도 경의선 열차를 타고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했던 실향민들은 이날 하루 어릴 적 추억을 되살리면서 남다른 감회에 젖어들었다.

실향민들은 "반세기 이상 끊겼던 철도를 잇는 것만으로도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의선 뿐아니라 경원선, 판문점 길도 이어져 눈감기 전에 한민족인 남북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간절한 바람을 나타냈다.

고향이 함경북도 길주인 함북민보 편집국장 마 옥(76)씨는 "50년 넘게 끊긴 남북의 철도와 도로가 이어진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경원선까지도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평안남도 중화군이 고향인 이모(67)씨는 "일단 고향가는 길이 뚫리게 돼 너무 좋지만 계속 잘 추진될지 걱정도 된다"며 "착공식이 행사에만 그치지 않고 끝까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경남도 문천 출신 한일성(62)씨도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북측이 협상용으로 남한측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면 하지만 끝까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우려도 표시했다.

황해도 연안이 고향으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때 북에 둔 딸을 만난 주원택(83)씨는 "경의선 열차에는 석탄을 가득 실은 화물칸에도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고 주변 철도길에는 철도초라는 하얀꽃이 많았던 기억이 난다"며 "마음 같아서는 금방이라도 철마를 타고 고향까지 내달리고 싶고 죽기전에 한번 더 고향에 있는 딸과 사위, 손자를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금강산에서 북에 있는 아버지 손진황(92)씨를 60년만에 상봉하고 돌아오는 이산가족 손종학(71.여)씨의 딸 허분화(52)씨는 "어머니 같은 이산가족들과 실향민들은 분단 세월동안 북쪽 고향과 가족을 생각하며 한시라도 그리움이 떠날 날이 없었다"며 "이산가족 상봉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북으로 이어지는 경의선.동해선을 통해 이들이 마음껏 왕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YMCA 신상용 시민사업팀장은 "DMZ(비무장지대)를 지나는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사업은 남북을 잇는다는 의미 뿐아니라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상봉 등의 남북교류와는 달리 군사적 의미가 있고 남북의 담을 실질적으로 허무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핵심현안인 군사신평구축 조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랍.탈북자 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 배재현 본부장도 "남북이 한발짝 더 다가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YONHAP) 020918 1416 KST 738

▶ <금강산상봉> 결산-이벤트성 행사 '이제 그만'

(서울=연합뉴스) 문관현기자 = 18일 오전 북측의 금강산여관에서 개최된 작별상봉을 끝으로 제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마무리됐다.

이산가족들은 2박3일동안 단체상봉과 공동만찬, 개별상봉, 삼일포 참관, 작별상봉 등 빠듯한 일정을 통해 반세기동안 헤어졌던 가족들과 만나 혈육의 나누고 또다시 '기약없는' 이별을 맞이했다.

이번 상봉행사를 전후해 최초로 총재급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려 금강산면 회소 설치가 논의됐고 동해선 철도·도로연결공사 착공식이 열려 향후 상봉정례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일부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미리 포기하거나 행사도중 후송되는 경우도 발생해 당국차원의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면회소 설치시급 = 남북한 적십자사는 지난 8일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남측이 자재와 장비를, 북측이 인력을 각각 제공해 금강산지역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공동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서부지역에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아울러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을 계속 확대하되, 구체적인 규모나 방법은 추후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들이 희망해온 '상봉정례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응급환자 속출 = 지난 12일 남측 상봉단 가운데 이필재(54)씨가 오후 6시40분께 숙소에서 갑자기 각혈을 하며 쓰러져 119 구급차로 후송됐다.

또 북측의 류호영(76)씨를 만나러 방북하려던 사촌동생 호태(58)씨가 몸이 아파조카 며느리 오병임씨가 대신 금강산 상봉 길에 합류했다.

17일 오전 8시 30분께 북에 남은 아들과 딸들을 만나기 위해 금강산행을 강행했던 강기원(91)할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돼 설봉호를 통해 장전항을 떠나 속초항으로 후송됐다.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응급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산가족 이동구간은 물론 상봉행사가 진행되는 금강산일대에 전문의료기관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벤트성 상봉 '이제 그만' = 반세기만에 이산가족들은 그동안 살아온

인생애기를 제대로 할수 없을 정도로 2박3일 일정이 빠듯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산가족들이 2박3일 일정동안 실제로 가족들이 접촉할수 있는 시간은 겨우 11시간에 불과하다.

그나마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각종 행사들이 치러지고 취재진의 경쟁적인 취재활동으로 인해 가족끼리 '가슴 터놓고' 대화할 수 상황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향후 전망 = 북측이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납북자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해 오던 종전입장과 달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라며 6.25전쟁 행불자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남북 양측이 협의.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던 국군포로와 납북자들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에 포함시켜 상봉행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의서에 명시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개념과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6.25전쟁 중 북한군에 끌려간 납북자는 7천34명, 국군포로는 1만9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337명의 납북자, 343명의 국군포로의 생사가 확인된 상태다.

(끝) (YONHAP) 020918 1744 KST

▶ -금강산상봉- 이산가족, 또 눈물의 이별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한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98명은 18일 오전 금강산여관 작별상봉에서 기약없는 이별에 눈물을 쏟아냈다.

이산가족들은 1시간동안 진행된 작별 상봉 종료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초조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고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오다 순식간에 눈물바다를 이뤘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버스에 올라타야 했고 북측 상봉단 250여명은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손을 흔들었다. .

손진황(89)씨와 새 어머니 류복이(68)씨를 뒤로 하고 버스에 올라탄 남측의 딸손종학(70)씨는 황급히 손목시계를 풀어 류씨에게 건네며 "아버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통일될 때까지 아버지와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셔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정인찬(87)씨는 정연옥(68)씨 등 북에 남은 자식들을 일일이 끌어안으며 헤어짐을 안타까워했다. 북측의 자식들은 "아버지 건강하게 사십시요. 다시 만나면 헤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위로했다.

정씨는 버스에 오른 뒤에도 "남측의 자식들을 볼 때마다 너희 생각이 날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북쪽의 누나 송순저(74)씨와 헤어진 윤태(68)씨는 울먹이며 "52년만에 만나 고작 이틀동안 얼굴을 봤는데 또 헤어져야 하느냐"고 아쉬워했다. 누나 순저씨는 "걱정하지 마라. 통일될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북측 가족들을 남측 가족들을 실은 버스가 금강산여관을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다', '다시 만나요' 노래를 부르며 이별의 아픔을 달렸다.

남측 방문단은 관광선 설봉호를 타고 장전항을 떠나 오후 5시 30분께 속초항에 무사히 귀환했다.

(끝) (YONHAP) 020918 1736 KST

▶ <금강산상봉> 마지막 날 이모저모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치른 뒤 백용호 북측 단장은 "이번 행사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행사를 치르고 나니 남북은 언어와 핏줄, 문화가 하나임을 알았다"고 밝혔다.

백 단장은 "통일이 돼야 갈라진 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면서 "따라서 6.15 선언을 잘 이행하는 것이 더욱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백 단장은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책과 관련,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문제도 남북이 합의한 사항인 만큼 빨리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YONHAP) 020918 1701 KST

▶ "내년엔 북에 둔 가족이랑 추석을..."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내년에는 북에 두고 온 가족이랑 함께 꼭 추석을 맞이하고 싶어요"

전쟁 때문에 생이별한 지 반세기가 지난 끝에 북한에 두고 가족과 혈육의 정을 나누고 돌아온 남측 이산가족들은 전날 금강산을 떠나 헤어진 지 하루도 안된 19일 아직 상봉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듯 북의 가족들 모습이 아련히 눈앞을 가렸다.

이산가족들은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도 앞으로 언제 또 부모와 피붙이 형제자매를 만날 수 있을까 걱정하며 한숨만 내쉬면서도 하나같이 남북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추석과 설 등 즐거운 명절 때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모여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길 손꼽아 고대했다.

황해도 수안군 월레면이 고향인 김성호(82)씨는 금강산에서 제5차 북측 이산가족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 혼자 두고온 여동생(76)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옛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어 너무 어색했지만 단지 이름 하나만 가지고 여동생을 만났는 것 같고 50년 한많은 세월을 풀어내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듯 달려가 없냐고 계속 물어보던 여동생이 눈에 밝힌다"고 말끝을 흐렸다.

김씨는 "경의선,동해선도 연결한다는데 빨리 남북이 하나로 합쳐 반세기 이별의 한을 품고 있는 이산가족과 실향민 등에게 내년이라도 당장 고향에서 한번 추석 명절 지내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산가족 방문을 준비하면서 북한에 남아있던 남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됐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직접 북한에 가서 남편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방문했다는 김순덕(79.여)씨.

김씨는 "추석이나 설이나 되면 항상 제사를 지내왔었는데 결국 10년여전에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번에 금강산 가서 큰집 남매 조카 2명을 만났는데 눈물만 나더라"고 한숨만 지었다.

1.4후퇴 때 친척 장례식 때문에 혼자 남고 자신만 달랑 네살짜리 아들을 업고 피난을 나서면서 이산가족 신세가 됐다는 김씨는 "우리 형제 6남매중 남동생이 아직 북한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집안잔치가 있을 때마다 혼자 남겨둔 동생이 그리웠는데 언제 한번 같이 추석 명절을 지낼 수나 있을지 생각만 하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남궁복(70)씨도 "이번 방문으로 북에 계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돼 겨우 남동생만 만날 수 있었다"며 "금방 헤어지고는 더이상 만날 수 없게 되는 신세가 한탄스러웠다"고 전했다.

남씨는 "그동안 부모님의 생존을 몰라 제사를 지내지 못했는데 이번 추석 때부터는 내가 직접 제사를 모실 작정"이라며 "같은 민족, 부모, 형제자매가 같이 살게 될 날이 언제나 될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끝)(YONHAP) 020919 1134 KST 470

사 설 · 칼 럼

社說

이산고통, 이제 제도적 해결을

내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때보다 관심이 크다. 특히 7차 장관급회담과 남북경협추진위원회 2차회의에서 합의한 사업추진의 첫 회담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회담의 중요성을 감안, 남북적십자단체의 책임자가 수석대표로 참가할 것으로 보여 회담성파에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동안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는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제도적 장치들 조속히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과 서신왕래도 보장돼야 할 것이다. 특별한 계기마다 남북이 각 100명씩의 상봉단을 선정하여 교환하는 것보다는 면회소를 설치해 정례적인 상봉을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다. 이산가족 문제는 오늘 못하

면 내일 할 수 있고 읊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그런 한가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남북한 당국은 이같은 이산가족들의 눈물겨운 고통을 직시해서 모든 이산가족들이 생전에 그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무가 있다.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이유로 통일은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산가족상봉과 왕래는 조속히 실현돼야 마땅하다.

따라서 북한은 이산가족 해결에 배치되는 정치논리를 불식시켜야 한다. 최근 북한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 현상이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인도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한겨레

2002. 9. 7(토)

사설

이산가족 만남 정례화해야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를 비롯해 생사·주소 확인, 편지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 방안을 논의할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이 어제부터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담은 특히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이 사상 처음 대표로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성과가 기대된다. 북쪽은 지난달 열린 7차 장관급 회담 때 이례적으로 양쪽 적십자 책임자급 회담을 제의해 면회소 설치문제 등에 진전된 태도를 보일 것이라 기대감을 높였다. 남쪽이 이번에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세우고 월 2회 정도 상봉행사를 열자고 제안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이산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것은 고통으로 인해 그리운 가족·친척들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남북에서 각기 100명 규모의 상봉단이 일년에 몇차례 상대 쪽 가족 친척들

을 만난다 해도, 그 수가 제한돼 언제나 차레가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다. 장소는 북쪽 금강산이 되더라도 면회소에서 많은 가족들이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마침 지난달 남북 경추위 2차 회의에서 동해선 임시도로를 11월 말까지 완공하기로 합의해, 나이 든 이산가족들이 육로로 금강산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지금처럼 거창한 이벤트 형식이 아니라 가족끼리 조용히 그리고 조촐하게 만나게 하는 것이 서로 부담이 없을 터이다.

면회소 설치와 함께 해어진 가족들끼리 생사를 확인하고 편지를 교환하게 하는 일도 시급하다. 이런 일들은 나이 많은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해야 할 일이니만큼 시간이 별로 없다.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도적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바로 해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 안 된다.

社說

남북 면회소 설치를 기대한다

어제부터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4차 남북 적십자 회담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동안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에 그쳤던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이번 기회에 정례화 제도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는 양측 적십자단체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나선 만큼 면회소 설치 문제가 반드시 성사되기 바란다.

우리측 서영훈(徐英勳) 한적 총재는 어제 금강산으로 떠나며 “월 2회 정도 상봉행사를 재의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달 말에는 북측 조선적십자회도 “면회소 설치 등 출어진 가족 친척 문제의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방도에 합의하지는 귀하의 입장에 동감을 표시한다”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모두가 회담 결과를 낙관케 하는 좋은 조짐이다.

상설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상봉을 제도화하는 일은 남북 당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다. 특히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는 1세대 이산가족이 갈수록 늘어나

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가 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60세 이상 1세대 이산가족은 69만명에 달하지만(2000년 말 현재) 최근 2년 사이에 상봉한 이산가족은 남과 북에서 100명씩 4차례에 불과했다. 작년 10 월에는 이산가족 상봉단 추첨에서 떨어진 80대 실형민 할아버지가 낙담 끝에 임진각에서 자살한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

뒤늦게나마 이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잘못된 입장에서 바뀌어야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 사안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협육을 그리는 인간의 본능에 관련된 인도적 문제다.

북한이 최근 각종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에서 종전의 태도를 고집한다면 이 같은 북한의 진심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

중앙일보

2002. 9. 9(월)

사설

이산가족 해결 위한 큰 틀의 성과

8일 끝난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이산가족을 위한 면회소 설치, 서신교환 확대,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작업 실시 등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제도적 성과가 이룩됐다.

특히 북측 지역에 금강산 면회소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건설하고 완공 후 면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잘된 일이다. 여기에서 그동안 북한 측이 논의를 피해오던 6·25 당시의 행방불명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 해결의 길을 열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물론 이러한 합의가 현실화되려면 아직까지도 남아 할 산들이 많다. 또 남측 서부지역 면회소 설치문제는 경의선 연결 후어나 다시 협의키로 해 그 이전에는 북측 지역에서만 상봉이 이루어진다는 불개소리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면회소 설치와 서신교환 문제가 처음 제기된 1975년 10월 이후 이번 합의까지 무려 22년이 흘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탈북자가 넘쳐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육로의 단절과 체제의 차이를 이유로 지금까지 이산가족들의 한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고 그들의 만남을 일회성·이벤트성 행사화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고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화·병약화되고 있어 이산 1세대의 사망 이전에 어떻게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 양측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합의를 적극적으로 활용, 이산가족의 만남과 서신교환 등의 문제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우리가 분단체제 극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또 북한도 이번 합의가 북한체제에 대한 신뢰감 및 개방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음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상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사설

남북면회소 개설시기가 문제

이제야 남북 이산가족이 합육상봉의 한을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까. 남북이 4차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이산 1세대들의 눈물겨운 고통과 아픔을 주위에서 지켜본 많은 국민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합의가 남북교류의 한 획을 긋는 진전이라 평가한다. 그동안 남북간의 통상적인 인적·물적 교류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으면서도 이산가족 교류는 진척을 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벤트 성격의 단발적인 교류 차원을 넘지 못했던 게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 상설 면회소 설치 문제에 대한 논의도 많았지만, 설치 장소와 상봉 횟수 등에 대한 이견으로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안타까울만 더하게 했던 1회성 전시용 이산교류가 이제야 상시 상봉체제의 틀을 갖추게 됐다고 생각하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만시지탄의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면회소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2개 면회소 가운

데 금강산 면회소의 경우, 남북 모두 지체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이산가족들의 상봉 절차와 방법, 횟수 등에 대한 합의도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하지만 상설 면회소 설치 때까지만이라도 이산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우리측 제안을 북측이 거절한 것은 유감스럽다. 앞으로 북측이 좀더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길 당부한다. 이는 상설면회소 설치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6·25전쟁 당시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 확인문제 합의도 곧바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산 1세대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헤어진 합육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남북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이번 주 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단 교환행사가 있고, 곧 남북이 함께 참가하는 아시안 게임도 열리게 된다. 남북이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어 화합하고 하나되는 교류와 접촉이 더욱 다양해지길 기대한다.

사설

면회소 설치를 환영한다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남북한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마치 가을이 단비를 맞듯 듯한 느낌이다. 본단의 한을 그 누구보다 절실히 안고 있을 수백만 이산가족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물론 서로 자유롭게 오가며 만나는데 비길 수가 있으리만 이산가족 상봉이 전시성 행사에서 벗어나 제도화, 정례화할 수 있게 됐다는 데서 그 의미는 크다. 앞으로 면회소 건설과 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합육의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사실 오랜 세월 헤어져 살아온 가족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의 정을 막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인지사정(人之常情)은 그간 공고한 본단의 벽에 의해 묵살돼왔다. 특히 북한은 이제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사실상 정치적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상봉의 정례화를 거부해왔다. 그런 점에 비추어 이번 합의는 북한 의 태도 변화를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는 평가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면회소가 우선 금강산 지역에만 설치된다는 점이다. 만날 수만 있다면 장소가 어디든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왕래가 자유롭지 않은 현실에서 북

측에 면회소가 설치된다면 남측 지역에도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합의서에 따르면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뒤 추가로 '서부지역'에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 확정키로 돼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남측 지역이라는 점이 명기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일단 협의부터 한다는 것은 면회소 추가 설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음을 뜻한다. 만약이라도 그러서는 안 된다. 기왕 면회소를 설치할 바에야 양측 지역에 모두 만드는 게 남북 호혜·상생의 정신을 살리는 길이다.

아울러 합의서에 상봉을 어떻게 정례화할 것인지 큰 틀조차 담겨 있지 않은 것도 미진한 부분이다. 우리측은 당초 월 2회 정도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서에는 '금강산 면회소 완공 후 면회를 정례화한다'고만 돼 있다.

물론 이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계획돼 있다지만 그래도 횟수와 규모에 관한 대강의 윤곽은 합의서에 포함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남북간의 구체적인 합의도 너무 쉽게 깨지거나 이행되지 않는 것을 지켜본 경험에 비추어 모호한 합의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기우이겠지만 이산가족들은 찾아볼 수 없고 면회소 건설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社說

합의사항 실시시기가 문제다

어제 끝난 남북적십자사 총재회담은 비교적 알찬 결실을 거두었다. 특히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고 6·25 당시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이른바 행불자(行不者)들의 생사와 주소확인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점이 주목된다. 행불자 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라면서 북측이 먼저 제안하여 예상밖의 소득을 올렸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 6·25 당시의 행불자에는 국군포로와 의용군으로 끌려간 사람, 그리고 월북·남북자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그 수는 2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들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에만 태우던 이산가족의 한을 풀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측이 제안한 도라산면회소 설치안에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다소 유감스런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의선철도 연결

후 서부지역에도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키로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도라산면회소 설치안을 수용했다는 소식인데 두고 볼 일이다. 또 6·25 이후에 남북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이번에는 빠졌지만 인도적 견지에서 빨리 풀어야 할 사안이다.

면회소 설치와 행불자 문제 등에 관한 세부방안은 오는 10월 실무자회담에서 다시 협의키로 함으로써 현안처리의 속도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산가족들의 심정은 한시라도 빨리 북의 협육들을 보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면회소 설치나 행불자 확인절차가 언제 착수될지 구체화된 게 없다. 따라서 남북적십자사 당국은 오는 10월 실무협에서 이번 합의사항의 실시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 면회자수를 대폭 늘리는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朝鮮日報

社說

'6·25 行不者' 이제는 알 수 있을까

어제 끝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6·25전쟁 중 행방 불명된 사람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질게 드리워져 있는 전쟁의 상흔을 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북측이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얼마나 성의있는 자세로 나올지는 좀더 지켜보아야겠지만, 6·25 행방 불명자 문제가 남북회담에서 본격적인 의제로 올랐고, 양측이 그 해결노력까지 명시적으로 천명한 것 자체가 적잖은 진전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는 그동안 국군포로와 남북자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키는 우회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지만 성과가 미미했다. 이번에 북측이 먼저 '행방 불명자' 문제를 의제로 꺼낸 것은 일단 주목된다.

6·25 행방불명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귀한 국군포로와 민간 피랍자 전원이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것이다. 또 반드시 시기를 6·25전쟁 중으로 국한시킬 필요도 없

을 것이다. 전쟁 후에도 북으로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북측에서는 반공 포로로 석방된 인민군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돼 구체적인 해결과정에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남북이산가족협의회는 최근 전쟁 중 납북자 9만4700여명의 인적사항을 담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차원의 준비가 꾸준히 진행돼 온 것이다.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면 생사나 주소 확인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며, 문제는 역시 북한당국의 의지이다.

이산가족들의 생사와 주소 확인, 그리고 상봉문제는 남북관계에서 언제나 최고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갖는 사안이다. 앞으로 북측이 이 문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남북관계의 진정한 진전에 필수적이다. 이산가족들의 부풀어진 기대를 무참하게 만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사설

적십자 합의, 실천이 관건

남북한 적십자사가 8일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고 6·25전쟁당시의 행방불명자 생사(生死)를 확인해가기로 하는 등 6개월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에게는 희망을 주고 전반적인 남북관계에도 도움을 주게 됐다. 이날 금강산에서 끝난 제4차 적십자 회담에서 남북은 이외에도 서부지역의 면회소 설치 문제,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의 지속적 협의, 5차 이산가족 상봉 등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리는 우선 이산가족 만남이 제도화되고 확대되는 것을 환영한다. 그동안 이산가족 만남의 제도화는 숙원사업이었다. 현재 이산가족은 남쪽에서만 800만명에 가깝고 이중 1세대는 12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1세대중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20만명을 넘는 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산가족 만남은 더

욱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금강산 면회소 외에도 육로로 만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빨리 구체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또하나 주목되는 것은 6·25전쟁중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생사 및 주소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한 점이다. 여기에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의 생사문제까지 포함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던 북한의 입장변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 문제의 민간협의회라는 의미도 갖는다.

문제는 이같은 합의를 실천해가는 의지다. 아무리 좋은 합의를 했더라도 그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산가족의 문제는 시간을 다루는 문제다. 남북은 무엇보다 적극적 의지로 해결해가야 할 문제가 이산가족 문제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한국일보

2002. 9.10(화)

社說

行不者도 상봉길 열려야

남북 적십자회담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함께 6·25 행방불명자 생사 확인문제를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합의 한 것은 남북의 인도적 현안을 하나라도 더 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합의서는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라고 다소 애매하게 표현했으나, 북한측 의지만 있으면 남북인사 7,034명과 국군포로 19,000여명(정부와 대한적십자사 집계)의 생사확인과 납북 가족 상봉의 길이 열린다.

이들 중 남북인사 337명과 국군포로 343명의 생사는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빠른 상봉도 가능하다. 또 53명의 재현의원과 김규식 선생 등 사회지도급 인사, 춘원 이광수 선생과 위당 정인보 선생 등 수많은 남북인사들의 생사와 근황을 확인 할 수도 있게 된다. 이산가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작업은 시일이 급하다. 또 고인이 됐다 하더라도 생존자의 합동상과 묘소 등의 확인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북한측은 "의거 입북한 장병과 민간인만 있다"며 남북인사와 국군포로의 존재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2·3차 이산 방문단 교환 때 납북어부와 대한항공 여승무원 및 국군포로 출신 등을 북측 방문단에 포함시켜 실제를 사실상 인정했다. 북한측이 무슨 이유로 행방불명 문제를 먼저 꺼내 합의에 이르도록 했는지는 알 길 없으나, 관건은 다른 남북문제와 마찬가지로 북한측의 실천의지다. 북한이 동의할 경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의 범위를 꼭 6·25중으로 국한 할 필요는 없다. 6·25 후에도 여러 이유로 납북됐거나 분의 아니게 북한에 억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합의가 이뤄진 이상 빠른 실무작업을 거쳐 남북인사들과 국군포로들이 금강산 면회소와 앞으로 설치될 도리산 등 서부지역 면회소에서 납북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사설

'상봉 정례화' 빠른 실천을

남북관계에서 그동안 진전속도가 더딘 분야 가운데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문제였다. 남북은 그동안 정상회담도 갖고 장관급회담도 7차례 하면서 화해의 기초를 닦고 검열 및 교류를 확대해 왔으나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그 시간적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별로 진척되지 않았다.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처음 성사된 뒤 15년간 중단이 되었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4차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으로 4,500여명의 남한 가족이 상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산가족 정보종합센터'에 상봉신청을 낸 사람만 12만명에 이른다. 기다림의 세월 속에 지쳐 있는 것이 대다수 이산가족들의 처지다.

그제 금강산에서 남북이 제4차 직심자회담을 갖고 상봉 정례화에 합의한 것은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값진 일이다. 북측은 한국전쟁 행방불명자의 생사 및 주소 확인을 먼저 제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이산가족의 개념에 포함시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길이 일단 열어 놓았다.

이는 그동안 일회성 전시행사처럼 취급됐던 이산상봉을 좀더 근본적으로 접근한다는 데 남북한의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향으로 들어섰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상봉 정례화를 실천하는 문제에는 머뭇거리고 있다. 정례화를 위한 구체적 입장은 내년 이산가족 면회소가 다 지어지면 그때 논의하지는 것으로 미루고 있다. 면회소를 금강산 외에 경의선 연결지점에 설치하는 문제도 확답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 상봉 정례화의 개방효과, 남한 대통령선거, 대외관계 등 여러가지 고려할 만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추진하는 일련의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개선노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려면 상봉 정례화 합의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다른 요인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언제든 편리한 장소에서 만나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기 바란다.

한겨레

2002. 9.10(화)

사설

중요한 진전, 면회소 설치 합의

남북이 금강산에 면회소를 설치해 이산가족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늦기는 하나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선심스럽듯 단발적으로 이뤄지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방식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이산가족들이 정례적으로 만나도록 전체적인 틀이 바뀌는 것이다. 이산가족 만남이 이제는 제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는데 면회소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제도적 해결에 한발짝 더 가까이 간 것이다.

이산가족들의 상봉절차나 회수 등 세부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큰 원칙에 합의한 만큼 직심자 실무접촉에서 충분히 조율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능한 한 금강산 면회소 설치 공사를 서두르고 그 전이라도 만남의 기회가 자주 마련됐으면 한다. 앞으로 금강산 육로길이 연결될 예정이므로 금강산 면회소 만남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질 것이다. 나이 많은 이산가족들의 형편을 생각해 서부지역에도 경의선 남쪽에 면회소를 빨리 짓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정례화하면 지금까지 요란한 전시용 행사가 아니라 헤어진 가족들끼리 조용히 만나 회포를 푸는 실질적 행사가 될 것이므로 정치적 부담도 한결 덜어질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다른 한 축인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중요한 진전이다. 이산가족 1세대들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남북 당국이 어느 문제보다도 서둘러야 한다.

양쪽의 총재급이 처음으로 만나 무게가 더해진 이번 직심자회담에서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합의·해결하기로 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그동안 북측이 인정하기를 꺼리던 국군포로 문제나 납북어부 문제를 '포괄적 이산가족 문제'의 하나로 직심자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북측이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도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남측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해 해묵은 과제들을 푸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적십자 합의 빠른 실천이 중요

남북한 적십자사가 8일 금강산에서 제4차 적십자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상설면회소의 설치와 6·25당시 행방불명자의 생사확인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상설면회소의 설치에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함구화·제도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다. 지난 1975년부터 우리측이 요구해온 것으로 27년 만에 겨우 원칙에 합의했다. 이 조치가 실행되기까지엔 앞으로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겠지만 문서로 합의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

1,000만명으로 통칭되는 이산가족 중에 현재 상봉신청을 낸 사람은 4만8,000여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이산가족들이 이미 한을 품은 채 불귀의 객이 되었고 지금도 사라져가고 있으며 나머지는 포기한 사람들이다. 남북이 1985년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시작한 이후 이제껏 상봉의 꿈을 실현한 사람은 남북 쌍방을 포함해 기천명 수준이다. 한 정부 들어서 1회에 100명 단위로 4차례의 상봉이 이뤄졌다. 제5차 상봉은 오는 13~18일 사이에 금강산에서 두 차례 이뤄질 예정이다.

면회소 설치에 이처럼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치러진 상봉사업을 평시적 사업으로 바꾸는 것이다. 면회소 설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시간이다. 이산 가족들에게 상봉을 위해 남아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다. 면회소 설치 전에 금강산의 기존 시설

을 이용해 상봉하도록 하자는 우리의 제의를 수용할 수 없는 북측의 체제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11월 중 공사에 들어가면 내년 봄쯤엔 완공될 전망이다. 이것만이라도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동쪽의 면회소가 북측의 금강산이므로 서쪽의 면회소는 남측에 위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면회소 입지는 도라산 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업의 시행은 경의선이 연결된 뒤 시작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도 경의선 연결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겠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 중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6·25 행방불명자 생사확인에 관한 것이다. 이는 남북자와 국군포로 뿐만 아니라 6·25 이후 남북자의 생사확인도 직결돼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그 동안 의거 입학한 민간인과 장병만 있다고 주장해온 북한측이 제안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오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방북 때 일본인 남북자 문제를 논의해야 할 처지에 있는 북측으로서 남북간에 전쟁상황에서 발생한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는 더 이상 숨기거나 왜곡할 대상이 아니다. 남측도 전쟁 중 석방된 북한군 포로문제에 대해 미전향 장기수를 복송한 자 새로 의연히 임하면 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번 적십자회담의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이행이다.

시론



柳浩烈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은 면회소 설치 문제를 집중 거론하여 합의할 도출했으며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13일부터 남북 각각 100명씩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있어 진전을 이루었다.

이산가족 문제해결 돌파구

특히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국군포로 및 6.25때 남북자문체에 있어서도 북측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있어서도 북측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있어서도 북측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있어서도 북측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첫째,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것은 향후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제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사항이다. 6.15

정상회담 이후 네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지만 이벤트성 성격이 짙고 북측의 사정에 따라 불안한 진전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면회소 설치에 이러한 이산

상설면회소 서둘러야

4차 남북적십자회담을 보고

가족문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면회소가 우선 금강산에만 설치됨으로써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생각할 때 미흡하고, 면회소의 개소 시기 및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법요칙에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일말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있으나 북측이 과거와는 달리 면회소 설치와 관련한 향후 입장을 문서로 합의했다는 점은 기대해 볼 만한 진전이다. 둘째, 국군포로 및 남북자문체와

관련해서 북한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생사·주소 확인문제에 나서기로 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일각에서 국군포로와 남북자의 별도 처리 주장과 비전향장기수 및 반공포로문제 등과 관련한 북한의 노림수를 경계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북한이 수용한 것은 일단 긍정적 진변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거나 혹은 그 가족들이 북한체제의 속성상 드러내놓고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그들의 생존여부와 주소 확인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이들이 공개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국군포로 및 남북자의 송환 등 보다 정치적이고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첫 작업인 것이다. 셋째, 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문제에 있어 남과 북이 계속 추진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향후 이산가족문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규모의

확대문제에 대해 북한이 아직도 주저하고 있음은 유감이고, 향후 개최될 실무회담에서 좀더 진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일이다.

실무회담에 만전기해야

특히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수가 11만여명에 달하고 있어 남북 적십자사가 합의한 내용 그대로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도 하에서라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이산가족들의 고통 회를 감안한다면 북한이 좀더 성의를 보여야 할 대목이다.

이번 회담은 남북 적십자사 최고 당국자들이 직접 회담 대표로 참석함으로써 많은 기대를 모았던 만큼 면회소 설치라는 중요한 합의물이 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문제는 합의사항을 북측이 얼마나 성의있게 이행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이산가족문제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 등 북한측의 의지에 따라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문제 및 면회소 설치 등 중요 사항이 남한의 차기 정부와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측도 향후 실무회담에 앞서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학교수·북한학

東亞日報

시론

남성욱 고려대 교수·북한학



이번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북한이 이산가족, 국군포로 및 남북자문체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초석이었다. 남측은 지난달 경제협력추진위를 통해 남이 북에 쌀과 비료를 지원하고 경의선 을 연결하기로 합의하고 12년 만에 통일 추구대회를 개최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달 중에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고 북측이 부산이 시야감기대회에 참가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인도적 성격의 적십자회담에 거는 기대는 내심 작지 않았다.

부자-형제 만남 급격히 줄어

그러나 회담 결과는 기대와는 달리 최근의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면회소를 금강산 지역에 설치해 운영키로 합의하고 면회소 완공 뒤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기로 하였으며 경의선 완공 후 서부지역 면회소 설치할 논의키로 한 것은 성과다. 특히 남측이 그동안 논의의 이산가족문제로 제기하였던 국군포로와 남북자 가족의 상봉 문제를 북측이 회담에서 거론한 것은 그동안 국군포로와 남북자는 단 한 명도 없고 6.25전쟁 당시 의거 입북한 장병과 민간인만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매우 진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측이 이처럼 과거와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은 최근의 한반도 주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고이즈미 준이

치로 일본 총리의 방북 파제 중의 하나가 남치 일본인 문제의 해결임을 감안할 때 국군포로와 남북자 문제에 대한 남측의 요구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순이라는 생각을 북측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생존자들이 많지 않아 실제로 확인단계에 들어가더라도 북측으로서는 손해될 것이 별로 없으며,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으로서 다소 탄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국군포로 및 남북자 문제에 대한 북측의 '의외의 재의'를 제외하고는 회담 결과는 미흡하다. 남측 대표는 김 위원장의 발언까지 인용하며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였지만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너무 한기한 합의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남측의 '혹정'이라는 문구기 북측에서는 '단순협

의'로 상이하게 발표된 것은 회담장에 마주앉은 대표단의 통상이움을 지나치게 반영한다. 이번 회담에서도 면회소 설치와 정례적인 상봉과 같은 초보적인 숙원일조차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특히 북측이 새로운 면회소를 건설할 때까지 금강산 지역의 기존시설을 이용해 면회할 계속하지는 남측 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이해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 실현에 대한 북측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15 공동선언 제3항은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고령이고 매년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해결 거듭할수록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 서로의 입장 차이로 구체적인 이행일자를 명시하는 데 실패한 것은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무시한 것이다. 최근의 화해분위기를 일시적인 이벤트기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는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포로 및 남북자 문제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첫째,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포로 및 남북자 문제를 보다 철저히 경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평화정착과 통일로 가는 길은 물질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람간의 만남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제를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이 아닌 인간애에서 접근해야 한다.

상설 면회소 설치 서둘러야

둘째, 남측 양측은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및 남북자의 1세대 생존율이 급격히 하락해 부모 자식간, 형제간 상봉보다는 조카 등 친인척 차원으로 상봉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아마도 몇 년이 지나면 과거와 같은 감격적 상봉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른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미군유해 찾기 노력과 일본의 납치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 유해한 구라도 끝까지 찾아내려는 미국 정부의 끈질긴 노력과 재북 일본인 문제를 북-일회담 의제로 제기하는 고이즈미 총리의 자세는 국군포로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정부가 많은 부분을 시시하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가 시급성의 문제라면 국군포로 문제는 자국민 보호라는 정부의 기본임무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평선

6·25 행불자

〈쌍방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 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한다〉 8일 금강산에서 발표된 남북 적십자회담 합의문 6개 조항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이 문장이다. 전쟁시기 행방불명자란 우리 측으로는 국군 포로, 월북자, 또는 남북자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공화국에는 남북자나 국군 포로는 없다"던 종전 태도로 볼 때 어안이 병병할 정도의 변화라 하겠다.

■ 2000년 12월 서울의 제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국군포로 출신과 남북어부 출신 북한 주민이 각각 동생과 아들을 만났다. 이산 동기를 따지지 말자는 우리 측 주장을 북한이 받아들인 형식이었는데, 조건은 신원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3차 행사 때도 북측은 포로출신 2명과 피랍 KAL기 스튜어디스 출신의 가족상봉을 허용했다. 그러면서도 북측은 이들을 의거 입북자들이라고 주장했다. 1차 적십자 회담 때 이 문제가 제기되자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전례도 있다.

■ 국군포로 조창호 소위가 70객이 되어 돌아온 사건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포로와 남북자 가족들이 실종사실 확인을 요청해도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탈북자 대열에 포로출신이 끼어들어 일부 포로들의 안부가 확인된 뒤에야 비로소 관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 사이 민간에서는 1956년 적십자사가 실종자 가족들의 신고를 근거로 실향사민(失鄉私民) 등록자 7,034명의 명단과, 1953년

공보처가 작성한 남북자 8만2,959명 명단이 공개되었다.

■ 이 속에는 정인보(학자) 이광수(작가) 현상윤(교육자) 안재홍(정치인) 백관수(정치인) 조소양(정치인) 손진태

(학자) 김기림(작가) 등 유명인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앞의 다섯 사람은 평양 근교에 있는 특설묘지에 묻혀있다는 소식이 최근 평양방송 보도로 전해졌을 뿐, 대다수 남북자와 포로의 안부는 감감하다. 정부는 아직 남북자와 포로 문제에 관해 제도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안부 확인을 교환하지는 북한의 '선물'을 받아 들고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

/문창재 논설위원실장

cjmoon@hk.co.kr



기고

行不 확인 시간이 없다

남북적십자회담에서 6·25 때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생사확인을 하자고 북한이 먼저 제의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올해 팔순을 맞은 어머니는 만세를 부르셨다. 북한 정치부 요원이라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납치돼 간 후 50년을 한결같이 기다리며 집을 팔지 않고 지켜오신 어머니다. 전쟁 때 납치된 아들을 기다리는 88세 가족회원 할머니는 편찮아서 그동안 식사컵 뭉 못하시다가 이 소식을 듣고 힘을 내야겠다며 식사를 하셨다고 한다.

자식된 사람으로서는 아버지의 생사라도 알고 유해라도 송환해 오고 싶은 마음이지만, 남편을 기다리고 자식을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소망인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작년 가족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 때 지방에서 먼 길을 마다않고 서울까지 올라오곤 했던 회원 중에는 그 사이 건강이 나빠져 바깥나들이가 불가능해진 분도 있고, 치매 증세를 보이는 분도 있다.

50년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새삼 실감하지만 모처럼 남북적십자사가 의기투합해 행방불명자 생사확인에 나서겠다니 이제라도 시간 낭비를 줄여주기 바라는 마음뿐이다.

6·25직후부터 명단찾기 노력

우리 단체는 그동안 북한으로 납치돼간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서집이나 도서관을 찾아 헤매거나 국내외 전문가들을 수소문하고 다니기도 했다. 그러다가 1950년 12월 1일자로 대한민국 공보처 통계국에서 최초로 조사한 6·25사변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들 고서적상에서 사들일 수 있었다. 납치자 2438명, 행방불명자·피살자 총 4616명의 명단이 꼼꼼한 필사본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때부터 우리의 노력에는 가족이 붙어 1952년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한 8만2959명의 명단도

찾아냈고, 1954년 내무부 치안국에서 작성한 1만7940명의 명단, 1956년 대한적십자사에 신고된 7034명의 명단, 그리고 6·25 직후 결성된 6·25사변납치인사가족회에서 작성하여 당시 국회의장 신익희씨에게 보낸 2316명의 명단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서둘러 주는게 人道주의

이 명단들은 오랜 세월 방치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통계청 자료실에서는 부주의로 '납치(拉致)'를 '입치(立致)'라고 적어놓은 바람에 컴퓨터 검색이 되지 않아 귀중한 명부의 존재를 모르고 넘어갈 뻔하기도 했다.

우리 가족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에 납치된 가족의 생사확인을 요구하는 한편, 납치행위 자체를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 북한은 광복 후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여(46년 7월 31일, 김일성전집 4권)" 등의 문건에서도 확인되듯 국가건설을 위해 남한의 고급 인력이 필요했고, 전쟁기간에는

요인 납치작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로 인해 납치 피해자들과 우리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세월을 보내야 했다.

우리는 북한이 '납치' 사실에 대해 일절 부인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북한당국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남한 체제에 위해를 가한 '비전향 장기수'들을 우리가 조건 없이 송환한 것처럼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고려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최고의 인도주의는 남북한 당국자들이 시간이 많지 않음을 인식하고 서둘러 주는 것이다. 정말 시간이 없다.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李美一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신문기사집

인 쇄 2002년 10월 8일

발 행 2002년 10월 8일

발행처 통일부 인도지원국
(☎ 732-7950)

인쇄처 웃 고 문 화 사
(☎ 2267-3956)

